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연구보고 21-R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1-80-01

김기현 · 배정희 · 김창환 · 성재민

---

협동연구총서 21-80-01

연구보고 21-R19

---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저 자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연 구 진 연구책임자\_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배정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_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 선임연구위원)  
\_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배정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 선임연구위원	-
협력 연구 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연구위원	-



## 보고서를 펴내며

청년에게 있어서 사회 첫 출발은 어떤 의미일까? 사회 첫 출발 중에서도 첫 일자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해 청년의 사회 첫 출발 실태와 정책 진단을 토대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 3년에 걸쳐 추진되는데 첫 번째 과제는 3년간 분석할 사회 첫 출발의 영역을 정하는 것이었다. 사회 첫 출발에 대해서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일자리, 자립, 시민권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정하였다.

올해 초점을 맞춘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분석은 2,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24명의 청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그리고 교육통계연보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한 2차 분석과 함께 청년-일자리 이행을 지원하는 법률, 정책에 대한 진단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 상당수가 사회 첫 출발을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독립이나 성인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교육통계연보에서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이르는 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순탄치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진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고 취업 준비가 조기에 이루어질 때 학교-일자리 이행이 좀 더 원활해 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교 단계에서의 지원과 괜찮은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청년들이 원활하게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연구요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청년들은 학교 졸업 후 취업, 자립 등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학교 졸업예정자들은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신규채용 감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이 불안정해지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기의 실태를 분석하고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돕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사회 첫 출발 영역 중 일자리를 주제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 이 연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올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다루었으며,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진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협동연구로 진행되었음.
- 문헌연구로는 청년들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대한 개념, 이론적 배경 및 실태를 다룬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하였음. 또한,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된 청년 정책 및 사업 동향을 분석하였음.
- 양적연구로는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7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제402004호)의 부가조사 형태로 이루어졌음. 전국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 2,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며,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을 통해 조사가 수행되었음.

- 2차 자료 분석은 교육통계연보를 이용한 추이 분석, 패널자료를 활용한 학교-일자리 이행분석을 진행하였음. 전자는 협동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졸업 후 일자리 실태에 대한 장기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패널자료분석은 협동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대한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음.
- 심층면접은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실태 및 이행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청년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심층면접 대상은 학력, 성별, 학교-일자리 이행 상태별 차이를 고려하여 6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이행 전(학생), 이행 중(미취업자, 실업자)으로 구분하고 고교(직업계고, 일반계고) 재학 및 졸업자, 대학(2년제와 4년제) 재학 및 졸업자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 정책방안 도출과 관련하여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4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청년정책포럼은 2021년 5월에 개최되었음.

### 3. 연구내용

#### 1) 사회 첫 출발 및 학교-일자리 이행 선행 연구와 정책 고찰

- 첫째, 이 연구에서는 사회 첫 출발과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분석하였음. 사회 첫 출발과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국내·외 정책에 대해서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에 대한 문서들을 수집해 분석하였음.

## 2)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실태 및 특성 분석

-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실태를 본원에서 통계청 승인 통계로 조사를 수행해 온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 문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음. 이 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전국의 청년을 모집단으로 엄격한 표집방법과 개별 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짐. 양적인 실태분석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3) 학교-일자리 이행의 동태적 특성과 취업 이후의 이행경로 분석

- 셋째, 이 연구에서는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에 대해서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졸업 후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음. 학교 졸업은 고등학교와 대학교(2년제, 4년제), 대학원 석사 과정을 구분해 분석하였음. 동시에 이 연구는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4)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도출

- 넷째, 이 연구에서는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 진단 및 적절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등을 토대로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4. 분석 결과

### 1) 사회 첫 출발 및 학교-일자리 이행 선행 연구와 정책 고찰

-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국제노동기구(ILO)는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국가별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학교-일자리 이행 개념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일자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학력, 일자리로 진입하기 전 교육 기간, NEET 기간, 고등학교 유형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단계와 이행 단계, 일자리 단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학교 단계의 대표사업은 현장실습제로 독일이나 스위스의 이원화 제도와 유사하게 이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실무를 기업에서 익히는 방식으로 가장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학교-일자리 연계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이행 단계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과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음. 일자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미래저축계좌 등이 있음.
-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제연합과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양질의 고용 혹은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동안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추었고 고용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양적 고용지표를 개선하는데 집중하였음.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와 청년보장제는 개별 사업을 통합해 수요자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임.

## 2)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실태 및 특성 분석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분석 결과, 청년들은 첫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성인으로서의 사회 첫 출발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결혼이나 출산, 주거 독립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첫 일자리란 일반적으로 '학교 졸업 후, 최소 6개월 이상,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처음으로 일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첫 일자리 개념 정의에서 졸업 여부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청년도 43.4%로 높게 나타났음.
- 청년들의 약 94.9%는 첫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67.3%가 정규직, 32.7%가 비정규직이었음. 약 60%의 청년들이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첫 일자리를 가졌으며, 1-4인의 소규모 직장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한 경우는 23.3%였음. 83%의 청년들이 민간기업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기관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하는 비율은 6.4%였음. 첫 일자리의 주당 근로시간은 41.3시간이었으며, 월 소득은 평균 214만원으로 나타났음. 첫 일자리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 학력,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났음.
- 청년들의 현재 일자리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청년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주된 특성은 88%가 임금근로, 12%가 비임금근로로 나타남. 고용형태는 72.9%가 정규직, 27.1%가 비정규직이었음. 비임금근로자의 57.8%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음. 81%의 청년들이 민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7.3%의 청년들이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음. 약 64%의 청년들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었으며, 1-4인 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31%였음. 현재 일자리의 월 평균 소득은 235만 8천원, 주당 노동 시간은 41.3시간으로 나타났음.
- 24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심층면접조

사 결과, 청년들은 취업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사회 첫 출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첫 일자리의 의미와 직업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최소 12개월 이상"을 일하고 "주당 35시간"을 처음으로 일한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나 취업상담을 대부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최근 여수에서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로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코로나 19로 인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졸업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아르바이트 등 일을 경험했고 졸업 후에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했으며 아직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최소 기준의 첫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였음.

### 3) 학교-일자리 이행의 동태적 특성과 취업 이후의 이행경로 분석

-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학교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2020년 들어 일반고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진학률이 증가하였음. 일반고는 2019년 77.0%에서 2020년 79.4%에 높아졌고 특성화고 역시 같은 기간 42.5%에서 44.8%로 높아졌음. 특수목적고의 진학률도 57.5%에서 58.1%로, 자율고도 71.7%에서 74.3%로 높아졌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은 77%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왔음. 같은 기간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은 2013년 41.7%에서 2017년 32.8%까지 낮아졌으나 다시 상승해 2018년 42.5%로 높아졌음.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특성화고는 2013년 70.1%에서 2019년 54.6%까지 떨어졌으며 공공DB를 연계해 측정한 2020년에 49.2%까지 낮아졌다. 일반고는 2013년 8.1%에서 2016년 10.1%까지 증가한 후 2019년 8.9%까지 낮아졌다. 일반고 직업반과 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 2020

년 일반고의 취업률은 7.5%를 보여줌.

- 고등교육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자는 2013년부터 2020년 까지 62% 내외의 취업자 비율을 꾸준히 보여주었으며 2020년 들어 취업자 비율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0.8%p 감소하였음. 청년 니트(NEET) 비율과 유사한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29.4%에서 2020년 25.7%로 감소함. 4년제 대학 졸업자는 56% 내외의 취업자 비율로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6%p 내외로 낮은 비율을 보임. 2020년 들어 취업자 비율은 1.1%p 낮아짐. 반면 미상 및 기타 비율은 31.8%에서 32.5%로 높아져 전문대 결과와 차이를 보임. 대학원을 비롯한 학교 진학률은 2013년 8.4%에서 2019년 6.7%까지 낮아졌으며 2020년 들어 6.8%로 0.1%p 증가하였음.
- 마지막으로 동태적 분석 결과를 보면,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원하는 일자리로의 매칭 또는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요인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여성이 짧고, 전문대졸이 짧고, 해외 어학연수자가 짧으나, 엄격한 이행 가능성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고,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 준비자에게서 높고,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여성은 교육 및 전공 적합도는 일치할수록 엄격한 이행 가능성이 높으나 평균 임금 기준으로는 엄격한 이행 가능성이 낮았음. 임금 기준으로는 엄격한 이행은 평균 이상의 월평균 급여를 받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또는 평균 이상의 월평균 급여를 받는 비임금근로자를 의미함. 지역은 비수도권·비광역시일수록 평균 임금 기준 불안정 이행 가능성이 높고, 교육 및 전공일치도도 낮을 가능성이 높았음. 외국어 능력 취업 준비는 평균 임금 기준, 교육 및 전공일치도 기준 불안정 일자리를 갖기보다는 아예 미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5.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안)

- 정책방향으로는, 먼저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 학교를 졸업한 후에 평균 11개월이 소요된 후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시기이자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결정되는 예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청년정책은 대상정책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고려하여 대상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청년 내부의 이질성이 크고 연령별, 상태별로 다르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정책과제를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제시하였음. 정책과제는 학교 단계, 이행 단계, 일자리 단계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었음. 학교 단계의 정책과제(안)는 진로교육 활성화 및 대상 확대, 고교 및 대학 현장실습 개편, 학교-일자리 연계 체계 강화 등 세 가지임. 이행 단계의 정책과제(안)는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자기주도적 삶 모색 기회 제공 등 세 가지임. 일자리 단계의 정책과제(안)는 청년친화적 일자리 환경 조성, 재직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강화 등 두 가지임. 이 연구에서는 총 8가지의 정책과제(안)와 18가지의 세부과제(안)를 제시하였음.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협동연구총서 21-80-01  
연구보고 21-R1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연구추진체계 ..... 4
- 3. 연구내용 ..... 6
- 4. 연구방법 ..... 8

## II. 연구배경

- 1. 청년 사회 첫 출발과정에 대한 논의 ..... 17
- 2.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관한 논의 ..... 23

## III. 우리나라 학교-일자리 이행 실태 및 특징

- 1.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의 실태 ..... 31
- 2. 청년 학교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시계열 분석 ..... 103
- 3.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 동태분석 ..... 148
- 4. 요약 및 시사점 ..... 161

#### IV. 사회 첫 일자리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

1. 학교-일자리 이행기에 있는 청년 면접조사 개요 ..... 169
2. 심층면접 결과 ..... 174
3. 요약 및 시사점 ..... 197

#### V. 우리나라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정책 실태 및 문제점

1.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 203
2. 중앙정부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 211
3. 지자체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 231
4. 해외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 ..... 240
5. 요약 및 시사점 ..... 254

#### VI. 결론

1. 연구 결과 이론적 시사점 ..... 261
2. 연구 결과 정책적 시사점 ..... 263
3. 청년 학교-일자리이행 정책 방향과 과제(안) ..... 270

참고문헌 ..... 301

부 록 ..... 311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313

표 목차

표 I-1. 설문조사 주요 내용 .....	9
표 I-2. 전문가 자문회의 .....	10
표 I-3. 심층면접 주요 내용 .....	11
표 I-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요 계획 .....	12
표 I-5.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연구논문 발표세미나 개최현황 .....	13
표 II-1. 학교-일자리 이행 단계별 청년 유형 .....	25
표 III-1.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실태 관련 문항 .....	36
표 III-2. 첫 출발 개념 정의 관련문항 .....	37
표 III-3. 첫 일자리 정의 .....	38
표 III-4. 첫 일자리개념 정의 관련 문항 .....	39
표 III-5. 졸업 후 첫 일자리 관련 문항 .....	40
표 III-6. 일자리 수 관련 문항 .....	42
표 III-7. 현재 일자리 관련 문항 .....	43
표 III-8. 현재 일자리 구직활동 관련 문항 .....	45
표 III-9.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 상징 .....	47
표 III-10. 첫 일자리 인식 .....	49
표 III-11.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 .....	51
표 III-12.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근속연수 .....	53
표 III-13.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서의 지위 .....	55
표 III-14.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임금근로자) .....	57
표 III-15.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 .....	59
표 III-16.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업 분류 .....	61
표 III-17.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장 유형 .....	63
표 III-18.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 65	
표 III-19.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및 월 소득 .....	67

표 III-20. 졸업 후 첫 일자리 만족도 .....	69
표 III-21. 지난 주 일자리 개수 .....	71
표 III-22.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시작한 시기 .....	73
표 III-23.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근속연수 .....	75
표 III-2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	77
표 III-25. 근로형태(임금근로자) .....	79
표 III-26.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 .....	81
표 III-2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83
표 III-2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장 유형 .....	85
표 III-29.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	87
표 III-30. 교육 수준 대비 현재 일자리 직무 수준 .....	89
표 III-31. 현재 일자리의 전공 일치 여부 .....	91
표 III-32. 현재 일자리 만족도 .....	93
표 III-33.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및 희망 월평균 소득 .....	95
표 III-34.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	97
표 III-35. 현재 일자리를 위한 구직 활동 .....	99
표 III-36. 학교-일자리 이행 여부 .....	102
표 III-37.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2013-2020) .....	105
표 III-38.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2013-2020) .....	106
표 III-39.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 및 취업률(2020) .....	107
표 III-40.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2013-2020) .....	108
표 III-41. 4년제 대학 졸업 후 상황(2013-2020) .....	111
표 III-42. 전문대학 수도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	113
표 III-43. 전문대학 충청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	114
표 III-44. 전문대학 강원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	115
표 III-45. 전문대학 전라제주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	117
표 III-46. 전문대학 경상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	118
표 III-47. 2020년 전문대학 지역별 비교 .....	119
표 III-48. 4년제 대학 수도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	120
표 III-49. 4년제 대학 충청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	121
표 III-50. 4년제 대학 강원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	123
표 III-51. 4년제 대학 전라제주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	124
표 III-52. 4년제 대학 경상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	125
표 III-53. 2020년 4년제 대학 지역별 비교 .....	126

표 III-54. 전문대학 인문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28
표 III-55. 전문대학 사회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29
표 III-56. 전문대학 교육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30
표 III-57. 전문대학 공학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31
표 III-58. 전문대학 자연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33
표 III-59. 전문대학 의약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34
표 III-60. 전문대학 예체능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35
표 III-61. 2020년 전문대학 계열별 비교 .....	136
표 III-62. 4년제 대학 인문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38
표 III-63. 4년제 대학 사회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39
표 III-64. 4년제 대학 교육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40
표 III-65. 4년제 대학 공학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41
표 III-66. 4년제 대학 자연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43
표 III-67. 4년제 대학 의약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44
표 III-68. 4년제 대학 예체능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	145
표 III-69. 2020년 4년제 대학 계열별 비교 .....	146
표 III-70. 생존분석 결과 .....	152
표 III-71. 취업 준비를 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항로지트 분석 결과 .....	155
표 III-72. 이후 임금에 대한 영향 .....	159
표 IV-1. 학교-일자리 이행에 직면한 청년 심층면접 질문 .....	172
표 IV-2. 학교-일자리 이행에 직면한 청년 심층면접 개요 .....	174
표 IV-3. 학교-일자리 이행에 직면한 청년 심층면접조사(IDI) 참여자(24명) .....	175
표 V-1.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법률 현황1 청년기본법 .....	204
표 V-2.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법률 현황2 일자리 지원 일반법 .....	206
표 V-3.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법률 현황3 일자리 지원 특별법 .....	207
표 V-4.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법률 현황4 교육·훈련 지원 법률 .....	209
표 V-5.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1 .....	212
표 V-6.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2 .....	213

표 V-7. 청년일자리대책(3.15대책)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과제	· 214
표 V-8. 청년일자리대책(3.15대책) 청년 교육훈련 지원 관련 과제	· 215
표 V-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1	..... 217
표 V-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2	..... 218
표 V-11. 2021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시행계획 청년과제 및 예산 현황	..... 219
표 V-12. 청년고용 활성화대책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	221
표 V-13.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안)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	..... 221
표 V-14. 청년특별대책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	..... 222
표 V-15. 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현황	..... 225
표 V-16. 지자체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조례 현황	..... 231
표 V-17. 2021년 지자체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현황 .....	233
표 V-18. 지자체 청년 수당 지원사업 현황	..... 237
표 V-19. 지자체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현황	..... 238
표 V-20. 국제연합과 유럽연합의 청년전략에서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정책 방향	..... 241
표 V-21. 유럽연합의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현황	..... 243
표 V-22. 주요국의 청년(15-24세)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지표 현황 .....	246
표 V-23. 주요국의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관련 법률 현황	..... 247
표 V-24. 미국의 학교-일자리 이행 사업 현황	..... 249
표 V-25. 일본의 학교-일자리 이행 사업 현황	..... 250
표 V-26. 독일과 핀란드의 학교-일자리 이행 사업 현황	..... 252
표 VI-1.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방향에 따른 정책과제(안)	..... 272
표 VI-2. 진로교육법 개정(안) -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275
표 VI-3. 교육부 진로교육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 276
표 VI-4. 교육부 현장실습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 279
표 VI-5. 고용노동부 일반고 직업반 및 일·학습병행제 관련 예산 현황 (2020-2021년)	..... 280
표 VI-6. 교육부 학교-일자리 연계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 282
표 VI-7. 고용노동부 학교-일자리 연계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 283

표 VI-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 청년 고용의무제 연장	286
표 VI-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제공 관련	288
표 VI-10.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관련 예산 현황 (2020-2021년)	289
표 VI-11.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 현황 (2020-2021년)	289
표 VI-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 청년 친화강소기업 인증	293
표 VI-13. 고용노동부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환경 관련 예산 현황 (2020-2021년)	294
표 VI-14. 여성가족부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환경 관련 예산 현황 (2020-2021년)	294
표 VI-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자산형성지원의 범위 확대	297
표 VI-16. 각 부처별 자산형성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298
표 V-17.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과제(안) 로드맵	299

##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	5
그림 Ⅰ-2. 연구추진체계 .....	6
그림 Ⅱ-1. 성인 이행기(취업, 결혼, 출산, 분가)의 시대별 변화 추이 ..	19
그림 Ⅱ-2. 청년 사회 첫 출발 연도별 분석 대상(안) .....	22
그림 Ⅱ-3. 교육 및 고용에 대한 생애주기 분석틀 .....	24
그림 Ⅲ-1.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 의미 .....	46
그림 Ⅲ-2. 첫 일자리 개념 인식 .....	48
그림 Ⅲ-3.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 .....	50
그림 Ⅲ-4.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근속기간 .....	52
그림 Ⅲ-5.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서의 지위 .....	54
그림 Ⅲ-6.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임금근로자) .....	56
그림 Ⅲ-7.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 .....	58
그림 Ⅲ-8.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업 분류 .....	60
그림 Ⅲ-9.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장 유형 .....	62
그림 Ⅲ-10.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	64
그림 Ⅲ-11.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및 월 소득 .....	66
그림 Ⅲ-12. 졸업 후 첫 일자리 만족도 .....	68
그림 Ⅲ-13. 지난 주 일자리 개수 .....	70
그림 Ⅲ-1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시작한 시기 .....	72
그림 Ⅲ-1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근속기간 .....	74
그림 Ⅲ-16.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	76
그림 Ⅲ-17. 근로형태(임금근로자) .....	78
그림 Ⅲ-18.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 .....	80
그림 Ⅲ-19.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82
그림 Ⅲ-20.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장 유형 .....	84

그림 Ⅲ-2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	86
그림 Ⅲ-22. 교육 수준 대비 현재 일자리 직무 수준 .....	88
그림 Ⅲ-23. 현재 일자리의 전공 일치 여부 .....	90
그림 Ⅲ-24. 현재 일자리 만족도 .....	92
그림 Ⅲ-25.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평균 소득 및 희망 월평균 소득 .....	94
그림 Ⅲ-26.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	96
그림 Ⅲ-27. 현재 일자리를 위한 구직 활동 .....	98
그림 Ⅲ-28. 학교-일자리 이행 현황 .....	101
그림 Ⅳ-1. 청년 면접자의 주요 단어 빈도분석(word cloud) .....	176
그림 Ⅳ-2. 청년 면접자의 '사회 첫 출발' 질문 주요 단어 빈도분석 (word cloud) .....	177
그림 Ⅳ-3. 청년 면접자의 '사회 첫 출발' 질문 주요 단어 맥락분석 (word tree) .....	178
그림 Ⅳ-4. 청년 면접자의 '첫 일자리' 질문 주요 단어 빈도분석 (word cloud) .....	181
그림 Ⅳ-5. 청년 면접자의 가장 중요한, 포기할 직업기준 응답분포(%) .....	184
그림 Ⅴ-1. 중앙부처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단계별 관련 핵심 사업 · 223	
그림 Ⅴ-2.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체계 .....	227
그림 Ⅴ-3.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	229
그림 Ⅴ-4. 지자체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단계별 관련 핵심 사업 · 234	
그림 Ⅴ-5. 지자체 청년 센터 수 및 시군구 대비 비율(2021년) .....	239
그림 Ⅴ-6. 일본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2021년) .....	251
그림 Ⅵ-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정책적 시사점 .....	264
그림 Ⅵ-2. 학교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정책적 시사점 .....	265
그림 Ⅵ-3. 학교 졸업 후 상황에 대한 동태적 분석 결과 정책적 시사점 .....	266
그림 Ⅵ-4. 청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정책적 시사점 .....	267
그림 Ⅵ-5.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분석 결과 개선방안 .....	268
그림 Ⅵ-6. 학교-일자리 해외사례 분석 결과 개선방안 .....	269
그림 Ⅵ-7.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방향(안) .....	270
그림 Ⅵ-8. 생애 첫 출발계좌 개선방안(안) .....	296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년들은 학교 졸업 후 취업, 자립 등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청년 고용 문제에 뚜렷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0년 3월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2만 9천 명이 감소하였다. 3월 이후 청년 일자리 감소 경향은 해를 넘겼고 2021년 1월 청년 취업자 수는 가장 큰 폭(31만 1천 명)으로 줄어들었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 2. 10.).

청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은 학교 졸업예정자였다. 이는 경기 악화에 따라 기업이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였다. 특성학교 졸업자 취업률은 2019년 54.6%에서 2020년 49.2%로 낮아졌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11. 27.).

교육통계연보 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15-29세 청년 중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에 취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미취업자 비율은 15.0%로 71만 7천 명에 이르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a). 이것은 부가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2004년(8.1%)과 비교해 보면, 6.9%p나 증가한 결과였다.

1)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취업에 대한 어려움은 청년 중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는 주거, 부채, 생활안정 등 삶 전반의 문제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통계청 보도자료, 2020. 12. 17.),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가구당 부채보유액은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8.8% 증가하였다. 30대도 13.1% 증가해 다른 연령보다 증가폭이 컸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역시 39세 이하가 2020년 28.6%로 다른 연령(40대 23.3%, 50대 19.5%, 60세 이상 12.4%)보다 높았다.

이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이 불안정해지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기의 실태를 분석하고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돕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데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회 첫 출발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이어서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 실태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고 3년에 걸쳐 실태를 진단하여 정책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다룬 사회 첫 출발 영역은 일자리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 중에서 먼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다루었다.

1차 연도 (2021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을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청년 사회 첫 출발 개념 정의 및 정책대상 선정</li> <li>·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실시 및 분석 (통계청 승인통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부가조사로 진행)</li> <l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li> </ul>
2차 연도 (2022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사회 첫 출발을 자립(주거 및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자립(주거 및 자산형성) 실태조사, 심층면접 실시 및 분석</li> <l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li> </ul>
3차 연도 (2023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사회 첫 출발을 시민권(참여와 권한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참여와 권한강화 실태조사, 심층면접 실시 및 분석</li> <l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li> </ul>

\* 출처: 자체작성

### 그림 1-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2차 연도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주거를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 3차 연도에는 사회 첫 출발 중 사회 참여와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을 통해 시민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진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협동연구로 진행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담당하였다. 이는 이행과정에 대한 개인적 시간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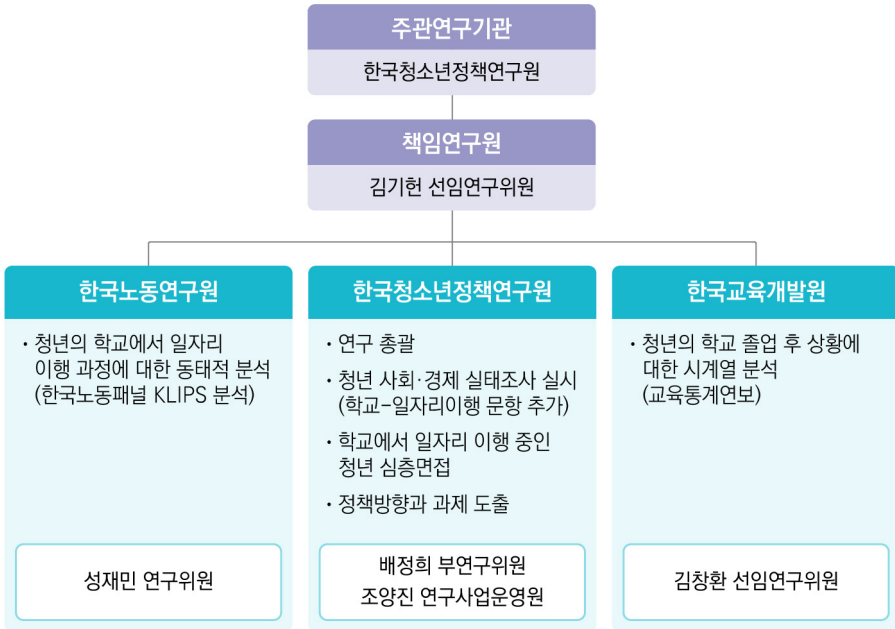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교육통계연보 원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 상황에 관한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하였다. 이는 이행 과정에서 역사적 시간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연구내용

#### 1) 사회 첫 출발 및 학교-일자리 이행 선행 연구와 정책 고찰

이 연구에서는 사회 첫 출발과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회 첫 출발과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국내·외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에 대한 문서들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단계형 학제를 갖고 있으며 노동시장 구조 역시 유사하다는 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의 경우 복선형 학제로 중등교육 초기부터 직업교육을 통해 졸업 전에 취업으로 연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일본과 더불어 청년고용지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경우 복지국가모델로 유럽연합에서 실시한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먼저 시도한 국가라는 점에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 2)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실태 및 특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실태를 본원에서 통계청 승인통계로 조사를 수행해 온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문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전국의 청년을 모집단으로 엄격한 표집방법과 개별 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양적인 실태분석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3) 학교-일자리 이행의 동태적 특성과 취업 이후의 이행경로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에 대해서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졸업 후 상황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학교 졸업은 고등학교와 대학교(2년제, 4년제), 대학원 석사 과정을 구분해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 연구는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교 졸업 이후 취업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도출

이 연구에서는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 진단 및 적절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등을 토대로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4.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이 연구는 청년들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대한 개념, 이론적 배경 및 실태를 다룬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된 청년 정책 및 사업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 2) 양적 연구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NYPI에서 2017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제402004호)의 부가조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실사 진행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수도권 실사가 중단이 되었고 4단계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목표로 했던 8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2021년 10월 29일에 조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고 최종표 본수는 2,041명이었다.

표 1-1 설문조사 주요 내용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전국 18세-34세 이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	-
표집틀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
표본수	2,000명 내외	최종 표본수는 2,041명
표집방법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	-
조사시기	7월 19일-10월 29일(기준일은 6월 1일)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보다 늦게 시작, 늦게 종료

이 조사는 최종적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 2,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며,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을 통해 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는 해당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본조사 실시에 앞서서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5월 10일에서 22일까지 2주간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할당표집으로 성별 1:1, 연령별로 20대 이하와 30대 1:1, 취업자와 미취업자 1:1, 기혼과 미혼 1:1 등으로 50명을 모집하였다. 최종적으로 52명을 조사하였고 기혼자가 27명, 미혼자가 25명으로 달랐고 나머지 기준은 26명씩 5대 5로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종이설문을 활용한 가구방문 대면면접조사로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 결과는 실태조사를 다른 장에서 자세히 제시하였다.

### 3) 2차 자료 분석

2차 자료 분석은 교육통계연보를 이용한 추이 분석, 패널자료를 활용한 학교-일자리 이행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이 분석은 협동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졸업 후 일자리 실태에 대한 장기 시계열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패널자료분석은 협동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노동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대한 동태적 변화분석으로 이루어졌다.

#### 4) 전문가 자문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성공적 이행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1차 자문회의는 이 연구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1차 연도 일자리에 이어 2차와 3차 연도의 연구 대상에 대한 서면자문으로 이루어졌다.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역시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서면자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학교-일자리 이행 조사 문항을 중심으로 자문의견을 받았다.

표 1-2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내용	자문진(가나다 순)	일정
사업계획서 검토 및 2-3차 연구 대상에 대한 서면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연구위원(한국○○○○원)</li> <li>• ○○○ 연구위원(한국○○연구원)</li> <li>• ○○○ 선임연구위원(한국○○○○연구원)</li> <li>• ○○○ 교수(○○○○기술원)</li> <li>• ○○○ 교수(한국○○○○대학교)</li> <li>• ○○○ 부연구위원(한국○○연구원)</li> </ul>	1.25-1.29
학교-일자리 이행 조사문항에 대한 서면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정책위원장(전국○○○○○○○○)</li> <li>• ○○○ 교수(○○대학교)</li> <li>• ○○○ 센터장(광주○○센터)</li> <li>• ○○○ 선임연구위원(한국○○○○연구원)</li> <li>• ○○○ 부연구위원(한국○○○○연구원)</li> </ul>	3.29-4.05

#### 5) 심층면접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실태 및 이행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1-3 심층면접 주요 내용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면담참여자 수	24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 전 단계(학생)이거나 이행 중(미취업자)인 청년	
면담방식	반구조화된 면접방식 / 개별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1인당 1시간씩 1회 면담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면담자	연구진	

심층면접 대상은 학력, 성별, 학교-일자리 이행 상태별 차이를 고려하여 6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행 전(학생), 이행 중(미취업자, 실업자)으로 구분하고 고교(직업계고, 일반계고) 재학 및 졸업자, 대학(2년제와 4년제) 재학 및 졸업자로 나누어 총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6) 기타 연구방법

### (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1차 정책연구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로 2월 4일에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표 1-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요 계획

차수	주요 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차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논의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고용정책관 등	2월 4일
2차	사회 첫 출발 과제(한국형 깎이어 도입) 추진방향 및 과제 논의	여성가족부 차관, 청소년정책과장 등	5월 18일
3차	청년정책 전달체계 추진방향 및 사회 첫 출발 정책 과제 논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9월 23일
4차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정책 논의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 워크숍 참석	고용노동부 청년정책기획과	9월 29일

2차 정책연구협의회는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로 5월 18일에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 첫 출발과제 중에서 영국이나 서울시, 제주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깎이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과와 사회 첫 출발 과제를 협의하였고 특히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4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정책과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청년정책기획과와 이루어졌으며 청년 사회 첫 출발과 관련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청년센터 워크숍에도 참석하였다.

## (2) 청년정책포럼 개최

이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경남연구원 청년정책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연구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1차 포럼은 ‘중앙-지자체 청년정책 잇기’라는 주제로 청년정책방향과 지역의 청년정책 의제라는 내용으로 2021년 5월 11일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만 참석하고 온라인 행사로

열렸다. 이 포럼에서 연구책임자인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지방정부 기본계획과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 변금선 부연구위원과 경남연구원 김유현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사회자는 서울연구원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청년정책연구센터장과 중앙대학교 이승윤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강보배 사무국장이 참여하였다.

표 1-5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연구논문 발표세미나 개최현황

차수	주요 내용	참석자 범위	시기	비 고
1회	청년정책네트워크 1차포럼 청년정책 방향과 지역의 청년정책 의제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 총 20명	5월	온라인

### (3) IRB 승인

이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모두 본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쳤다. IRB 심의는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심의 결과 승인이 이루어졌다(202104-HR-고유-003).



## ○ ————— 제2장 연구배경

- 1. 청년 사회 첫 출발과정에  
대한 논의
- 2.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관한 논의



## 1. 청년 사회 첫 출발과정에 대한 논의<sup>2)</sup>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과정에 대한 논의는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성인기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이라는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심리학에서는 발달론적 관점에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성숙의 과정으로 성인기 이행을 다루었다. 반면, 사회학에서는 학교 졸업, 노동시장 진입, 결혼이나 부모 되기(parenthood)와 같은 생활사의 중요한 사회 인구학적 이행기(social demographic transition)에 주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Hogan & Astone, 1986).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행기 중에서도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Ryan, 2001).

사회 첫 출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과 가구나 가족의 형성(household and family formation)이다. 전자는 학교를 졸업하는 이행기와 일을 시작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이행기를 포함한다. 후자는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이행기와 동거인을 만들거나 결혼을 통해 가구를 형성하는 이행기, 부모가 되는 이행기를 포함한다.

2)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Arnett(1998)은 미국 청년들의 이행을 다루면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결혼보다는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홀로 서는 자립(stand alone)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은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면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위상을 잃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Gilmore(1990)가 전통사회에서 성인 여성과 구분되는 성인 남성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성인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provide),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부터의 위협을 막으며(protect), 가족이나 가문을 잇기 위해 자녀를 가지는(procreate) 역할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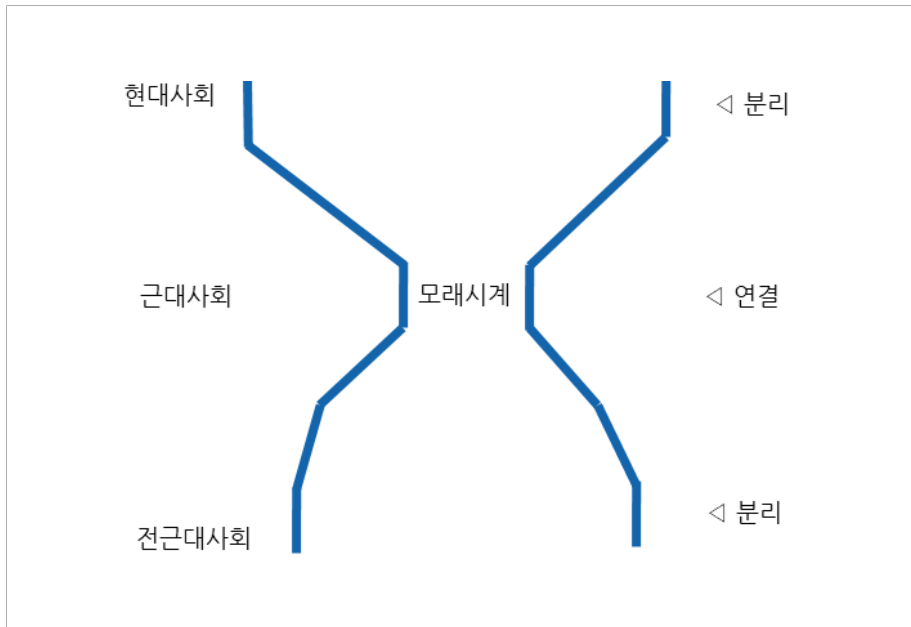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성인기 이행에서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립이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특히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나 권한을 갖는 것(empowerment)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Wray-Lake, Arruda & Schulenberg, 2020). 곧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참여하여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적인 성인기 이행 과정이라는 것이다.

성인기 이행의 영역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이행과정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Billari & Liefbroer(2010)는 성인 이행기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첫 번째 현상(late pattern)은 생활사의 지연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 현상(protracted pattern)은 학교 졸업이나 취업, 결혼 등 생활사 간의 거리가 길어졌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상(complex pattern)은 개인 간 이행 기간의 꺾적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경험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학교 졸업, 취업, 결혼, 출산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이행기가 과거보다 지연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남편 27.8세, 아내

24.8세에서 2019년 각각 33.4세와 30.6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b).

두 번째 현상과 관련하여 Jones & Wallace(1992)는 모래시계 모형 가설을 제시하였다. 근대 시기에 농촌에서 도시로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결혼과 동시에 자녀를 낳는 과정이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하는 시기와 결혼을 하는 시기가 멀어지고 있으며 저출산 경향으로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라지거나 매우 늦게 이루어지는 만혼 경향이 나타났다.



\* 출처: Jones & Wallace(1992); 김기현 외(2020a : 16)와 장근영, 김기현, 이민정(2020: 15)에서 재인용

그림 II-1 성인 이행기(취업, 결혼, 출산, 분가)의 시대별 변화 추이

세 번째 현상은 개인 간 이질성이 증가한 것으로 학교 졸업 시점이 고졸인 경우와 대졸인 경우, 석사나 박사 졸업인 경우로 분화되었고 취업이나 결혼, 출산 시점도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개인별로 범위가 넓어졌다. 개인 간 이질성은 시점 간의 차이만이 아니라 청년 내부의 이질성과도 관련된다. Hogan & Astone(1986)은 사회 계층 간에,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Osgood, Foster & Courtney(2010)는 성인 이행기에 있어서 취약계층(vulnerable population)의 어려움을 지적한 후 정책 개입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양한 사회 환경 변화는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경제 위기는 청년의 사회 첫 출발에 큰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2020)은 코로나19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경제나 재난 등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존 직원을 해고하기보다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경향 때문에 나타난다. 청년 중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신규 채용은 주로 청년기에 이루어져서 청년이 겪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첫 일자리 특성이 이후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요셉(2017)은 처음으로 취업을 한 후 받은 임금이 이후 10년 이상 노동시장 성과(임금과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지운(2020)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초기에 발생하는 차이가 이후 생애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화보다 임금소득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적자본 축적이 미흡한 채로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이 생애 전체적으로도 낮은 노동시장 성과를 보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Adams, Boneva, Golin & Rauh(2020)은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2020년에 실시한 코로나19와 고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국가 모두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고 저소득층일수록 직장을 잃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질문에 청년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수입이나 일자리 문제가 다른 시기보다 청년에게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의 영향 외에도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20대 청년기 진입 단계에 영향을 미쳐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2017년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3,727만 명이나 2067년에는 1,827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관계부처 합동, 2020: 4).

사회 불평등 심화는 세대 간에, 청년 세대 내부의 격차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30세 미만의 부채비율은 23.4%로 30대(10.2%), 40대(5.7%), 50대(5.7%), 60대(-2.9%)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세대 내 격차와 관련하여 2020년 현재 15-29세 청년 중 정규직 임금은 365만원 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62만원으로 정규직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2020: 4). 이러한 사회 불평등 심화는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청년 내부의 이질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영향과 연결되어 비대면 IT 분야가 크게 성장한 것과는 달리 관광,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 분야는 크게 위축되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확대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주제로 학교-일자리 이행을 다루었다. 성인기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자립(주거 및 자산형성)이나 시민권(사회참여와 권한 강화)을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

인구학적 이행기인 학교 졸업, 결혼, 출산 등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2020년 1월에 2차 연도와 3차 연도의 연구 대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 다룰 연구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은 장기간 취업 준비, 미래교육이나 교육-훈련, 주거, 금융을 비롯하여 가구 및 가족 형성, 가족 관계, 주관적 웰빙, 일자리를 제외한 삶의 영역과 3개년도 종합 연구 등이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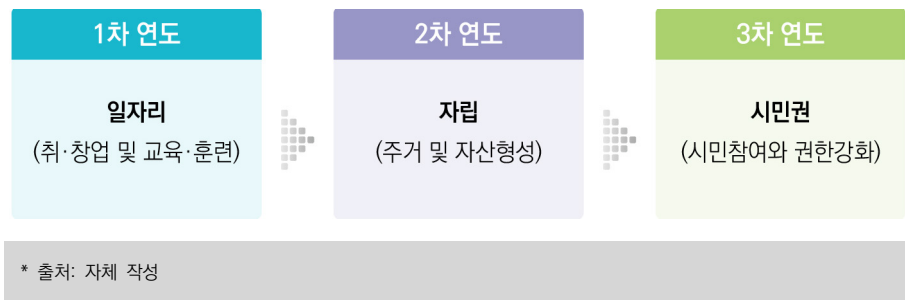


그림 II-2 청년 사회 첫 출발 연도별 분석 대상(안)

이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2차 연도에 자립(주거와 자산형성), 3차 연도에 시민권(참여와 권한 강화)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문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2차 연도 연구 대상은 살아가는 공간인 주거 마련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홀로 서는 과정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립으로 정하였다. 3차 연도 연구 대상은 사회 첫 출발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권한을 갖는 과정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성인기 이행 중 1차 연도 연구에서 다루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관한 논의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3) 2차년도로 제안한 연구 대상은 주거, 교육-훈련 영역, 장기간 취업 준비 활동문제, 미래학교교육 패러다임, 삶의 개별 영역 등임. 3차년도로 제안한 연구 대상은 주관적 웰빙, 가족형성, 주거 및 금융영역, 사회적 관계 위축과 청년 간 갈등문제, 가족제도, 추가연구 및 일자리 포함 연계 등임.

## 2.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관한 논의<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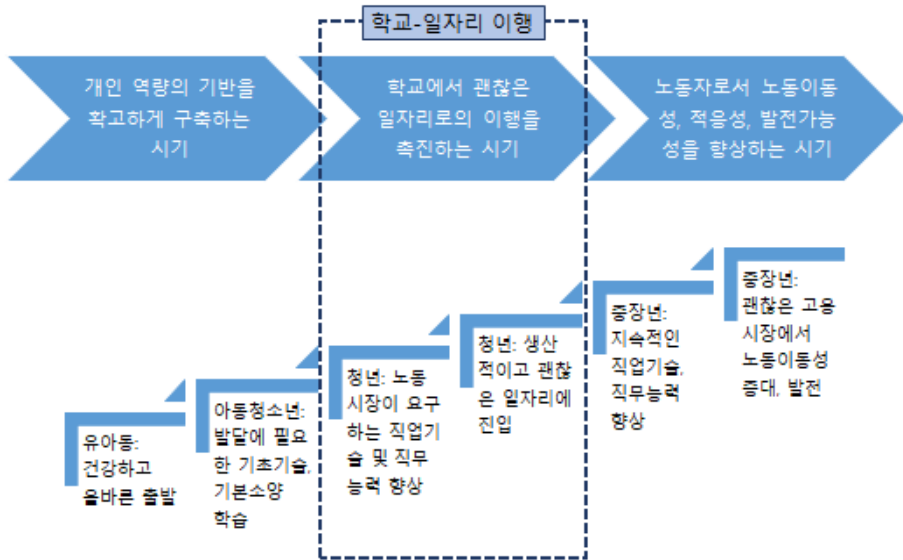
### 1)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정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은 일반적으로 청년층이 학교 교육을 끝내고 고용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왔다.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직업기술을 획득하고 고용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한 과정으로써 이해되어 왔다. 개발도상국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 실태를 조사한 유니세프(UNICEF)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개발한 고용 및 생산성을 위한 기술개발 단계 분석틀(frame work)을 적용하여 학교-일자리 이행을 ‘개인이 청년기에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탐색하는 생애주기 단계’로 정의하였다(UNICEF, 2019: 8).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국가별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학교-일자리 이행 개념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였다(ILO, 2009). 국제노동기구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일자리로의 전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이 ‘어떠한 일자리’를 취득할 때 학교에서 일자리로 ‘전환되었다’ 또는 ‘이행되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노동기구는 학교-일자리 이행 개념에서 표준 이행 개념과 엄격한 이행 개념이라는 두 가지 개념 정의를 제시하였다.

---

4) 이 절은 배정희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출처: UNICEF(2019) Unpacking school-to-work transition. p.9 번역 및 요약하여 재구성

그림 II-3 교육 및 고용에 대한 생애주기 분석틀

먼저, 일반적(standard) 학교-일자리 이행 개념에 따를 때, 학교-일자리 이행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이 학교 교육을 끝내고 첫 번째 ‘정규직(regular)’ 또는 ‘만족스러운(satisfactory)’ 직업을 갖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또는 임시 고용직이 아닌 직업을 의미한다. 만족스러운 직업이란 청년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개념으로, 직업을 구하는 그 시점에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fit)’ 직업을 취득하였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다음으로 엄격한(stricter) 학교-일자리 이행 개념에 따를 때, 학교-일자리 이행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이 학교 교육을 끝내고 첫 번째 ‘괜찮은(decent)’ 또는 ‘만족스러운(satisfactory)’ 직업을 갖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괜찮은 일자리란 단순히 정규직 여부에서 나아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의 질이 좋은 일자리를 의미

한다. 예를 들어, 청년 노동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계약조건, 청년층 평균 급여 이상의 급여, 만족스러운 직업 안정성, 노동조합 가입 등 노동권 보장,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표 II-1 학교-일자리 이행 단계별 청년 유형

단계	청년 유형 분류	
	일반적 학교-일자리 이행 개념	엄격한 학교-일자리 이행 개념
이행된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li> <li>- 정규직이지만 불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li> <li>- 만족스럽지만 계약직인 직업을 가진 청년</li> <li>- 만족스러운 자영업자인 청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괜찮은,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li> <li>- 괜찮은 일자리이지만 불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li> <li>- 만족스럽지만 괜찮지 않은 일자리를 가진 청년</li> </ul>
이행 중인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상태인 청년</li> <li>- 계약 없이 고용된 청년</li> <li>- 계약직이며 불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li> <li>- 불만족스러운 자영업자인 청년</li> <li>-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경제 비활동 상태이지만,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상태인 청년</li> <li>- 괜찮지 않은 일자리 및 불만족스러운 일자리에 고용된 청년</li> <li>-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경제 비활동 상태이지만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li> </ul>
이행이 시작되지 않은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 다니는 청년</li> <li>-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경제 비활동 상태이며,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 다니는 청년</li> <li>-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경제 비활동 상태이며,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li> </ul>

출처: ILO(2009) ILO school-to-work transition survey: A methodological guide: 9-13 요약 및 재구성

국제노동기구는 청년-일자리 이행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세 가지 이행 상태별(이행된 청년, 이행 중인 청년, 이행을 시작하지 않은 청년) 청년 유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행된’ 청년들은 표준 이행 개념에 따를 때 네 가지 청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정규직,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 ② 정규직이지만 불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 ③ 만족스럽지만 계약직인 직업을 가진 청년, ④ 만족스러운 자영업자인 청년. 엄격한 이행 개념에 따를 때는 ① 괜찮은,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 ② 괜찮은 일자리이지만 불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 ③ 만족스럽지만 괜찮지 않은 일자리를 가진 청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행 중”인 청년은 표준 이행 개념에 따를 때 다섯 가지 청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계약없이 고용된 청년 ③ 계약직이며 불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 ④ 불만족스러운 자영업자인 청년 ⑤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경제 비활동 상태이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 엄격한 이행 개념에 따를 때는 ① 실업상태인 청년, ② 괜찮지 않은 일자리 및 불만족스러운 일자리에 고용된 청년, ③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경제 비활동 상태이지만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이행을 시작하지 않은 청년”은 두 가지 청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학교에 다니는 청년, ②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경제 비활동 상태이며,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의 속도나 질, 안정성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별 교육제도, 노동시장 구조, 경기변동 상황, 청년층 인구비율, 실업률 등 거시적인 요인이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장상수, 2008; 이남철, 2005). 국내에서는 청년 실업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청년층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는데, 학교-직장 이행, 학교-고용 이행, 노동시장 진입, 취업 이행 등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 2) 학교-일자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많은 연구들은 주로 교육 및 고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및 학력 차이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태를 살펴보고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권혁진, 유호선(2011)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원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은 학교에서 일자리로

진입하기 전 교육 기간과 NEET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며, 대학 이상 졸업자는 고졸자에 비해 이행과정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변동성이 크며, 안정적인 일자리로 더 빠르게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필선, 민인식(2016)은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11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중, 고등학생들의 대학을 졸업한 후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범주화한 기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유형, 대학 유형별 취업 여부와 평균 임금 등을 분석하여 각 유형별 청년 분포를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단순히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행, 질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 등 노동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일자리 이행상황을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동시에 학력 인플레이션의 지속됨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유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유진, 김교성, 2019).

청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업청년의 초기 일자리 변동과 고용 안정성을 살펴본 강순희(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초기 단계에서 학력이 낮은 청년들의 경우 고용안정성에 있어서 고학력 청년들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청년의 고용 안정성은 남성 청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이행이 이후 일자리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정세정(2019)은 안정노동으로의 진입을 '정규 상용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청년들의 안정노동 이행률을 살펴보았다.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안정노동 이행률은 불안정 노동경험이 없는 남성 청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정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예측요인에 성별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불안정 노동을 경험한 청년들은 안정 노동으로 옮겨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임유진, 정영순(2015)은 국내 고졸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이행추이 및 영향요인

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좋은 일자리는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이고, 임시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며 임금이 평균소득의 60% 이상인 경우로 정의되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이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이 여성 27개월, 남성 46개월로 상당한 남녀 차이가 존재하며,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가능성에는 남녀 공통적인 예측 요인(실업률, 지역, 부모 학력)도 있지만, 그 외의 예측변인들에는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결혼 여부와 직업체험이 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은 학업 성적이나 졸업 후에 이루어진 직업훈련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오유진, 김교성(2019)은 성별, 학력별로 괜찮은 일자리 여부와 미취업, 가사양육 상태에 머무는 기간과 이행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노동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고 49시간 이하이며 월평균 중위임금보다 50% 이상이며 상용직인 경우로 정의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괜찮은 일자리에 머무는 기간은 대졸남성이 가장 길었고 고졸여성이 가장 짧았으며, 미취업 상태에 있는 기간은 고졸여성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행과정을 6개로 유형화하여 성별 및 학력별 유형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행 여부 및 이행수준에 자산효과가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내부의 이행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희정, 2019). 더욱이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을 더욱 지연시키고, 이행 과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력, 성별,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청년 내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기의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학교-일자리 이행은 이들이 중장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연구와 정책 제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 ○ — 제3장 우리나라 학교- 일자리 이행 실태 및 특징

- 1.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의 실태
- 2. 청년 학교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시계열 분석
- 3.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 동태분석
- 4. 요약 및 시사점



## 1.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의 실태<sup>5)</sup>

### 1) 2021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개요

본 연구는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청년들의 일자리, 교육, 건강, 주거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6년도부터 고유과제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402004호)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통계결과표는 2021년 12월에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공개되며, 기초통계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nypi.re.kr>) 내 자료-연구보고서에 공개된다. 원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 아카이브(<https://www.nypi.re.kr/archive/mps>)에서 조사 익익년 12월 말에 공개되었으나 조사 공개 일정이 앞당겨질 예정이다. 2021년 12월 현재 2017, 2018,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원 데이터는 2022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5) 이 절은 배정희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 (1) 조사대상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기준일(2021년 6월 1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일반국민이며, 조사 규모는 2,041명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만 15세에서 만 39세였으나, 2020년부터 만 18세부터 만 34세로까지로 연령범위가 조정되었다. 이는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청년 연령이 만 19-34세로 규정되었고,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추후 청년 연령 범위가 만 18세-34세로 개정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 (2) 조사 절차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 문항과 조사 설계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본조사를 위한 변경승인 절차를 거쳤다. 예비조사는 2021년 5월에 2주간(5.10-5.23)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체 5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녀 비율을 1:1로 맞추었고 연령집단(18-29세, 30-34세)과 경제활동상태(취업자, 미취업자), 혼인상태(미혼, 기혼) 역시 동수로 응답자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는 조사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난이도를 비롯하여 편집에 대한 가독성이나 소요시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조사 소요시간은 적게는 20분, 많게는 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평균 41분 정도 소요되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5점 만점에 2.5점, 불편함은 5점 만점에 2.48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으로는 응답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 과거에 대한 문항으로 기억에 의존해야하는 경우, 제도 관련 내용이 추상적이라 실감이 안 나는 경우 등이 파악되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준 문항을 수정하여 변경한 후 통계청 승인정자를 진행하였다.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전년(3,500명) 대비 감소한 2,041명으로 조사대상 규모 변동에 따른 표본설계 변경, 설문 문항에 대한 추가나 수정 등을 반영하여 통계청 변경승인을 진행하였다. 변경승인은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승인신청서와 통계를 작성과 조사에 대한 지침서와 변경된 조사표, 표본설계서 등을 통계청 통계조정과에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후 통계청으로부터 표본 규모 축소로 인해 권역, 학력, 연령 등 현재의 표본설계 및 통계공표 단위에 대한 '부적합' 결과통보서가 회신되었다. 이에 연령, 권역 등의 분석단위를 수정하여 표본설계서 및 재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6월 30일에 주요 용어에 대한 '보완 필요' 검토의견이 도착,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21년 7월 5일 변경 승인이 완료되었다.

### (3) 조사 방법

본 조사는 가구에 방문하여 1:1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대상 가구에 방문한 후 먼저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 후 가구원이 조사를 수락하면, 해당 가구 내에 조사대상 적격 연령대 가구원을 확인 후 조사대상자가 재택 시 개별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단, 조사대상 연령대 인 만 18-34세 가구원은 조사가 진행되는 주간 시간대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와의 1:1 개별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 가구원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격적인 조사 시작 전 조사원 교육은 2021년 6월 17, 21일, 총 2회 온라인을 통한 화상교육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은 사전에 연구진이 작성한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조사지침서>에 따라 조사개요, 조사표 교육, 방법론 등 3개 영역에 대해 총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첫 번째 영역 <조사개요> 부분에서는 본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조사내용의 개요와 더불어 조사가구 및 응답자 선정에 대한 기준, 조사구 특성 등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영역 <조사표 교육>에서는 조사표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추가 문항이나 수정문항 등 변동사항, 용어에 대한 정의, 보기 문항에 대한 상세 설명, 질문요령 등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영역 <방법론>에서는 조사구 활용방법, 현장조사 시 응답자 접촉과정, 적격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 조사원 관련 사항과 조사방법인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TAPI는 태블릿 PC를 활용해 현장에서 직접 응답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대면 면접조사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 특성 상 오프라인 집체교육 때처럼 TAPI 프로그램 실습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육 자료에 입력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는 조사표 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원은 실사 참여 전 1회 이상 반드시 조사표를 TAPI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조사원 및 표본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선발 면접원에 대해서는 추가 온라인 교육을 2021년 7월 13일과 15일에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 진행이 미흡한 지역에 투입되거나 중도 포기 조사원을 대체하기 위해 추가될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수시교육도 실사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 (4) 조사 기간

본 조사는 2021년 7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최초 현장 조사 기간 목표는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7주를 계획하였으나 변경승인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과 이로 인한 조사구 수령 등이 지체되어 당초 목표보다 약 1개월 지체되어 현장 실사가 시작되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상황이라 타지역 대비 1주 정도 늦은 7월 26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가 이후에도 계속 4단계로 유지되어 8월 8일까지 2주가량 현장 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나머지 지역만 현장 조사를 우선 진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강원도 강릉시도 8월 8일까지 2주가량 현장 조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이후, 8월 8일 이후에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지 않아 연구진 간 논의를 통해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조사를 재개하였으며, 현장 조사 일정을 10월 31일까지로 조정하여 완료하였다.

#### (5) 표본 설계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일반 국민이다. 이는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정의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연령을 고려하여 연령 대상을 정한 것이다. 목표모집단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에 청년(18-34세) 가구원이 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실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이나 기숙사,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호텔, 외국인 조사구 등이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모집단은 일반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을 의미한다. 본 정의에 따른 표본추출 표집틀로는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표본설계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최신의 표집틀 자료였다.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본설계에서는 2020년과는 달리 표본수의 감소로 총 2단계의 층화 과정을 거쳤다. 1단계 층화에서는 먼저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층화하였으며, 2단계 층화에서는 9개 도 지역에 대해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하였다. 단, 권역 분석 시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단위로 통계를 작성하도록 설계되었다.

표본배분 방식은 각 시도별 조사대상 인구에 비례하여 290개 표본 조사구를 제공근비례배분 방식으로 배분한 후 각 시도에서 세부 층(시도, 동지역, 읍면지역) 조사대상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가구 및 조사대상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각 표본 조사구별로 7명의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지역별 표본 가구 당 청년 가구원(만 18-34세) 수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가구

당 청년 가구원의 수는 읍면지역은 0.40명이었고 동지역의 경우 평균 0.56명이었다. 이에 따라 목표표본 수를 충족하기 위한 최종 표본조사구는 읍면지역의 경우 17가구였고 동 지역은 13가구였다.

## 2)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실태 관련 문항

사회 첫 출발의 관점에서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 신규문항을 추가하였다. 먼저,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첫 출발에 대한 개념 정의, 첫 일자리 개념 정의 문항을 신규문항으로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졸업 후 첫 일자리 특성에 대한 11개 문항을 신규문항으로 추가하였다. 현재 일자리 특성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개수, 만족도 및 구직활동에 대한 문항을 신규문항으로 추가하였다.

표 III-1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실태 관련 문항

유형	조사내용	세부내용	문항번호
개념 정의	첫 출발 개념 정의 (신규)	첫 출발 개념 정의	문5
	첫 일자리 개념 정의 (신규)	첫 일자리 개념 정의	문37
일자리 특성	졸업 후 첫 일자리 특성 (신규)	일 시작한 시기, 근속연수,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근로시간 유형, 직업, 직장유형, 종사자 수, 주당 근로시간, 월소득, 만족도	문66 (1)-(11)
	현재 일자리 특성 (일부 신규)	일자리 개수(신규)	문47-1
		일 시작한 시기, 근속연수,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근로시간 유형, 직업, 직장유형, 종사자 수, 직무 수준, 만족도(신규)	문48 (1)-(10)
		주당 근로시간, 월소득	문49 (1),(3)
	현재 일자리를 위한 구직활동(신규)	문50 문50-1	

(1) 개념 정의 문항

가. 첫 출발 개념 정의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school-to-work transition) 또는 가구나 가족의 형성 (household and family formation)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Arnett, 1998; Gilmore, 1990).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논의에서 나아가 실제 청년 당사자들이 사회 첫 출발을 어떻게 인식하고 개념화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2011)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에 대해 만 19-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안선영 외(2011)의 문항 중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하여 청년들의 성인기 첫 출발의 개념 정의에 대한 문항을 신규문항으로 추가하였다.

표 III-2 첫 출발 개념 정의 관련문항

구분	문항
신규	문5) 귀하는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를 졸업하는 것 ②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③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④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⑤ 결혼하는 것 ⑥ 자녀를 출산하는 것 ⑦ 주택을 구입하는 것 ⑧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선거권, 운전면허 등) ⑨ 기타(적을 것 : _____)

출처: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2011). 이 연구의 성인 기준에 관한 조사문항을 발췌 및 수정하여 신규문항 추가

나. 첫 일자리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에 있어서 처음으로 갖게 되는 일자리에 대해 주목하였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청년들의 첫 일자리에 대한 많은 조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첫 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는 조사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18)의 경우 첫 일자리를 ‘대학 졸업 후 가진 첫 번째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0c)에서는 ‘졸업, 중퇴, 수료 이후 첫 번째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9차 부가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06)에서는 ‘최종적으로 학교를 마치거나 그만둔 이후 취업한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명시적으로 첫 일자리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노동패널 제23차 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20)에서는 ‘15세 이후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2개월 이상 일한 일자리’를 조사하였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청년패널 조사인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에서는 첫 일자리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세 이후의 임금근로자 일자리, 18세 이후의 비임금근로자 일자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

표 III-3 첫 일자리 정의

조사명	첫 일자리의 정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8) <sup>1)</sup>	대학졸업 후 가진 첫 번째 일자리 (아르바이트 포함. 대학 졸업 전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도 졸업 후까지 계속 일한 경우는 첫 일자리)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20) <sup>2)</sup>	졸업/중퇴/수료 이후 첫 번째 일자리
한국노동패널조사 9차 부가조사 청년용(2006) <sup>3)</sup>	최종적으로 학교를 마치거나 그만둔 이후 취업한 일자리. (졸업(중퇴)하기 전에 취업이 되어 마친 후에도 계속된 일자리)
한국노동패널 23차(2020) <sup>4)</sup>	15세 이후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2개월 이상 일한 경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가족의 소득활동을 위해 보수를 받지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97 (2021) <sup>5)</sup>	14세 이후의 임금근로자 일자리, 18세 이후의 비임금근로자 일자리

출처: 1) 한국고용정보원 (2018).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8 설문지.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c).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부가조사 지침서.  
 3) 한국노동연구원 (2006). 한국노동패널조사 9차 부가조사(2006) 청년용 설문지.  
 4) 한국노동연구원 (2020). 한국노동패널 23차(2020년도) 설문지.  
 5)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97

본 연구는 자신의 첫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는지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첫 일자리의 개념 정의는 청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조사들에서 근로기간이나 주당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졸업 후 갖게 된 첫 번째 일자리를 주로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은 졸업 후 일시적으로 갖게 된 단기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자리에 대해서는 자신의 ‘첫 일자리’라고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첫 일자리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연구진 검토를 통해 신규문항을 자체개발하여 추가하였다.

표 III-4 첫 일자리 개념 정의 관련 문항

구분	문항			
신규	문37) 귀하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란 무엇입니까?			
	<p>본인이 실제로 한 첫 일자리가 아니라,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첫 일자리의 개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p> <p>예)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란 (1) 학교 졸업 후 (2) 최소 6개월 이상 (3)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처음으로 일한 일자이다.</p>			
	(1) 학교 졸업여부	(2) 근로 기간	(3) 주당 근로 시간	
	<p>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란</p> <p>① 졸업과 상관없이</p> <p>② 졸업 후</p>	<p>① 최소 1일 이상</p> <p>② 최소 1주일 이상</p> <p>③ 최소 1개월 이상</p> <p>④ 최소 6개월 이상</p> <p>⑤ 최소 12개월 이상</p> <p>⑥ 최소 24개월 이상</p>	<p>① 최소 주당 1시간 이상</p> <p>②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p>	<p>처음으로 일한 일자이다</p>

출처: 자체개발

## (2) 일자리 특성 문항

### 가. 졸업 후 첫 일자리

본 연구에서는 졸업 후 첫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규문항을 추가하였다. 졸업 후 첫 일자리는 ‘최종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을 했던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최종학교 졸업 전에 시작하였지만 졸업 전에도 일자리가 계속 이어진 경우 첫 일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졸업 후 첫 일자리 특성에 대해서는 일을 시작한 시기, 근속연수,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근로시간 유형, 직업, 직장유형, 종사자 수, 주당 근로시간, 월소득,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등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현재 일자리에 대한 문항과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되, 졸업 후 첫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직무 수준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무 수준은 응답자의 오래된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의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5 졸업 후 첫 일자리 관련 문항

구분	문항
	<p>문66) 귀하의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 관해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p> <p>☞ 최종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을 했던 경우, 해당 일자리를 의미합니다.</p> <p>☞ 최종 학교 졸업 전에 시작하였지만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진 경우 졸업 후 첫 일자리에 해당됩니다.</p> <p>☞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의미함. 예) ○○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p>



### 나. 현재 일자리

현재 일자리의 특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하여 포함되었던 문항으로, 2021년도 청년들의 현재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문항이 활용되었다. 다만,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특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문항이 추가되었다.

먼저, 최근 많은 청년들이 플랫폼 노동 등을 통해 한 가지 직장이 아닌 일명 'n잡러'로 여러 가지 일자리 또는 일거리에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이재성, 2020), 일자리 수에 대한 신규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III-6 일자리 수 관련 문항

구분	문항
기존	문47) 귀하는 지난 주(2021년 5월25일-5월31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div> ① 일을 하였음                    }   ➔ 문47-1로 이동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③ 일을 하지 않았음            ➔ 문57으로 이동
신규	문47-1) (문47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지난주에 총 몇 개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였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습니까? (투잡, 쓰리잡 등 동시에 갖고 있는 일자리의 개수를 의미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이상

출처: 이재성(2020).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N잡러의 논의 고려하여 신규 문항 추가

또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에 대하여 만족도 문항을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현재 주된 일자리의 특성에 대해서는 일을 시작한 시기, 근속연수,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근로시간 유형, 직업, 직장유형, 종사자 수, 직무 수준,

만족도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당 근로시간과 월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과 현재 근로시간, 희망하는 소득과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파악함으로써 청년들의 현실 및 욕구의 격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II-7 현재 일자리 관련 문항

구분	문항	
	문48) 다음은 지난주(2021년 5월25일-5월31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였던 현재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지난주에 가장 많은 시간동안 일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동일한 경우 임금이 많은 일자리, 시간과 임금이 동일한 경우 최근에 시작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의미함. 예) ○○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	
기준	구분	내용
	(1) 일을 시작한 시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2) 근속연수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개월
	(3)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4) 고용형태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5)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직업 (별첨자료 참조)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                      )

구분	문항	
신규	(7)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 )
	(8) 종사자 수 (사업체*기준)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499인인 ⑦ 500인 이상
	(9) 현재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의 직무 수준은	
	(9-1) 나의 교육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9-2) 나의 기술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 (9-3)번은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분(문17 '① 있다' 응답)만 응답해 주십시오	
	(9-3) 나의 전공분야와 (**대학진학 경험자)	① 일치한다 ② 불일치한다
	(10)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싫어한다 ② 싫어한다 ③ 약간 싫어한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좋아한다 ⑥ 좋아한다 ⑦ 매우 좋아한다
	기존	문49) 현재(2021년 6월 1일 기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제로 얻는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과 귀하가 원하는 월 평균 소득,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 귀하가 원하는 주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약 <input type="text"/> 만원 (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약 <input type="text"/> 만원 (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약 <input type="text"/> 시간 (4)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약 <input type="text"/> 시간

출처: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의 일자리 관련 문항 수정하였으며,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1). 미국 고용통계국의 NLSY의 직무만족도(7점 척도) 문항을 신규문항으로 추가

또한, 학교-일자리 이행의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청년들이 현재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떠한 구직 활동들을 수행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직 활동에 대한 문항 구성을 위해 미국 고용통계국의 National Longitudinal Youth Survey 97(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 조사표 중 직업탐색

활동(job search activity) 문항을 발췌 및 수정하여 신규문항으로 추가하였다.

표 III-8 현재 일자리 구직활동 관련 문항

구분	문항																																							
신규	문50) 귀하는 현재 일자리를 찾기 위해 어떠한 구직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 구직활동이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인현황, 근로조건 등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활동으로, 대면활동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이메일,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모두 포함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70%;">문항</th> <th style="width: 10%;">예</th> <th style="width: 20%;">아니오</th> </tr> </thead> <tbody> <tr> <td>(1) 고용주에 직접 연락(방문)하여 면접을 보았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2) 정부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3) 민간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4) 친구, 선배 또는 친척에게 연락하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5)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6) 대학교 또는 대학교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7) 관심기업에 이력서 또는 지원서를 제출하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8) 기업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기업정보를 확인하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9) 구직 광고를 게시하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10) 구인 광고를 살펴보았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11)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12) 기타 (자세히 적을 것 : _____ )</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body> </table>	문항	예	아니오	(1) 고용주에 직접 연락(방문)하여 면접을 보았다	①	②	(2) 정부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3) 민간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4) 친구, 선배 또는 친척에게 연락하였다	①	②	(5)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6) 대학교 또는 대학교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7) 관심기업에 이력서 또는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①	②	(8) 기업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기업정보를 확인하였다	①	②	(9) 구직 광고를 게시하였다	①	②	(10) 구인 광고를 살펴보았다	①	②	(11)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였다	①	②	(12) 기타 (자세히 적을 것 : _____ )	①	②
	문항	예	아니오																																					
	(1) 고용주에 직접 연락(방문)하여 면접을 보았다	①	②																																					
	(2) 정부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3) 민간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4) 친구, 선배 또는 친척에게 연락하였다	①	②																																					
	(5)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6) 대학교 또는 대학교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7) 관심기업에 이력서 또는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①	②																																					
	(8) 기업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기업정보를 확인하였다	①	②																																					
	(9) 구직 광고를 게시하였다	①	②																																					
	(10) 구인 광고를 살펴보았다	①	②																																					
	(11)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였다	①	②																																					
(12) 기타 (자세히 적을 것 : _____ )	①	②																																						
	문50-1) 위의 항목에서 '예'로 응답한 구직 활동 중 일자리를 찾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만 선택)  (            ) 번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1). 미국 고용통계국의 NLSY의 구직활동에 대한 문항 발췌 및 수정하여 신규문항 추가

### 3)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의 실태 조사결과

#### (1) 첫 출발 개념 정의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상징하는 것으로 35.4%의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청년도 25.2%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를 갖고 수입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출발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15.5%)’, ‘학교를 졸업하는 것(11.1%)’이 뒤를 이었다. ‘결혼하는 것(7.4%)’,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4.0%)’, ‘자녀를 출산하는 것(0.8%)’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생애과정에서 결혼이나 자녀출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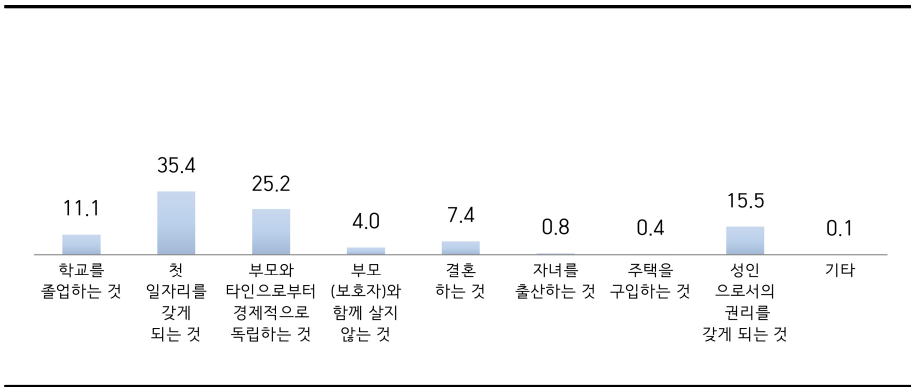


그림 III-1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 의미

표 III-9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 상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를 졸업하는 것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부모와 타인으로 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를 출산하는 것	주택을 구입하는 것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	기타	
											체
전	(2,041)	11.1	35.4	25.2	4.0	7.4	0.8	0.4	15.5	0.1	
성별	남	(1,074)	11.2	36.5	24.5	3.9	8.2	1.0	0.5	14.1	0.1
	여	(967)	10.9	34.2	25.9	4.3	6.5	0.6	0.3	17.1	0.1
연령	만 18 - 19 세	(185)	19.8	30.2	29.8	2.7	3.8	0.0	1.4	11.8	0.6
	만 20 - 24 세	(588)	12.2	34.4	26.2	4.1	5.7	0.7	0.4	16.2	0.1
	만 25 - 29 세	(668)	9.4	38.0	23.1	4.6	6.9	0.5	0.4	17.0	0.1
	만 30 - 34 세	(600)	9.3	35.2	25.0	3.8	10.8	1.6	0.1	14.1	0.0
지역	서울	(414)	9.1	28.1	26.8	4.6	7.7	0.7	0.5	22.6	0.0
	인천 / 경기	(618)	10.4	33.8	24.6	3.7	9.2	0.6	0.6	16.9	0.3
	대전/충청/세종/강원	(308)	16.0	38.5	26.6	1.8	2.3	0.0	0.2	14.8	0.0
	광주 / 전라 / 제주	(225)	13.4	36.5	22.3	4.4	4.3	2.2	0.4	16.1	0.3
	부산 / 울산 / 경남	(287)	10.5	48.2	20.9	3.8	9.1	0.0	0.0	7.5	0.0
	대구 / 경북	(189)	10.2	33.1	31.1	6.9	8.4	2.8	0.3	7.1	0.0
학력	고졸 이하	(565)	11.2	34.7	23.9	5.0	6.5	1.5	0.8	16.2	0.1
	대학/대학원 재학	(451)	13.5	33.5	28.8	3.4	4.6	0.0	0.1	15.8	0.4
	대졸 이상	(1,025)	10.0	36.7	24.2	3.8	9.3	0.9	0.3	14.9	0.0
주거 형태	동거	(1,206)	11.7	35.2	23.2	3.9	7.1	1.1	0.5	17.1	0.2
	비동거 / 독립	(835)	10.2	35.9	28.3	4.2	8.0	0.5	0.2	12.8	0.0

## (2) 첫 일자리 개념 인식

첫 일자의 개념을 청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학교 졸업 여부,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 일자를 정의할 때 59.2%의 청년들은 ‘졸업 후’ 갖게 되는 첫 일자라고 응답하였으나, ‘졸업과 상관없이’라고 응답한 청년도 40.8%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기간과 관련해서는 30.9%의 청년들이 ‘최소 6개월 이상’ 근로한 일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최소 12개월 이상’ 근로한 일자라고 응답한 청년도 27.8%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88.7%의 청년들이 ‘최소 35시간 이상’은 근로해야 첫 일자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을 기준으로 첫 일자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첫 일자란 ‘(1) 학교 졸업 후 (2) 최소 6개월 이상 (3)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처음으로 일한 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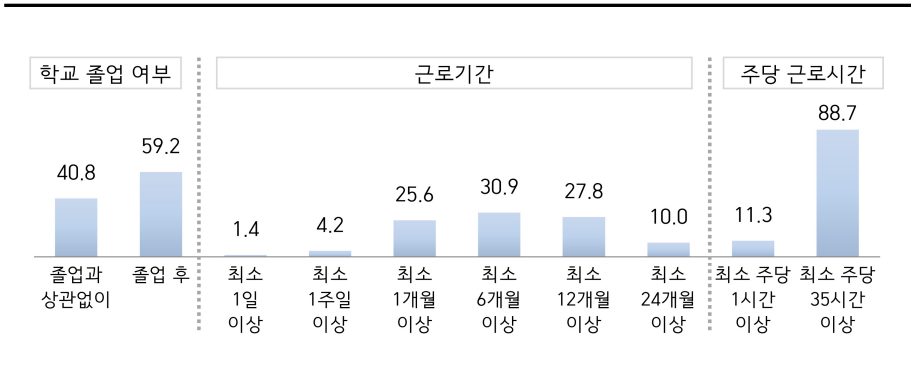


그림 III-2 첫 일자리 개념 인식

표 III-10 첫 일자리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졸업여부		근로 기간						주당 근로시간		
		졸업 상관 없이	졸업 후	최소 1일 이상	최소 1 주일 이상	최소 1 개월 이상	최소 6 개월 이상	최소 12 개월 이상	최소 24 개월 이상	최소 주당 1시간 이상	최소 주당 35 시간 이상	
전체	(2,041)	40.8	59.2	1.4	4.2	25.6	30.9	27.8	10.0	11.3	88.7	
성별	남자	(1,074)	40.9	59.1	1.1	3.7	26.0	31.2	27.9	10.1	11.3	88.7
	여자	(967)	40.6	59.4	1.8	4.9	25.1	30.5	27.7	9.9	11.3	88.7
연령	만 18 - 19 세	(185)	44.8	55.2	1.0	6.2	23.4	29.9	28.9	10.6	13.9	86.1
	만 20 - 24 세	(588)	42.2	57.8	1.6	3.9	22.2	33.9	28.6	9.9	12.7	87.3
	만 25 - 29 세	(668)	38.8	61.2	1.7	3.6	26.6	29.4	28.5	10.3	10.0	90.0
	만 30 - 34 세	(600)	40.4	59.6	1.1	4.8	28.4	29.9	26.0	9.7	10.5	89.5
지역	서울	(414)	40.0	60.0	0.2	4.7	26.4	34.4	23.7	10.4	14.6	85.4
	인천 / 경기	(618)	35.6	64.4	2.3	4.8	24.7	26.0	28.1	14.1	11.9	88.1
	대전/충청/세종/강원	(308)	48.3	51.7	2.6	5.6	21.2	32.9	31.8	5.8	13.8	86.2
	광주 / 전라 / 제주	(225)	44.4	55.6	0.0	1.1	20.2	33.1	38.7	6.9	7.9	92.1
	부산 / 울산 / 경남	(287)	36.1	63.9	0.9	5.0	30.3	32.7	23.7	7.4	9.9	90.1
	대구 / 경북	(189)	53.6	46.4	1.8	1.9	30.8	31.9	25.6	8.0	4.5	95.5
학력	고졸이하	(565)	43.9	56.1	1.5	6.9	29.2	26.8	24.6	11.0	14.1	85.9
	대학/대학원 재학	(451)	39.2	60.8	1.1	2.9	20.4	34.4	32.1	9.1	12.4	87.6
	대졸이상	(1,025)	39.8	60.2	1.5	3.4	25.9	31.6	27.7	10.0	9.2	90.8
주거 형태	동거	(1,206)	39.8	60.2	1.5	4.8	25.9	29.8	28.0	9.9	12.1	87.9
	비동거 / 독립	(835)	42.5	57.5	1.3	3.4	25.1	32.6	27.5	10.2	9.9	90.1

### (3) 첫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

첫 일자리의 특성에 대한 이하 문항들은 ①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인 청년들의 현재 일자리 특성에 대한 응답과 ②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가 아닌 청년들이 추가적으로 응답한 첫 번째 일자리의 특성에 대한 응답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는 최근 4년인 2017년-2021년이 5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첫 일자리를 갖는 연령과 관계된 것으로, 만 18-24세 청년의 대부분은 2017-2021년에 첫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만 25-29세 청년 중 63.4%는 2017-2021년, 26.7%는 2014-2016년에 첫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만 30-34세 청년의 35.1%는 2010-2013년, 27.3%는 2017-2021년에 첫 일자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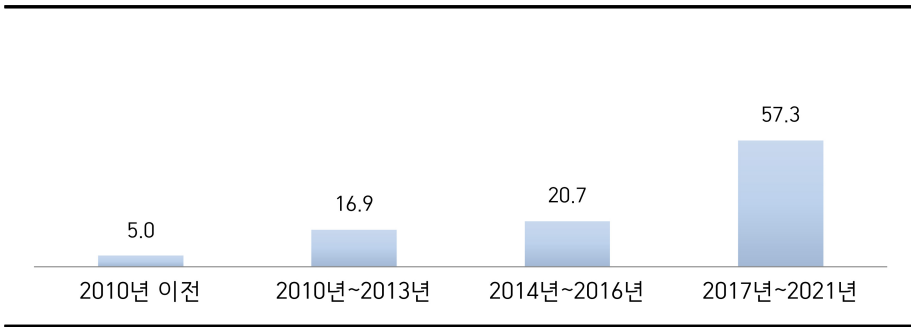


그림 III-3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

표 III-11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2010년 이전	2010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21년
전	체	(1,465)	5.0	16.9	20.7	57.3
성별	남 자	(745)	3.5	15.3	20.8	60.4
	여 자	(720)	6.7	18.7	20.6	54.0
연령	만 18 - 19 세	(43)	0.0	0.0	0.0	100.0
	만 20 - 24 세	(320)	0.0	0.0	7.2	92.8
	만 25 - 29 세	(548)	0.0	9.8	26.7	63.4
	만 30 - 34 세	(554)	13.3	35.1	24.2	27.3
지역	서 울	(326)	4.5	14.7	20.4	60.4
	인 천 / 경 기	(442)	4.1	18.9	20.9	56.1
	대전/충청/세종/강원	(220)	6.4	17.7	20.6	55.3
	광주/전라/제주	(142)	4.7	16.6	21.0	57.7
	부산/울산/경남	(198)	5.1	14.7	18.7	61.5
	대 구 / 경 북	(137)	7.8	18.3	23.7	50.3
학력	고 졸 이 하	(437)	10.5	21.0	21.1	47.5
	대학/대학원 재학	(137)	0.0	1.4	8.5	90.1
	대 졸 이 상	(891)	3.1	17.5	22.5	56.9
주거 형태	동 거	(754)	2.2	10.9	16.7	70.1
	비 동 거 / 독 립	(711)	8.5	24.3	25.7	41.5

주) 첫 번째 일자리에 응답한 응답자 대상

#### (4) 첫 일자리의 근속기간

졸업 후 첫 일자리의 근속기간은 3년 미만이 6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33.3개월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은 연령과 관계된 변수로, 연령이 많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 평균 근속기간은 만 18-19세 8.1개월, 만 20-24세 14.9개월, 만 25-29세 30.5개월, 만 30-34세 48.6개월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이 36.5개월로 가장 길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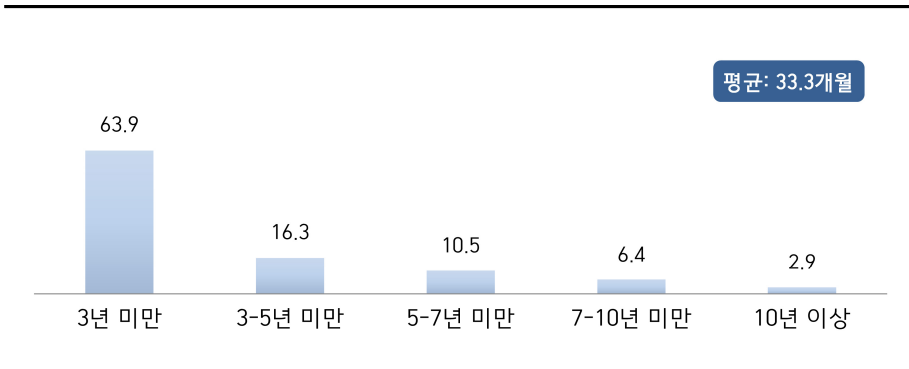


그림 III-4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근속기간

표 III-12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근속연수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근속연수 (개월)
전	체	(1,465)	63.9	16.3	10.5	6.4	2.9	33.3
성별	남 자	(745)	65.1	16.4	9.9	6.3	2.2	31.7
	여 자	(720)	62.6	16.1	11.1	6.5	3.7	34.9
연령	만 18 - 19 세	(43)	100.0	0.0	0.0	0.0	0.0	8.1
	만 20 - 24 세	(320)	89.2	8.7	2.2	0.0	0.0	14.9
	만 25 - 29 세	(548)	65.2	17.9	12.1	4.2	0.5	30.5
	만 30 - 34 세	(554)	45.1	20.4	14.4	12.8	7.2	48.6
지역	서울	(326)	64.8	18.1	8.1	7.5	1.4	31.9
	인천 / 경기	(442)	64.9	17.7	8.9	4.7	3.8	33.1
	대전/충청/세종/강원	(220)	66.3	11.3	10.3	8.2	3.8	33.3
	광주 / 전라 / 제주	(142)	54.8	21.2	15.7	5.9	2.3	36.0
	부산 / 울산 / 경남	(198)	66.8	12.9	12.2	5.3	2.8	32.0
	대구 / 경북	(137)	59.8	13.9	14.0	9.2	3.1	36.5
학력	고졸 이하	(437)	60.2	17.5	11.0	6.8	4.5	36.5
	대학/대학원 재학	(137)	91.5	6.1	1.5	1.0	0.0	12.0
	대졸 이상	(891)	61.3	17.4	11.6	7.1	2.6	35.1
주거 형태	동거	(754)	73.4	14.2	7.2	4.4	0.8	26.0
	비동거 / 독립	(711)	52.2	18.9	14.5	8.9	5.6	42.3

주) 첫 번째 일자리에 응답한 응답자 대상

### (5) 첫 일자리에서의 지위

졸업 후 첫 일자리에서의 지위를 살펴보면 만 19-34세 청년 중 94.5%가 임금근로자, 5.5%가 비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기보다는 취업을 통해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93.6%가 임금근로자, 6.4%가 비임금근로자로 나타났다. 여성은 임금근로자 비율이 95.5%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임금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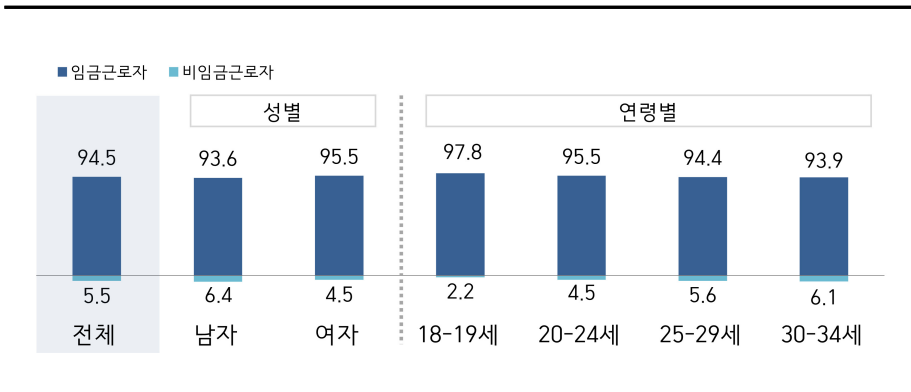


그림 III-5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서의 지위

표 III-13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에서의 지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1,465)	94.5	5.5
성별	남 자	(745)	93.6	6.4
	여 자	(720)	95.5	4.5
연령	만 18 - 19 세	(43)	97.8	2.2
	만 20 - 24 세	(320)	95.5	4.5
	만 25 - 29 세	(548)	94.4	5.6
	만 30 - 34 세	(554)	93.9	6.1
지역	서울	(326)	93.9	6.1
	인천 / 경기	(442)	96.7	3.3
	대전/충청/세종/강원	(220)	97.0	3.0
	광주 / 전라 / 제주	(142)	86.6	13.4
	부산 / 울산 / 경남	(198)	93.1	6.9
	대구 / 경북	(137)	95.1	4.9
학력	고졸이하	(437)	92.9	7.1
	대학/대학원 재학	(137)	98.1	1.9
	대졸이상	(891)	94.8	5.2
주거형태	동거	(754)	94.9	5.1
	비동거 / 독립	(711)	94.0	6.0

주) 첫 번째 일자리에 응답한 응답자 대상

(6) 첫 일자리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66.6%, 비정규직은 33.4%로 나타났다. 여성(67.9%)이 남성(65.4%)보다 첫 일자리에서의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첫 일자리의 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 만 18-19세 13.5%, 만 20-24세 44.6%, 만 25-29세 71.5%, 만 30-34세 78.9%가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의 근로시간 유형을 살펴보면, 전일제는 83.4%, 시간제는 16.6%로 나타났다. 남성(83.8%)이 여성(82.9%)보다 첫 일자리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첫 일자리가 전일제인 비율이 높아졌다. 만 18-19세 22.9%, 만 20-24세 59.7%, 만 25-29세 90.2%, 만 30-34세 95.2%가 전일제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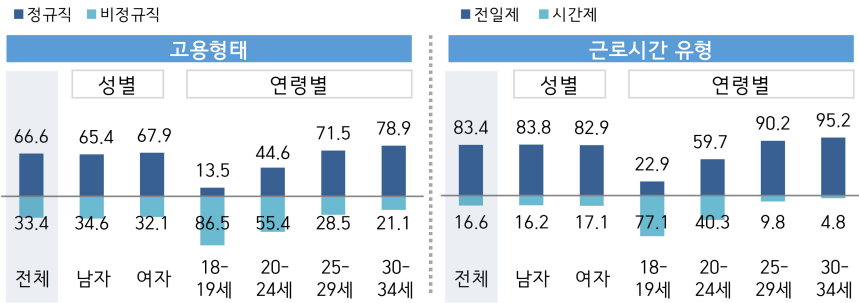


그림 III-6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임금근로자)

표 III-14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 형태		근로시간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전체	(1,383)	66.6	33.4	83.4	16.6
성별	남자 (696)	65.4	34.6	83.8	16.2
	여자 (687)	67.9	32.1	82.9	17.1
연령	만 18 - 19 세 (42)	13.5	86.5	22.9	77.1
	만 20 - 24 세 (306)	44.6	55.4	59.7	40.3
	만 25 - 29 세 (516)	71.5	28.5	90.2	9.8
	만 30 - 34 세 (519)	78.9	21.1	95.2	4.8
지역	서울 (304)	67.9	32.1	77.1	22.9
	인천 / 경기 (427)	66.2	33.8	86.6	13.4
	대전/충청/세종/강원 (211)	66.4	33.6	84.8	15.2
	광주 / 전라 / 제주 (125)	70.6	29.4	81.6	18.4
	부산 / 울산 / 경남 (186)	61.6	38.4	81.5	18.5
	대구 / 경북 (130)	68.8	31.2	89.1	10.9
학력	고졸이하 (404)	64.1	35.9	87.1	12.9
	대학/대학원 재학 (133)	15.5	84.5	20.6	79.4
	대졸이상 (846)	76.4	23.6	92.0	8.0
주거 형태	동거 (715)	58.6	41.4	75.7	24.3
	비동거 / 독립 (668)	76.5	23.5	92.8	7.2

주)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응답자 대상

(7) 첫 일자리 근로형태 (비임금근로자)

첫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23.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3%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여성의 56.5%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고 14.6%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52.4%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7.5%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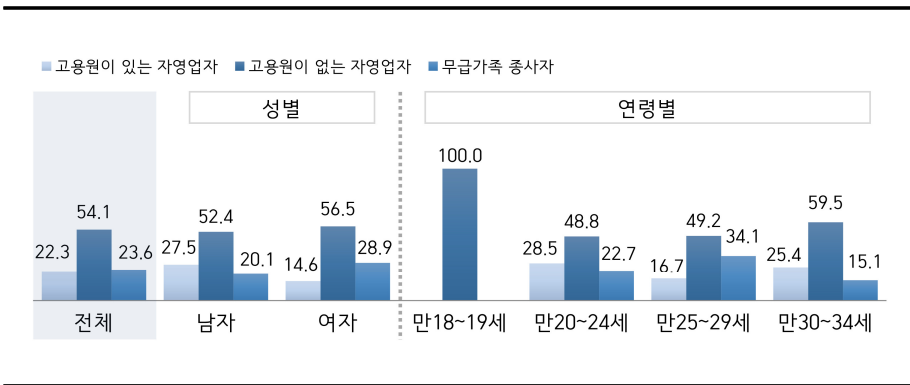


그림 III-7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

표 III-15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82)	22.3	54.1	23.6
성별	남	(49)	27.5	52.4	20.1
	여	(33)	14.6	56.5	28.9
연령	만 18 - 19 세	(1)	0.0	100.0	0.0
	만 20 - 24 세	(14)	28.5	48.8	22.7
	만 25 - 29 세	(32)	16.7	49.2	34.1
	만 30 - 34 세	(35)	25.4	59.5	15.1
지역	서울	(22)	9.2	75.6	15.2
	인천 / 경기	(15)	10.7	71.8	17.5
	대전/충청/세종/강원	(9)	28.1	61.4	10.5
	광주 / 전라 / 제주	(17)	15.6	36.4	48.0
	부산 / 울산 / 경남	(12)	48.4	32.1	19.5
	대구 / 경북	(7)	46.3	34.8	18.9
학력	고졸이하	(33)	12.5	55.6	31.9
	대학/대학원 재학	(4)	13.2	57.2	29.6
	대졸이상	(45)	29.6	52.8	17.6
주거 형태	동거	(39)	19.0	47.3	33.7
	비동거 / 독립	(43)	25.8	61.1	13.1

주) 졸업 후 첫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자인 응답자 대상

(8) 첫 일자리의 직업분류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업 분류를 살펴보면, 사무 종사자인 비율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종사자 26%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판매 종사자 1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2%가 뒤를 이었다. 첫 일자리가 사무 종사자인 비율은 여성(42.6%)이 남성(26.4%)보다 약 16%p 높게 나타났으며, 첫 일자리 직업 분류에 성별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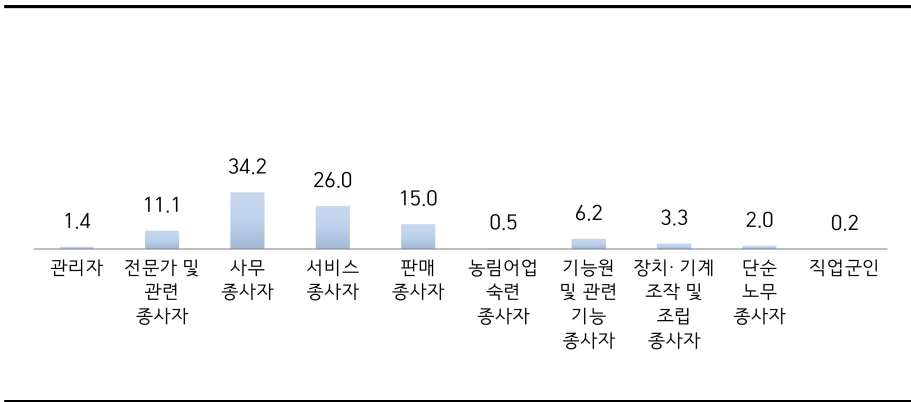


그림 III-8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업 분류

표 III-16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업 분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차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직업 군인
전	체 (1,466)	1.4	11.1	34.2	26.0	15.0	0.5	6.2	3.3	2.0	0.2
성별	남 자 (745)	2.3	10.7	26.4	24.0	16.3	1.0	9.7	5.6	3.5	0.3
	여 자 (720)	0.4	11.5	42.6	28.2	13.7	0.0	2.4	0.9	0.4	0.0
연령	만 18 - 19 세 (43)	0.0	5.2	4.0	50.0	28.2	0.0	7.1	0.0	5.4	0.0
	만 20 - 24 세 (320)	0.1	5.1	18.8	38.1	23.9	0.6	6.6	4.7	2.0	0.0
	만 25 - 29 세 (548)	1.4	11.8	37.7	25.0	13.4	0.6	5.6	2.2	2.3	0.0
	만 30 - 34 세 (554)	2.2	14.4	42.2	18.2	10.5	0.5	6.4	3.7	1.5	0.4
지역	서울 (326)	1.4	11.3	37.0	30.3	16.7	0.0	0.9	1.3	1.1	0.0
	인천 / 경기 (442)	1.6	13.3	37.2	24.5	14.1	0.0	3.5	2.9	2.8	0.0
	대전/충청/세종/강원 (220)	1.2	7.0	34.1	28.7	14.2	0.3	5.0	6.6	2.8	0.1
	광주 / 전라 / 제주 (142)	1.8	11.4	30.0	18.7	22.3	3.6	9.5	1.1	1.6	0.0
	부산 / 울산 / 경남 (198)	1.2	7.6	28.1	27.1	15.4	1.2	11.6	5.3	2.0	0.4
	대구 / 경북 (137)	0.5	13.2	30.8	23.1	7.9	0.0	18.2	4.4	0.9	1.0
학력	고졸이하 (437)	0.4	2.5	14.2	36.2	22.5	0.9	12.3	6.8	3.8	0.3
	대학/대학원 재학 (137)	0.2	6.8	9.1	45.1	33.1	0.0	1.5	2.3	2.0	0.0
	대졸이상 (891)	2.0	16.1	48.3	17.9	8.4	0.4	3.9	1.7	1.1	0.1
주거 형태	동거 (754)	1.0	9.7	31.3	30.2	17.2	0.9	4.8	2.3	2.6	0.1
	비동거 / 독립 (711)	1.8	12.9	37.9	20.9	12.4	0.1	8.0	4.5	1.3	0.2

주) 첫 번째 일자리에 응답한 응답자 대상

### (9)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장 유형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장 유형으로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가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첫 일자리의 직장 유형은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거주 청년의 경우 민간업체의 비율이 90.4%로 다른 지역 청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충청/세종/강원에 거주하는 청년 중 민간업체가 첫 일자리인 청년의 비율은 78.5%로 모든 지역 중 가장 낮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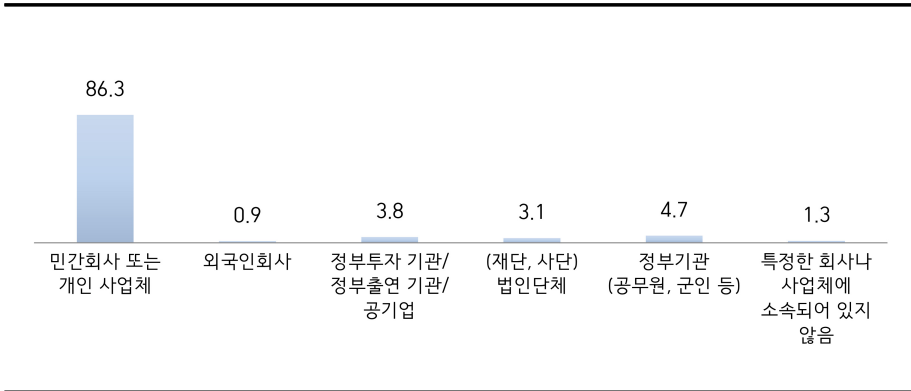


그림 III-9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장 유형

표 III-17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장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 기관/ 정부출연 기관/ 공기업	(재단, 사단) 법인단체	정부기관 (공무원, 군인 등)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전	체	(1,465)	86.3	0.9	3.8	3.1	4.7	1.3
성별	남 자	(745)	86.7	1.2	3.6	2.4	4.9	1.2
	여 자	(720)	85.8	0.6	3.9	3.9	4.4	1.3
연령	만 18 - 19 세	(43)	93.9	0.0	0.0	0.0	1.2	4.9
	만 20 - 24 세	(320)	88.6	0.9	2.4	2.3	3.2	2.6
	만 25 - 29 세	(548)	84.3	1.0	4.3	4.5	5.4	0.5
	만 30 - 34 세	(554)	86.3	1.0	4.3	2.5	5.1	0.9
지역	서 울	(326)	90.4	0.1	4.5	1.3	3.5	0.2
	인 천 / 경 기	(442)	89.2	1.1	2.1	3.1	2.7	1.7
	대전/충청/세종/강원	(220)	78.5	2.8	4.5	6.0	8.2	0.0
	광주 / 전라 / 제주	(142)	81.0	0.0	6.5	2.2	4.7	5.6
	부산 / 울산 / 경남	(198)	87.2	1.0	5.5	1.0	5.2	0.0
	대 구 / 경 북	(137)	79.9	0.9	1.6	7.6	8.4	1.5
학력	고 졸 이 하	(437)	92.2	1.0	1.1	0.4	3.1	2.2
	대학/대학원 재학	(137)	92.6	0.0	2.7	1.8	2.0	0.9
	대 졸 이 상	(891)	82.3	1.1	5.3	4.7	5.9	0.8
주거 형태	동 거	(754)	87.3	0.6	3.3	3.5	3.9	1.4
	비 동 거 / 독 립	(711)	85.0	1.4	4.3	2.6	5.6	1.1

주) 첫 번째 일자리에 응답한 응답자 대상

(10) 첫 일자리의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첫 일자리의 종사자 규모를 살펴본 결과, 약 64%의 청년들이 30인 미만 (1-4인 + 5-9인 + 10-29인)의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인 규모의 직장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한 비율도 26.3%로 높은 편이다. 첫 일자리의 종사자 규모가 500인 이상인 경우는 7.7%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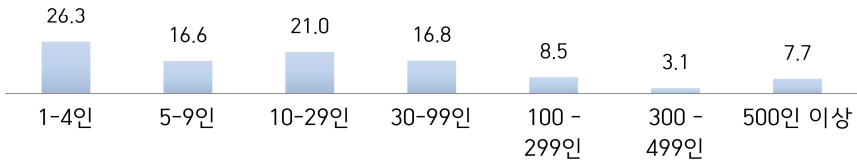


그림 Ⅲ-10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표 III-18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1,465)	26.3	16.6	21.0	16.8	8.5	3.1	7.7
성별	남 자	(745)	27.0	15.3	18.1	17.4	9.1	4.0	9.2
	여 자	(720)	25.5	18.0	24.1	16.1	7.9	2.2	6.2
연령	만 18 - 19 세	(43)	60.0	9.5	15.6	8.2	4.0	0.0	2.7
	만 20 - 24 세	(320)	40.8	18.0	17.4	12.7	4.0	1.9	5.2
	만 25 - 29 세	(548)	21.8	18.2	22.7	15.6	8.7	3.0	9.9
	만 30 - 34 세	(554)	19.6	14.8	21.8	21.0	11.2	4.2	7.4
지역	서울	(326)	30.9	18.9	19.9	13.8	6.4	3.3	6.9
	인천 / 경기	(442)	20.8	20.8	19.4	19.3	7.6	4.0	8.1
	대전/충청/세종/강원	(220)	26.3	10.3	26.3	19.0	9.9	3.1	5.1
	광주 / 전라 / 제주	(142)	32.5	14.9	20.8	14.7	10.4	1.0	5.6
	부산 / 울산 / 경남	(198)	29.0	10.4	21.2	16.6	10.6	3.4	8.7
	대구 / 경북	(137)	23.9	15.5	21.9	14.9	9.9	1.4	12.4
학력	고졸 이하	(437)	39.1	20.1	16.3	11.5	5.1	2.4	5.6
	대학/대학원 재학	(137)	57.0	17.9	12.6	4.7	3.2	2.0	2.7
주거 형태	대졸 이상	(891)	14.9	14.6	24.7	21.4	11.1	3.7	9.6
	동거	(754)	30.2	18.0	21.0	15.2	7.3	2.5	5.9
	비동거 / 독립	(711)	21.4	14.9	21.0	18.8	10.0	3.9	10.0

주) 첫 번째 일자리에 응답한 응답자 대상

(11) 첫 일자리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및 월 소득

졸업 후 첫 일자리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1시간이었으며, 월 소득은 평균 213만원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은 남성이 약 42시간, 여성이 약 40시간으로 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이 약 2시간 적었다. 월 소득은 남성 231만원 여성 194만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7만원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간 차이도 뚜렷이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의 청년은 평균 44시간 근무에 203만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대졸 이상의 청년은 42시간 근무에 236만원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의 청년들은 대졸 이상의 청년보다 그들의 첫 일자리에서 더 오랜 시간 일하지만 더 적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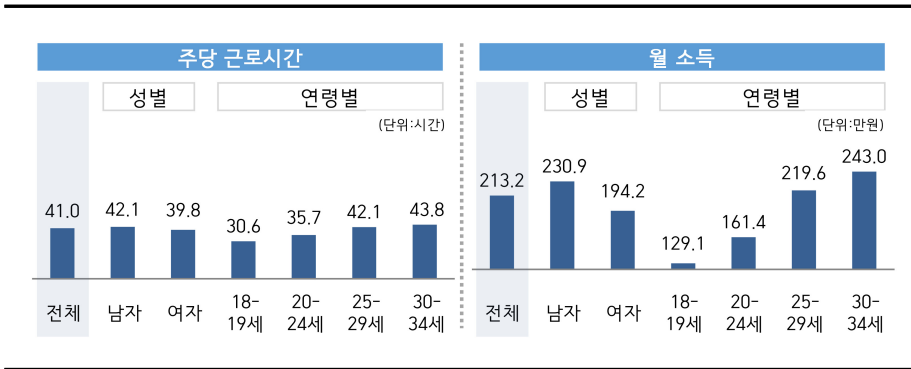


그림 Ⅲ-11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및 월 소득

표 III-19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및 월 소득

(단위: 명, 시간, 만원)

구분		사례수	주당 근로시간(시간)	월 소득(만원)
전	체	(1,465)	41.0	213.2
성별	남 자	(745)	42.1	230.9
	여 자	(720)	39.8	194.2
연령	만 18 - 19 세	(43)	30.6	129.1
	만 20 - 24 세	(320)	35.7	161.4
	만 25 - 29 세	(548)	42.1	219.6
	만 30 - 34 세	(554)	43.8	243.0
지역	서 울	(326)	38.9	213.7
	인 천 / 경 기	(442)	41.6	215.5
	대전/충청/세종/강원	(220)	42.0	210.9
	광 주 / 전 라 / 제 주	(142)	40.7	197.1
	부 산 / 울 산 / 경 남	(198)	41.5	209.4
	대 구 / 경 북	(137)	42.5	227.2
학력	고 졸 이 하	(437)	43.9	203.3
	대학/대학원 재학	(137)	25.5	101.7
	대 졸 이 상	(891)	42.1	236.0
주거 형태	동 거	(754)	39.1	195.6
	비 동 거 / 독 립	(711)	43.3	234.7

주) 첫 번째 일자리에 응답한 응답자 대상

(12) 첫 일자리 만족도

졸업 후 첫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좋아한다(약간 좋아한다 + 좋아한다 +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8%로 나타났다. 싫어한다(약간 싫어한다 + 싫어한다 + 매우 싫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였다. 남성이 첫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약간 싫어한다 + 싫어한다 + 매우 싫어한다)이 16.2%로, 여성(15.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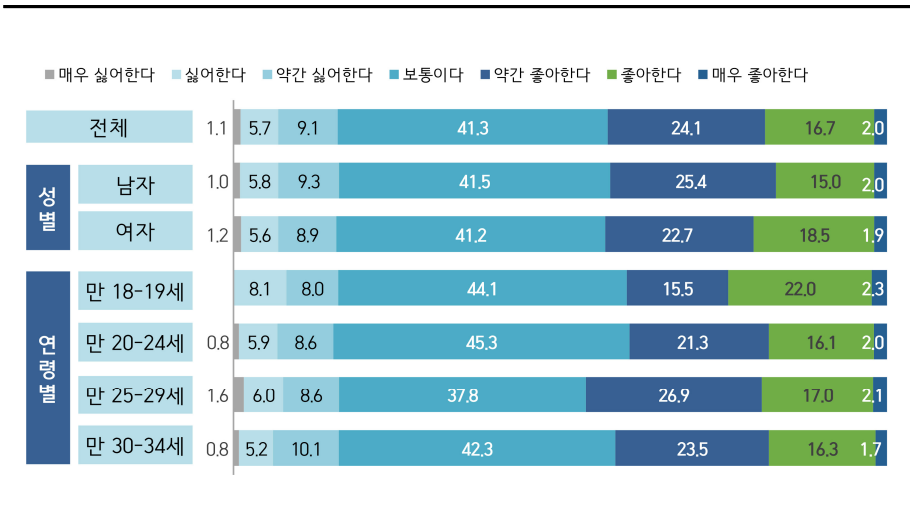


그림 III-12 졸업 후 첫 일자리 만족도

표 III-20 졸업 후 첫 일자리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싫어 한다	싫어 한다	약간 싫어 한다	보통 이다	약간 좋아 한다	좋아 한다	매우 좋아 한다
전	체 (1,465)	1.1	5.7	9.1	41.3	24.1	16.7	2.0
성별	남 자 (745)	1.0	5.8	9.3	41.5	25.4	15.0	2.0
	여 자 (720)	1.2	5.6	8.9	41.2	22.7	18.5	1.9
연령	만 18 - 19 세 (43)	0.0	8.1	8.0	44.1	15.5	22.0	2.3
	만 20 - 24 세 (320)	0.8	5.9	8.6	45.3	21.3	16.1	2.0
	만 25 - 29 세 (548)	1.6	6.0	8.6	37.8	26.9	17.0	2.1
	만 30 - 34 세 (554)	0.8	5.2	10.1	42.3	23.5	16.3	1.7
지역	서울 (326)	0.0	2.6	6.3	40.2	33.1	16.9	1.0
	인천 / 경기 (442)	2.0	6.7	13.6	37.2	21.7	16.4	2.3
	대전/충청/세종/강원 (220)	1.9	7.0	11.9	42.7	18.5	15.4	2.5
	광주 / 전라 / 제주 (142)	0.7	3.1	2.6	35.5	31.2	24.7	2.1
	부산 / 울산 / 경남 (198)	0.4	8.7	8.6	49.9	18.1	12.8	1.4
	대구 / 경북 (137)	1.0	6.3	4.0	49.1	19.6	17.0	3.0
학력	고졸 이하 (437)	1.6	5.4	9.4	48.0	23.5	11.3	0.8
	대학/대학원 재학 (137)	0.9	5.8	10.1	53.4	13.1	14.5	2.0
	대졸 이상 (891)	0.8	5.9	8.8	36.1	26.1	19.7	2.5
주거 형태	동거 (754)	0.7	6.5	9.0	42.5	23.8	15.9	1.7
	비동거 / 독립 (711)	1.6	4.8	9.2	40.0	24.5	17.7	2.3

주) 첫 번째 일자리에 응답한 응답자 대상

### (13) 지난 주 일자리 개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자리가 있는 청년을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중인 청년’으로 정의하고, 현재 일자리가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일자리의 특성은 청년의 이행기적인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①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인 청년, ②현재 일자리가 두 번째 이후인 청년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 일자리가 있는 청년 중 한 가지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은 98.9%였으며, 두 가지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은 1%, 세 가지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은 0.1%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인 경우 99%의 응답자가 한 가지의 일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현재 일자리가 두 번째 이후의 일자리인 경우 98.6%의 응답자가 한 가지의 일에 종사하고 1.4%의 청년이 두 가지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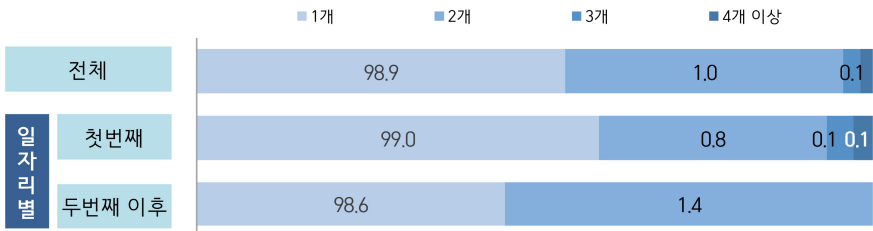


그림 III-13 지난 주 일자리 개수

표 III-21 지난 주 일자리 개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개	2개	3개	4개
전	체	(1,331)	98.9	1.0	0.1	0.0
성별	남 자	(701)	99.6	0.3	0.1	0.0
	여 자	(630)	98.0	1.9	0.0	0.1
연령	만 18 - 19 세	(43)	96.9	3.1	0.0	0.0
	만 20 - 24 세	(289)	97.8	1.9	0.3	0.0
	만 25 - 29 세	(501)	99.2	0.7	0.0	0.1
	만 30 - 34 세	(498)	99.3	0.7	0.0	0.0
지역	서울	(299)	98.0	1.6	0.3	0.2
	인천 / 경기	(393)	98.5	1.5	0.0	0.0
	대전/충청/세종/강원	(209)	100.0	0.0	0.0	0.0
	광주 / 전라 / 제주	(132)	99.7	0.3	0.0	0.0
	부산 / 울산 / 경남	(175)	98.7	1.3	0.0	0.0
	대구 / 경북	(123)	100.0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385)	99.4	0.4	0.2	0.0
	대학/대학원 재학	(125)	97.7	2.3	0.0	0.0
	대졸 이상	(821)	98.8	1.1	0.0	0.1
주거 형태	동거	(684)	98.8	1.0	0.1	0.1
	비동거 / 독립	(647)	99.0	1.0	0.0	0.0
일자리	첫 번째	(872)	99.0	0.8	0.1	0.1
	두 번째 이후	(459)	98.6	1.4	0.0	0.0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대상

#### (1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시작한 시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시작한 시기는 2017-2021년이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인 경우 2016년 이전에 일자리를 가진 경우가 26.9%로 나타났으나, 현재 일자리가 두 번째 이후의 일자리인 경우 2016년 이전에 일을 시작한 경우는 13%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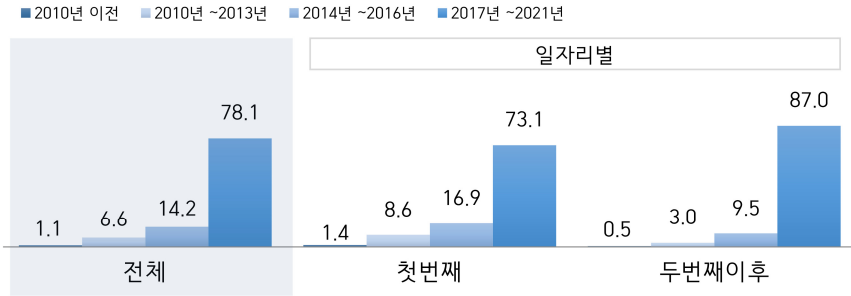


그림 III-1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시작한 시기

표 III-22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시작한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2010년 이 전	2010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21년
전	체	(1,331)	1.1	6.6	14.2	78.1
성별	남	(701)	1.0	6.5	14.3	78.2
	여	(630)	1.2	6.7	14.1	78.0
연령	만 18 - 19 세	(43)	0.0	0.0	0.0	100.0
	만 20 - 24 세	(289)	0.0	0.0	3.0	97.0
	만 25 - 29 세	(501)	0.0	3.0	14.1	82.8
	만 30 - 34 세	(498)	2.9	14.5	22.1	60.5
지역	서울	(299)	0.8	6.6	11.5	81.2
	인천 / 경기	(393)	1.5	6.1	13.3	79.1
	대전/충청/세종/강원	(209)	1.1	8.0	12.8	78.1
	광주 / 전라 / 제주	(132)	0.0	4.4	22.6	73.0
	부산 / 울산 / 경남	(175)	1.4	6.6	12.9	79.1
	대구 / 경북	(123)	1.4	8.1	19.6	70.9
학력	고졸이하	(385)	2.4	7.6	17.0	73.0
	대학/대학원 재학	(125)	0.0	0.0	1.9	98.1
	대졸이상	(821)	0.7	7.1	14.9	77.3
주거 형태	동거	(684)	0.0	4.6	10.2	85.2
	비동거 / 독립	(647)	2.5	9.0	19.2	69.3
일자 리	첫 번째	(872)	1.4	8.6	16.9	73.1
	두 번째 이후	(459)	0.5	3.0	9.5	87.0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대상

(1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근속기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근속기간은 평균 35.7개월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인 경우 39.5개월, 두 번째 이후의 일자리인 경우 29개월로 나타나,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번째 일자의 고용 안정성이 더 좋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의 연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일자리에서 이직한 청년들이 두 번째 이후의 현재 일자리에서 근속할 수 있었던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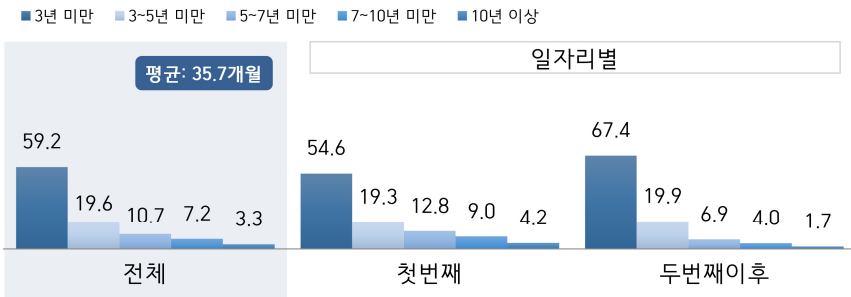


그림 III-1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근속기간

표 III-23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근속연수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근속연수 (개월)
전	체	(1,331)	59.2	19.6	10.7	7.2	3.3	35.7
성별	남 자	(701)	58.9	20.2	10.8	7.3	2.8	35.1
	여 자	(630)	59.5	18.8	10.6	7.1	3.9	36.5
연령	만 18 - 19 세	(43)	100.0	0.0	0.0	0.0	0.0	7.6
	만 20 - 24 세	(289)	88.5	8.6	2.9	0.0	0.0	15.3
	만 25 - 29 세	(501)	63.1	20.6	11.1	4.9	0.3	31.7
	만 30 - 34 세	(498)	34.9	26.5	15.8	14.3	8.6	53.9
지역	서울	(299)	59.6	22.2	7.6	8.2	2.4	34.5
	인천 / 경기	(393)	57.0	23.3	10.2	5.1	4.5	36.6
	대전/충청/세종/강원	(209)	63.6	14.5	10.2	8.7	3.0	34.2
	광주 / 전라 / 제주	(132)	53.6	21.5	16.3	5.9	2.5	36.8
	부산 / 울산 / 경남	(175)	64.2	14.9	11.4	6.4	3.2	34.3
	대구 / 경북	(123)	58.2	12.7	14.1	12.0	3.1	38.6
학력	고졸 이하	(385)	57.2	16.4	12.4	8.9	5.1	39.4
	대학/대학원 재학	(125)	91.7	6.8	0.5	1.1	0.0	11.6
	대졸 이상	(821)	55.0	23.1	11.5	7.4	3.0	37.8
주거 형태	동거	(684)	68.8	17.0	7.8	5.4	1.0	28.2
	비동거 / 독립	(647)	47.4	22.7	14.3	9.4	6.3	45.1
일자 리	첫 번째	(872)	54.6	19.3	12.8	9.0	4.2	39.5
	두 번째 이후	(459)	67.4	19.9	6.9	4.0	1.7	29.0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대상

### (16)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는 청년 전체의 경우 89.1%가 임금 근로자, 10.9%가 비임금근로자로 나타났다.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 중 첫 번째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91.9%가 임금근로자였으나, 두 번째 이상의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84.2%가 임금근로자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첫 일자리는 임금근로자로 시작하지만 점차 비임금근로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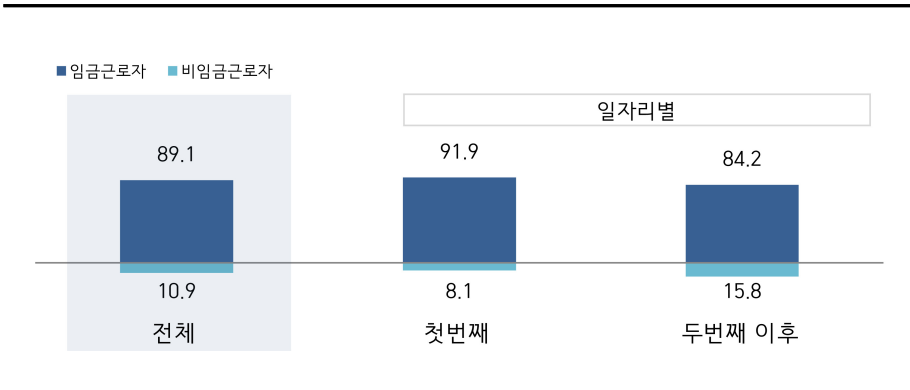


그림 III-16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표 III-2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1,331)	89.1	10.9
성별	남 자	(701)	87.4	12.6
	여 자	(630)	91.2	8.8
연령	만 18 - 19 세	(43)	97.8	2.2
	만 20 - 24 세	(289)	94.2	5.8
	만 25 - 29 세	(501)	89.9	10.1
	만 30 - 34 세	(498)	84.7	15.3
지역	서 울	(299)	89.3	10.7
	인 천 / 경 기	(393)	91.9	8.1
	대전/충청/세종/강원	(209)	90.7	9.3
	광 주 / 전 라 / 제 주	(132)	80.1	19.9
	부 산 / 울 산 / 경 남	(175)	86.8	13.2
	대 구 / 경 북	(123)	89.7	10.3
학력	고 졸 이 하	(385)	84.6	15.4
	대학/대학원 재학	(125)	98.0	2.0
	대 졸 이 상	(821)	89.9	10.1
주거 형태	동 거	(684)	91.6	8.4
	비 동 거 / 독 립	(647)	86.1	13.9
일자 리	첫 번 째	(872)	91.9	8.1
	두 번 째 이 후	(459)	84.2	15.8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대상

(17) 현재 일자리의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인 경우, 전체 청년의 74.7%가 정규직이었으며, 25.3%가 비정규직이었다.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인 경우는 75%가 정규직이었으며, 두 번째 이후 일자리인 경우는 74.3%가 정규직이었다. 근로시간 유형은 전체 청년의 83.9%가 전일제였으며, 16.1%가 시간제였다.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인 경우는 82.4%가 전일제였으며, 두 번째 이후 일자리인 경우는 86.9%가 전일제였다. 현재 두 번째 이후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은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보다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유형에서 고용안정성이 약간 저하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첫 번째 일자리에서 두 번째 일자리로의 이행이 더욱 불안정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첫 번째 일자리를 유지하는 청년들은 보통 정규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직 경험을 했던 두 번째 이후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보다 고용안정성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첫 번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청년층과 첫 번째의 불안정한 일자리 이후 계속적으로 이직하며 불안정한 근로형태를 이어가는 청년들로 이분화된 노동시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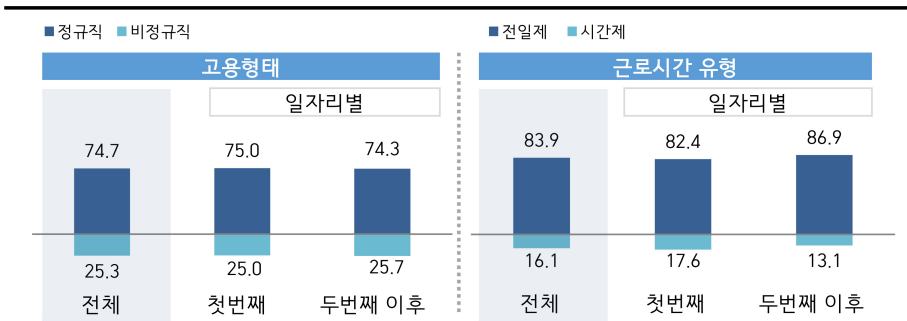


그림 III-17 근로형태(임금근로자)

표 III-25 근로형태(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 형태		근로시간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전체	(1,186)	74.7	25.3	83.9	16.1	
성별	남자	(610)	75.2	24.8	85.6	14.4
	여자	(576)	74.3	25.7	82.1	17.9
연령	만 18 - 19 세	(42)	11.0	89.0	21.4	78.6
	만 20 - 24 세	(274)	48.2	51.8	61.0	39.0
	만 25 - 29 세	(450)	83.7	16.3	93.3	6.7
	만 30 - 34 세	(420)	88.3	11.7	94.6	5.4
지역	서울	(265)	75.2	24.8	80.8	19.2
	인천 / 경기	(360)	77.4	22.6	87.9	12.1
	대전/충청/세종/강원	(191)	77.7	22.3	84.7	15.3
	광주 / 전라 / 제주	(106)	70.8	29.2	76.4	23.6
	부산 / 울산 / 경남	(152)	70.1	29.9	80.7	19.3
	대구 / 경북	(112)	70.5	29.5	87.6	12.4
학력	고졸 이하	(324)	75.9	24.1	90.1	9.9
	대학/대학원 재학	(121)	16.1	83.9	18.5	81.5
	대졸 이상	(741)	84.3	15.7	92.5	7.5
주거 형태	동거	(624)	67.4	32.6	77.7	22.3
	비동거 / 독립	(562)	84.4	15.6	92.2	7.8
일자 리	첫 번째	(802)	75.0	25.0	82.4	17.6
	두 번째 이후	(384)	74.3	25.7	86.9	13.1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임금근로자 대상

(18) 현재 일자리의 근로형태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전체 청년의 61.8%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으며, 21.5%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6%가 무급가족 종사자였다.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인 경우는 56.1%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으며, 두 번째 이후 일자리인 경우는 67.1%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 역시 두 번째 이후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이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에 비하여 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자영업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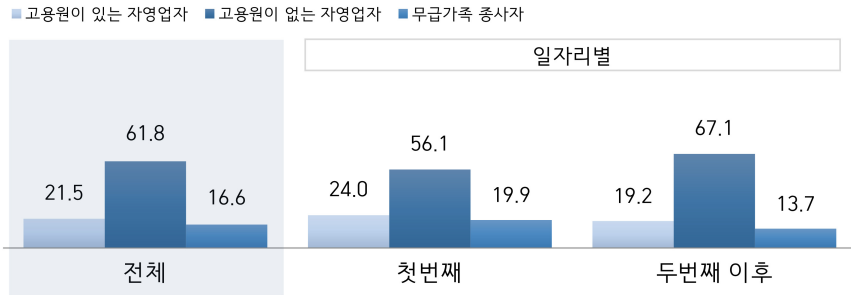


그림 III-18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

표 III-26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145)	21.5	61.8	16.6
성별	남 자	(91)	26.5	55.4	18.0
	여 자	(54)	13.2	72.5	14.4
연령	만 18 - 19 세	(1)	0.0	100.0	0.0
	만 20 - 24 세	(15)	24.7	55.4	19.9
	만 25 - 29 세	(51)	22.4	60.5	17.1
	만 30 - 34 세	(78)	20.5	63.7	15.8
지역	서 울	(34)	14.9	75.8	9.4
	인 천 / 경 기	(33)	21.6	70.2	8.2
	대전/충청/세종/강원	(18)	12.6	83.8	3.6
	광주/전라/제주	(26)	15.1	35.7	49.3
	부산/울산/경남	(23)	29.8	55.8	14.4
	대 구 / 경 북	(11)	44.7	39.1	16.2
학력	고 졸 이 하	(61)	12.8	71.8	15.4
	대학/대학원 재학	(4)	13.2	57.2	29.6
	대 졸 이 상	(80)	28.1	54.8	17.1
주거 형태	동 거	(60)	20.4	51.1	28.5
	비 동 거 / 독 립	(85)	22.4	69.9	7.7
일자 리	첫 번 째	(70)	24.0	56.1	19.9
	두 번 째 이 후	(75)	19.2	67.1	13.7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비임금근로자 대상

(19)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의 33%가 사무종사자, 24.3%가 서비스 종사자였다. 첫 번째 일자리인 경우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36.9%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 이후의 일자리인 경우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28.4%로 가장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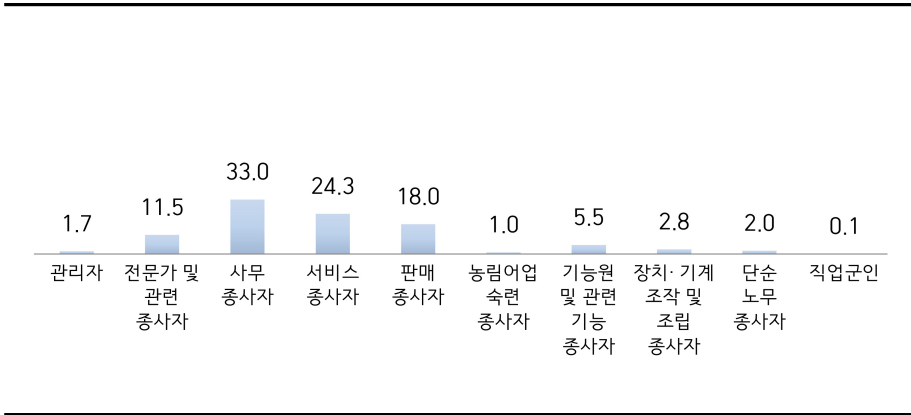


그림 III-19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표 III-2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차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직업 군인
전	체	(1,331)	1.7	11.5	33.0	24.3	18.0	1.0	5.5	2.8	2.0	0.1
성별	남	(701)	2.7	12.0	25.6	21.0	19.3	1.9	8.9	5.1	3.3	0.2
	여	(630)	0.4	11.0	41.4	28.1	16.6	0.0	1.7	0.2	0.5	0.0
연령	만 18 - 19 세	(43)	0.0	5.2	4.0	51.5	30.7	0.0	4.6	0.0	3.9	0.0
	만 20 - 24 세	(289)	0.1	5.7	19.8	34.2	27.1	0.7	4.2	5.0	3.3	0.0
	만 25 - 29 세	(501)	1.6	11.4	38.7	21.9	15.3	0.7	6.1	2.3	2.0	0.0
	만 30 - 34 세	(498)	2.7	15.6	37.2	18.7	14.4	1.7	5.8	2.3	1.1	0.3
지역	서울	(299)	1.5	12.3	36.8	30.7	16.9	0.0	1.0	0.7	0.0	0.0
	인천 / 경기	(393)	2.0	14.3	37.5	19.7	16.1	0.0	3.9	3.0	3.5	0.0
	대전/충청/세종/강원	(209)	1.3	6.6	29.0	26.6	24.7	0.3	5.8	3.4	2.2	0.1
	광주 / 전라 / 제주	(132)	1.9	9.3	23.4	17.1	31.8	6.3	7.6	0.3	2.2	0.0
	부산 / 울산 / 경남	(175)	1.4	7.9	28.5	27.3	16.6	2.3	10.0	4.2	1.9	0.0
	대구 / 경북	(123)	1.6	14.5	29.8	23.4	7.4	1.1	13.0	6.8	1.4	1.1
학력	고졸이하	(385)	0.5	3.1	13.6	31.7	27.5	1.5	10.8	7.2	3.6	0.4
	대학/대학원 재학	(125)	0.3	7.6	9.5	41.8	37.1	0.0	1.6	0.9	1.3	0.0
	대졸이상	(821)	2.4	16.2	45.9	18.0	10.5	1.0	3.7	1.1	1.3	0.0
주거 형태	동거	(684)	1.3	10.0	32.7	26.5	19.8	1.8	3.9	1.5	2.4	0.0
	비동거 / 독립	(647)	2.1	13.5	33.3	21.4	15.7	0.2	7.6	4.4	1.4	0.3
일자 리	첫 번째	(872)	2.2	12.2	36.9	22.0	15.9	0.9	5.5	2.5	1.8	0.2
	두 번째 이후	(459)	0.7	10.3	26.0	28.4	21.9	1.3	5.7	3.4	2.4	0.0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대상

## (20)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장 유형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장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의 84.6%가 민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첫 번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두 번째 이후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보다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일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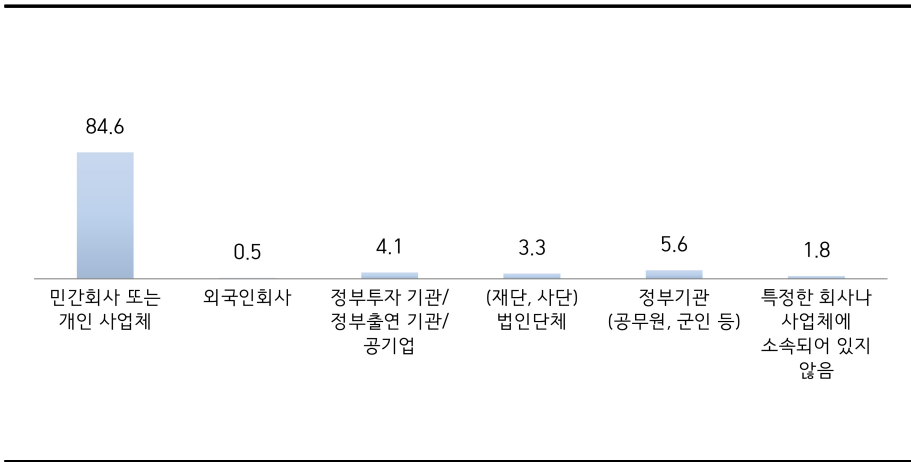


그림 III-20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장 유형

표 III-2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장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 기관/ 정부출연 기관/ 공기업	(재단, 사단) 법인단체	정부기관 (공무원, 군인 등)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전	체	(1,331)	84.6	0.5	4.1	3.3	5.6	1.8
성별	남 자	(701)	85.9	0.7	3.6	2.4	5.5	1.9
	여 자	(630)	83.2	0.2	4.7	4.4	5.7	1.7
연령	만 18 - 19 세	(43)	93.9	0.0	0.0	0.0	1.2	4.9
	만 20 - 24 세	(289)	88.3	1.0	2.1	2.2	3.8	2.6
	만 25 - 29 세	(501)	84.1	0.3	4.8	4.2	5.4	1.1
	만 30 - 34 세	(498)	82.2	0.3	5.0	3.4	7.3	1.9
지역	서울	(299)	89.2	0.2	4.1	1.4	5.0	0.2
	인천 / 경기	(393)	88.1	0.5	2.4	3.0	3.6	2.4
	대전/충청/세종/강원	(209)	77.0	1.0	5.3	6.3	8.5	2.0
	광주 / 전라 / 제주	(132)	82.7	0.0	7.9	1.5	3.7	4.3
	부산 / 울산 / 경남	(175)	85.3	1.1	5.1	2.5	5.9	0.0
	대구 / 경북	(123)	73.2	0.0	3.4	8.0	11.5	3.9
학력	고졸 이하	(385)	92.7	0.5	1.0	0.3	2.7	2.8
	대학/대학원 재학	(125)	92.8	0.0	1.6	2.3	2.3	1.0
	대졸 이상	(821)	79.5	0.5	6.0	4.9	7.5	1.5
주거 형태	동거	(684)	86.1	0.3	3.1	4.1	4.8	1.6
	비동거 / 독립	(647)	82.8	0.7	5.4	2.4	6.6	2.1
일자 리	첫 번째	(872)	83.1	0.7	4.9	3.4	6.5	1.5
	두 번째 이후	(459)	87.3	0.1	2.8	3.3	4.0	2.4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대상

### (2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종사자 규모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의 64.1%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후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 중 39.5%는 1-4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첫 번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조적으로, 첫 번째 일자리를 유지하는 청년들의 경우 10%가 5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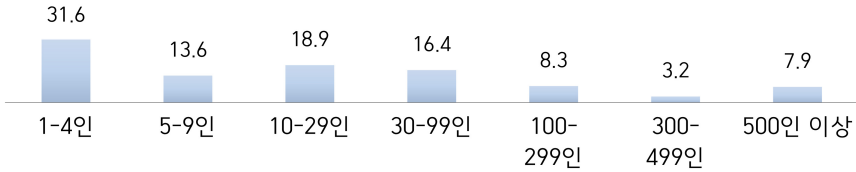


그림 Ⅲ-2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표 III-29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1,331)	31.6	13.6	18.9	16.4	8.3	3.2	7.9
성별	남 자	(701)	31.8	12.3	16.8	17.1	8.6	4.2	9.2
	여 자	(630)	31.4	15.1	21.3	15.6	8.1	2.1	6.4
연령	만 18 - 19 세	(43)	62.4	13.0	11.7	8.2	1.9	0.0	2.7
	만 20 - 24 세	(289)	44.3	15.7	17.3	12.3	4.2	1.6	4.6
	만 25 - 29 세	(501)	24.9	14.1	21.4	17.1	9.7	2.9	9.9
	만 30 - 34 세	(498)	28.6	11.8	17.9	18.8	9.9	4.7	8.4
지역	서 울	(299)	34.1	14.5	18.5	13.9	7.1	3.8	8.2
	인 천 / 경 기	(393)	25.4	15.9	18.9	19.6	8.0	4.0	8.2
	대전/충청/세종/강원	(209)	33.7	11.5	22.4	17.0	7.0	2.4	6.1
	광주/전라/제주	(132)	42.3	14.1	17.2	9.8	9.0	1.1	6.5
	부산/울산/경남	(175)	35.6	8.7	16.0	16.6	11.3	3.6	8.2
	대 구 / 경 북	(123)	28.1	12.9	20.7	16.9	9.7	1.8	9.8
학력	고 졸 이 하	(385)	46.6	15.8	15.5	10.9	4.4	1.7	5.2
	대학/대학원 재학	(125)	60.5	16.9	9.3	5.2	3.2	0.8	4.1
	대 졸 이 상	(821)	20.0	12.0	22.0	20.8	11.0	4.3	9.8
주거 형태	동 거	(684)	34.0	15.7	19.6	14.8	7.1	2.4	6.4
	비 동 거 / 독 립	(647)	28.7	11.0	18.0	18.4	9.9	4.3	9.8
일자 리	첫 번 째	(872)	27.3	12.8	19.5	17.8	9.3	3.4	10.0
	두 번 째 이 후	(459)	39.5	15.0	17.8	13.9	6.6	2.9	4.3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대상

## (22)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교육수준 대비 직무 수준

전체 청년의 72.8%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무 수준이 나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3.9%는 나의 교육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하였다. 일자리 특성별로는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인 청년의 경우 74.6%가 나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1.8%가 나의 교육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현재 일자리가 두 번째 이후의 일자리인 청년의 경우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로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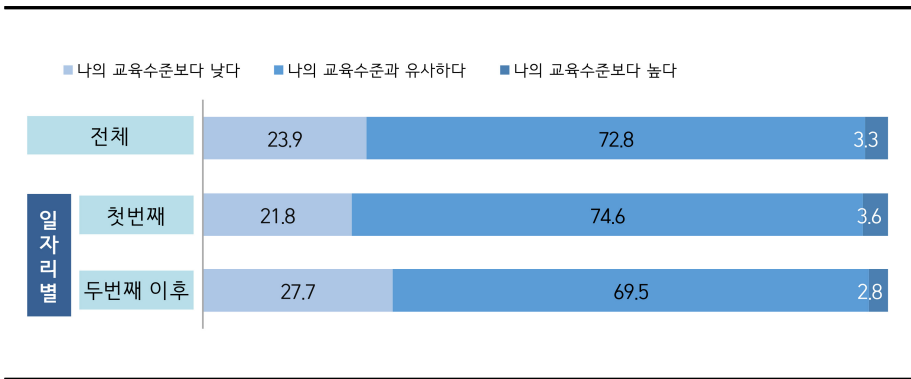


그림 III-22 교육 수준 대비 현재 일자리 직무 수준

표 III-30 교육 수준 대비 현재 일자리 직무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교육수준 보다 낮다	나의 교육수준 과 유사하다	나의 교육수준 보다 높다
전	체	(1,331)	23.9	72.8	3.3
성별	남 자	(701)	25.3	71.3	3.4
	여 자	(630)	22.3	74.5	3.2
연령	만 18 - 19 세	(43)	56.8	39.6	3.6
	만 20 - 24 세	(289)	35.9	62.1	2.0
	만 25 - 29 세	(501)	18.7	78.5	2.8
	만 30 - 34 세	(498)	19.4	75.9	4.6
지역	서 울	(299)	18.7	79.3	2.0
	인 천 / 경 기	(393)	21.6	73.8	4.6
	대전/충청/세종/강원	(209)	20.6	76.6	2.9
	광주/전라/제주	(132)	36.1	62.6	1.4
	부산/울산/경남	(175)	36.4	60.5	3.1
	대 구 / 경 북	(123)	19.1	75.8	5.1
학력	고 졸 이 하	(385)	19.2	78.3	2.5
	대학/대학원 재학	(125)	68.4	28.5	3.1
	대 졸 이 상	(821)	19.0	77.2	3.8
주거 형태	동 거	(684)	29.1	68.7	2.2
	비 동 거 / 독 립	(647)	17.4	77.8	4.7
일자 리	첫 번 째	(872)	21.8	74.6	3.6
	두 번 째 이 후	(459)	27.7	69.5	2.8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대상

### (23) 현재 일자리의 전공 일치 여부

전체 청년의 43%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이 전공분야와 일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7%가 전공분야가 불일치한다고 응답하여 과반수의 청년들이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일자리 불일치 정도는 두 번째 이후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가 두 번째 이후 일자리인 청년의 경우 64.6%의 청년이 현재 일자리가 전공분야와 불일치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력 간 격차도 뚜렷이 나타났다. 대졸 이상 청년의 49.5%가 현재의 일자리가 자신의 전공과 불일치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졸 이하 청년의 91.8%가 현재의 일자리가 자신의 전공과 불일치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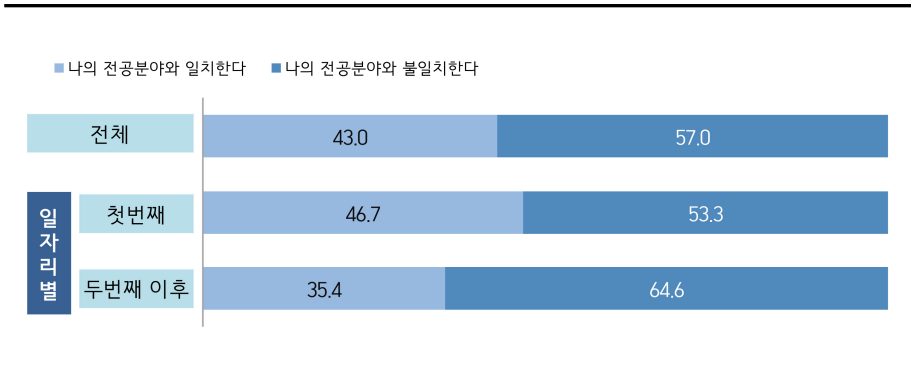


그림 III-23 현재 일자리의 전공 일치 여부

표 III-31 현재 일자리의 전공 일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전공분야와 일치한다	나의 전공분야와 불일치한다
전	체	(1,018)	43.0	57.0
성별	남 자	(516)	41.8	58.2
	여 자	(502)	44.2	55.8
연령	만 18 - 19 세	(30)	19.2	80.8
	만 20 - 24 세	(191)	39.1	60.9
	만 25 - 29 세	(394)	44.9	55.1
	만 30 - 34 세	(403)	44.7	55.3
지역	서 울	(233)	48.9	51.1
	인 천 / 경 기	(306)	47.8	52.2
	대전/충청/세종/강원	(148)	32.3	67.7
	광주/전라/제주	(91)	32.7	67.3
	부산/울산/경남	(144)	36.4	63.6
	대 구 / 경 북	(96)	43.6	56.4
학력	고 졸 이 하	(72)	8.2	91.8
	대학/대학원 재학	(125)	16.3	83.7
주거 형태	대 졸 이 상	(821)	50.5	49.5
	동 거	(535)	40.3	59.7
일자 리	비 동 거 / 독 립	(483)	46.4	53.6
	첫 번 째	(694)	46.7	53.3
	두 번 째 이 후	(324)	35.4	64.6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중 대학진학 경험자 대상

## (24) 현재 일자리 만족도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청년 중 58.3%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약간 좋아한다 + 좋아한다 + 매우 좋아한다). 일자리별로는 현재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60%)이 두 번째 이후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55.4%)보다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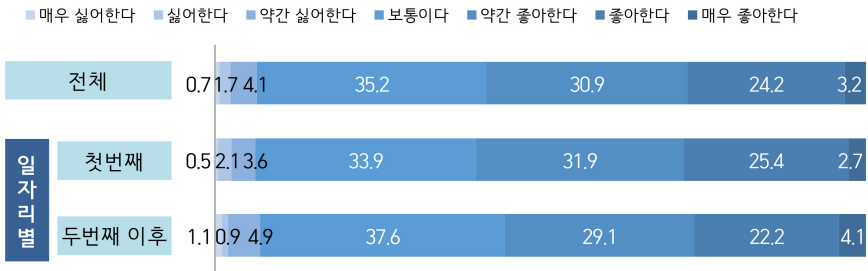


그림 III-24 현재 일자리 만족도

표 III-32 현재 일자리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싫어 한다	싫어 한다	약간 싫어 한다	보통 이다	약간 좋아 한다	좋아 한다	매우 좋아 한다	
전체	(1,331)	0.7	1.7	4.1	35.2	30.9	24.2	3.2	
성별	남자	(701)	0.8	1.6	3.4	36.4	32.4	22.0	3.4
	여자	(630)	0.6	1.7	4.9	33.8	29.1	26.9	2.9
연령	만 18 - 19 세	(43)	0.0	5.7	6.5	44.1	17.9	21.4	4.4
	만 20 - 24 세	(289)	0.8	2.3	6.1	42.1	25.3	20.1	3.3
	만 25 - 29 세	(501)	1.0	1.7	4.3	33.8	32.1	24.5	2.7
	만 30 - 34 세	(498)	0.5	1.0	2.5	31.8	34.0	26.7	3.6
지역	서울	(299)	0.0	0.8	2.0	32.4	39.4	24.3	1.2
	인천 / 경기	(393)	1.7	1.2	6.4	35.7	27.3	22.8	4.9
	대전/충청/세종/강원	(209)	0.0	1.8	2.5	38.4	29.3	24.1	4.0
	광주 / 전라 / 제주	(132)	0.0	0.0	1.7	25.0	34.6	35.9	2.8
	부산 / 울산 / 경남	(175)	0.9	5.7	4.1	42.7	29.0	16.1	1.6
	대구 / 경북	(123)	0.5	1.1	6.0	35.4	23.7	29.2	4.2
학력	고졸 이하	(385)	0.3	0.3	2.4	44.6	30.1	20.0	2.3
	대학/대학원 재학	(125)	0.0	5.3	8.2	51.3	16.2	16.1	2.9
	대졸 이상	(821)	1.0	1.8	4.2	28.2	33.6	27.5	3.7
주거 형태	동거	(684)	0.4	2.3	4.3	36.9	30.6	22.6	2.9
	비동거 / 독립	(647)	1.1	0.9	3.8	33.1	31.2	26.3	3.6
일자리	첫 번째	(872)	0.5	2.1	3.6	33.9	31.9	25.4	2.7
	두 번째 이후	(459)	1.1	0.9	4.9	37.6	29.1	22.2	4.1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대상

(25) 현재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 및 희망 월평균 소득

전체 청년의 현재 일자리 월평균 소득은 234만 6천원이며, 희망 월평균 소득은 316만으로, 자신들이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보다 약 81만원 적게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현재 일자리 월평균 소득은 254만 1천원, 여성의 현재 일자리 월평균 소득은 211만 9천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42만원 정도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간 격차도 확인되었는데, 고졸 이하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318만 8천원, 대졸 이상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341만 9천원으로 나타나, 약 23만원의 소득 격차가 나타났다.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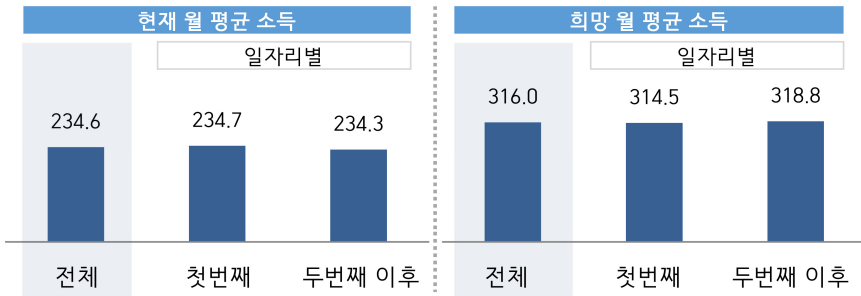


그림 Ⅲ-25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평균 소득 및 희망 월평균 소득

표 III-33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및 희망 월평균 소득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현재 월 평균 소득(만원)	희망 월 평균 소득(만원)
전	체	(1,331)	234.6	316.0
성별	남 자	(701)	254.1	346.4
	여 자	(630)	211.9	281.1
연령	만 18 - 19 세	(43)	125.7	181.3
	만 20 - 24 세	(289)	167.6	225.2
	만 25 - 29 세	(501)	240.9	321.0
	만 30 - 34 세	(498)	275.8	375.0
지역	서울	(299)	241.9	327.4
	인천 / 경기	(393)	238.8	316.0
	대전/충청/세종/강원	(209)	233.6	314.9
	광주 / 전라 / 제주	(132)	200.8	289.6
	부산 / 울산 / 경남	(175)	232.3	307.5
	대구 / 경북	(123)	239.3	327.3
학력	고졸 이하	(385)	234.5	318.8
	대학/대학원 재학	(125)	101.5	145.2
주거 형태	대졸 이상	(821)	255.5	341.9
	동거	(684)	212.4	288.4
일자 리	비동거 / 독립	(647)	262.1	350.5
	첫 번째	(872)	234.7	314.5
	두 번째 이후	(459)	234.3	318.8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대상

(26) 현재 일자리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전체 청년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1.3시간이었으며, 희망하는 주당 노동시간은 39.1시간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주당 노동시간은 42.6시간,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은 39.8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약 3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의 주당 노동시간이 44.5시간, 대졸 이상 청년의 주당 노동시간이 42.2시간으로 나타나 고졸 이하 청년이 대졸 이상 청년보다 주당 약 2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별로는 현재 일자리가 두 번째 이후 일자리인 청년의 주당 노동시간이 43.4시간으로, 첫 번째 일자리를 유지하는 청년(40.1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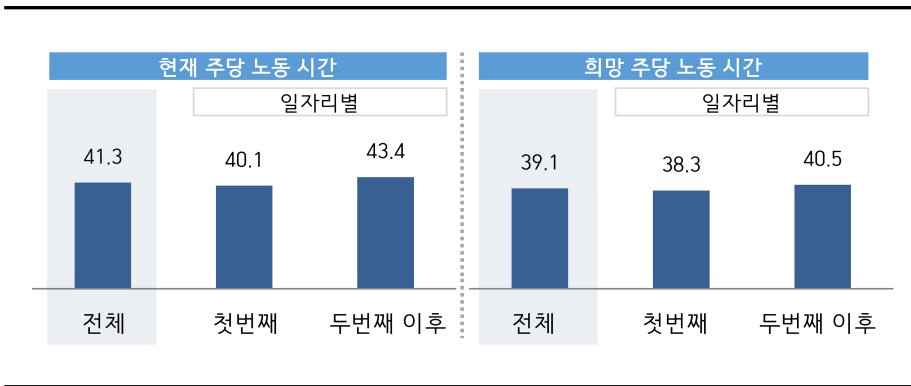


그림 III-26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표 III-34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현재 주당 노동시간(시간)	희망 주당 노동시간(시간)
전	체	(1,331)	41.3	39.1
성별	남 자	(701)	42.6	40.1
	여 자	(630)	39.8	37.8
연령	만 18 - 19 세	(43)	30.2	32.8
	만 20 - 24 세	(289)	36.6	36.8
	만 25 - 29 세	(501)	42.5	39.5
	만 30 - 34 세	(498)	43.7	40.4
지역	서울	(299)	40.0	37.7
	인천 / 경기	(393)	41.2	39.7
	대전/충청/세종/강원	(209)	42.3	39.5
	광주 / 전라 / 제주	(132)	41.2	38.8
	부산 / 울산 / 경남	(175)	41.9	38.8
	대구 / 경북	(123)	42.3	40.1
학력	고졸 이하	(385)	44.5	41.3
	대학/대학원 재학	(125)	25.8	27.9
	대졸 이상	(821)	42.2	39.8
주거 형태	동거	(684)	39.8	38.2
	비동거 / 독립	(647)	43.2	40.2
일자 리	첫 번째	(872)	40.1	38.3
	두 번째 이후	(459)	43.4	40.5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대상

(27) 현재 일자리를 위한 구직활동

현재 일자리를 어떤 경로로 찾게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어떠한 구직활동을 수행하였는지 복수응답 하도록 하였다. 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 57.6%가 관심 기업에 이력서 또는 지원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8.8%가 구인광고를 살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38.3%는 고용주에 직접 연락(방문)하여 면접을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34.7%는 친구, 선배 또는 친척에게 연락하였다고 하였다. 기업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기업정보를 확인한 비율도 33.1%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4.8%) 또는 대학교(10.6%) 취업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정부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하거나(11.4%),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5.3%)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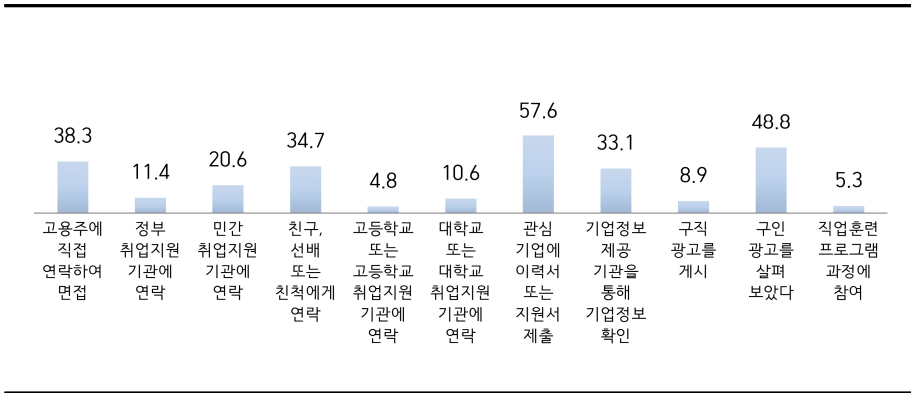


그림 III-27 현재 일자리를 위한 구직 활동

표 III-35 현재 일자리를 위한 구직 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주에 직접 연락(방문)하여 면접을 보았다	정부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민간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친구, 선배 또는 친척에게 연락하였다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대학교 또는 학교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관심 기업에 이력서 또는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기업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하였다	구직 광고를 게시하였다	구인 광고를 살펴보았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였다
전	체 (1,186)	38.3	11.4	20.6	34.7	4.8	10.6	57.6	33.1	8.9	48.8	5.3
성별	남 자 (610)	36.9	11.7	21.5	37.8	5.1	11.0	57.8	34.7	8.1	47.1	5.2
	여 자 (576)	39.9	11.1	19.6	31.2	4.5	10.3	57.4	31.2	9.6	50.7	5.4
연령	만 18-19세 (42)	40.0	0.0	16.1	34.6	8.2	5.7	17.1	4.5	1.9	54.4	2.8
	만 20-24세 (274)	44.4	7.0	17.3	31.5	4.4	7.4	46.8	20.6	9.9	54.2	5.7
	만 25-29세 (450)	36.6	12.2	20.9	38.3	5.1	12.3	59.9	38.1	6.3	46.4	6.1
	만 30-34세 (420)	36.0	14.5	22.9	32.8	4.3	11.4	66.0	38.4	11.6	47.4	4.4
지역	서울 (265)	39.2	11.8	18.0	44.6	7.1	11.5	56.4	31.6	9.3	42.2	3.5
	인천 / 경기 (360)	39.7	12.3	27.6	31.5	4.6	12.6	58.4	39.7	9.1	56.0	7.6
	대전 / 충청 / 세종 / 강원 (191)	36.2	18.3	18.2	43.6	4.2	7.2	60.5	28.1	7.6	47.5	8.3
	광주/전라/제주 (106)	33.1	6.2	18.4	29.4	3.5	5.6	50.2	24.0	8.6	44.3	5.1
	부산/울산/경남 (152)	39.3	8.0	15.7	30.5	4.1	9.4	56.1	34.0	9.5	41.9	2.7
	대구 / 경북 (112)	37.6	7.6	15.3	20.3	2.8	12.4	62.4	27.3	7.8	55.4	1.4
학력	고졸 이하 (324)	44.9	8.3	22.1	42.7	9.8	2.6	43.7	21.0	11.4	49.4	4.1
	대학 / 대학원 재 (121)	47.7	1.8	13.9	29.9	0.0	6.0	28.6	9.9	3.0	57.0	3.2
	대졸 이상 (741)	33.8	14.5	21.1	31.9	3.4	15.0	68.8	42.4	8.7	47.2	6.2
주거 형태	동거 (624)	38.4	9.1	19.5	35.3	4.8	10.7	53.9	31.5	7.5	49.3	4.0
	비동거 / 독립 (562)	38.2	14.5	22.1	33.9	4.8	10.5	62.6	35.2	10.6	48.2	7.0
일자리	첫 번째 (802)	36.1	11.2	22.2	32.7	6.1	12.4	60.4	35.4	8.3	45.4	5.3
	두 번째 이후 (384)	42.7	11.8	17.6	38.6	2.3	7.2	52.1	28.5	9.9	55.6	5.2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임금근로자 대상이며, 해당 구직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

## (28) 학교-일자리 이행 현황

마지막으로, 현재 일자리를 기준으로 학교-일자리 이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학교-일자리 이행은 ILO(2009)의 학교-일자리 이행 개념을 준용하였다. 일반적 이행 개념에서 이행 완료 청년은 정규직 청년, 계약직이지만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 비임금근로자이며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이행 중 청년은 실업상태인 청년, 계약직이며 불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 비임금근로자이며 불만족스러운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이행 미시작 청년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경제 비활동 상태이며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 학교-일자리 이행 개념에 따를 때, 이행 완료 청년은 51.6%, 이행 중인 청년은 12.9%, 이행 미시작 청년은 35.6%로 나타났다. 남성(52.1%)이 여성(50.9%)보다 이행 완료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행 완료 비율도 증가했다. 대졸 이상 청년의 이행 완료 비율은 72%로 고졸 이하 청년 55.4%보다 높았다. 부모와 비동거 또는 독립한 청년의 이행 완료 비율은 66.7%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이행 완료 비율 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엄격한 이행 개념에서 이행 완료 청년은 괜찮은 일자리(평균 이상의 월평균 급여를 받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또는 평균 이상의 월평균 급여를 받는 비임금근로자)의 청년, 괜찮지 않은 일자리이지만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이행 중 청년은 실업상태인 청년, 괜찮지 않은 일자리이며 불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이행 미시작 청년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경제 비활동 상태이며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엄격한 학교-일자리 이행 개념에 따를 때, 이행완료 청년은 45.2%, 이행 중인 청년은 19.2%, 이행 미시작 청년은 35.6%로 나타났다. 일반적 이행 개념을 따를

때보다 이행 완료 청년의 비율이 약 6%p 감소하였고, 이행 중인 청년의 비율이 약 6%p 증가하였다. 또한, 엄격한 이행 정의를 따를 때 여성의 이행 완료 비율은 41.9%로 남성의 이행 완료 비율 48.1%보다 약 6%p 낮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행 완료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동일하였다. 서울 지역 청년의 엄격한 이행 완료 비율은 50.8%로 타 지역 청년의 이행 완료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졸 이상 청년의 엄격한 이행 완료 비율은 64.5%로 고졸 이하 청년 47%보다 높았다. 부모와 비동거 또는 독립한 청년의 엄격한 이행 완료 비율은 59.4%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이행 완료 비율 36.6%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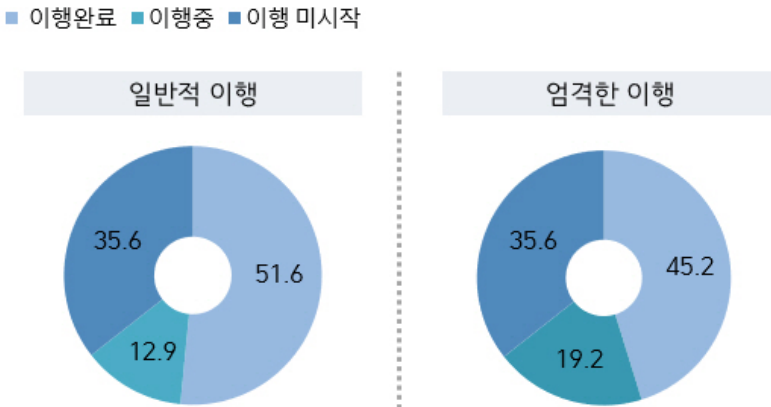


그림 III-28 학교-일자리 이행 현황

표 III-36 학교-일자리 이행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반적 이행			엄격한 이행		
		이행완료	이행중	이행 미시작	이행완료	이행중	이행 미시작
전	체 (2,041)	51.6	12.9	35.6	45.2	19.2	35.6
성별	남 자 (1,074)	52.1	13.6	34.3	48.1	17.6	34.3
	여 자 (967)	50.9	12.1	37.0	41.9	21.1	37.0
연령	만 18-19세 (185)	4.9	4.2	90.9	4.5	4.6	90.9
	만 20-24세 (588)	26.8	16.0	57.3	22.2	20.6	57.3
	만 25-29세 (668)	65.4	14.8	19.8	55.6	24.5	19.8
	만 30-34세 (600)	74.0	10.4	15.6	68.0	16.4	15.6
지역	서울 (414)	54.9	14.7	30.5	50.8	18.7	30.5
	인천 / 경기 (618)	51.2	13.8	35.0	43.6	21.4	35.0
	대전 / 충청 / 세종 / 강원 (308)	55.2	11.2	33.6	48.1	18.3	33.6
	광주/전라/제주 (225)	45.0	12.5	42.5	43.0	14.5	42.5
	부산/울산/경남 (287)	47.9	10.5	41.6	39.6	18.7	41.6
	대구 / 경북 (189)	53.1	12.0	34.9	44.9	20.1	34.9
학력	고졸 이하 (565)	55.4	21.2	23.4	47.0	29.6	23.4
	대학/대학원 재학 (451)	0.0	0.0	100.0	0.0	0.0	100.0
	대졸 이상 (1,025)	72.6	14.1	13.3	64.5	22.2	13.3
주거 형태	동거 (1,206)	42.3	13.3	44.4	36.6	19.1	44.4
	비동거/독립 (835)	66.7	12.2	21.1	59.4	19.5	21.1

주) 지난 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대상

## 2. 청년 학교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시계열 분석<sup>6)</sup>

###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절에서는 「교육통계연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상황에 관한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취업통계조사는 1997년 이전까지 대학별로 수기조사로 이루어져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웠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취업통계조사는 전산화가 이루어져 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각 대학에서 수치를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05년부터 각 대학에서 졸업자 전체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졸업 후 상황에 대한 개인별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교 졸업 후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 제공은 2010년부터 건강보험 등 공공DB자료와 연계해 개인별 졸업 후 취업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이 기준 외, 2017).

고등교육단계의 경우 2010년부터 공공DB자료 연계를 통해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한 것과는 달리, 중등교육단계에서는 2020년부터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11.27). 교육부에서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현황 통계는 이전과는 달리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해외취업자 및 병무청 병역 정보 등 공공DB와 연계해 취업 여부를 파악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고등교육단계에서 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이행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고등교육 단계로 제한한 이유는 중등교육단계에서의 결과는 2020년과 그 이전의 집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추이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고등교육 단계에 대한 분석에서 대학원 졸업 후 상황

---

6) 이 절은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에 대한 분석도 제외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대학원 진학 자체가 사회 첫 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택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분석은 새롭게 적용된 측정방식이 201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되어 조사가 이루어져 2013년에 공표되었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20년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2)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교육통계연보」의 졸업자 취업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졸업 후 상황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졸업 후 상황은 취업자, 진학자,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취업도 진학도 아닌 경우에는 군대에 입대한 경우와 취업률에서 제외를 인정하는 경우, 미상 등으로 나누어진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이 때 입대자와 제외인정자는 취업률을 낼 때 졸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고용률을 산출하는 공식과 차이가 발생한다.

취업자는 취업을 한 경우인데 교육부의 취업통계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취업자로 인정되는 경우(해외취업, 자영업, 농림어업, 프리랜서 등)로 구분하고 있다. 취업률 산정 시 제외를 인정하는 경우(제외인정자)는 공공영역의 채용을 앞두고 대기 중이거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군인 입관 전 훈련생, 경찰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 등)와 공공영역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KOICA 해외봉사단 등)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조사 자료 상 최대한 세부적으로 졸업 후 상황을 측정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취업자 비율은 건강보험가입자와 해외취업자, 기타 취업자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취업자 비율 외에는 졸업자 중 대상자 비율로 진학자 비율, 제외인정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외인정비율은 제외인정자와 입대자, 취업불가능자를 합친 비율이다.

### 3) 분석 결과

#### (1)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분석 (2013-2020)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통계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DB자료를 연계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고교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을 진학률과 취업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대학 진학률을 보면, 일반고는 2013년 77.7%에서 2019년 77.0%로 소폭 낮아졌으나 2020년 들어 79.4%로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 진학률이 증가하였고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수목적고의 대학진학률은 2020년 현재 58.1%로 일반고보다 낮는데 이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과 함께 특목고에 직업계고 중 한 가지 유형인 마이스터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자율고 역시 2020년 들어 진학률이 2019년에 비해 2.6%p 증가하였다.

표 III-37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2013-2020)

연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3	77.7	74.5	80.9	60.0	48.8	70.9	41.7	41.3	42.1	74.7	72.1	79.8
2014	78.7	75.7	81.9	59.6	48.3	70.3	37.9	36.2	39.9	75.7	74.1	78.7
2015	78.9	76.0	81.9	58.4	46.2	70.7	36.1	33.7	39.0	75.8	73.2	80.4
2016	78.0	75.1	81.0	55.9	41.5	69.4	35.0	33.1	37.4	74.9	72.6	78.9
2017	77.3	74.5	80.2	56.9	43.4	70.2	32.8	31.2	34.8	73.5	71.4	77.3
2018	77.7	74.6	80.2	57.7	42.9	71.8	36.0	34.9	37.5	72.6	69.9	77.4
2019	77.0	74.0	80.0	57.5	43.8	70.8	42.5	39.8	46.2	71.7	69.4	77.4
2020	79.4	76.9	82.0	58.1	44.5	71.8	44.8	43.4	46.8	74.3	73.2	76.3

주: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100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특성화고는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교육기관이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완성교육기관이라 대학 진학률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2017년 32.8%로 특성화고의 진학률이 낮아졌으나 다시 상승해 2020년 44.8%에 이르고 있다. 특성화고의 진학률 상승은 2018년에는 2017년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로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을 마친 뒤 안전성을 검증받은 선도기업에서 이루어지면서 취업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새롭게 통계체계를 개편한 2020년 이전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를 보면, 특성화고 2017년 74.9%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때 취업률은 졸업자 중 취업자 수가 아니라 모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수치이다. 앞서 언급한 현장실습제도 개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2021년 또다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향후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고의 취업률은 2013년 8.1%에서 2016년 10.1%까지 상승한 후 다시 낮아져 2019년 8.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38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2013-2020)

	특성화고(직업계고)			일반고(비직업계고)		
	계	남	여	계	남	여
2013	70.1	66.2	75.2	8.1	6.8	9.9
2014	72.3	70.0	75.4	9.4	8.3	10.8
2015	72.2	69.9	75.3	10.1	9.7	10.7
2016	71.5	69.1	74.6	10.1	9.8	10.4
2017	74.9	73.8	76.3	9.4	9.4	9.5
2018	65.1	63.5	67.4	9.7	9.8	9.5
2019	54.6	55.5	53.3	8.9	8.9	8.8
2020	50.7	50.3	51.2	7.5	7.5	7.4

주1: 조사기준일은 4월 1일이며 해당연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함.

주2: 2020년 취업률은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가 신규 실시되어 특성화고와 일반고로 구분되지 않고 직업계고와 비직업계고로 구분됨. 직업계고는 특성화고와 특목고의 마이스터고, 일반고의 직업반이 포함됨.

주3: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 100. 비직업계고는 제외인정자 제외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교육부에서는 2020년부터 기존 학교 유형 구분과 무관하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취업 현황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육통계연보에서는 일반고 중 직업반에 다니는 고등학생 졸업생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기존의 특성화고 졸업생 결과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결과는 고등교육 취업통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산업인력개발공단 등 공공DB 자료를 연계해 보다 정확한 통계로 제시된 것이다.

표 Ⅲ-39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 및 취업률(2020)

구분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취업률 (%)
특성화고	79,503	20,785	35,195	1,176	864	21,483	49.2
마이스터고	5,666	3,510	297	394	48	1,417	71.2
일반고 직업반	4,829	643	2,723	15	58	1,390	31.6
전체	89,998	24,858	38,215	1,585	970	24,290	50.7

주: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 100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20년 직업계고 취업률을 보면, 50.7%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고의 직업반이 31.6%로 가장 낮고 마이스터고가 71.2%로 가장 높았다. 측정 방식이 보다 엄밀하게 바뀌었으나 이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5%p나 감소하였다.

## (2) 고등교육 유형별 졸업 후 상황 분석 (2013-2020)

여기에서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데이터가 확보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2013년 데이터는 2011년 8월 및 2012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에 조사한 결과를 말하고, 2020년 데이터는 2018년 8월 및 2019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에 조사한 결과를 말한다.

가.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60% 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62.8%에서 2020년에는 62.6%로서 지난 8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은 2013년 63.6%에서 2020년 65.1%로 소폭 상승하였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취업률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0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강보험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62.8	63.6	58.3	58.8	0.2	0.2	4.3	4.5	3.7	3.8	4.0	2.6	29.4	30.1
2014	100.0	100.0	62.0	63.1	57.6	58.5	0.2	0.2	4.2	4.4	4.3	4.6	4.4	2.3	29.3	30.0
2015	100.0	100.0	61.5	63.2	57.1	58.5	0.2	0.2	4.2	4.5	4.5	4.9	4.8	2.1	29.2	29.7
2016	100.0	100.0	62.7	64.8	57.8	59.6	0.4	0.4	4.5	4.8	5.1	5.4	4.7	2.0	27.5	27.7
2017	100.0	100.0	63.9	66.2	58.1	60.2	0.6	0.6	5.2	5.4	5.0	5.4	4.5	1.8	26.6	26.5
2018	100.0	100.0	62.8	65.4	56.5	59.0	0.6	0.6	5.7	5.9	5.3	5.7	4.7	1.9	27.2	27.0
2019	100.0	100.0	63.4	65.5	57.0	59.0	0.6	0.5	5.8	6.0	5.8	6.4	5.0	1.9	25.8	26.2
2020	100.0	100.0	62.6	65.1	56.0	58.3	0.6	0.5	5.9	6.3	6.5	7.3	5.3	1.9	25.7	25.7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8.3%였으나, 2020년에는 56.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2%였으나, 2020년에는 0.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4.3%에서 2020년 5.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3.7%였으나, 2020년 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은 2013년 3.8%에서 2020년 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4.0%였으나, 2020년에는 5.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2.6%에서 2020년 1.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29.4%였으나, 2020년 25.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0.1%에서 2020년 25.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가 미취업자이거나 니트(NEET)인 점을 고려하면, 미취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졸업자 4명 가운데 1명이 미취업 상태인 것이다. 다만, 지난 8년 동안 그 비율이 소폭 감소한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3-2020년 동안 전문대학 취업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진학률은 증가 추세이고, 미상 및 기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전문대학의 경우 여학생의 취업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자의 비율도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미상 및 기타 비율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4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의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50% 중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57.3%에서 2020년에는 56.0%로서 지난 8년 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은 2013년 55.1%에서 2020년 54.0%로 소폭 감소하였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취업률이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2.7%였으나, 2020년에는 50.6%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2%였으나, 2020년에는 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4.4%에서 2020년 4.9%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8.4%였으나, 2020년 6.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2013년 7.5%에서 2020년 5.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4.9%였으나, 2020년에는 4.8%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5.0%에서 2020년 4.9%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29.4%였으나, 2020년 3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2.4%에서 2020년 3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가 미취업자이거나 니트(NEET)인 점을 고려하면, 미취업 비율이 전문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4년제 대졸자 청년실업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41 4년제 대학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57.3	55.1	52.7	49.3	0.2	0.3	4.4	5.6	8.4	7.5	4.9	5.0	29.4	32.4
2014	100.0	100.0	55.9	54.0	51.3	48.3	0.2	0.2	4.4	5.5	8.4	7.2	5.3	5.4	30.4	33.4
2015	100.0	100.0	55.9	54.4	51.2	48.8	0.2	0.2	4.4	5.5	8.5	7.3	5.0	4.8	30.7	33.4
2016	100.0	100.0	56.6	55.7	51.7	49.8	0.2	0.2	4.7	5.6	7.9	6.9	4.2	4.0	31.3	33.5
2017	100.0	100.0	57.2	56.2	51.8	49.9	0.4	0.4	5.0	5.9	7.3	6.3	3.7	3.5	31.8	34.0
2018	100.0	100.0	55.9	54.5	50.3	48.1	0.4	0.4	5.2	5.9	6.8	6.0	3.9	3.8	33.4	35.7
2019	100.0	100.0	57.1	55.6	51.6	49.3	0.5	0.6	5.0	5.7	6.7	5.8	4.3	4.3	31.8	34.3
2020	100.0	100.0	56.0	54.0	50.6	48.0	0.5	0.5	4.9	5.5	6.8	5.9	4.8	4.9	32.5	35.1

2013-2020년 동안 4년제 대학 취업률은 감소 추세이고, 진학률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상 및 기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 차이를 비교해 볼 때, 4년제 대학의 경우 여학생의 취업률이 남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자의 비율도 여학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미상 및 기타 비율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의 취업이 남학생에 비해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3) 지역별 졸업 후 상황 분석 (2013-2020)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 가. 전문대학

수도권 전문대학의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60% 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62.5%에서 2020년에는 61.4%로서 지난 8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62.9%에서 2020년 62.3%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7.2%였으나, 2020년에는 53.6%로 감소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2%였으나, 2020년에는 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5.1%에서 2020년 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3.4%였으나, 2020년 7.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3.6%에서 2021년 8.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2.7%였으나, 2020년에는 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1.5%에서 2020년 1.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1.4%였으나, 2020년 27.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2.1%에서 2020년 28.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전문대학 수도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62.5	62.9	57.2	57.3	0.2	0.3	5.1	5.3	3.4	3.6	2.7	1.5	31.4	32.1
2014	100.0	100.0	61.6	61.9	56.4	56.5	0.2	0.3	5.0	5.1	4.2	4.6	3.1	1.6	31.1	31.9
2015	100.0	100.0	61.2	61.9	55.6	55.9	0.2	0.2	5.4	5.9	4.5	5.1	3.8	1.6	30.6	31.4
2016	100.0	100.0	62.3	63.2	56.5	57.0	0.3	0.4	5.5	5.9	5.2	5.8	3.2	1.3	29.3	29.6
2017	100.0	100.0	63.9	64.7	57.1	57.3	0.6	0.7	6.2	6.7	5.2	5.9	3.0	1.2	27.9	28.3
2018	100.0	100.0	63.1	63.6	55.5	55.5	0.5	0.5	7.1	7.6	5.6	6.4	3.1	1.2	28.1	28.8
2019	100.0	100.0	63.0	63.7	55.2	55.5	0.6	0.6	7.2	7.6	6.3	7.2	3.7	1.4	27.0	27.8
2020	100.0	100.0	61.4	62.3	53.6	53.8	0.6	0.6	7.3	7.9	7.2	8.2	4.2	1.4	27.2	28.0

충청권 전문대학의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60% 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62.2%에서 2020년에는 62.6%로서 지난 8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64.2%에서 2020년 66.5%로 증가하였고, 여학생의 취업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8.2%였으나, 2020년에는 57.4%로 증가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1%였으나, 2020년에는 0.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3.8%에서 2020년 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 전문대학 총청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62.2	64.2	58.2	60.6	0.1	0.1	3.8	3.5	5.0	4.7	4.6	2.4	28.2	28.8
2014	100.0	100.0	61.6	64.2	58.1	60.7	0.2	0.2	3.3	3.3	5.4	5.5	5.2	1.8	27.8	28.4
2015	100.0	100.0	61.3	65.1	57.7	61.5	0.2	0.2	3.4	3.4	5.6	5.8	5.2	1.7	27.8	27.5
2016	100.0	100.0	61.3	64.8	57.0	60.4	0.3	0.3	4.0	4.1	6.3	6.3	5.8	2.0	26.6	27.0
2017	100.0	100.0	62.6	66.4	57.7	61.9	0.4	0.2	4.5	4.3	5.8	6.0	5.4	1.3	26.2	26.3
2018	100.0	100.0	61.9	66.1	56.0	60.5	0.3	0.3	5.6	5.3	5.9	6.1	5.9	1.6	26.3	26.3
2019	100.0	100.0	62.6	66.3	57.1	61.3	0.5	0.4	5.1	4.6	6.6	6.9	5.6	1.4	25.2	25.4
2020	100.0	100.0	62.6	66.5	57.4	61.4	0.4	0.4	4.9	4.7	6.9	7.6	6.3	1.7	24.2	24.3

진학률은 2013년 5.0%였으나, 2020년 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4.7%에서 2021년 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4.6%였으나, 2020년에는 6.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2.4%에서 2020년 1.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28.2%였으나, 2020년 24.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28.8%에서 2020년 24.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권 전문대학의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60% 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64.0%에서 2020년에는 64.8%로서 지난 8년 동안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취업률은 2013년 65.5%에서 2020년 64.8%로 감소하였다.

표 III-44 전문대학 강원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64.0	65.5	60.5	62.2	0.0	-	3.5	3.3	4.6	4.2	5.0	2.1	26.4	28.3
2014	100.0	100.0	63.3	65.3	59.6	61.7	0.1	0.1	3.7	3.5	4.8	4.9	6.0	1.7	25.9	28.1
2015	100.0	100.0	62.0	65.5	58.4	61.9	0.2	0.2	3.4	3.4	6.5	6.6	6.1	1.4	25.4	26.4
2016	100.0	100.0	62.4	66.5	59.1	63.3	0.5	0.5	2.8	2.6	6.6	5.9	6.1	1.3	25.0	26.3
2017	100.0	100.0	62.8	67.3	57.9	61.7	0.6	0.7	4.4	4.9	6.5	6.3	6.9	1.9	23.8	24.6
2018	100.0	100.0	59.6	64.2	55.2	59.8	0.2	0.3	4.2	4.1	5.9	5.7	7.6	2.2	26.9	27.9
2019	100.0	100.0	60.7	65.0	56.0	60.4	0.3	0.5	4.4	4.1	5.9	5.6	7.2	2.0	26.1	27.4
2020	100.0	100.0	64.8	64.8	54.6	59.4	0.1	0.1	5.1	5.2	7.6	7.6	7.8	2.2	24.7	25.5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60.5%였으나, 2020년에는 54.6%로 감소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0%였으나, 2020년에는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3.5%에서 2020년 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4.6%였으나, 2020년 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4.2%에서 2021년 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5.0%였으나, 2020년에는 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도 2013년 2.1%에서 2020년 2.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26.4%였으나, 2020년 2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28.3%에서 2020년 25.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제주권 전문대학의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60% 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61.9%에서 2020년에는 63.8%로 지난 8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은 2013년 63.3%에서 2020년 68.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의 취업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6.7%였으나, 2020년에는 5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2%였으나, 2020년에는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5.0%에서 2020년 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3.3%였으나, 2020년 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3.2%에서 2021년 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5.8%였으나, 2020년에는 7.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4.3%에서 2020년 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28.9%였으나, 2020년 2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29.2%에서 2020년 23.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전문대학 전라제주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61.9	63.3	56.7	58.2	0.2	0.2	5.0	5.0	3.3	3.2	5.8	4.3	28.9	29.2
2014	100.0	100.0	61.8	63.9	56.6	58.6	0.2	0.3	5.0	5.0	3.5	3.6	6.8	4.2	27.9	28.3
2015	100.0	100.0	60.2	63.3	55.8	58.9	0.1	0.1	4.4	4.3	3.8	3.8	7.0	3.8	29.0	29.0
2016	100.0	100.0	62.3	66.3	57.0	61.3	0.3	0.3	5.0	4.7	4.3	4.4	7.5	3.6	25.9	25.7
2017	100.0	100.0	62.5	66.8	56.6	61.5	0.5	0.5	5.4	4.8	4.2	4.5	7.6	3.3	25.7	25.4
2018	100.0	100.0	60.9	66.2	55.0	60.4	0.5	0.6	5.4	5.2	4.3	4.4	7.9	3.4	27.0	25.9
2019	100.0	100.0	63.2	67.0	57.2	61.5	0.3	0.3	5.6	5.2	4.6	5.0	7.9	3.3	24.4	24.8
2020	100.0	100.0	63.8	68.1	57.1	62.0	0.3	0.3	6.5	5.8	5.0	5.6	7.7	3.2	23.5	23.1

경상권 전문대학의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60% 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63.9%에서 2020년에는 64.0%로 지난 8년 동안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은 2013년 64.2%에서 2020년 67.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60.5%였으나, 2020년에는 59.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2%였으나, 2020년에는 1.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3.2%에서 2020년 4.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3.8%였으나, 2020년 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4.0%에서 2021년 6.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4.6%였으나, 2020년에는 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3.4%에서 2020년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27.6%였으나, 2020년 25.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28.5%에서 2020년 2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6 전문대학 경상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63.9	64.2	60.5	60.4	0.2	0.2	3.2	3.5	3.8	4.0	4.6	3.4	27.6	28.5
2014	100.0	100.0	62.9	63.9	59.5	60.2	0.2	0.2	3.1	3.5	4.2	4.7	4.7	2.6	28.3	28.8
2015	100.0	100.0	62.6	64.3	59.5	61.0	0.3	0.2	2.8	3.1	4.3	4.5	4.9	2.5	28.2	28.7
2016	100.0	100.0	64.0	66.5	60.2	62.4	0.5	0.5	3.3	3.6	4.7	4.9	5.0	2.5	26.2	26.1
2017	100.0	100.0	65.1	68.3	60.6	63.8	0.7	0.6	3.8	4.0	4.7	4.9	4.6	2.2	25.6	24.6
2018	100.0	100.0	64.0	68.0	59.3	63.4	0.8	0.7	3.9	3.9	4.9	4.9	4.9	2.4	26.1	24.7
2019	100.0	100.0	64.8	67.6	59.8	62.7	0.8	0.6	4.2	4.4	5.2	5.6	5.2	2.4	24.8	24.4
2020	100.0	100.0	64.0	67.6	59.1	62.7	1.0	0.6	4.0	4.3	5.8	6.3	5.0	2.3	25.1	23.8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의 경우, 경상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률의 경우, 경상권

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취업률의 경우, 수도권과 전라제주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의 경우, 강원권과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의 경우, 강원권과 전라제주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의 경우, 수도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2020년 전문대학 지역별 비교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전체	100.0	100.0	62.6	65.1	56.0	58.3	0.6	0.5	5.9	6.3	6.5	7.3	5.3	1.9	25.7	25.7
수도권	100.0	100.0	61.4	62.3	53.6	53.8	0.6	0.6	7.3	7.9	7.2	8.2	4.2	1.4	27.2	28.0
충청권	100.0	100.0	62.6	66.5	57.4	61.4	0.4	0.4	4.9	4.7	6.9	7.6	6.3	1.7	24.2	24.3
강원권	100.0	100.0	64.8	64.8	54.6	59.4	0.1	0.1	5.1	5.2	7.6	7.6	7.8	2.2	24.7	25.5
전라 제주권	100.0	100.0	63.8	68.1	57.1	62.0	0.3	0.3	6.5	5.8	5.0	5.6	7.7	3.2	23.5	23.1
경상권	100.0	100.0	64.0	67.6	59.1	62.7	1.0	0.6	4.0	4.3	5.8	6.3	5.0	2.3	25.1	23.8

#### 나. 4년제 대학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50% 중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58.0%에서 2020년에는 56.9%로 지난 8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55.4%에서 2020년 54.4%로 감소하였고, 남학생보다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2.8%였으나, 2020년에는 50.9%로 감

소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1%였으나, 2020년에는 0.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5.1%에서 2020년 5.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4년제 대학 수도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58.0	55.4	52.8	48.6	0.1	0.1	5.1	6.6	11.0	9.9	4.3	4.1	26.6	30.6
2014	100.0	100.0	56.2	53.7	50.9	47.1	0.1	0.1	5.2	6.5	11.0	9.5	5.4	5.5	27.4	31.3
2015	100.0	100.0	55.1	53.3	49.8	46.7	0.1	0.1	5.2	6.5	11.2	9.5	5.4	5.2	28.3	31.9
2016	100.0	100.0	55.8	54.6	50.3	47.9	0.1	0.1	5.4	6.6	10.6	9.1	4.7	4.4	28.9	31.9
2017	100.0	100.0	57.0	55.6	51.1	48.5	0.2	0.3	5.7	6.8	9.7	8.3	4.3	4.0	29.0	32.1
2018	100.0	100.0	56.0	54.2	49.8	46.8	0.2	0.2	5.9	7.1	9.3	8.0	4.3	4.1	30.4	33.7
2019	100.0	100.0	57.7	55.5	51.7	48.4	0.4	0.4	5.6	6.7	9.0	7.8	4.7	4.8	28.5	31.9
2020	100.0	100.0	56.9	54.4	50.9	47.5	0.4	0.4	5.7	6.5	9.1	7.9	5.4	5.9	28.6	31.8

진학률은 2013년 11.0%였으나, 2020년 9.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9.9%에서 2021년 7.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4.3%였으나, 2020년에는 5.4%로 증가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도 2013년 4.1%에서 2020년 5.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26.6%였으나, 2020년 2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0.6%에서 2020년 31.8%로 증가

하였고, 여학생의 미상 및 기타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4년제 대학의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50% 중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56.9%에서 2020년에는 57.9%로 지난 8년 동안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취업률은 2013년 56.1%에서 2020년 56.5%로 증가하였다.

표 III-49 4년제 대학 충청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56.9	56.1	52.1	50.5	0.3	0.3	4.5	5.3	7.0	5.7	5.1	5.2	31.1	32.9
2014	100.0	100.0	56.3	55.9	51.6	50.2	0.2	0.2	4.5	5.4	6.9	5.5	5.5	5.4	31.3	33.2
2015	100.0	100.0	57.0	57.1	52.2	51.5	0.2	0.2	4.6	5.3	6.9	5.3	4.8	4.6	31.4	33.0
2016	100.0	100.0	58.1	57.7	53.0	51.9	0.2	0.2	4.9	5.6	6.4	5.4	4.1	3.8	31.4	33.2
2017	100.0	100.0	59.5	59.3	53.9	53.1	0.3	0.4	5.3	5.9	6.0	4.8	3.4	3.2	31.1	32.7
2018	100.0	100.0	58.2	57.3	52.5	51.2	0.4	0.4	5.3	5.7	5.4	4.3	4.0	3.9	32.5	34.5
2019	100.0	100.0	58.3	57.7	52.8	51.6	0.5	0.5	5.0	5.6	5.5	4.4	4.5	4.6	31.6	33.4
2020	100.0	100.0	57.9	56.5	52.4	50.6	0.5	0.5	4.9	5.4	5.3	4.2	4.6	4.7	32.2	34.6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2.1%였으나, 2020년에는 52.4%로 증가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3%였으나, 2020년에는 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4.5%에서 2020년 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7.0%였으나, 2020년 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

생의 진학률도 2013년 5.7%에서 2021년 4.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5.1%였으나, 2020년에는 4.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도 2013년 5.2%에서 2020년 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1.1%였으나, 2020년 3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2.9%에서 2020년 3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권 4년제 대학의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50% 중후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58.4%에서 2020년에는 57.8%로서 지난 8년 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58.2%에서 2020년 57.2%로 감소하였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4.3%였으나, 2020년에는 53.1%로 감소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1%였으나, 2020년에는 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4.0%에서 2020년 4.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7.2%였으나, 2020년 5.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6.4%에서 2021년 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3.5%였으나, 2020년에는 2.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도 2013년 3.8%에서 2020년 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0.9%였으나, 2020년 34.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1.6%에서 2020년 3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4년제 대학 강원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58.4	58.2	54.3	53.4	0.1	0.1	4.0	4.7	7.2	6.4	3.5	3.8	30.9	31.6
2014	100.0	100.0	57.9	57.6	54.2	53.3	0.1	0.1	3.6	4.1	7.0	6.1	3.3	3.5	31.8	32.9
2015	100.0	100.0	57.7	57.5	53.7	53.0	0.1	0.1	3.9	4.4	6.6	6.0	3.2	2.9	32.6	33.6
2016	100.0	100.0	57.1	56.7	52.9	52.3	0.1	0.1	4.1	4.4	5.9	5.4	2.9	2.9	34.1	35.0
2017	100.0	100.0	58.2	58.4	53.6	53.3	0.1	0.1	4.4	4.9	5.7	5.2	2.5	2.1	33.6	34.2
2018	100.0	100.0	57.8	57.6	53.1	52.9	0.3	0.3	4.4	4.4	5.1	4.5	2.5	2.2	34.6	35.7
2019	100.0	100.0	59.8	58.7	54.7	53.3	0.4	0.4	4.7	5.0	5.3	4.2	2.3	2.1	32.7	35.0
2020	100.0	100.0	57.8	57.2	53.1	52.4	0.3	0.3	4.3	4.5	5.5	5.3	2.7	2.6	34.0	34.9

전라제주권 4년제 대학의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50% 중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54.2%에서 2020년에는 54.8%로서 지난 8년 동안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52.6%에서 2020년 5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0.3%였으나, 2020년에는 50.0%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2%였으나, 2020년에는 0.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3.8%에서 2020년 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6.0%였으나, 2020년 4.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5.6%에서 2021년 4.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7.5%였으나, 2020년에는 6.3%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도 2013년 7.8%에서 2020년 5.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2.3%였으나, 2020년 3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4.0%에서 2020년 36.5%로 증가하였고,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4년제 대학 전라제주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54.2	52.6	50.3	48.1	0.2	0.2	3.8	4.3	6.0	5.6	7.5	7.8	32.3	34.0
2014	100.0	100.0	52.4	50.9	48.2	46.1	0.1	0.1	4.0	4.7	6.2	5.7	7.6	7.6	33.8	35.8
2015	100.0	100.0	54.5	53.1	50.2	48.3	0.1	0.1	4.1	4.7	6.4	6.1	6.1	5.9	33.0	35.0
2016	100.0	100.0	55.5	55.0	51.3	50.2	0.1	0.2	4.1	4.6	5.8	5.3	5.2	4.8	33.5	34.9
2017	100.0	100.0	55.9	55.3	51.1	49.8	0.2	0.2	4.6	5.2	5.1	4.7	4.8	4.4	34.3	35.7
2018	100.0	100.0	54.4	53.3	49.3	47.8	0.3	0.3	4.8	5.2	4.8	4.5	5.5	4.9	35.2	37.4
2019	100.0	100.0	56.1	55.2	51.1	49.8	0.4	0.4	4.7	5.0	4.6	3.9	5.5	4.7	33.8	36.1
2020	100.0	100.0	54.8	53.7	50.0	48.5	0.3	0.3	4.4	4.9	4.5	4.3	6.3	5.5	34.4	36.5

경상권 4년제 대학의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50% 중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57.6%에서 2020년에는 53.3%로서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54.7%에서 2020년 51.2%로 감소하였고, 남학생보다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3.6%였으나, 2020년에는 48.5%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4%였으나, 2020년에는 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3.6%에서 2020년 3.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4년제 대학 경상권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57.6	54.7	53.6	49.5	0.4	0.4	3.6	4.8	6.6	6.0	4.8	5.1	30.9	34.2
2014	100.0	100.0	56.4	54.0	52.6	49.0	0.4	0.5	3.4	4.5	6.7	5.6	4.5	4.6	32.4	35.9
2015	100.0	100.0	56.5	54.4	52.6	49.6	0.4	0.4	3.4	4.4	6.7	5.9	4.3	4.2	32.5	35.5
2016	100.0	100.0	57.1	55.9	52.8	50.7	0.4	0.5	3.9	4.8	6.3	5.6	3.4	3.2	33.2	35.3
2017	100.0	100.0	56.2	55.0	51.4	49.3	0.7	0.8	4.1	4.9	6.0	5.3	2.9	2.6	35.0	37.0
2018	100.0	100.0	54.2	53.0	49.1	47.2	0.9	0.9	4.2	4.9	5.4	4.9	3.1	2.9	37.3	39.2
2019	100.0	100.0	55.4	53.9	50.4	48.2	0.9	1.0	4.0	4.7	5.4	4.8	3.4	3.3	35.8	38.0
2020	100.0	100.0	53.3	51.2	48.5	45.9	0.9	0.9	3.9	4.4	5.6	4.9	3.7	3.6	37.4	40.2

진학률은 2013년 6.6%였으나, 2020년 5.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6.0%에서 2021년 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4.8%였으나, 2020년에는 3.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도 2013년 5.1%에서 2020년 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0.9%였으나, 2020년 37.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4.2%에서 2020년 40.2%로

크게 증가하였고, 여학생의 미상 및 기타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 강원권, 수도권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의 경우, 강원권과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률의 경우, 경상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취업률의 경우,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의 경우,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의 경우, 전라제주권과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의 경우, 경상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2020년 4년제 대학 지역별 비교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전체	100.0	100.0	56.0	54.0	50.6	48.0	0.5	0.5	4.9	5.5	6.8	5.9	4.8	4.9	32.5	35.1
수도권	100.0	100.0	56.9	54.4	50.9	47.5	0.4	0.4	5.7	6.5	9.1	7.9	5.4	5.9	28.6	31.8
충청권	100.0	100.0	57.9	56.5	52.4	50.6	0.5	0.5	4.9	5.4	5.3	4.2	4.6	4.7	32.2	34.6
강원권	100.0	100.0	57.8	57.2	53.1	52.4	0.3	0.3	4.3	4.5	5.5	5.3	2.7	2.6	34.0	34.9
전라 제주권	100.0	100.0	54.8	53.7	50.0	48.5	0.3	0.3	4.4	4.9	4.5	4.3	6.3	5.5	34.4	36.5
경상권	100.0	100.0	53.3	51.2	48.5	45.9	0.9	0.9	3.9	4.4	5.6	4.9	3.7	3.6	37.4	40.2

#### (4) 계열별 졸업 후 상황 분석 (2013-2020)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졸업 후 상황을 계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등 7개 계열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 가. 전문대학

전문대학 인문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50.2%에서 2020년에는 47.7%로서 지난 8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51.1%에서 2020년 47.8%로 감소하였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44.6%였으나, 2020년에는 37.9%로 감소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1.1%였으나, 2020년에는 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4.4%에서 2020년 7.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8.5%였으나, 2020년 1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8.7%에서 2020년 1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5.2%였으나, 2020년에는 5.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3.4%에서 2020년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6.1%였으나, 2020년 36.4%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6.8%에서 2020년 38.9%로 증가하였고,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전문대학 인문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50.2	51.1	44.6	45.4	1.1	1.3	4.4	4.4	8.5	8.7	5.2	3.4	36.1	36.8
2014	100.0	100.0	48.7	49.5	43.2	43.9	0.8	0.9	4.6	4.7	10.2	10.5	4.7	2.1	36.4	37.9
2015	100.0	100.0	47.8	49.1	42.5	43.6	1.0	0.9	4.4	4.6	10.3	10.4	4.3	1.7	37.6	38.8
2016	100.0	100.0	48.2	50.3	41.7	43.4	1.4	1.4	5.1	5.5	10.7	10.4	4.5	2.4	36.7	36.9
2017	100.0	100.0	49.8	50.5	41.4	42.3	2.7	2.4	5.6	5.8	10.3	10.5	4.0	1.8	35.9	37.1
2018	100.0	100.0	48.8	49.8	39.5	40.1	2.3	2.3	6.9	7.4	10.1	10.6	5.3	2.2	35.8	37.4
2019	100.0	100.0	48.5	49.5	39.5	39.9	2.4	2.3	6.7	7.4	10.0	10.2	5.3	2.0	36.2	38.2
2020	100.0	100.0	47.7	47.8	37.9	37.6	2.8	2.6	7.0	7.6	10.6	10.9	5.3	2.3	36.4	38.9

전문대학 사회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60.8%에서 2020년에는 56.8%로서 지난 8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은 2013년 61.8%에서 2020년 57.5%로 감소하였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6.5%였으나, 2020년에는 50.7%로 감소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2%였으나, 2020년에는 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4.1%에서 2020년 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4.1%였으나, 2020년 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3.9%에서 2020년 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4.1%였으나, 2020년에는 6.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3.1%에서 2020년 3.0%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0.9%였으나, 2020년 29.8%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1.1%에서 2020년 31.4%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 전문대학 사회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60.8	61.8	56.5	57.8	0.2	0.2	4.1	3.9	4.1	3.9	4.1	3.1	30.9	31.1
2014	100.0	100.0	59.4	60.8	55.2	56.7	0.2	0.3	4.0	3.9	4.8	4.9	5.0	3.3	30.8	31.0
2015	100.0	100.0	57.9	59.1	53.9	55.1	0.2	0.2	3.9	3.8	5.2	5.4	5.5	3.3	31.3	32.2
2016	100.0	100.0	58.7	60.3	54.3	55.9	0.4	0.5	4.0	3.9	6.1	6.1	5.4	3.0	29.9	30.6
2017	100.0	100.0	59.4	61.2	54.1	56.1	0.6	0.7	4.6	4.4	5.7	6.0	5.3	2.6	29.6	30.3
2018	100.0	100.0	57.9	59.3	52.1	54.0	0.6	0.6	5.1	4.7	5.9	6.1	5.3	2.8	30.9	31.8
2019	100.0	100.0	57.9	59.1	52.1	53.5	0.6	0.7	5.2	4.8	6.5	6.9	5.8	2.9	29.7	31.2
2020	100.0	100.0	56.8	57.5	50.7	51.4	0.6	0.6	5.6	5.4	7.3	8.1	6.1	3.0	29.8	31.4

전문대학 교육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80.6%에서 2020년에는 76.3%로서 지난 8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81.0%에서 2020년 76.8%로 감소하였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78.5%였으나, 2020년에는 73.9%로 감소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20년에 0.0%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2.0%에서 2020년 2.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전문대학 교육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80.6	81.0	78.5	79.2	0.0	0.0	2.0	1.8	1.9	1.8	1.8	1.6	15.8	15.5
2014	100.0	100.0	81.8	82.2	80.2	80.7	0.0	0.0	1.6	1.5	1.8	1.7	1.6	1.4	14.8	14.6
2015	100.0	100.0	81.3	81.8	79.7	80.3	0.0	0.0	1.5	1.4	2.9	2.9	1.4	1.1	14.5	14.2
2016	100.0	100.0	81.6	82.1	80.1	80.6	0.0	0.0	1.6	1.5	3.0	3.0	1.9	1.5	13.5	13.4
2017	100.0	100.0	79.8	80.2	77.9	78.3	0.1	0.1	1.8	1.8	4.2	4.2	1.1	0.9	14.9	14.8
2018	100.0	100.0	78.6	79.1	76.2	76.8	0.2	0.2	2.2	2.1	4.4	4.4	1.4	1.1	15.6	15.5
2019	100.0	100.0	77.5	77.9	74.9	75.4	0.2	0.1	2.5	2.4	5.4	5.5	1.4	1.0	15.6	15.6
2020	100.0	100.0	76.3	76.8	73.9	74.5	0.0	0.1	2.3	2.2	6.1	6.2	1.3	1.0	16.3	16.1

진학률은 2013년 1.9%였으나, 2020년 6.1%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1.8%에서 2020년 6.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1.8%였으나, 2020년에는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도 2013년 1.6%에서 2020년 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15.8%였으나, 2020년 16.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15.5%에서 2020년 16.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공학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60% 중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67.2%에서 2020년에는 61.6%로서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62.7%에서 2020년 60.4%로 감소하였다.

표 III-57 전문대학 공학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67.2	62.7	64.6	58.9	0.1	0.1	2.5	3.7	2.6	2.9	4.0	2.8	26.2	31.6
2014	100.0	100.0	65.2	60.1	62.9	57.2	0.1	0.1	2.2	2.8	3.0	4.6	4.7	2.4	27.1	32.9
2015	100.0	100.0	63.6	59.8	61.2	56.7	0.2	0.2	2.2	2.9	3.3	5.5	5.1	2.1	28.1	32.6
2016	100.0	100.0	64.6	62.4	61.7	58.5	0.3	0.4	2.6	3.4	4.1	6.5	4.8	1.8	26.5	29.3
2017	100.0	100.0	64.6	62.7	61.2	58.5	0.5	0.6	2.9	3.6	3.7	5.7	4.8	2.5	26.9	29.0
2018	100.0	100.0	62.5	60.6	58.4	55.2	0.5	0.5	3.6	4.9	4.3	7.2	5.3	2.4	27.8	29.8
2019	100.0	100.0	63.4	59.8	58.9	54.0	0.7	0.6	3.7	5.2	4.8	8.6	5.8	2.6	26.0	29.0
2020	100.0	100.0	61.6	60.4	57.0	54.2	0.9	0.9	3.7	5.3	5.4	9.6	6.3	2.4	26.7	27.6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64.6%였으나, 2020년에는 57.0%로 감소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1%였으나, 2020년에는 0.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2.5%에서 2020년 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2.6%였으나, 2020년 5.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

생의 진학률도 2013년 2.9%에서 2020년 9.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4.0%였으나, 2020년에는 6.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2.8%에서 2020년 2.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26.2%였으나, 2020년 26.7%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1.6%에서 2020년 27.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자연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50% 중후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56.1%에서 2020년에는 58.8%로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55.2%에서 2020년 57.5%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1.2%였으나, 2020년에는 50.3%로 감소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5%였으나, 2020년에는 1.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4.4%에서 2020년 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3.5%였으나, 2020년 6.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4.5%에서 2020년 8.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4.3%였으나, 2020년에는 5.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2.4%에서 2020년 1.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6.1%였으나, 2020년 29.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8.0%에서 2020년 32.4%로 감소하였으나, 남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 전문대학 자연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56.1	55.2	51.2	50.9	0.5	0.6	4.4	3.6	3.5	4.5	4.3	2.4	36.1	38.0
2014	100.0	100.0	56.2	55.0	51.6	51.2	0.8	0.9	3.7	2.9	3.6	4.9	4.4	2.0	35.8	38.1
2015	100.0	100.0	55.6	54.4	51.4	51.3	0.6	0.6	3.6	2.6	3.6	4.9	5.5	1.9	35.2	38.8
2016	100.0	100.0	58.2	57.7	53.1	53.2	1.0	1.0	4.1	3.4	3.7	5.0	4.9	1.5	33.2	35.9
2017	100.0	100.0	59.5	58.2	53.1	52.7	1.5	1.4	4.9	4.1	4.2	5.7	4.6	1.8	31.7	34.3
2018	100.0	100.0	57.5	56.5	51.2	50.7	1.2	1.1	5.1	4.7	4.8	6.5	5.3	1.6	32.4	35.4
2019	100.0	100.0	58.6	56.5	51.4	50.6	1.4	1.2	5.8	4.7	5.0	7.1	6.0	2.1	30.4	34.3
2020	100.0	100.0	58.8	57.5	50.3	50.2	1.4	1.3	7.1	6.0	6.1	8.4	5.9	1.8	29.2	32.4

전문대학 의학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70% 중후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76.2%에서 2020년에는 77.0%로서 지난 8년 동안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79.4%에서 2020년 79.5%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75.2%였으나, 2020년에는 75.5%로 소폭 증가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에는 0.0%였으나, 2020년에는 0.1%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1.0%에서 2020년 1.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2.1%였으나, 2020년 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1.7%에서 2020년 3.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2.1%였으나, 2020년에는 2.4%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1.5%에서 2020년 0.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19.7%였으나, 2020년 16.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17.4%에서 2020년 1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 전문대학 의약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76.2	79.4	75.2	78.6	0.0	0.0	1.0	0.7	2.1	1.7	2.1	1.5	19.7	17.4
2014	100.0	100.0	74.9	77.8	73.9	77.0	0.0	0.0	1.0	0.8	2.7	2.4	2.3	1.1	20.1	18.7
2015	100.0	100.0	74.8	78.3	73.7	77.5	0.1	0.1	1.0	0.8	2.8	2.6	2.2	1.0	20.1	18.1
2016	100.0	100.0	75.9	79.0	74.7	78.0	0.1	0.1	1.0	0.8	3.1	2.8	2.3	0.9	18.7	17.3
2017	100.0	100.0	78.0	80.9	76.8	79.9	0.1	0.1	1.2	0.9	2.8	2.6	2.1	0.8	17.1	15.7
2018	100.0	100.0	76.9	79.7	75.5	78.5	0.2	0.2	1.2	1.1	3.1	2.8	2.3	0.9	17.8	16.6
2019	100.0	100.0	77.6	79.7	76.1	78.5	0.1	0.1	1.4	1.1	3.0	2.8	2.2	0.9	17.3	16.6
2020	100.0	100.0	77.0	79.5	75.5	78.3	0.1	0.1	1.4	1.2	3.7	3.5	2.4	0.8	16.9	16.2

전문대학 예체능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50% 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50.1%에서 2020년에는 55.4%로서 지난 8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51.1%에서 2020년 58.5%로 크게 증가하였고,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39.5%였으나, 2020년에는 38.9%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에는 0.1%였으나, 2020년에는 0.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10.6%에서 2020년 16.3%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0 전문대학 예체능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50.1	51.1	39.5	40.1	0.1	0.1	10.6	11.0	5.2	4.8	5.8	2.7	38.8	41.4
2014	100.0	100.0	50.9	51.9	39.9	40.9	0.1	0.1	10.9	10.9	5.9	5.7	5.8	2.4	37.4	40.0
2015	100.0	100.0	51.7	53.6	40.0	41.3	0.1	0.1	11.6	12.2	6.3	5.9	6.2	2.0	35.8	38.5
2016	100.0	100.0	54.1	56.5	41.4	43.7	0.3	0.4	12.3	12.5	6.9	6.7	6.3	2.0	32.7	34.8
2017	100.0	100.0	55.7	58.5	41.0	43.1	0.4	0.5	14.3	14.9	7.5	7.1	6.2	1.8	30.6	32.6
2018	100.0	100.0	55.7	58.9	39.2	41.7	0.5	0.5	16.0	16.7	7.8	7.4	6.4	1.9	30.1	31.7
2019	100.0	100.0	56.3	59.0	39.7	41.8	0.4	0.4	16.2	16.8	9.1	8.9	6.3	2.0	28.3	30.1
2020	100.0	100.0	55.4	58.5	38.9	40.8	0.2	0.3	16.3	17.4	10.0	9.8	7.0	2.1	27.7	29.7

진학률은 2013년 5.2%였으나, 2020년 10.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4.8%에서 2020년 9.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5.8%였으나, 2020년에는 7.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2.7%에서 2020년 2.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8.8%였으나, 2020년 27.7%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41.4%에서 2020년 29.7%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남학생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 2020년 전문대학 계열별 비교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전체	100.0	100.0	62.6	65.1	56.0	58.3	0.6	0.5	5.9	6.3	6.5	7.3	5.3	1.9	25.7	25.7
인문	100.0	100.0	47.7	47.8	37.9	37.6	2.8	2.6	7.0	7.6	10.6	10.9	5.3	2.3	36.4	38.9
사회	100.0	100.0	56.8	57.5	50.7	51.4	0.6	0.6	5.6	5.4	7.3	8.1	6.1	3.0	29.8	31.4
교육	100.0	100.0	76.3	76.8	73.9	74.5	0.0	0.1	2.3	2.2	6.1	6.2	1.3	1.0	16.3	16.1
공학	100.0	100.0	61.6	60.4	57.0	54.2	0.9	0.9	3.7	5.3	5.4	9.6	6.3	2.4	26.7	27.6
자연	100.0	100.0	58.8	57.5	50.3	50.2	1.4	1.3	7.1	6.0	6.1	8.4	5.9	1.8	29.2	32.4
의약	100.0	100.0	77.0	79.5	75.5	78.3	0.1	0.1	1.4	1.2	3.7	3.5	2.4	0.8	16.9	16.2
예체능	100.0	100.0	55.4	58.5	38.9	40.8	0.2	0.3	16.3	17.4	10.0	9.8	7.0	2.1	27.7	29.7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높은 반면,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의 경우,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이 높은 반면,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률의 경우,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취업률의 경우, 예체능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의 경우,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의 경우,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사회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의 경우, 교육계열과 의약계열 낮은 반면, 인문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높은 대신 미상 및 기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문계열은 취업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4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인문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40% 중후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49.3%에서 2020년에는 46.4%로서 지난 8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50.6%에서 2020년 46.2%로 감소하였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43.1%였으나, 2020년에는 39.8%로 감소하였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5%였으나, 2020년에는 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5.6%에서 2020년 5.3%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8.8%였으나, 2020년 7.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7.5%에서 2020년 6.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9.2%였으나, 2020년에는 8.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7.5%에서 2020년 7.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2.7%였으나, 2020년 3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4.4%에서 2020년 39.2%로 증가하였고,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4년제 대학 인문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49.3	50.6	43.1	43.5	0.5	0.5	5.6	6.6	8.8	7.5	9.2	7.5	32.7	34.4
2014	100.0	100.0	47.4	48.0	41.6	41.4	0.5	0.5	5.3	6.1	8.7	7.3	9.5	7.9	34.3	36.8
2015	100.0	100.0	47.5	48.5	41.5	41.6	0.5	0.4	5.5	6.5	8.5	7.3	8.9	7.2	35.1	37.0
2016	100.0	100.0	48.4	49.4	42.3	42.5	0.6	0.5	5.5	6.4	8.2	7.1	7.9	6.2	35.5	37.3
2017	100.0	100.0	49.0	49.8	42.4	42.5	0.9	0.8	5.7	6.5	7.7	6.6	7.1	5.7	36.2	37.8
2018	100.0	100.0	47.1	47.0	40.5	40.1	0.9	0.7	5.6	6.1	7.7	6.6	7.4	6.1	37.8	40.3
2019	100.0	100.0	47.8	48.2	40.9	40.8	1.4	1.3	5.5	6.1	7.8	6.6	8.0	6.8	36.4	38.4
2020	100.0	100.0	46.4	46.2	39.8	39.3	1.3	1.2	5.3	5.7	7.8	6.8	8.7	7.8	37.1	39.2

4년제 대학 사회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50% 중후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56.4%에서 2020년에는 55.7%로서 지난 8년 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55.4%에서 2020년 52.9%로 감소하였고, 남학생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53.2%였으나, 2020년에는 51.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2%였으나, 2020년에는 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3.0%에서 2020년 3.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3.3%였으나, 2020년 2.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3.5%에서 2020년 2.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7.1%였으나, 2020년에는 6.7%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7.7%에서 2020년 7.7%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3.2%였으나, 2020년 3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3.4%에서 2020년 3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3 4년제 대학 사회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56.4	55.4	53.2	51.8	0.2	0.3	3.0	3.3	3.3	3.5	7.1	7.7	33.2	33.4
2014	100.0	100.0	54.8	53.7	51.6	50.1	0.2	0.3	2.9	3.3	3.2	3.3	7.7	8.4	34.3	34.6
2015	100.0	100.0	55.8	54.9	52.6	51.4	0.2	0.3	3.0	3.2	3.2	3.4	7.2	7.6	33.8	34.1
2016	100.0	100.0	57.1	56.3	53.6	52.6	0.2	0.3	3.3	3.4	2.8	3.1	5.7	6.0	34.4	34.6
2017	100.0	100.0	58.2	56.8	54.2	52.5	0.4	0.5	3.6	3.9	2.7	2.9	4.8	5.0	34.3	35.3
2018	100.0	100.0	56.0	54.2	51.7	49.6	0.5	0.6	3.8	4.0	2.5	2.6	5.0	5.5	36.4	37.8
2019	100.0	100.0	57.3	55.2	52.9	50.9	0.6	0.6	3.8	3.8	2.5	2.5	5.7	6.4	34.6	35.9
2020	100.0	100.0	55.7	52.9	51.6	48.7	0.6	0.6	3.5	3.6	2.5	2.5	6.7	7.7	35.1	36.9

4년제 대학 교육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40% 중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48.0%에서 2020년에는 43.5%로서 지난 8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49.5%에서 2020년 43.8%로 감소하였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43.3%였으나, 2020년에는 37.6%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1%였으나, 2020년 0.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4.6%에서 2020년 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4 4년제 대학 교육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48.0	49.5	43.3	45.1	0.1	0.1	4.6	4.3	5.6	4.7	4.5	4.0	41.9	41.8
2014	100.0	100.0	46.6	47.8	41.9	43.9	0.1	0.1	4.6	3.8	5.2	4.6	4.6	4.0	43.5	43.6
2015	100.0	100.0	48.1	49.2	43.3	45.1	0.1	0.1	4.7	4.0	4.8	4.4	4.3	3.8	42.8	42.6
2016	100.0	100.0	46.3	47.7	41.3	43.1	0.1	0.1	5.0	4.4	4.6	4.4	4.2	3.4	44.9	44.5
2017	100.0	100.0	45.3	46.4	39.4	40.9	0.2	0.2	5.7	5.4	4.0	3.6	4.0	3.3	46.7	46.7
2018	100.0	100.0	43.3	44.5	36.8	38.7	0.1	0.1	6.4	5.7	3.8	3.6	3.7	3.1	49.3	48.8
2019	100.0	100.0	44.4	45.6	38.2	39.8	0.2	0.2	6.0	5.6	3.5	3.3	4.4	3.5	47.7	47.6
2020	100.0	100.0	43.5	43.8	37.6	38.6	0.1	0.1	5.8	5.2	3.7	3.5	4.3	3.4	48.5	49.4

진학률은 2013년 5.6%였으나, 2020년 3.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4.7%에서 2020년 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4.5%였으나, 2020년에는 4.3%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도 2013년 4.0%에서 2020년 3.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41.9%였으나, 2020년 48.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41.8%에서 2020년 49.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공학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65.7%에서 2020년에 59.4%로서 지난 8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62.7%에서 2020년 55.9%로 감소하였고, 남학생에 비해 취업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63.8%였으나, 2020년에는 56.3%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1%였으나, 2020년에는 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1.8%에서 2020년 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5 4년제 대학 공학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65.7	62.7	63.8	59.6	0.1	0.2	1.8	2.9	11.4	10.9	2.1	2.1	20.8	24.2
2014	100.0	100.0	64.2	61.3	62.4	58.6	0.1	0.1	1.8	2.7	11.8	11.2	2.6	2.6	21.4	24.8
2015	100.0	100.0	62.7	59.5	60.7	56.5	0.1	0.1	1.8	2.9	12.3	12.0	2.3	2.1	22.8	26.4
2016	100.0	100.0	61.7	60.1	59.5	57.1	0.2	0.2	2.1	2.8	11.5	11.2	1.9	1.5	24.8	27.2
2017	100.0	100.0	61.0	58.7	58.4	55.3	0.2	0.2	2.4	3.1	10.3	9.7	1.8	1.4	26.9	30.2
2018	100.0	100.0	60.0	57.5	57.0	53.8	0.4	0.4	2.6	3.3	9.5	9.2	2.0	1.6	28.6	31.7
2019	100.0	100.0	61.5	58.2	58.6	54.8	0.5	0.5	2.4	2.9	9.1	8.8	2.2	1.7	27.1	31.3
2020	100.0	100.0	59.4	55.9	56.3	52.5	0.5	0.4	2.6	3.0	9.1	8.7	2.3	2.1	29.2	33.3

진학률은 2013년 11.4%였으나, 2020년 9.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10.9%에서 2020년 8.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2.1%였으나, 2020년에는 2.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2.1%에서 2020년 2.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20.8%였으나, 2020년 29.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24.2%에서 2020년 33.3%로 크게 증가하였고, 남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자연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50.1%에서 2020년에는 48.4%로서 지난 8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50.2%에서 2020년 46.9%로 감소하였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46.2%였으나, 2020년에는 43.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1%였으나, 2020년 0.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3.8%에서 2020년 4.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18.7%였으나, 2020년 1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16.7%에서 2020년 14.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1.7%였으나, 2020년에는 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도 2013년 1.7%에서 2020년 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29.5%였으나, 2020년 3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1.5%에서 2020년 35.9%로 증가하였고, 남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66 4년제 대학 자연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50.1	50.2	46.2	45.9	0.1	0.1	3.8	4.2	18.7	16.7	1.7	1.7	29.5	31.5
2014	100.0	100.0	48.3	49.2	44.5	45.2	0.1	0.1	3.6	3.9	19.3	16.4	2.6	2.5	29.9	31.9
2015	100.0	100.0	48.1	48.9	44.0	44.7	0.1	0.1	4.0	4.1	19.8	17.3	2.6	2.4	29.6	31.4
2016	100.0	100.0	49.3	49.9	44.9	45.3	0.1	0.1	4.2	4.5	17.9	15.6	2.1	1.9	30.7	32.6
2017	100.0	100.0	49.3	49.5	44.5	44.4	0.2	0.2	4.6	4.8	16.8	14.5	1.9	1.8	32.0	34.3
2018	100.0	100.0	48.6	48.2	43.8	43.5	0.2	0.2	4.6	4.5	15.7	13.9	2.2	2.0	33.6	35.9
2019	100.0	100.0	49.7	48.9	45.1	44.4	0.2	0.3	4.3	4.2	15.7	14.0	2.4	2.2	32.2	34.8
2020	100.0	100.0	48.4	46.9	43.9	42.2	0.2	0.3	4.3	4.4	16.2	14.6	2.6	2.6	32.7	35.9

4년제 대학 의약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78.4%에서 2020년에는 81.0%로서 지난 8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79.5%에서 2020년 81.8%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77.1%였으나, 2020년에는 7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1%였으나, 2020년 0.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1.2%에서 2020년 1.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2013년 4.4%였으나, 2020년 2.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3.6%에서 2020년 1.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2.2%였으나, 2020년에는 2.0%로 소폭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도 2013년 1.0%에서 2020년 0.9%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15.1%였으나, 2020년 15.0%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16.0%에서 2020년 15.9%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7 4년제 대학 의약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78.4	79.5	77.1	78.3	0.1	0.1	1.2	1.0	4.4	3.6	2.2	1.0	15.1	16.0
2014	100.0	100.0	77.7	78.4	76.3	77.1	0.1	0.1	1.3	1.1	3.3	2.4	1.3	1.0	17.7	18.3
2015	100.0	100.0	78.1	78.9	76.7	77.7	0.1	0.1	1.2	1.1	2.9	2.0	1.2	0.7	17.8	18.4
2016	100.0	100.0	79.2	80.7	78.0	79.6	0.1	0.1	1.2	1.1	3.1	2.3	1.6	0.8	16.1	16.3
2017	100.0	100.0	80.3	81.6	78.9	80.5	0.1	0.1	1.2	1.0	2.7	2.0	1.7	0.7	15.4	15.7
2018	100.0	100.0	80.3	81.5	78.8	80.3	0.0	0.0	1.4	1.2	2.3	1.6	1.7	0.8	15.7	16.1
2019	100.0	100.0	80.7	81.9	79.4	80.8	0.1	0.1	1.2	1.0	2.2	1.4	1.6	0.9	15.4	15.8
2020	100.0	100.0	81.0	81.8	79.6	80.7	0.1	0.0	1.3	1.1	2.0	1.4	2.0	0.9	15.0	15.9

4년제 대학 예체능계열 졸업자를 100.0%로 할 경우, 취업자는 50% 중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53.3%에서 2020년에는 55.2%로서 지난 8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취업률도 2013년 51.0%에서 2020년 53.3%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에는 39.0%였으나, 2020년에 39.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는 2013년 0.2%였으나,

2020년에는 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취업자는 2013년 14.1%에서 2020년 1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8 4년제 대학 예체능계열 졸업 후 상황(2013-2020)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13	100.0	100.0	53.3	51.0	39.0	36.2	0.2	0.2	14.1	14.5	7.6	8.7	4.7	3.5	34.3	36.8
2014	100.0	100.0	54.0	52.6	39.0	37.1	0.2	0.2	14.8	15.3	6.9	7.8	5.1	3.5	34.0	36.1
2015	100.0	100.0	52.6	51.3	38.1	36.5	0.2	0.2	14.3	14.6	6.8	7.7	5.0	3.1	35.6	37.9
2016	100.0	100.0	54.0	52.3	38.8	37.1	0.2	0.2	14.9	15.0	6.8	7.8	4.7	2.9	34.5	37.1
2017	100.0	100.0	55.8	54.3	39.6	38.0	0.3	0.4	15.9	15.9	6.6	7.5	4.1	2.4	33.5	35.8
2018	100.0	100.0	54.7	53.3	37.9	36.3	0.4	0.5	16.4	16.5	6.0	6.8	4.7	3.2	34.6	36.7
2019	100.0	100.0	55.3	53.8	39.1	37.0	0.5	0.6	15.8	16.2	5.8	6.5	5.3	3.6	33.6	36.1
2020	100.0	100.0	55.2	53.3	39.0	37.1	0.5	0.6	15.6	15.6	5.9	6.7	5.9	4.3	33.1	35.6

진학률은 2013년 7.6%였으나, 2020년 5.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진학률도 2013년 8.7%에서 2020년 6.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 비율은 2013년 4.7%였으나, 2020년에는 5.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제외인정 비율도 2013년 3.5%에서 2020년 4.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34.3%였으나, 2020년 33.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상 및 기타 비율도 2013년 36.8%에서 2020년 35.6%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남학생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9 2020년 4년제 대학 계열별 비교

연도	졸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진학자 비율		제외 인정 비율		미상 및 기타 비율	
			합계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기타 취업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전체	100.0	100.0	56.0	54.0	50.6	48.0	0.5	0.5	4.9	5.5	6.8	5.9	4.8	4.9	32.5	35.1
인문	100.0	100.0	46.4	46.2	39.8	39.3	1.3	1.2	5.3	5.7	7.8	6.8	8.7	7.8	37.1	39.2
사회	100.0	100.0	55.7	52.9	51.6	48.7	0.6	0.6	3.5	3.6	2.5	2.5	6.7	7.7	35.1	36.9
교육	100.0	100.0	43.5	43.8	37.6	38.6	0.1	0.1	5.8	5.2	3.7	3.5	4.3	3.4	48.5	49.4
공학	100.0	100.0	59.4	55.9	56.3	52.5	0.5	0.4	2.6	3.0	9.1	8.7	2.3	2.1	29.2	33.3
자연	100.0	100.0	48.4	46.9	43.9	42.2	0.2	0.3	4.3	4.4	16.2	14.6	2.6	2.6	32.7	35.9
의약	100.0	100.0	80.7	81.8	79.6	80.7	0.1	0.0	1.3	1.1	2.0	1.4	2.0	0.9	15.0	15.9
예체능	100.0	100.0	55.2	53.3	39.0	37.1	0.5	0.6	15.6	15.6	5.9	6.7	5.9	4.3	33.1	35.6

4년제 대학 졸업 후 상황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높은 반면,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취업률의 경우, 의약계열이 높은 반면, 교육계열과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률의 경우,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취업률의 경우, 예체능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의 경우, 자연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인정의 경우,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및 기타 비율의 경우, 의약계열이 가장 낮은 반면, 교육계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높은 대신 미상 및 기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계열은 취업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소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학생들의 졸업 후 상황을 고찰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취업자와 니트(NEET)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여학생의 취업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취업률이 높으나, 4년제 대학의 경우 여학생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성 졸업자들이 취업시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청권과 강원권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계열별로 살펴볼 때, 의약계열이 가장 양호한 상황이고, 인문계열이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모든 학교급에서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업과 니트(NEET) 비율은 인문계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미취업자와 니트(NEET) 상태의 대졸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청년 정책에서 취업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미취업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 동태분석<sup>7)</sup>

####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절은 학교-일자리 이행을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 일자리 진입 과정은 학교 졸업 후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과 ILO(2009)에서 제시한 엄격한(stricter) 이행 여부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ILO(2009)에서는 이행 유형을 구분하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이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fit work)로의 이행을 엄격한 이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는 학교를 졸업, 중퇴 혹은 수료한 이후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첫 일자리 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적 방향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후자는 엄격한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적절한 학교-일자리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 2)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KLIPS) 자료이다. KLIPS는 도시 거주 5,000가구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처음 구축되어 2012년 2,000가구를 추가해 전국을 포괄하는 가구 패널조사로 진행 중이다. 2021년 현재 2019년에 실시한 22차 조사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KLIPS에서 첫 일자리 진입에 대한 정보는 1차 년도의 회고적 조사와 매년 신규 진입자에 대한 회고적 조사에서 이루어졌는데 개략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다. 첫 일자리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가조사 형태로 이루어진 청년층 조사에서

---

7) 이 절은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이루어졌다. 청년층 부가조사는 2000년 3차 조사와 2009년 12차 조사, 그리고 2016년 19차 조사 등 세 차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분석에서 종속변수인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진입 기간은 19차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측정된 첫 일자리 취업 연도와 월에 대한 결과와 KLIPS 개인용 자료의 학교 졸업 연도와 월에 대한 결과로 측정하였다. 19차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첫 일자리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만둔 이후 처음으로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2개월 이상 계속 취업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첫 번째 분석의 독립변수는 성별, 지역, 연령과 같은 기본적인 변수와 더불어 19차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제시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고교 유형, 대학 유형, 편입 여부, 취업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여부 등이다.

두 번째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엄격한 이행 여부이다. 엄격한 이행 여부는 ① 엄격한 이행, ② 불안정 이행, ③ 미이행 등으로 구분된다. 엄격한 이행은 정규직 여부나 만족도 여부, 직무 일치 여부, 임금 수준, 직업안정성,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였다. 19차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측정 가능한 문항을 토대로 엄격한 이행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엄격한 이행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 희망하던 일자리(문35)이거나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문31)거나 교육이나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문33, 문34)인 경우로 측정하였다. 불안정 이행은 엄격한 이행에 해당되지 않는 첫 일자리에 진입한 것으로, 미이행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2개월 이상 계속 취업한 일자리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측정하였다.

두 가지 모두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며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 수료한 경우에 한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 3) 분석 결과

첫 번째 분석은 종속변수가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이므로, 콕스비례위험 모형을 활용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분석은 원하던 일자리 인지를 고려하는 일자리 질적 측면에 따라 종속변수가 ① 엄격한 이행, ② 불안정 이행, ③ 미이행으로 구분되므로,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KLIPS의 19차 조사년도에 조사된 취업 준비 항목을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하므로, 조사의 패널성격을 활용하기는 어려워 19차년도 청년 부가조사와 개인조사 자료를 결합해 횡단면 분석으로 주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졸업년도를 통제하였다. 졸업년도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첫 일자리 획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변수는 중졸 미만, 인문계 및 특목고, 공업계 등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여 더미처리한 후 인문계 및 특목고를 기준 범주로 하여 분석하였다. 지역변수도 통제하였는데,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이 지역별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다.

개인이 하는 취업 준비는 취업 준비를 시작한 시점, 취업 준비 기간, 취업 준비 내용을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KLIPS 19차년도 부가조사에서는 취업 준비 여부를 묻고 취업 준비를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취업 준비 시작 시기를 재학 중, 졸업 유예기간부터, 졸업 후 등으로 구분해 질문하였다. 취업 준비기간은 재학 중에 시작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재학 중 취업 준비기간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졸업 후 첫 일자리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재학 중 취업 준비기간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취업 준비 시작시기가 재학 중인지의 여부는 분석에 포함되므로, 재학 중 조기 준비의 취업 도움 여부는 파악 가능하다.

취업 준비 내용은 설문지 상에서 외국어 능력 개발, 해외 어학연수, IT와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수강, 각종 자격증 취득, 공모전 참가, 취업 관련 정보 수집, 입사 면접 준비, 국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창업준비, 외모관리, 기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구분을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임용고시 등 준비 경험도 통제하였다. 설문 문항은 고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교원 임용고시, 경찰, 소방공무원 시험, 공단 등 공기업 시험 준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단 등 공기업 시험 준비와 기타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항로지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엄격한 이행, 불안정 이행, 미이행으로 구분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이행을 희망하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평균 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교육이나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 보았다. 위 조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를 엄격한 이행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 조건들 각각이 만족되는 상황을 따로 분석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령 현실에서 희망하던 일자리에 한 가지 임금이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 급히 취업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을 엄격한 이행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원하던 일자리에 취업했는지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 희망하던 일자리에 취업했는지 변수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판별하였으며(문35),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는지의 기준은 청년의 첫 일자리 임금 평균으로 하였다. 교육이나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인지는 문33에서 나의 교육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는 제외하고 같다고 응답한 경우를 일치하는 일자리로 정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공과 일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는지도 정의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교육수준과 같더라도 전공과 일이 다르면 불안정 이행으로 간주하게 된다.

먼저 졸업 후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을 분석하였다. 생존분석 결과이므로, 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취업을 더 빨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취업으로 더 느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이 짧다는 것이 일자리의 질도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희망 일자리에 취업했는지 등을 분석할 때 다를 것이다.

결과를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인문계 고졸에 비해 전문대졸이, 해외 어학연수 준비 및 연수를 해본 사람이, 연령이 높을수록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것이지만, 취업 준비 시작 시점은 늦을수록 첫 직장 취업까지 소요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이 길수록 첫 직장 소요 기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내용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경우 첫 직장 소요 기간이 증가하며, 외국어 능력 개발도 첫 직장 소요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0 생존분석 결과

설명변수		계수
여성(기준 남성)		0.160** (0.0781)
교육 (기준 인문계 고졸)	고졸 미만	0.116 (0.409)
	특성화고 고졸	0.171 (0.153)
	전문대졸	0.230* (0.137)
	4년제 대졸	-0.00895 (0.149)
	대학원 이상	0.214 (0.233)
지역 (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0.0567 (0.0820)
	비수도권·비광역시	-0.0743 (0.0952)

설명변수		계수
취업 준비 시작시점 (기준: 재학 중 시작)	졸업유예기간 시작	-0.431** (0.171)
	졸업 후 시작	-0.482*** (0.0727)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	-0.0749*** (0.0187)
취업 준비 내용	공무원 시험	-0.348*** (0.122)
	공단 등 공기업 시험	-0.294 (0.258)
	외국어 능력 개발	-0.176* (0.102)
	해외 어학연수 준비 및 연수	0.331* (0.193)
	IT,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수강	-0.0622 (0.0993)
	각종 자격증 취득	0.0159 (0.0836)
	공모전 참가	-0.279 (0.253)
	취업관련 정보수집	-0.00603 (0.0901)
	입사면접준비	0.0418 (0.0817)
	국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0.167 (0.130)
	창업준비	4.57e-05 (0.271)
	외모관리	-0.104 (0.117)
	기타	0.209 (0.731)
건강상태 좋은 편	0.0563 (0.258)	
편입여부	0.108 (0.220)	
연령	0.0490** (0.0217)	
Observations	1,048	
Pseudo R <sup>2</sup>	0.0129	

주: 괄호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 엄격한 이행, 불안정 이행, 미이행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다항로짓이므로 종속변수의 특정 범주를 기준으로 상대적 해석을 해야 한다. 여기서는 불안정 이행을 기준범주로 하였으므로, 계수가 음이면 다른 범주 대비 불안정 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양이면 다른 범주 대비 불안정 이행 가능성이 낮은 것이 된다. 이를테면, 평균 임금 기준으로 엄격한 이행 여부를 구분할 때 여성인 경우 엄격한 이행이 아닌 불안정 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 이행 가능성이 미이행 가능성보다 높다고 해석된다. 아마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일자리를 탐색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더 임금이 높은 일자리에 들어갈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적은 상황의 반영일 수 있다. 다만, 여성은 교육수준과 전공내용 측면에서는 남성보다 좀 더 일치하는 일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인문계고 졸업자와 특성화고 졸업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엄격한 이행 가능성은 높아지고, 미이행 가능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희망하던 일자리 기준에서는 전문대졸이 4년제 대졸보다 좀 더 일치하는 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 임금 이상 일자리 진입가능성에서는 인문계고졸, 특성화고졸, 전문대졸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권 여부에 따른 차이도 검토해본 결과 졸업 전 희망하던 일자리 기준으로는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균 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이행 측면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비광역시 지역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과 전공내용이 일치하는 일자리로의 취업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비광역시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시작 시점도 졸업 후 시작하면 졸업 전 시작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이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세 지표 모두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시작 시점을 통제한 상태에서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의 영향을 보면, 평균 임금 이상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이 길수록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준의 엄격한 이행도 계수부호는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경우 졸업 전 원하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아지며, 평균 임금 기준, 교육과 전공 일치도 기준 미취업으로 남을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개발능력도 평균 임금 기준, 교육과 전공 일치도 기준 미취업으로 남을 가능성을 높이며, 평균 임금 기준으로 엄격한 이행 성공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자격증 취득은 졸업 전 희망하던 일자리와 교육 및 전공내용이 일치하는 일자리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모전 참가 경험은 모든 기준에서 미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관련 정보 수집은 교육 및 전공내용 기준 불안정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면접 준비는 평균 임금이 높은 일자리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며, 국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경험은 교육 및 전공내용이 일치하는 일자리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높을수록 미이행으로 남기보다 평균 임금 기준 불안정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 취업 준비를 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항로짓 분석 결과

	희망하던 일자리 기준		평균 임금 기준		교육수준 일치도 & 전공내용 일치도	
	미이행 대 불안정 이행	엄격한 이행 대 불안정 이행	미이행 대 불안정 이행	엄격한 이행 대 불안정 이행	미이행 대 불안정 이행	엄격한 이행 대 불안정 이행
여성	-0.176 (0.288)	0.221 (0.175)	-0.733*** (0.277)	-0.971*** (0.175)	-0.154 (0.275)	0.387** (0.169)
고졸 미만	-19.27 (9,971)	-1.265 (0.930)	-19.05 (10,329)	-19.38 (6,786)	-18.93 (10,265)	-18.65 (7,092)
특성화고 고졸	-0.332 (0.533)	0.0400 (0.318)	-0.483 (0.518)	-0.559 (0.353)	-0.273 (0.513)	0.270 (0.353)

	희망하던 일자리 기준		평균 임금 기준		교육수준 일치도 & 전공내용 일치도	
	미이행 대 불안정 이행	엄격한 이행 대 불안정 이행	미이행 대 불안정 이행	엄격한 이행 대 불안정 이행	미이행 대 불안정 이행	엄격한 이행 대 불안정 이행
전문대졸	-0.000403 (0.498)	0.716** (0.293)	-0.311 (0.481)	0.334 (0.298)	-0.0210 (0.476)	1.326*** (0.319)
4년제 대졸	0.621 (0.532)	0.570* (0.318)	0.639 (0.514)	0.819** (0.323)	0.594 (0.504)	1.047*** (0.340)
대학원 이상	0.00756 (0.875)	0.897* (0.545)	0.513 (0.875)	1.786*** (0.563)	0.0525 (0.828)	1.614*** (0.525)
비수도권 광역시	0.116 (0.299)	-0.285 (0.184)	0.295 (0.285)	0.0606 (0.179)	0.298 (0.285)	-0.0118 (0.173)
비수도권·비광역시	0.338 (0.349)	0.0441 (0.216)	0.0533 (0.330)	-0.632*** (0.213)	0.169 (0.328)	-0.407** (0.204)
졸업유예기간 시작	1.007 (0.616)	-0.315 (0.375)	1.244** (0.586)	0.0481 (0.370)	0.951* (0.573)	-0.665* (0.363)
졸업 후 시작	-0.0288 (0.278)	-0.613*** (0.163)	0.193 (0.266)	-0.435*** (0.156)	0.125 (0.265)	-0.543*** (0.152)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	-17.15 (472.5)	0.0151 (0.0434)	-17.07 (477.0)	0.129*** (0.0440)	-17.19 (471.8)	0.00106 (0.0429)
공무원 시험	0.538 (0.390)	-0.677*** (0.261)	0.848** (0.379)	-0.214 (0.258)	0.879** (0.375)	-0.222 (0.253)
공단 등 공기업 시험	1.017 (0.935)	-0.0400 (0.607)	1.005 (0.903)	-0.171 (0.591)	1.161 (0.892)	0.227 (0.546)
외국어 능력 개발	0.563 (0.356)	-0.158 (0.231)	0.906*** (0.344)	0.392* (0.223)	0.760** (0.338)	0.138 (0.215)
해외 어학연수 준비 및 연수	-0.912 (0.748)	0.0485 (0.443)	-0.897 (0.721)	0.238 (0.427)	-0.957 (0.705)	-0.0201 (0.411)
IT,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수강	0.358 (0.367)	0.230 (0.233)	0.296 (0.347)	0.246 (0.215)	0.207 (0.344)	0.0149 (0.208)

	희망하던 일자리 기준		평균 임금 기준		교육수준 일치도 & 전공내용 일치도	
	미이행 대 불안정 이행	엄격한 이행 대 불안정 이행	미이행 대 불안정 이행	엄격한 이행 대 불안정 이행	미이행 대 불안정 이행	엄격한 이행 대 불안정 이행
각종 자격증 취득	0.355 (0.338)	0.513*** (0.197)	-0.146 (0.316)	-0.254 (0.181)	0.130 (0.316)	0.343** (0.174)
공모전 참가	2.343** (0.950)	0.536 (0.673)	2.015** (0.834)	0.124 (0.548)	2.520*** (0.893)	0.790 (0.573)
취업관련 정보수집	-0.128 (0.338)	-0.216 (0.202)	0.0314 (0.326)	-0.0744 (0.196)	-0.144 (0.324)	-0.355* (0.191)
입사면접준비	0.253 (0.320)	0.174 (0.188)	0.373 (0.305)	0.513*** (0.179)	0.273 (0.305)	0.265 (0.173)
국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0.407 (0.576)	0.507 (0.329)	-0.799 (0.536)	-0.0391 (0.288)	-0.453 (0.546)	0.580** (0.280)
창업준비	0.930 (0.973)	0.109 (0.611)	0.909 (0.901)	0.100 (0.622)	0.545 (0.893)	-0.853 (0.625)
외모관리	-0.356 (0.400)	-0.483* (0.251)	-0.108 (0.387)	-0.125 (0.252)	-0.0701 (0.387)	-0.0251 (0.243)
기타	41.45 (74,197)	20.20 (16,109)	40.19 (118,898)	18.70 (12,581)	46.79 (48,340)	0.136 (1.475)
건강상태 좋은 편	0.795 (1.015)	0.897 (0.670)	-0.485 (0.911)	-2.112*** (0.818)	0.323 (0.910)	0.341 (0.553)
편입여부	0.703 (0.904)	0.755 (0.576)	0.340 (0.812)	0.536 (0.480)	0.360 (0.828)	0.309 (0.469)
연령	-0.115 (0.0776)	-0.00609 (0.0487)	-0.126* (0.0743)	-0.0388 (0.0479)	-0.0773 (0.0740)	0.0764 (0.0476)
Constant	2.900 (1.788)	0.0641 (1.327)	3.124* (1.747)	1.073 (1.326)	2.010 (1.734)	-1.857 (1.324)
Observations	1,044	1,044	1,048	1,048	1,048	1,048
Pseudo R <sup>2</sup>	0.180	0.180	0.217	0.217	0.188	0.188

주: 괄호는 표준오차. 기준범주는 생존분석 결과표와 동일함. \*\*\* p<0.01, \*\* p<0.05, \* p<0.1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취업 준비 등 앞서 본 요인들이 미래 임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분석해 보았다. 이는 첫 일자리 임금 등 일자리의 질을 어느 정도 고려한 다항로짓 분석의 연장선에서 향후 임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함이다. 19차년도에 조사된 개인 임금 근로 일자리의 월임금에 대한 영향, 자영업 소득까지 포함했을 때의 영향, 3년 뒤인 22차년도에 조사된 개인의 임금 근로 일자리의 월임금에 대한 영향까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인문계고 졸업자와 특성화고 졸업자는 임금이 다르지 않았으나,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갈수록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소득을 포함하는 모형에서 학력의 계수값이 더 커져 고학력 층일수록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들의 소득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임금 근로 일자리를 비교해도 3년 뒤가 학력별로 더 큰 계수값을 보여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부호는 비수도권·비광역시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자영업 소득을 포함할 때 뿐이었다. 취업 준비 시점이 늦을수록 첫 일자리 이행 기간도 길고, 엄격함 이행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이 대해서도 졸업 후에야 취업 준비를 시작할 경우 임금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차 조사년도 개인 조사 임금, 자영업 소득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으나, 3년 뒤인 22차년도 조사에서는 통계적 유의도가 사라지고 계수 절대값도 작아져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긴 취업 준비기간의 부정적 효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취업 준비 내용별 영향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국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은 비교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앞서 생존분석, 다항로짓 분석 결과에서는 모두 부정적이었는데, 일정 시점 이후의 임금이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본 모형에서는 여전히 계수값은 부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노동시장 경험과 숙련의 누적효과를 보여주는 연령과 근속은 높을수록 임금이 높아 통상적인 임금 회귀모형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표 III-72 이후 임금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19차년도 조사 일자리 임금	19차년도 조사 일자리 임금+ 자영소득	3년 뒤인 22차년 도 조사 일자리 임금
여성	-0.162*** (0.0355)	-0.182*** (0.0352)	-0.179*** (0.0330)
고졸 미만	-0.00849 (0.209)	-0.0640 (0.214)	-0.221 (0.178)
특성화고 고졸	0.0618 (0.0760)	0.0941 (0.0749)	0.00878 (0.0718)
전문대졸	0.131** (0.0654)	0.165** (0.0649)	0.171*** (0.0629)
4년제 대졸	0.191*** (0.0680)	0.226*** (0.0671)	0.229*** (0.0662)
대학원 이상	0.415*** (0.0992)	0.467*** (0.0989)	0.427*** (0.0896)
비수도권 광역시	0.00108 (0.0371)	-0.0137 (0.0370)	0.00295 (0.0339)
비수도권·비광역시	-0.0740 (0.0450)	-0.0807* (0.0454)	-0.0278 (0.0411)
졸업유예기간 시작	-0.0177 (0.0757)	-0.00911 (0.0758)	0.0153 (0.0662)
졸업 후 시작	-0.0923*** (0.0332)	-0.0975*** (0.0334)	-0.0299 (0.0309)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	0.0139 (0.0105)	0.0119 (0.0105)	0.00558 (0.00950)
공무원 시험	-0.0545 (0.0514)	-0.0818 (0.0523)	-0.0138 (0.0467)
공단 등 공기업 시험	0.0283 (0.129)	0.0478 (0.132)	0.0424 (0.111)
외국어 능력 개발	0.0213 (0.0416)	0.0151 (0.0423)	0.0405 (0.0384)

	종속변수		
	19차년도 조사 일자리 임금	19차년도 조사 일자리 임금+ 자영소득	3년 뒤인 22차년 도 조사 일자리 임금
해외 어학연수 준비 및 연수	0.0733 (0.0839)	0.101 (0.0859)	0.0481 (0.0722)
IT,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수강	0.0174 (0.0450)	0.0175 (0.0447)	0.00755 (0.0409)
각종 자격증 취득	-0.0563 (0.0377)	-0.0530 (0.0376)	-0.0339 (0.0344)
공모전 참가	0.147 (0.103)	0.0863 (0.0976)	0.00969 (0.0944)
취업관련 정보수집	-0.0308 (0.0395)	-0.0401 (0.0399)	0.0191 (0.0360)
입사면접준비	0.0455 (0.0370)	0.0451 (0.0365)	-0.00292 (0.0339)
국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0.0726 (0.0595)	0.0795 (0.0609)	0.108** (0.0528)
창업준비	0.114 (0.234)	-0.114 (0.148)	0.139 (0.167)
외모관리	0.0541 (0.0489)	0.0634 (0.0497)	0.0231 (0.0451)
건강상태 좋은 편	-0.545*** (0.110)	-0.556*** (0.110)	0.00238 (0.108)
편입여부	0.0895 (0.103)	0.0390 (0.0930)	0.116 (0.0961)
연령	0.0244** (0.00971)	0.0164* (0.00941)	0.0168* (0.00887)
근속기간(월)	0.000126*** (1.74e-05)	0.000123*** (1.74e-05)	0.000122*** (1.61e-05)
Constant	4.074*** (0.395)	4.305*** (0.385)	4.471*** (0.329)
Observations	613	642	608
R-squared	0.270	0.258	0.312

#### 4.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에 대한 인식과 첫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첫 일자리의 특성 및 현재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은 첫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성인으로서의 사회 첫 출발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이나 출산, 주거 독립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청년기에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청년들의 성인으로서의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매우 크게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지나치게 일자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것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독립이 생애 과정상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세 가지는 일자리를 갖는 것,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과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3년에 걸쳐 분석할 주제인 일자리, 독립, 시민권의 적절성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혼과 자녀 출산은 전통사회부터 근대 산업혁명기까지 핵심적인 성인기 이행과정인데 청년들은 이에 대해 매우 낮은 응답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으로 청년정책이나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범위에 결혼이나 출산에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중요할 수 있으나 수요자 입장인 청년들의 결혼이나 출산문제는 그 자체로서 정책적 접근보다 청년에 대한 지원과 환경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청년들이 첫 일자리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첫 일자리란 일반적으로 ‘학교 졸업 후, 최소 6개월 이상,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처음으로 일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첫 일자리 개념 정의에서 졸업 여부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청년도 43.4%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많은 조사들에서 첫 일자리의 개념은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조사에서 사용되는 첫 일자리의 정의가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첫 일자리의 정의와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들의 약 94.9%는 임금근로자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67.3%가 정규직, 32.7%가 비정규직이었다. 약 60%의 청년들이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첫 일자리를 가졌으며, 1-4인의 소규모 직장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한 경우는 23.3%였다. 83%의 청년들이 민간기업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기관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하는 비율은 6.4%였다. 첫 일자리의 주당 근로시간은 41.3시간이었으며, 월 소득은 평균 214만원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 학력,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직업 안정성과 관련된 근로형태, 근로시간, 월소득, 직장 종사자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성별 격차, 학력 격차가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는 청년들의 현재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주된 특성을 살펴보자면, 88%가 임금근로, 12%가 비임금근로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72.9%가 정규직, 27.1%가 비정규직이었다. 비임금근로자의 57.8%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81%의 청년들이 민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7.3%의 청년들이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약 64%의 청년들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었으며, 1-4인 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31%였다. 현재 일자리의 월 평균 소득은 235만 8천원, 주당 노동 시간은 41.3시간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첫 번째 일자리의 특성과 현재 일자리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

면, 근로형태, 월 소득 등 청년들의 현재 일자리 직업 안정성이 첫 번째 일자리의 직업 안정성보다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현재 일자리의 분석 결과에는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인 경우의 응답과 두 번째 일자리인 경우의 응답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인 청년의 경우와 현재 일자리가 두 번째 이후의 일자리인 청년의 경우를 구분하여, 각 청년들의 일자리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일자리가 두 번째 이후인 청년들의 경우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인 청년들보다 근로형태, 근로시간, 월소득, 직장 종사자 규모, 직업만족도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한번 이상의 이직을 경험한 청년들의 경우,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하여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 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이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첫 번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일 경우 이직하지 않고 그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청년 내부에 이중 노동시장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즉,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1차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하는 청년은 첫 번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의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청년은 여러 차례 이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통해 더 나은 근로조건 의 일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본 절의 연구는 횡단자료를 통해 청년들의 현재 일자리 특성과 첫 번째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절의 연구결과, 일자리 영역에서 청년 내부의 성별 격차, 학력 격차, 지역 격차 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격차와 불평등은 이중 노동 시장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많은 청년들이 첫 번째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자리로 갖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면서까지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일자리의 특성이 종단적으로 그 이후의 일자리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로 더욱 명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학교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2020년 들어 일반고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진학률이 증가하였다. 일반고는 2019년 77.0%에서 2020년 79.4%에 높아졌고 특성화고 역시 같은 기간 42.5%에서 44.8%로 높아졌다. 특수목적고의 진학률도 57.5%에서 58.1%로, 자율고도 71.7%에서 74.3%로 높아졌다. 2020년 들어 대학 진학률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져 진학을 선택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20년 이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은 77%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같은 기간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은 2013년 41.7%에서 2017년 32.8%까지 낮아졌으나 다시 상승해 2018년 42.5%로 높아졌다. 특성화고의 진학률 상승은 2018년에는 2017년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로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을 마친 뒤 안전성을 검증받은 선도기업에서 이루어지면서 취업이 위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특성화고는 2013년 70.1%에서 2019년 54.6%까지 떨어졌으며 공공DB를 연계해 측정한 2020년에 49.2%까지 낮아졌다. 일반고는 2013년 8.1%에서 2016년 10.1%까지 증가한 후 2019년 8.9%까지 낮아졌다. 일반고 직업반과 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 2020년 일반고의 취업률은 7.5%를 보여주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을 보면, 고학력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계속교육이 아닌 완성교육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취업률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등교육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2% 내외의 취업자 비율을 꾸준히 보여주었으며 2020년 들어 취업자 비율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0.8%p 감소하였다. 청년 니트(NEET) 비율과 유사한 미상

및 기타 비율은 2013년 29.4%에서 2020년 25.7%로 감소하였다.

4년제 대학 졸업자는 56% 내외의 취업자 비율로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6%p 내외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2020년 들어 취업자 비율은 1.1%p 낮아졌다. 반면 미상 및 기타 비율은 31.8%에서 32.5%로 높아져 전문대 결과와 차이를 보여주었다. 대학원을 비롯한 학교 진학률은 2013년 8.4%에서 2019년 6.7%까지 낮아졌으며 2020년 들어 6.8%로 0.1%p 증가하였다. 대학원 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학률은 낮아지고 있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동태적 분석 결과를 보면,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원하는 일자리로의 매칭 또는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요인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여성이 짧고, 전문대졸이 짧고, 해외 어학연수자가 짧으나, 엄격한 이행 가능성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고,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 준비자에게서 높고,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여성은 교육 및 전공 적합도가 일치할수록 엄격한 이행 가능성이 높으나 평균 임금 기준으로는 엄격한 이행 가능성이 낮았다. 지역은 비수도권·비광역시일수록 평균 임금 기준 불안정 이행 가능성이 높고, 교육 및 전공일치도도 낮을 가능성이 높았다. 외국어 능력 취업 준비는 평균 임금 기준, 교육 및 전공일치도 기준 불안정 일자리를 갖기보다는 아예 미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일치하는 변수도 있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엄격한 이행 가능성을 낮췄다. 공무원 시험은 원하는 일자리로의 매칭 가능성은 낮추나, 평균 임금 기준 및 교육 전공 일치도 기준 엄격한 이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지는 않았다.

몇 년 뒤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취업 준비 관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근속, 연령, 성별, 지역 같은 인적자본 임금 회귀모형의 전통적 구성요소들 및 취업 준비 시점이 졸업 후인 경우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취업 준비 시점 변수의 유의성은 3년 더 시간이 흐르면 통계적 유의도가 사라졌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취업 준비는 조기에 시작되어야 긍정적 영향을 갖고, 뒤늦게 시작되어서는 긍정적 영향을 갖기 어려움과 동시에, 개별적인 취업 준비 노력이 갖는 효과는 일시적이며, 그 영향은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서 지속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진입 후 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취업 준비 과정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다. 정책적으로 개입한다면 재학 중에 졸업 이후 노동시장 경력을 미리 결정하고 미리 취업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진로 지도, 그에 맞는 취업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제4장 사회 첫 일자리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

- 1. 학교-일자리 이행기에 있는  
청년 면접조사 개요
- 2. 심층면접 결과
- 3. 요약 및 시사점



### 1. 학교-일자리 이행기에 있는 청년 면접조사 개요

#### 1) 심층면접의 목적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기에 있는 청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는 설문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정책과 같은 대상 중심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정책 연구 추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은 올바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기에 있는 청년에 대한 심층면접은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인으로서의 사회 첫 출발과 첫 일자리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질문은 올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도 신규 조사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여기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사회 첫 출발과 첫 일자리의 의미에 대해 이행기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두 번째 질문은 이행기에 직면해 있는 청년에게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다. 마지막 질문은 이행기에 직면해 있는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정책 수요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8)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 2) 심층면접 참여자

심층면접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나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 혹은 이미 취업에 성공한 청년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지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애란, 송영선, 이희수(2017)는 괜찮은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입직에 성공한 비 서울 소재 대졸자 15명을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괜찮은 일자리 여부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월평균 200만 원 이상으로 정규직이거나 정규직이 보장된 인턴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직접적으로 이행기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 진입 성공 요인과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취업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노경란, 변정현(2016)도 취업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입직 후 초기 적응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졸업 후 취업을 한 지 1년 미만인 특성화고 여성 졸업자를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할 경우 취업성공 요인과 더불어 취업 이후의 상황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취업 후 상황이라는 점에서 취업실패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취업 준비생으로 절박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공수연, 양성은(2012)은 동질적 표본추출 방법(homogeneous sampling)으로 동질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4년제 졸업자로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 32명을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첫 취업까지 평균적으로 11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2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동시에 면접은 미혼 남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 결과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김민영, 장원섭(2017)은 취업스터디에 대한 경력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졸업생

이나 재학생 혹은 졸업유예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25세에서 29세로 20대 후반이었고 4년제 대학 재학이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재학생은 3명(4학년 1명, 졸업유예 2명)이었고 졸업생은 5명이었다. 전공분야는 인문 사회분야가 5명이었고 공학 분야가 3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취업 후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에서 첫 취업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어려움을 느꼈고 어떤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당사자적 관점에서 현재 이행기에 직면한 청년들이 보다 절실한 목소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대상 선정 시에 고려하였다.

### 3) 심층면접 내용

심층면접에서 질문 내용은 사회 첫 출발과 첫 일자리에 대한 인식, 취업 준비 과정과 생활상, 마지막으로 이행기에 직면한 청년에 대한 정책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공수연, 양성은(2012: 53)은 취업 준비, 취업 시도, 취업 실패, 취업 정체, 취업 전환 등 5가지의 순환 과정에 따라 취업 준비생에게 질문을 하였다. 취업 준비는 취업에 대한 동기, 취업에 대한 기준, 취업 준비의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취업 시도에서 실패를 거쳐 정체된 상황을 보여준 뒤 다시 취업 준비로 전환하는 과정을 따라 질문이 이루어졌다. 취업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과 평가가 다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어떻게 사회 첫 출발과 첫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 질문은 청년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양적인 결과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왜 첫 출발을 그렇

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2021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사회 첫 출발과 관련하여 “귀하는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① 학교를 졸업하는 것, ②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③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④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⑤ 결혼하는 것, ⑥ 자녀를 출산하는 것, ⑦ 주택을 구입하는 것, ⑧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선거권, 운전면허 등) 중에서 1가지만 선택해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첫 일자리에 대해서는 “귀하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후 ① 학교 졸업여부, ② 근로 기간, ③ 주당 근로 시간에 대한 선택지를 제시한 후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를 “학교 졸업 후 최소 12개월 이상,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처음으로 일한 일자리”로 응답하는 것이다.

심층면접에서는 설문조사와 동일한 질문을 던진 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이어서 첫 일자리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취업에 대한 목적과 기준을 비롯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표 IV-1 학교-일자리 이행에 직면한 청년 심층면접 질문**

<b>&lt;사회 첫 출발과 첫 일자리의 의미&gt;</b>	
이행에 직면한 청년 입장에서 사회 첫 출발과 첫 일자리의 의미에 대한 질문	
1. 본인이 생각하는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과 첫 일자리	3. 취업 목적과 기준
2. 사회 첫 출발과 첫 일자리를 그렇게 생각한 이유	4.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
<b>&lt;취업 준비 과정과 일상생활&gt;</b>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	
1. 취업 준비 노력	3. 하루 일과와 취업 준비 이외의 생활
2. 취업 시도 과정과 실패	4. 가장 큰 고민거리와 어려움, 느낀 점
<b>&lt;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gt;</b>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수요 질문	
1. 정부정책 인지 및 참여 여부	3.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정부정책
2. 참여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4. 취준생에게 하고 싶은 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영역은 취업 준비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시험이나 면접 등 취업 시도 과정과 실패 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취업 준비 외에 일상생활의 경험을 듣기 위해 하루 일과와 취업 준비 이외의 생활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 영역에서는 취업 준비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고민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하였다.

세 번째 질문 영역은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이다. 이 영역에서는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수요를 물었다. 먼저 여기에서는 정부정책 인지 및 참여 여부를 물었고 참여 경험이 있을 경우 참여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어서 공통질문으로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정부정책과 취업 준비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 4) 심층면접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대면조사(IDI)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학교 졸업을 앞 둔 청년과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1대 1로 24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학교 유형에 따라 이행기에 직면한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일반계고와 직업계고를 1대 1로 조사하고 2년제와 4년제도 1대 1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 졸업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대학원 진학 자체도 일종의 사회 첫 출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은 남녀가 1대 1이 되도록 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6-7월 중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8월에 마무리하였다. 개별 면접은 40분에서 60분 사이로 진행하고 1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대한 분석은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를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면접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에 대한 빈도분석(word cloud)과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 간의 관계에 대한 맥락분석(word tree)이다. 맥락 분석은 사회 첫 출발 인식에 대한 분석에 한정해 이루어졌다.

표 IV-2 학교-일자리 이행에 직면한 청년 심층면접 개요

구 분		면접 방법
면접대상자 수		24명 내외
면접대상 구성	재학 여부	학교 졸업을 앞 둔 청년 10명,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10명
	학교 특성	일반계고 5명, 직업계고 5명 2년제 5명, 4년제 5명
	인구학적 특성	성별 1:1, 지역별로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 1:1
면접방식		일대일 면접
면접일시		2020년 7-8월
면접시간 및 횟수		40분-60분 내외, 1회
면접자		연구진

## 2. 심층면접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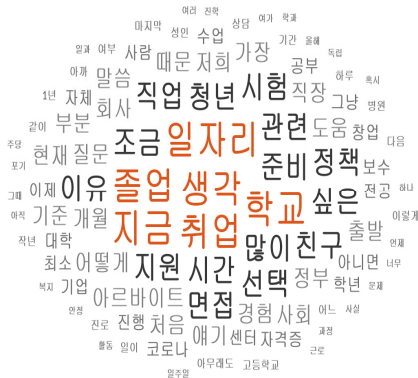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면접자는 24명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졸업 예정자인 면접자는 12명이었고 2년제를 포함하여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인 면접자도 12명이었다. 고교단계의 면접자는 남자가 7명, 여자가 5명이며 일반계고는 6명, 직업계고도 6명이었다.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도 1:1로 각각 6명씩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연도는 2007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이 1명이었고 2019년이 2명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입학연도는 모두 2019년으로 3학년생들이었다. 출생연도는 가장 나이가 많은 1989년생부터 가장 나이 어린 2003년생까지 분포되어 있다. 2003년생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IV-3 학교-일자리 이행에 직면한 청년 심층면접조사(IDI) 참여자(24명)

구분	ID	성별	학교	졸업여부	졸업연도 (입학연도)	출생연도	지역
고교 졸업 / 예정	09	남자	일반계고	졸업	2015년	1997년	서울
	13	남자	일반계고	졸업	2007년	1989년	광주
	17	남자	일반계고	졸업예정	(2019년)	2003년	부산
	19	남자	일반계고	졸업예정	(2019년)	2003년	경기
	20	남자	직업계고	졸업	2016년	1997년	경기
	23	남자	직업계고	졸업	2014년	1995년	대전
	16	남자	직업계고	졸업예정	(2019년)	2003년	서울
	18	여자	일반계고	졸업	2019년	2000년	서울
	04	여자	일반계고	졸업예정	(2019년)	2003년	서울
	24	여자	직업계고	졸업	2019년	2000년	부산
	10	여자	직업계고	졸업예정	(2019년)	2003년	서울
	12	여자	직업계고	졸업예정	(2019년)	2003년	광주
대학 졸업 / 예정	14	남자	4년제	졸업	2020년	1992년	부산
	01	남자	4년제	졸업예정	(2015년)	1996년	서울
	07	남자	4년제	졸업예정	(2014년)	1995년	대전
	05	남자	2년제	졸업	2021년	2000년	서울
	11	남자	2년제	졸업예정	(2020년)	2001년	서울
	15	남자	2년제	졸업예정	(2020년)	1998년	광주
	06	여자	4년제	졸업	2020년	1995년	서울
	03	여자	4년제	졸업	2016년	1994년	광주
	08	여자	4년제	졸업예정	(2015년)	1996년	서울
	02	여자	2년제	졸업	2020년	1997년	서울
	21	여자	2년제	졸업	2016년	1995년	대전
	22	여자	2년제	졸업예정	(2018년)	1994년	부산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인 면접자 중 남자와 여자는 6명으로 같았고 2년제와 4년제, 졸업자와 예정자 모두 1:1로 6명씩 조사하였다. 대학 졸업자의 졸업연도는 2016년에 졸업한 응답자가 2명, 2018년이 1명, 2020년이 3명, 2021년이 1명 등이었다. 대학 졸업예정자의 입학연도는 2014년이었고 2021년이 가장 최근이었다. 졸업연도는 90년대생이 8명이고 2000년대생이 2명이었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면접자들의 응답내용에 대한 단어 빈도 분석(word cloud)을 시도한 결과가 [그림 IV-1]이다. 가장 사용빈도가 많았던 단어는 ‘일자리’였으며 ‘학교’와 ‘졸업’, ‘취업’이었고 연결 단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생각’이나 ‘지금’이라는 단어 사용의 빈도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첫 출발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 첫 출발 중에서도 학교-일자리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질문 영역별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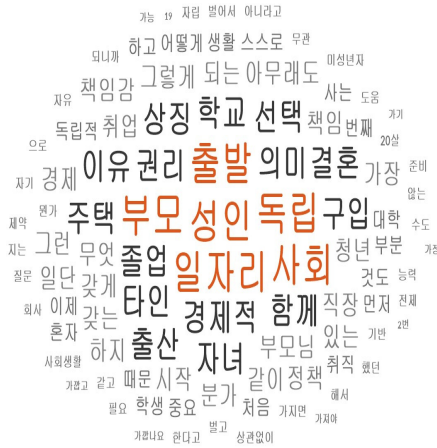


\* 주) Nvivo의 도식화 기능 활용, 심층면접에서 나온 단어를 시각화한 것으로 단어의 사용빈도가 많을수록 크게 표기됨.

**그림 IV-1 청년 면접자의 주요 단어 빈도분석(word cloud)**

## 1) 사회 첫 출발의 의미

이 연구에서 청년들에게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은 사회 첫 출발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사회 첫 출발에 대한 질문에 답한 응답만을 제한해 빈도분석을 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일자리’였다. 이어서 많이 언급된 단어는 ‘성인’, ‘부모’, ‘독립’, ‘출발’, ‘사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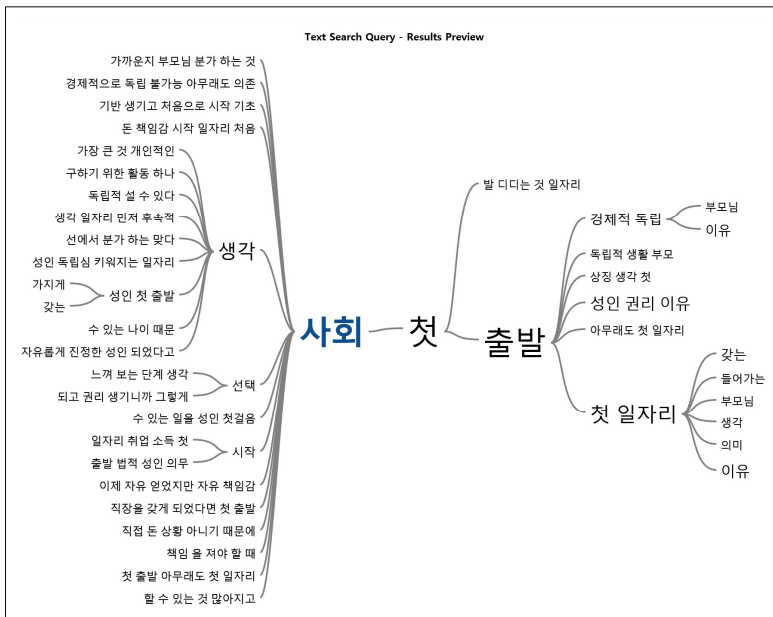


\* 주) Nvivo의 도식화 기능 활용, 심층면접에서 나온 단어를 시각화한 것으로 단어의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크게 표기됨.

그림 IV-2 청년 면접자의 ‘사회 첫 출발’ 질문 주요 단어 빈도분석(word cloud)

이 연구에서는 사회 첫 출발의 의미는 연결고리를 갖는 맥락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 빈도분석과 함께 맥락분석(word tree)을 시도하였다. 단어의 의미들 간에 맥락을 살펴보는 출발점은 ‘사회’였다. ‘사회’라는 단어는 ‘첫’이라는 단어와 ‘출발’이라는 단어로 연계되며 이 연구의 제목이기도 한 “사회 첫 출발”로 묶인다. ‘사회’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기도 하고 ‘선택’, ‘시작’이라는 단어와도 묶이지만 어떤 맥락을 갖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사회 첫 출발”이라는

연결고리와 가장 강력하게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첫 일자리”였다. 이는 사회 첫 출발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라는 맥락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경제적 독립”과 “성인 권리 이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사회 첫 출발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과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맥락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 주) Nvivo의 도식화 기능 활용, 심층면접에서 나온 단어를 시각화한 것으로 단어와 단어 간의 연결 고리가 표기됨.

그림 IV-3 청년 면접자의 ‘사회 첫 출발’ 질문 주요 단어 맥락분석(word tree)

그렇다면 구체적인 응답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회 첫 출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첫 출발은 곧 첫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답변한 청년들이 많았다. 24명의 응답자 중 11명이 사회 첫 출발의 의미로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사회 첫 출발은 경제적으로 홀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하므로 사회 첫 출발의 시작은 당연히 첫 일자리라는 것이다.

*저는 첫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취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경제적인 독립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월급을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를 졸업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졸업했다고 취직이 된 게 아니기도 하고 제가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 졸업이 첫 출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I.05, 남성, 2년제 대학 졸업, 서울)*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도 첫 일자리라는 답변이 많았다. 학교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학교 졸업이 첫 출발이 될 수 없고 학교를 졸업한 후 이루어지는 취업이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목적 자체는 전인적인 성장과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학교 교육의 목적은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일 수 있다.

*저는 26살인데 지난 6년간 일도 하지 않고 대학만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노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는 것이 첫 출발이지 않나 싶어서 첫 일자리를 첫 출발로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중요한데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아가려면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 돈 벌어서 사는 시점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I.01, 남성,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서울)*

사회 첫 출발이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면접에 참여한 청년 중 8명은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이 사회 첫 출발이라고 답변하였다. 고교 졸업 예정자 대부분은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응답하였다.

청년은 성인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특성을 갖는데 대체로 권리보다는 의무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성인식을 생각하면 되는데 정식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어떤 통과의례를 거쳐야 하고 이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반대로 권리 측면에서 볼 때 성인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행위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성인기이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술집에 갈 수 있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아닌 자신의 결정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성년자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때 저는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가 항상 필요하지만 그런 게 필요 없어졌을 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I.04, 여성, 일반계 고 졸업예정자, 서울)*

마지막으로 사회 첫 출발의 의미에 대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라는 응답도 5명으로 적지 않았다. 첫 일자리라는 응답 중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답변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를 고려해 볼 때 청년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독립은 사회 첫 출발의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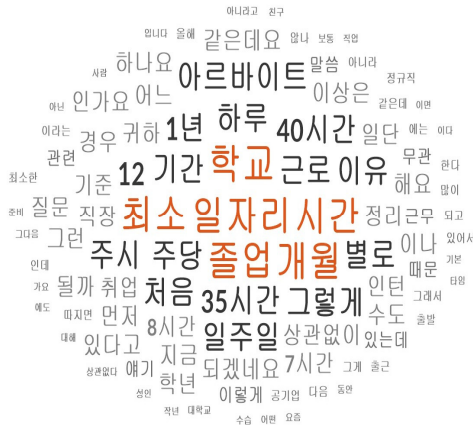
*첫 출발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경제적 독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단순히 떨어져 산다고 독립한 것은 아니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든, 따로 살든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때 사회적으로 출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03, 여성, 4년제 대학 졸업, 광주)*

반면,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해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아니라 경제적인 의존 여부가 독립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첫 일자리의 의미

이 연구에서 두 번째 질문은 첫 일자리의 의미이다. 실태조사에 이루어진 조사 내용은 학교 졸업 여부, 최소 기간, 일주일에 최소 일하는 시간 등이다. 예를 들면 “학교를 졸업하고 최소 1년 이상 일주일에 최소 40시간 이상 처음으로 일한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정의해 볼 수 있다. 면접에서는 실태조사와 동일한 질문을 던진 후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동시에 직업관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직업선택 기준과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지를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주요 단어의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일자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이어서 ‘학교’, ‘최소’, ‘시간’, ‘졸업’, ‘개월’ 등이었다. 이는 첫 일자리를 학교 졸업 여부와 최소한의 기간과 주당 일하는 시간을 물어본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 주) Nvivo의 도식화 기능 활용, 심층면접에서 나온 단어를 시각화한 것으로 단어의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크게 표기됨.

그림 IV-4 청년 면접자의 ‘첫 일자리’ 질문 주요 단어 빈도분석(word cloud)

첫 일자리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인 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 응답자 중 3명을 제외하고 19명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시작되는 일자리가 첫 일자리라고 응답하였다. 최소 어느 정도 일을 해야 첫 일자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응답자 중 18명은 12개월 이상을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일주일에 최소 3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명이었고 4명은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먼저 첫 번째 기준과 관련하여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일종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정이나 학교도 사회라는 큰 틀에 포함되지만 매우 친근하거나 가까운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와 구분된다는 것이다.

*저한테 일자리라는 것은 대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에서 내딛는 첫 발자국 같은 것인데 그러려면 대학이라는, 대학생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직장이라는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졸업 후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I.08, 여성,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서울)*

졸업 여부와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나 인턴과 같은 일자리는 첫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경험한 청년들은 직장생활 중에서 자신을 사원으로 보지 않고 직원이 아닌 존재로 구분하는 일들을 겪었고 이러한 체험이 단기적인 시간제 노동을 첫 일자리로 보지 않는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일단 보통 졸업 전에 취직해서 첫 직장이라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들어가야지 첫 일자리이고, 그전에는 약간 아르바이트나 조금 인턴 느낌이 강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3개월 이상은 일해야 첫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건 들어가면 수습 기간이 있는 직장이 있으니까 수습 기간이 지나고 제대로 된 100% 급여를 받을 시점이 정규직으로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I.02, 여성, 2년제 대학 졸업, 서울)*

얼마 전에 인턴을 했는데, 인턴십을 하는 것 자체가 직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업의 연구소 안에 있었는데도 인턴과 직원간의 차이가 컸습니다. 인턴은 업무 시간 자체도 적고 계약직으로 들어가니까 첫 직장으로 볼 수 없다고 느꼈어요. 직접 인턴을 해보면서 아르바이트나 인턴과 같은 생활부터 첫 일자리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I.01, 남성,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서울)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들도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1년 이상 장기간으로 일하는 것이 첫 일자리의 조건으로 언급하였다.

1년 미만은 아르바이트나 인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일 년 이상은 되어야 일자리를 가진 직장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당 노동시간은 말씀하셨다시피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로 이렇게 길게 채울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기간제. 한시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있어서 일자리란 안정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생각해서 주당 45시간 하루에 9시간 정도 일해야 일자리로 여겨진다고 생각해요. (I.08, 여성,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서울)

취업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일주일간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아르바이트나 인턴도 취업 경험으로 볼 수 있지만 청년들 중 대다수는 단기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는 취업 개념과는 달리 직업 개념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비롯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통계청, 2017: 11)고 정의하고 있다.

첫 일자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응답자들이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에서는 면접 참여자들에게 ‘일 그 자체’, ‘보수’, ‘여가’, ‘안정’ 등 4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직업 선택의 기준인가와 취업을 위해 한 가지를 굳이 포기해야 한다면 4가지 중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가를 질문하였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가'가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 그 자체'가 25.0%, '안정'이 20.8%, '보수'가 16.7%로 가장 적었다. 반대로 포기해도 되는 기준은 '일 그 자체'가 37.5%로 가장 많았고 '여가'가 16.7%로 가장 적었다. 이 결과는 요즘 청년들이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곧 청년들은 노동시간이 길지 않고 야근이나 주말 출근 등이 없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이 보장된 직장을 원하였다. 한편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각각 12명 씩 응답해 팽팽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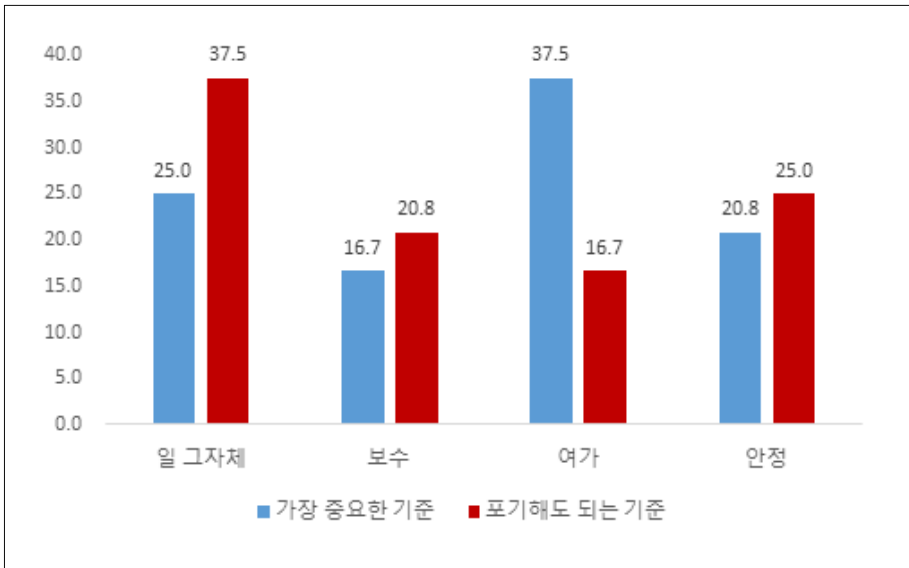


그림 IV-5 청년 면접자의 가장 중요한, 포기할 직업기준 응답분포(%)

직업사회학, 산업심리학, 진로교육학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일자리이다. 이 질문에서 '일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질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지만 포기해도

되는 기준이라는 질문에서 첫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일종의 모순적인 응답인데 대학 진학 시 학교와 전공 중에서 학교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로 보인다. ‘일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응답한 청년이 많았지만 그렇게 응답하지 않은 청년들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일 그 자체’를 선택하였다.

한 청년은 ‘여가’를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응답하고 ‘일 그 자체’를 포기해도 되는 기준으로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단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도 제가 퇴근하고 나서 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된다면 일 그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당장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유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수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포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I.14, 남성, 4년제 대학 졸업, 부산)*

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일에서 찾지 않고 여가에서 찾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일 그 자체’는 포기해도 되는 기준으로 선택되는 것과 연결된다.

반면, ‘일 그 자체’를 선택한 청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직접 찾아나서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였다.

*일 그 자체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 퇴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과 관련하여 지금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보단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퇴사하고 원하는 일을 직접 찾아 나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I.10, 여성, 직업계고 졸업예정, 서울)*

이러한 결과는 과거 장인정신과 같이 일 그 자체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토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여가를 즐기는 삶을 요즘 청년들이 더 추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3) 취업 준비 과정과 일상생활

취업 준비과정은 중등교육 단계와 고등교육 단계 간에 차이가 존재해 우선 고교 단계별로 학교의 역할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지원과 진로 상담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일반계고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어떤 진로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계고의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3학년 때 직업반이나 직업과정을 운영해 취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번에 면접을 진행한 청년 중에서 직업반을 경험한 사례는 없었다. 대부분 응답자들은 개인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일반계고에서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 상담은 거의 없고 진학상담만 이루어져요. 직업과정이라고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직업학교로 보내는 게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없었고 제과제빵 정도만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I.04, 여성, 일반계고 졸업예정자, 서울)*

직업계고는 계속교육이 아닌 완성교육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계고는 현장실습이나 일학습병행제, 협약학과, 학교추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진로 및 취업 상담분야는 취업지원관을 두고 있을 정도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어 일반계고보다 나은 편이나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

*취업지원관이라고 해서 선생님 중에 취업 지원에 초점 맞춰서 하시는 분은 계세요. 그런데 별도의 취업 상담 같은 것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리 전공이어서 대학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진짜 이 직업을 전공으로 직업을 삼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수업이나 면접 같은 거 도움 받은 것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I.12, 여성, 직업계고 졸업 예정, 광주)*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해 졸업 전에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로 197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독일이나 스위스의 이원화제도(dual system)를 한국형으로 적용해 추진되었다.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으로 2018년 이후 안전이 일정 정도 보장된 기업(선도 기업)에 한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진행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실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발생하였다. 다만, 2020년과는 달리 2021년부터 학사운영을 마치고 2학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질문 학교에서 회사가서 하는 실습은 받아보셨나요?

응답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어요.

질문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언제 받습니까?

응답 2학년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회사 가서 실습 형태로 진행해요.

질문 그러면 작년 코로나 때문에 실습이 진행되지 않았고, 올해도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응답 예.

질문 현재 제도 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응답 제 친구들은 취업을 이미 해서 나간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실습을 나가지 못하더라도 외부 강사 초빙해서 일부 인원끼리 강의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미 고3 중에서 취업한 친구들이 있나요?

응답 있어요.

질문 그 친구들은 학사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2학기 학사 운영?

응답 일단 학교에서는 3분의 2 수업 이수만 채우면 8월 16일부터 출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합격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회사 일만 하고 학교는 시험볼 때만 오는 거로 하고 있어요.

질문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응답 예.

질문 대부분 그렇게 취업이 된 친구들은 시험공부 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응답 잘하는 애들은 회사 업무 끝내고 와서 집 가서 잘 하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I.10, 여성, 직업계고 졸업예정, 서울)

직업계고 졸업자 중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전에 현장실습을 받았던 응답자로부터 이전에 진행된 현장실습 중에서 병역특례와 연결된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 청년은 현장실습을 진행한 기업에 병역특례로 입사했지만 기간이 종료한 뒤 회사를 그만두었다. 병역특례생은 주로 엔지니어 등 기술직과 함께 일을 하는데 대학이나 대학원 이공계 졸업자들이어서 학력에 따른 저임금과 전혀 다른 대우를 경험하면서 그만두고 진학을 고려하는 사례가 많았다.

질문 앞서 첫 일자리 여쭙볼게요. 언제 취업하셨습니까?

응답 고3 졸업 전에 2016년 10월에 입사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게 현장실습과 관련되나요?

응답 현장실습 통해서 취업 나왔습니다.

질문 나가서 계신 거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을 하셨나요?

응답 제가 병역특례로 군 복무 대신하면서 3년 4개월 정도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질문 병역특례는 받으셨나요?

응답 예.

질문 꽤 오래 계셨던 건데 급여는 어땠어요?

응답 이게 아무래도 특례다 보니까 그 해에 맞춘 최저 시급을 받았습니니다.

질문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응답 일이 많을 때는 토요일, 격주로 토요일 오전만 근무하고 일이 많을 때는 잔업을 일주일에 세 번 했던 것 같아요.

질문 잔업 수당이나 휴일 수당 이런 게 나왔습니까?

응답 그건 잘 나왔습니다.

질문 그런 건 엄격하게 지급이 되었다. 그러면 일종에 어떻게 보면 특례지만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응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4대 보험 가입이 됐나요?

응답 예.

질문 연차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응답 이게 처음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눈치가 보였는데 퇴사 직전 갈수록 일이 줄어들어서 연차를 오히려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질문 거기 일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기숙사 같은 데서 생활하셨나요?

응답 아니요. 지하철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적응 안 되는 거 빼고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출퇴근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지 않았나요?

응답 지하철 한 정거장 차이여서.

질문 집 근처네요. 병역특례면 한 달 정도 훈련은 받죠? 한 달 훈련 받고 병역 혜택 보고 그다음에 했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다면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응답 지금 생각하면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당시에는 어떠셨나요?

응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직장이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겹치면서 만족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만족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질문 그만둔 이유는?

응답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정비 쪽을 희망하다 보니까 제가 하던 일은 제조 쪽이었는데 정비 쪽을 하려면 더 지식을 알아야 하고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생각해서 그만뒀고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I.15, 남성, 2년제 대학 졸업예정, 광주)

대학생들도 현장실습을 받는다. 대학의 현장실습은 학점 이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사항이다 보니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에서 허드렛일만을 시키거나 괴롭힘에 가까운 업무를 부여하는 사례도 있었다.

간호사도 교대생의 교생 실습처럼 실습이 있습니다. 말이 실습이지 병풍 역할만 했습니다. 일을 시키긴 하는데 허드렛일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병원은 그냥 8시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 있게만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병원은 돈 많이 받는 간호사가 일하듯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간호 파트가 되게 여러 분야가 있으니 응급실도 갔다가 수술실도 갔다가 병동도 갔다가 중환자실도 갔다가 저에게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I.02, 여성, 2년제 대학 졸업, 서울)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2020년 8월에 졸업한 한 명문대 출신 취업 준비생은 1년 동안 무려 80군데에 이력서를 냈지만 최종 합격된 곳은 없었다.

질문 작년 8월 졸업 후에 몇 군데나 이력서를 내셨나요?

응답 엄청 많이 냈어요. 작년 하반기에 40개, 올해 상반기에도 그 정도 냈습니다.

질문 한 80여 개 냈네요. 채용시험을 다 보았나요?

응답 거의 다 시험 봤어요.

질문 서류 전형이 먼저입니까? 시험이 먼저입니까?

응답 서류가 먼저예요.

질문 서류는 통과했나요? 80군데 되는데?

응답 아니요. 10% 정도는 서류에서 떨어져요.

질문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많이 떨어지셨겠네? 그러면 최종 면접까지 간 건 몇 건 정도 되나요?

응답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질문 그 중 최종 합격은 없나요?

응답 예, 없어요. 그래도 괜찮은 대학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합격한 곳이 없네요. **(1.06, 여성, 4년제 대학 졸업, 서울)**

계속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드디어 구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 중인 응답자도 있었다. 이 청년은 방과후 학교 강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파견 노동자였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컴퓨터 강의를 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까지 했는데 1년 2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방과 후 강사가 코로나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사처럼 일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없으면 수강하는 학생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학교에 파견을 하는 회사 측에서 제가 수업을 못 나오더라도 금액을 지원해주는 게 했어요. 지원은 받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래 쉬었다 복귀하고 여기저기 학교도 옮겨 다니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여기서 꾸준히 해야지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 내가 여기서 계속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히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사무직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타격이 덜한 거로. **(1.03, 여성, 4년제 대학 졸업, 광주)**

공무원 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면접에 참여하였다. 한 명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일반행정직으로 7급과 9급 시험을 병행해서 준비 중이었다. 두 명 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인터넷강의를 듣고 스터디카페 등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례였다.

이번 면접조사에서 정규직에 취업한 후에 이직을 한 사례도 두 명이나 있었다.

특히 대기업으로 제조업 공장에서 매우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다가 그만둔 청년도 있었다.

질문 그러면 그 첫 일자리 여쭙 볼 게요. CAD 전공 살려서 취업하신 건가요?

응답 아니요. 전공이랑 상관없이 용접으로 들어갔어요.

질문 고 3때 취업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졸업 후에 취업되셨습니까?

응답 3학년 때 확정이 났어요. 군대 졸업하고 들어가서 일 하다가 군대 갔고 복직을 했지요.

질문 그러면 급여 수준 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응답 저 같은 경우 초봉이 3500정도 들어 왔어요.

질문 대기업인 것 같은데 울산의?

응답 맞아요. 〇〇〇중공업입니다.

질문 그러면 거기 몇 년 다니셨나요?

응답 1년 다니다 군대를 갔다가 복귀해서 3년 반 다녔습니다.

질문 다른 조건은 어땠나요? 급여는 말씀해 주셨고.

응답 복직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노조가 있다 보니 그런 쪽에서는 편하게 했어요.

질문 주거도 기숙사 같은 거 제공받았나요?

응답 예. 월 5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기숙사 안에 같이 사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응답 저희는 2인 1실이었는데 회사마다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여서 동기들끼리 방을 쓸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친한 동기 가 있으면 친한 동기와 같이 방을 썼습니다.

질문 그러면 동료와 지내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응답 예. 딱히 크게 트러블이 있지 않았어요.

질문 그러면 다니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응답 집에서 나와 혼자 살았을 때 겪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질문 일하는 과정에서는?

응답 작업하다가 아무래도 많이 혼났습니다. 설계 전공인데 용접 업무여서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질문 일이 익숙해져도 사고 위험은 있지 않았나요?

응답 사고 위험도 있고 이게 저는 고졸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는 의미는 꽤 오랫동안 막내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한 곳은 고졸을 잘 안 뽑는 부서인데 그래서 저랑 제 동기가 투입되어 들어가서 아마 10년 이상 막내로 지냈을 거예요.

질문 막내다 보니 허드렛일도 많이 해야 하고 혼나는 일도 많고 문제가 있었네요. 좋았던 점은 없을까요?

응답 좋았던 건 여러 사람한테 밥 얻어먹고 사주는 건 없고 얻어먹기만 해서

질문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게 중요했나요?

응답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회사추천서가 들어와서 학교에서 3명 선출해서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뽑혔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교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고 출결 사항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학생 때 대기업을 가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의지를 선생님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 추천 못 받으면 성적 우수해도 못 가는 거니까?

응답 그렇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니까 그만큼 알아봐 주고.

질문 당시에 몇 명 정도 대기업을 갔나요?

응답 저 당시에는 저희 과에서 저밖에 없었어요.

질문 과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응답 120명 정도

질문 학교 전체에서 대기업 간 사람이 혼자였나요?

응답 아니요. 세 명입니다. 그 친구들은 기능반에 들어가서 매일 용접 한 애  
들이고 같이 입사 했어요. (I.20, 남성, 직업계고 졸업, 경기도)

어렵게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지만 그만둔 사례로 도면설계를 배웠으나 학교  
성적이 우수하여 배운 적이 없는 용접으로 취업을 하였다. 그런데 전공이 맞지  
않았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그만둔 이유였다. 회사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후 대기업 경력이 취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대기업에  
최종 면접단계까지 갔으나 중견, 중소기업은 대기업 경력으로 인해 서류 단계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청년들은 정규직 취업 후에 이직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일반  
계고 졸업자 중 정규직으로 일하다 그만둔 사례는 없었다. 2년제나 4년제 졸업자  
들도 비슷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1년 이내에 그만둔 경험이  
전부였다.

#### 4)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24명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실제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경험한 사례  
는 거의 없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던  
사례가 2명이 있었으며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된 청년 취업성공패  
키지에 참여한 사례가 1명, 추경으로 형성해 긴급 일자리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일자리에 참여한 사례도 1명이 있었다. 특히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했던 한 청년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도 참여해 두 사업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질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셨어요?

응답 예, 참여했습니다.

질문 취업성공패키지 어떠셨는지?

응답 저도 그랬지만 대학 나오면 의외로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 외로 취업 자격증이나 이런 게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취업패에 참여하면서 금전적인 도움으로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사실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진로설정입니다. 사실 서울은 모르겠지만 광주나 이런 지방 쪽은 딸 수 있는 자격증 자체의 학원 커리큘럼이 적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누구나 따는 회계 세무나 제과제빵 이런 것으로 한정적인 것 같아요. 다수가 원하는 IT계열은 적은 편.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적은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질문 그러면 어떤 훈련 받으셨어요?

응답 저는 회계 세무 받았어요.

질문 단계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회계 세무 훈련받은 다음에 취업까지 연계가 되었나요?

응답 첫 직장이 제가 여기저기 선생님하고 같이 넣었다가 한 두 군데 되었습니다.

질문 취업성공패키지 하신 게 몇 년도인가요?

응답 2017년도요.

질문 광주의 일경협드림사업도 참여를 하셨나요?

응답 예,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회사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사실 사회 초년생 잘 안 뽑는 이유가 직장에서 가르쳐야 할 것도 많은 분위기랄까 어린 친구들이나 직장을 직장처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사실 직접적으로 회사에서도 사람을 테스트해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긴다는 것. 그래서 사회 초년생 하면 그냥 안 뽑고 귀찮고 경험 안 해보고 그런데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이 사람 마음에 든다고 하면 취업하고 연결되니까.

질문 그럼 취업성공패키지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응답 일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일경협드림 사업이 장점이 있지만 취업패의 장점은 일경협드림에 비해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이 진행되어 자신의 역량

*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점입니다. (I.03, 여성, 4년제 대학 졸업, 광주)*

이 청년은 나름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해 취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현재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다른 정부 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사업 참여 후 연계된 일자리를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직업상담원이 행정적인 일처리만 해줄 뿐 엄밀한 의미에서 상담을 해준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일자리센터나 고용센터 등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은 청년은 가입 요건이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질문 외에 나에게 맞는 일자리에 대해 쓴소리를 했던 상담원 분이 기억에 남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2020년 추경으로 편성해 이루어진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 참여한 청년은 경력개발과 연결되지 않는 단순 업무를 기업 입사원서에 경력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을지 주저하였다.

*누구나 알만한 정부출연기관에 입사했는데 하는 일은 거기서 주신 논문을 디지털로 식별할 수 있게 전환하는 사업이어서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되는 단순 입력 작업이었어요. 5개월 정도 일하고 계약 종료됐어요. 집에서 재택으로 작업하고 힘든 것은 없었는데 단순 작업이다 보니까 제 경력을 쌓는 것은 아니어서 이력서에 넣기도 애매한 일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이면 모르겠는데 사기업이면 굳이 안 쓸 것 같아요. (I.06, 여성, 4년제 대학 졸업, 서울)*

정부의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두 명의 면접자가 블라인드 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성별이나 장애 등 다른 부분을 채용 시에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나 다닌 학교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정책 중에 블라인드 채용을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뽑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거로 뽑겠다는 것 같은데 달가운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 졸업한 대학이 어디인지도 블라인드 대상입니다. 수능이 중요한 이유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의 인프라도 사용하고 학교의 위상을 사용해서 취업을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헛되게 만드는 거로 생각해요. 한 사람이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어진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력 사항에*

출신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지만 성별이라든지, 사진을 붙이지 않고 이력서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봐요. 그거는 형평성 문제인 것 같아요. (I.01, 남성,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서울)

### 3.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24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회 첫 출발과 첫 일자리의 의미를 비롯하여 취업 준비과정과 이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청년들이 참여한 청년정책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심층면접 대상은 성별에 따라 고등학교와 대학교(2년제 포함)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1대 1로 선정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의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사회 첫 출발의 의미에 대해서 주요 단어의 빈도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일자리’였으며 ‘성인’, ‘부모’, ‘독립’, ‘출발’, ‘사회’ 등이 많이 언급되었다. 맥락분석(word tree)을 통해 주요단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출발점인 ‘사회’에서 ‘첫’과 ‘출발’이라는 단어가 연계되었다. 이어서 “사회 첫 출발”이라는 연결고리와 가장 강력하게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첫 일자리”였고 이어서 “경제적 독립”과 “성인 권리 이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사회 첫 출발이 “첫 일자리를 갖는 것”과 연결되고 이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과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맥락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응답 결과를 보면, 24명 중에서 11명이 사회 첫 출발의 의미로 첫 일자리를 언급했으며 8명은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을, 5명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사회 첫 출발이 의미한다고 응답하였다. 첫 일자

리는 경제적 독립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취업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사회 첫 출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일자리의 의미와 직업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최소 12개월 이상"을 일하고 "주당 35시간"을 처음으로 일한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경험한 일자리는 첫 일자리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경험한 일자리는 첫 일자리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첫 일자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최소 1년 이상 일을 해야 첫 일자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나 취업상담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최근 여수에서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로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코로나19로 인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해 2021년부터 다시 현장실습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에서는 현장실습과 함께 병역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대기업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 후 병역을 갔다 온 뒤 다시 복귀해 일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스스로 규정한 첫 일자리로 정규직에 병역특례혜택까지 받았지만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하거나 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해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는 사례였다. 대부분의 졸업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아르바이트 등 일을 경험했고 졸업 후에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했으며 아직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최소 기준의 첫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였다.

청년정책 경험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은 사례였고 2018년부터 실시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두 사업은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됨)에 참여한 응답자가 3명, 추경으로 긴급 편성된 디지털 일자리에 참여한 응답자가 1명 있었다.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 경험이 있는 한 응답자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직업훈련을 받고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의의가 있으나 회사에서 일을 경험하는 체험형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용센터나 민간 위탁업체에 직업상담원을 만난 응답자들은 상담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형식적인 행정업무 처리만 이루어져 아쉬움이 컸다고 지적하였다.



# ○———— 제5장 우리나라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정책 실태 및 문제점

- 1.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 2. 중앙정부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 3. 지자체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 4. 해외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
- 5. 요약 및 시사점



## 1.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사회 첫 출발 중에서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에 관한 정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와 청년일자리대책(관계부처 합동,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2018), 그리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제1차 청년정책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21a, 2021b),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2021c), 청년특별대책(관계부처 합동, 2021d),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1e)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부 대책과 과제를 살펴보기 전에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 현황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을 다루는 명시적인 법률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과 특별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2가지가 있다. 청년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다루어지는 법률은 일반법 중 고용정책 기본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특별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등이 있다.

청년기본법은 제2조 기본이념에 청년의 교육과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제17조는 청년 고용촉진을, 제18조는 청년 창업 지원을 다루고 있다. 청년의 교육과 훈련 지원에 관한 조항은 제19조로 청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창의성 및 전문성을

9)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네 가지 조항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정책 추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분야별 지원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46). 현재 청년기본법만으로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 법령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표 V-1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법률 현황<sup>1</sup> 청년기본법

법률	조항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략)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17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1년 2월 14일.

청년 일자리 분야의 경우 특별법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정보다는 개정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은 2021년에 핵심 조항인 청년의무고용제가 일몰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일자리 지원에 관한 일반법을 살펴보면, 취업과 관련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이 있고 창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있다. 두 법률은 청년의 고용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률들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청년 창업사관학교 등을 추진하는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한 법률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2004년 참여정부 시기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청년 고용 상황이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도 악화되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행 등을 담은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이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는 청년 고용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기간을 정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 유효기간을 한정된 또 다른 이유는 이 법률에 담겨있는 특단의 대책인 청년고용의무제가 공공기관이기는 하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정책으로 보아 기간을 한정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정부가 바뀌어 명칭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1년 8월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8. 17).

이러한 결과는 더 이상 특별법으로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개정을 하기 보다는

일반법으로 전환해 청년 고용 촉진의 근거 법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법률이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 사업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이며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표 V-2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법률 현황2 일자리 지원 일반법

법률	조항	주요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li> </ul>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li> <li>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li> <li>③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li> <li>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li> </ul>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1년 2월 14일.

세부적인 정책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며 정원이 30명 이상이면 모두 적용된다(관계부처 합동, 2020b: 4). 2019년 현재 청년신규고용비율은 7.4%로 2011년 3.0%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11년 42.3%에서 2019년 89.4%로 증가하였다.

표 V-3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법률 현황3 일자리 지원 특별법

법률	조항	주요 내용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 서의 청년 미취업 자 고용 확대)	①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의4 (취업에 어려움 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 비스 제공)	① 정부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1년 2월 14일.

이번에 정부안으로 제안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외에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과 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 확대,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등이 담겨져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8. 17).

이번 정부안에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졸업자나 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받아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나 청년센터 등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기지 못했다.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에서 졸업 전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개입하고 졸업이나 중퇴 후에도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service)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교의 졸업생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에서 정보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학교에 고용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공공고용서비스기관 간에 자료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직원을 학교에 상담자로 파견하고 있다(채창균, 최영섭, 오호영, 정재호, 2017).

국내에서도 유사사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퇴자의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 정보DB를 공유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e(이)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학교 결석, 단전이나 단수, 예방접종 미접종 현황과 같은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파악하여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법적 근거로 이것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기업이며 1명을 추가 고용할 경우 3년 동안 매년 900만원 지원한다. 이 법률과 더불어서 채용 사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이 사업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표 V-4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법률 현황4 교육·훈련 지원 법률

법률	조항	주요 내용
진로교육법	제14조 (대학의 진로교육)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5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1년 2월 14일.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을 돕는 정책은 학교 단계나 미취업 상황에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진로교육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이 있다.

진로교육법에서는 대학에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학생이 아닌 청년에 관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년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은 청년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현장실습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학에 설치되는 계약학과나 산업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장실습은 2017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습생 사망사고로 교육부가 선정한 선도기업에 한해 실시하도록 바뀌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다시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9). 직업계고 취업지원에 대한 대책은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방안(안)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e). 보완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2021년 10월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다시 한 번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수정 작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상시 노동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학습기업을 선정하고 훈련 실시 이전 1년 이내에 채용된 노동자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시킬 경우 기업에게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종의 기업 내 교육 및 훈련(OJT)을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사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습을 받고 기업에서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를 포함하고 있다(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2019a: 266).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다양한 사업들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 니트나 사회적 고립 청년과 같이 특정한 정책 대상을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나 이에 대한 법률이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하위법으로 청년권익증진법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 2. 중앙정부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살펴볼 수 있다. 100대 국정과제 목표 중에서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관한 국정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100대 국정과제의 전략 중 청년들의 일자리 이행 지원에 관한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세 가지이다.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중점과제는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과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중점과제는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청년 취업 지원 과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와 신규 사업인 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운영 중이다.

표 V-5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1

목표	전략	과제	주요 내용	부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 무비율 상향(매년 정원의 3% → 5%),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li> <li>○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17년 5천명, '18년-'20년은 매년 신규 2만 명)</li> <li>○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취업률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신설·지급('17년-'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지급</li> <li>-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li> </ul> </li> </ul>	고용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창업 활성화) '22년까지 기술창업자 5.6만 명 육성 및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으로 기술인력 혁신창업 촉진</li> <li>○ (창업기업 성장 촉진) '18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 추진</li> <li>○ (재도전 인프라 확충) '17년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 이내) 및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 확대('22년까지 5.5천명)</li> </ul> </li> </ul>	중기부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청년과학자 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환경 개선)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li> <li>○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실무형 R&amp;D 연구기회 제공으로 R&amp;D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산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li> </ul> </li> </ul>	미래부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출처: 김기현 외(2020a: 68-69, 119). <표4-7>, <표 5-1> 재인용 및 수정.

청년 창업 지원 과제는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창업 인프라와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 학교)와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 성공패키지 등 패키지 사업과 틱스(TIPS) 프로그램,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사업 공간 지원 사업과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혁신창업펀드, 대학창업펀드 조성 등 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 훈련에 관한 부분은 우선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하여 고졸 취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점과제에 포함되었다. 직업교육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과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와 산학협력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 혁신 중점과제에 담겨 있다.

표 V-6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2

목표	전략	과제	주요 내용	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단계적 확대 및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17년-)</li> <li>- 고졸기술인재 국비유학 및 글로벌 인턴 확대, 직업계고 취업처 발굴('17년-)</li> </ul>	교육부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및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운영('18년-)</li> <li>○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18년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 무크(K-MOOC) 강좌 확대</li> <li>○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li> </ul>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출처: 김기현 외(2020a: 119). <표 5-1> 재인용 및 수정.

표 V-7 청년일자리대책(3.15대책)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과제

대책	목표	과제	주요 내용	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 (3.15 대책)	취업 청년 소득, 주거, 자산형성 및 고용중 대기업 지 원 강화	신규고용 지원, 세금 면제	<input type="checkbox"/> 중소·중견기업이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하면 연봉을 지원 <input type="checkbox"/>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를 면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청년 단독가구) <input type="checkbox"/> 청년이 취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발굴을 위해 청년친화기업 인증제를 확대	기재부 고용부
		주거, 교통비 경감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교통비 지급	고용부 중기부
		목돈 마련	<input type="checkbox"/>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마련(청년내일채움공제) <input type="checkbox"/>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천만원 목돈 마련(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중기부
		대기업·공공 기관 취업	<input type="checkbox"/>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대기업을 포함하여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 <input type="checkbox"/> 수시증원과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	기재부 고용부
	청년 창업 활성화	창업자금, 사업서비스 지원	<input type="checkbox"/> 생활혁신/기술혁신 창업자 용자, 바우처 지원 <input type="checkbox"/> 혁신모험펀드로 창업자금 확보 <input type="checkbox"/> 세대 융합형 창업과 숙련 창업 지원 확대	중기부
		창업자금 세금 면제	<input type="checkbox"/> 청년 창업기업 및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모든 창업자 5년간 법인, 소득세 감면	중기부
		민간주도/ 지방창업 우대	<input type="checkbox"/>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input type="checkbox"/>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지방으로 확산	중기부
		대기업의 창업기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대기업-창업-벤처기업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에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지원	중기부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지역/사회적 일자리 창출	<input type="checkbox"/>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공간/자금 지원	고용부
		해외 취·창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해외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및 창업 희망 청년에게 성공 불용자 지원	고용부 외교부
신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분야 취·창업 확대 <input type="checkbox"/>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일자리 확대	고용부 국방부 중기부	

\* 자료: 관계부처 합동,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2018).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출처: 김기현 외(2020a: 70-71). <표4-8> 재인용 및 수정.

표 V-8 청년일자리대책(3.15대책) 청년 교육·훈련 지원 관련 과제

대책	목표	중점과제	주요 내용	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 (3.15 대책)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선취업-후 진학, 일학습 병행제	<input type="checkbox"/>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 학비지원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 지원 <input type="checkbox"/>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에 훈련비, 군 보직 연계 등 지원	교육부 고용부
		미래 핵심인재 육성	<input type="checkbox"/>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 중심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창업 연계→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수료자는 협력사 우선 채용(1만 명)	교육부
		군 장병 취업	<input type="checkbox"/> 군부대와 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 지원 <input type="checkbox"/> 특기병 경력이 취업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구축	국방부 중기부
취업역량 강화 지원	직업능력 개발 확대	<input type="checkbox"/> 청년 대상 훈련 확대 ○ 청년들의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를 위해 실업자 훈련 확대 운영 <input type="checkbox"/>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과정 확대 <input type="checkbox"/> 청년들이 원하는 민간고급훈련에 참여 가능하도록 '훈련 사다리' 신설	고용부	
	진로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고용노동부·교육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진로지원 개선 TF' 운영 → 진로지원 개선방안 마련('18.上)	교육부 고용부	

\* 자료: 관계부처 합동,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2018).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출처: 김기현 외(2020a: 209). <표 5-2> 재인용 및 수정.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취업과 창업,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선언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은 2018년에 발표된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대책은 청년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2018년 이 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청년 일자리 3대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까지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측면이 있으나 정작 가장 지원을 받아야 할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청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책 전환의 필요성 제기로 이어졌다(김기헌, 2021a).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학교 졸업자와 저소득 청년, 청년 소상공인, 전통적인 취약계층인 장애를 가진 청년, 신용 불량 상태의 청년, 사회적으로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당했으나 이러한 취약 청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동시에 집중적인 정책지원 대상이 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도 줄어들면서 2020년 이후 고용 여건은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2020년에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기존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5년간 추진될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청년 니트(NEET)나 청년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공급 확대와 질적 제고를 디지털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청년 니트(NEET)에 대한 지원은 이전 계획이나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청년 니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와 규모 추정, 관련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청년 니트 과제를 구체화한 사업이다. 직업훈련 제공과 관련하여 이 계획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술창업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각 부처별로 이루어진 분야별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표 V-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1

방향	중점과제	세부과제	주요 내용	부처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 합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21년 55.5만 명 청년 구직자 지원</li> <li>○ (NEET 청년) 청년이 일할 의욕을 갖도록 상담·교육·취업 전주기 지원</li> <li>○ (청년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 158개) 구직여성 컨설팅 강화</li> </ul>	고용부 기재부
		취업역량 제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디지털 인재 양성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 지원(~'25, 18만 명) 및 문제해결 위주 프로그램 제공</li> <li>- 청년 구직자 대상 AI, SW 등 디지털 기초훈련 추가 지원(50만원)</li> <li>○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 식품외식 분야 인턴십, 도시재생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인재 배출</li> </ul>	고용부 농식품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보훈처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 기술 창업 전주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 창업경진대회 등 통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복조성</li> <li>○ (교육·사업화)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공</li> <li>○ (자금 공급) '25년까지 청년 창업자금 8천억원(1,400명) + 혁신창업펀드 7.5천억원 + '24년까지 청년창업 우대보증 1.6조원까지 확대</li> <li>○ (재창업) 창업에 실패할 경우, 저신용자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 확대('21-)</li> </ul>	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국토부 농식품부 금융위 조달청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 농지·자금 등 종합 지원, 청년 농업인 1만 명 이상 육성(~'25) 및 청년 어업인 창업 지원(~'25, 1,000명 이상)</li> <li>○ (소상공인) 전통시장내 청년 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을 '25년까지 50곳(창업지원 1,000명) 조성</li> <li>○ (문화·콘텐츠) 전통문화 분야 활동비·창업 교육 등 제공(~'25, 375팀), 게임 산업 청년 창업자 지원(~'25, 250팀)</li> <li>○ (환경) 국민체감형 우수 환경 아이디어 발굴 등 환경 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25, 125개 과제 발굴)</li> </ul>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9-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표 V-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학교에서 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2

방향	중점과제	세부과제	주요 내용	부처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 갑니다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혁신공유 대학 통한 신기술 핵심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공유 대학* 지정·운영(~'25, 48개교)을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10만 명 양성</li> <li>○ 산업분야별, 수준별(학사, 석·박사 등)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 교육 콘텐츠 발굴 + K-MOOC* 통해 공유·확산</li> </ul>	교육부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신산업(~'25, 2.3만여명)</li> <li>○ 그린·에너지(~'25, 2.5만여명)</li> <li>○ 문화관광·미디어·지식재산(~'25, 5,800여명)</li> <li>○ 고졸 기초인재</li> </ul>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방통위 농진청 특허청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li> <li>○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단계적 확대 추진('20, 1인당 4백만원 → '21, 5백만원)</li> <li>○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20.6) 및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20, 517명 → '25, 1,000명) 등 고용지원 기반 강화</li> </ul>	교육부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설계·취업지원·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방안 수립(관계부처 합동, '21)</li> <li>○ P-Tech('20, 35개교 → '25, 60개교) 및 참여대상 확대</li> <li>○ 군 복무 청년의 학업 및 사회 진출 준비 등 자기개발 지원</li> </ul>	교육부 고용부 국방부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27-3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교육 영역의 과제에서 이 계획은 재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인재양성과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를 담고 있다.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관련성이 높은 과제는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과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지원 강화이다. 이 과제의 핵심사업으로 현장실습과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및 취업지원관 확대, 대학생 진로설계, 취업지원, 심리상담 종합 지원방안 수립 등이 포함되었다.

표 V-11 2021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시행계획 청년과제 및 예산 현황

기관명	과제수(개)						청년예산(억 원)		
	일자 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20년		'21년	
						추경전	추경후		
문화체육관광부	38	6	0	3	28	1	7,158	7,496	7,411
교육부	37	2	1	30	1	3	46,400	46,444	48,778
고용노동부	35	27	0	5	0	3	45,175	49,936	49,117
국토교통부	31	5	21	3	1	1	65,719	68,226	82,4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4	0	17	0	0	4,122	4,132	4,287
중소벤처기업부	19	15	0	3	0	1	6,853	6,577	7,425
농림축산식품부	18	12	1	4	0	1	6,095	6,050	7,486
여성가족부	16	7	0	1	6	2	170	170	303
보건복지부	10	0	0	0	10	0	728	712	1,117
해양수산부	8	4	0	4	0	0	39	39	41
국무조정실	7	0	0	0	0	7	10	10	13
산업통상자원부	6	4	0	2	0	0	2,389	2,389	2,561
행정안전부	6	3	0	0	0	3	3,278	3,353	3,579
금융위원회	5	1	1	0	2	1	150	300	350
산림청	5	3	0	2	0	0	20	20	62
특허청	5	2	0	3	0	0	67	67	81
환경부	5	2	0	2	0	1	108	199	404
국가보훈처	4	2	0	0	0	2	74	67	78
농촌진흥청	4	2	0	2	0	0	47	89	46
병무청	4	2	0	1	1	0	7	7	26
국방부	3	1	0	1	1	0	206	206	371
기획재정부	3	3	0	0	0	0	15	15	16
식품의약품안전처	3	0	0	3	0	0	8	8	19
국민권익위원회	2	1	0	0	0	1	2	2	2
문화재청	2	1	0	0	0	1	1	43	25
방송통신위원회	2	0	0	2	0	0	3	3	3
인사혁신처	2	2	0	0	0	0	0	0	0
조달청	2	2	0	0	0	0	0	0	0
통일부	2	1	0	0	0	1	1	0	1
공정거래위원회	1	0	0	0	0	1	0	0	0
방위사업청	1	1	0	0	0	0	5	5	17
외교부	1	0	0	0	0	1	734	726	344
합 계	308	115	24	88	50	31	189,582	197,292	216,399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a: 9).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a). 중앙행정기관 중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제출한 곳은 총 32개이며 2021년 기준으로 시행계획 과제수는 308개, 전체 예산은 약 21.6조원이었다. 2021년 예산은 2020년과 비교해 9.6% 상승한 규모이다. 과제별로 보면, 4가지 영역 중 일자리분야가 37.3%로 가장 많았고 예산은 일자리분야가 30.4%로 주거분야(3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는 일자리 분야(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외에 교육분야에서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와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복지문화 분야에서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이 포함된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이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나 대략적으로 과제나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일자리 이행 과제수는 169개로 전체 과제의 54.9%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일자리 이행 예산은 7조 2,28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일자리 이행을 지원하는 과제와 예산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 사업들은 2021년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c). 이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교육부에서는 2021년에 직업계고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현장실습과 고졸 취업에 대한 기업과 졸업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과 고졸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표 V-12 청년고용 활성화대책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

대책	목표	추진과제	주요 내용	부처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	청년이 고용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버팀목 제공	청년이 갈 수 있는 “더 많은 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input type="checkbox"/> 청년 창업 활성화	고용부 교육부 중기부 기재부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 로 극복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미래 청년인력 양성 <input type="checkbox"/> 청년친화 직업훈련 확대	고용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구직청년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소득·일경험·취업』패키지 지원 <input type="checkbox"/> (구직단념 청년) ‘청년 도전지원 사 업’ 신설 <input type="checkbox"/> (고졸) 지역·산업맞춤형 고졸청년 지원사업 확대	고용부 교육부 지자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지원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 인프라 보강: 대학일자리 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확대 <input type="checkbox"/> 수시·경력직 채용 확산 등에 대응한 정책적 지원 강화	고용부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c: 5).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표 V-13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안)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

대책	목표	추진 전략	정책과제	부처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	고졸 인재의 실력 향상과 취업 지원 강화로 고용 위기 극복	1. 학생의 역량을 높여 취업을 준비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현장실습 기회 확대 <input type="checkbox"/> 자격취득 지원	교육부 고용부
		2.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고졸 취업지원 서비스 고도화 <input type="checkbox"/> 고졸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input type="checkbox"/>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강화 <input type="checkbox"/> 지역 중심 고졸일자리 발굴 <input type="checkbox"/>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훈련 지원	교육부 고용부
		3. 취업 이후에도 계속 성장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고졸 취업자 군 복무와 진로연계	병무청 국방부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e: 8).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안).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으로 2021년 8월에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앞서 발표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대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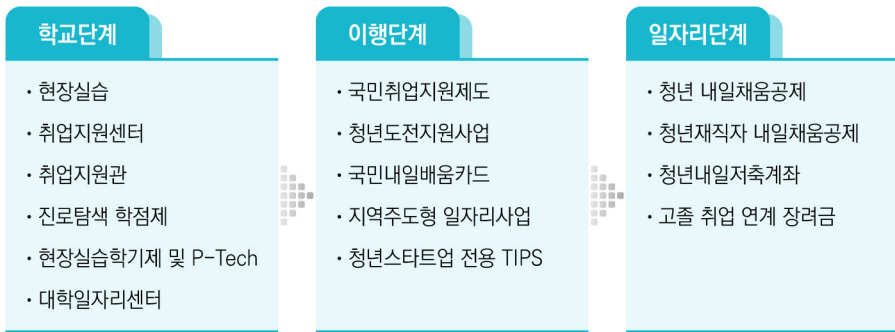
표 V-14 청년특별대책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 현황

대책	목표	정책 분야	정책과제	부처
청년 특별 대책	청년 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	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input type="checkbox"/>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추진 <input type="checkbox"/>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속 및 개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 <input type="checkbox"/> 해외 취업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속 지원 <input type="checkbox"/>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및 내실화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 <input type="checkbox"/> 청년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신설 <input type="checkbox"/>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개편 <input type="checkbox"/>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청년 스타트업 전용 TIPS 프로그램 신설 <input type="checkbox"/> 청년 재창업자 전용 패키지프로그램 신설	고용부 행안부 중기부 과기부
		복지	<input type="checkbox"/>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설 <input type="checkbox"/> 청년희망적금, 청년장기펀드 지원 <input type="checkbox"/> 취약청년 자립 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 <input type="checkbox"/> 군장병 역량개발 지원	복지부 여성부 기재부 금융위 국방부
		교육	<input type="checkbox"/> (졸업 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input type="checkbox"/> (졸업 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교육부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d). 청년특별대책.

2021년 발표가 이루어진 세 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핵심사업들을 정리해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

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스타트업 전용 TIPS 프로그램 신설,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현장실습, 고졸 취업 연계 장려금 등이 있다. 이를 학교 단계에서 이행 단계, 그리고 일자리 단계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그림 V-1]과 같다.



\* 출처: 자체 작성

**그림 V-1 중앙부처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단계별 관련 핵심 사업**

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핵심사업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단계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취업지원관 배치 사업이 있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진로탐색 학점제, 대학 현장실습과 직업계고와 대학(폴리텍과 전문대학)을 연계하는 P-Tech, 대학일자리센터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인 대학일자리센터를 제외한 다른 사업은 모두 교육부 사업이다.

중등교육단계의 대표사업은 현장실습제로 독일이나 스위스의 이원화제도와 유사하게 이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실무를 기업에서 익히는 방식으로 가장 오랫동안 이어져온 학교-일자리 연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좋은 취지와 함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창구로 악용되어 교육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잇따른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로 큰 비판에 직면해 있다. 2017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한 실습을 제공할 수 있는 선도기업에 한해 현장실습을 나가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현장실습을 나가도록 안전문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현장실습 참여기업이 대폭 줄어들어 현장실습에 나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서 교육부에서는 2019년 보완방안을 통해 선도기업 외에 현장실습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여수에서 다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이러한 보완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산업안전전담관을 조기에 투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한겨레신문, 2021.10.10.).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고등교육단계에서 기업의 실무를 현장에서 받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현장실습수업, 실습학기제 등 다양하게 불리던 사업을 통합한 것이다(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21: 3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은 현장실습을 법률에 근거하여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학교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누어진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열정 페이(pay) 문제가 가장 컸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형의 경우 최저 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원하고 자율형의 경우에도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무급으로 운영할 경우에 보다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직무 특성상 차이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산재보험 적용과 함께 대학의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가 열정 페이(pay)나 안전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대학이나 기업 입장에서 표준형보다는 자율형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 운용 상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취업지원센터는 명칭과는 달리 직업계고

학생들만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1년부터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되었고 2020년 교육부에서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직업계고에는 취업지원부에 취업지원관을 두고 있어 2020년 들어 중앙-시도-단위학교로 연결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통상 정책전달체계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교육부의 정책 사업을 지자체로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보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V-15 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현황

구분	센터 수 (개)	인력 (명)	제공 서비스	예산 (억원)	부처
(중앙)취업지원센터	18	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실습 지원</li> <li>- 고졸 취업 기업 발굴 및 학교연계</li> <li>- 산학협력체계 구축</li> <li>- 취업역량 개발 및 지원</li> </ul>	184	교육부 시도교육청
대학일자리센터	105	6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지도 서비스</li> <li>- 취업 및 창업지원</li> <li>- 취업 및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li> <li>- 지역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li> </ul>	220	고용노동부

\* 자료: 정동열, 윤동열, 김태환, 오춘식(2020). 2019년 기준임. 취업지원센터 수와 인력, 예산은 2020년에 설립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포함한 수치임.

대학일자리센터는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해당 대학의 재학생만이 아니라 대학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포괄하여 진로지도 및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재학생을 제외하고 주변 지역 청년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참여 대학과 해당 학생만이 혜택을 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사업은 기한을 한정해 이루어진 사업으로 2015년에 선정된 21개 대학은 2020년부터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19년 4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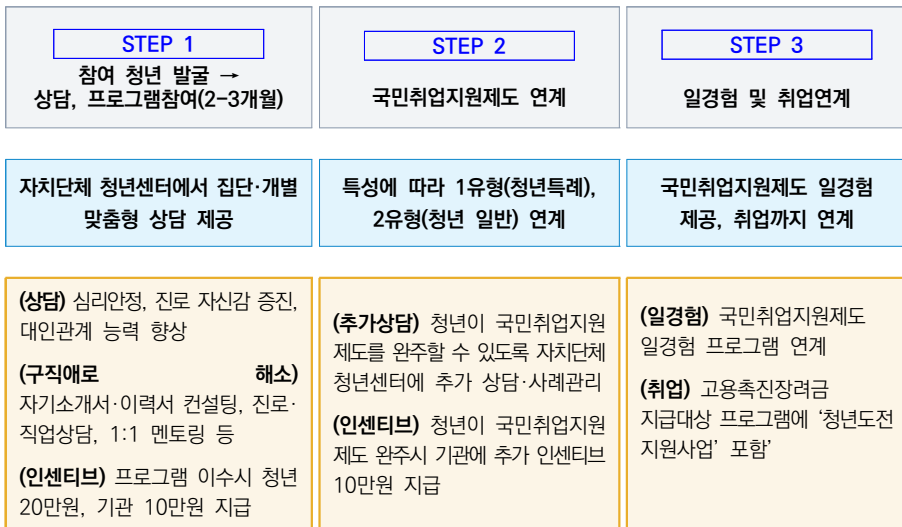
2024년이면 모든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청년특별대책에서 이 사업의 명칭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바뀌었고 사업 연장이 결정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d). 지원 대상 문제는 현실화하여 해당 대학의 재학생으로 제한 하되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상태가 이어질 경우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번 조치는 모든 대학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대학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지역 청년이 아닌 대학생만을 지원하는 문제 역시 해소한 것이 아니어서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동시에 중등교육단계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단계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조직을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가능해 보인다.

이어서 이행 단계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청년정책 사업은 아니나 이 제도의 모태가 된 것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사업이자 학교-일자리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을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 대상 사업은 청년 특례로 분리되어 있다.

청년특례에서 I 유형은 만 18세에서 34세로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총위소득 50% 이하라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I 유형은 과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해당한다. II 유형은 소득제한이 없으며 1단계 상담과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작성하고 2단계로 훈련이나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3단계로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참여수당으로 15-25만원을 받고 참여하는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청년특별대책에서 핵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대책에서는 지원 자격으로 당초 재산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혹은 800시간 미만 취업 경험이 필요했으나 4억원 이하로 재산요건을 확대하였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었을 때 별도의 취업 경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청년에 한해 이루어졌던 사업을 확대하여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청년 특례의 경우 기존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리되어 있던 사업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 금액을 제공하고 지원 요건이 보다 단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방식에 대한 선호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c: 15).

### 그림 V-2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체계

이어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2021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유럽에서 이루어진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한국형으로 접목시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을 실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NEET)로 확대하고 직접적인 취업 연계나 훈련 제공 이전에 자기 이해와 상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14개 지자체 청년센터에서 이 사업에 참여 중이고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2022년에 7,000명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d). 이 사업은 취업 의욕이 저하된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년 니트 중에서도 구직단념 청년이 핵심 지원 대상이다. 핵심 지원 대상은 니트족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낙인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 용어 역시 낙인 문제가 있어 지원 대상에 대한 용어 수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단계로 문제점을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좋은 사업 취지에도 시범사업으로 그쳤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일자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미래저축계좌 등이다. 2018년 청년고용대책에서 제안되어 일몰사업이었던 청년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21년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2022년에도 연장되었다. 이는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가 긍정적이고 중소기업의 근속기간을 늘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기업 부담이 없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업이 직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참여가 여전히 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 고용 위기 극복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 가입이 아닌 기업을 통한 가입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취약계층 자산형성 사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청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사업 중 하나이다. 2021년 발표된 청년특별대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진 사업 중 하나가 청년저축계좌 사업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d).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2022년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명칭만이 아니라 사업의 지원 대상도 크게 바뀌게 된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만을 지원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연소득으로 보면, 지원 대상은 2,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2만 명 미만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5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배를 지원하는데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청년저축계좌와 동일하다.

지원 대상 및 상품	지원혜택	납입한도	만기수령금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액(월 10만원) 정부가 1-3배 매칭	연 120만원 (3년 만기)	3년 후 720-1,440만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최대 4% ( <sup>1년</sup> 2%→ <sup>2년</sup> 4%) 지급	연 600만원 (2년 만기)	2년 후 1,200만원 + 적금금리 +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600만원 (3-5년)	3년 후 1,800만원 + 펀드수익 +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d: 29).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 충족도 필요

### 그림 V-3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한 가지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에게 장기펀드나 적금 등을 통해 금융혜택을 부여해 지원

대상별 차등 지원 방식으로 혜택을 보는 청년을 넓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지원 대상 폭의 확대를 이루어 낸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이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적절한가에 관한 것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본인이 월 10만원 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이 납부한 360만원에 정부가 지원하는 360만원부터 1,080만원의 지원금을 합해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1,000만원 남짓의 금액이 사회 첫 출발을 위한 목돈으로 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정부 지원이 크지 않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2년 간 지원을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분에서 300만원과 더불어 정부 지원 600만원을 합산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같은 기간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240만원을 저축하면 최소 24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을 합산해 480만원에서 960만원을 받게 된다. 개인 저축액을 동일(240만원)하게 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받게 되는 금액은 960만원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로부터 받게 되는 최대치와 동일하다. 그런데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최대치인 3배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청년이 받아야 하는 지원 규모가 더 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용보험기금에 납입한 기업의 부담액은 정부지원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해서 계산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받는 금액은 720만원으로 960만원보다 많다. 그렇지만 720만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중위 소득 50% 이상 100% 이하가 받는 48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정부 부처간 차이를 두기보다 조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3. 지자체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이 절에서는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된 지자체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을 다루기 전에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전반을 다루는 청년 기본조례가 모든 시도에서 제정되었다.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데 청년일자리 전반을 다루는 조례와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조례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 도 지역에서는 청년 농업 및 어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많다. 다른 시도에 없는 조례로는 광주의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와 대전의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등이 있다.

표 V-16 지자체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조례 현황

지역	조례
서울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부산	청년 기본 조례
인천	청년 기본 조례
대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광주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울산	청년 기본 조례,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대전	청년창업 지원 조례,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세종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강원	청년 기본 조례,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충북	청년 기본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충남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농수산인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남	청년 기본 조례, 청년구직지원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청년 창업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경북	청년 기본 조례,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창업지원 조례,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남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주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b: 9),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의 청년 기본 조례는 2015년에 가장 먼저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와 매우 유사하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된 조항은 제11조와 제1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제11조는 청년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2항에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2조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다룬 조항으로 2항에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례는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지만 청년 교육정책과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원 사항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뒷받침한 것이다. 청년 창업 지원조례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해 구체화한 것이다.

광주의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 2020년에 제정되었다. 이 지원 조례에서 청년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근로자가 아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다(자치법규시스템, 2021). 이 조례는 청년프리랜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일자리 이행기에 대한 지원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많은 청년들이 특수고용 형태의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대전의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는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취업희망카드의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청년수당 사업과 유사하다.

2021년 지자체에서 제출한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전체 청년과제와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과제는 총 1,251개에 이른다.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업은 총 449개였고 광역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802개였다. 자체 사업 비중이 64.1%로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다른 대상 중심 정책 사업과 비교해 지자체 자체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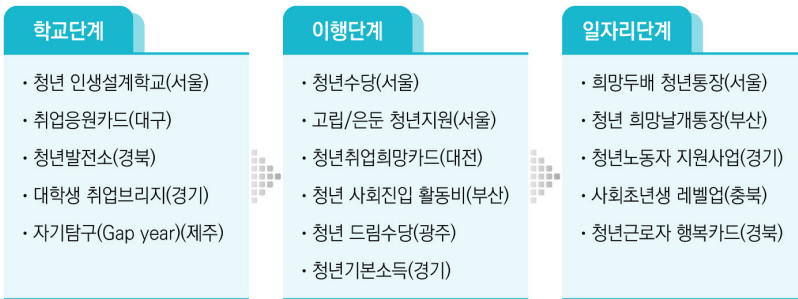
표 V-17 2021년 지자체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현황

지역	과제수(개)			예산(억 원)		
	합계	공동	자체	합계	공동	자체
전 체	1,251	449	802	25,259	13,738	11,521
서울	55	8	47	5,701	2,631	3,070
부산	71	14	57	768	527	241
대구	70	29	41	786	513	273
인천	48	17	31	822	506	316
광주	68	27	42	1,075	795	280
대전	49	17	32	501	282	219
울산	65	22	43	354	197	157
세종	32	15	17	119	30	89
경기	40	8	32	4,429	606	3,823
강원	46	22	24	570	453	117
충북	80	30	50	601	420	181
충남	74	30	44	989	831	158
전북	101	50	51	2,488	2,174	314
전남	91	23	68	1,779	490	1,289
경북	150	64	86	2,303	1,900	403
경남	131	46	85	1,587	1,178	409
제주	88	28	60	619	393	226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b: 1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2021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사업 예산은 2조 5,259억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사업 예산의 11.8% 수준을 보여주었다. 자체 추진사업의 예산은 1조 1,51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6%였다.

2021년 시행계획에서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된 광역지자체의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업은 서울에서 추진 중인 인생설계학교와 대구의 취업응원카드, 경북의 청년발전소, 경기의 대학생 취업브릿지사업 등이다. 이행 단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서울의 청년수당, 대전의 취업희망카드, 부산의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청년 일경험 드림, 청년 기본소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서울의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부산의 청년 희망날개통장, 경기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충북의 사회초년생 레벨업 사업과 경북의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등이 있다.



\* 출처: 자체 작성

그림 V-4 지자체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단계별 관련 핵심 사업

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이 있다. 갭이어는 영국에서 1960년대 이후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이 1년 동안 사회 첫 출발 시점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주도적인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김기현, 2021b). 영국에 이어 미국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프로

그럼이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교토부처럼 대학이 아닌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갭이어 사업이 이루어졌다. 제주도에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제주 청년 갭이어에 이어 서울시에서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시작되었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고양시와 전주시 등에서 갭이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대학생만이 아니라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규교육기관 재학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사업은 아니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 학교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학교 단계로 분류하였다.

먼저 제주도의 청년 갭이어는 2019년부터 청년 자기탐구(Gap year)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사업 내용은 동일한데 이 사업은 제주도 청년들이 3주간에 걸쳐 서울 등 도외 지역으로 이동해 다양한 체험과 갭이어 프로그램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참여 청년에게 항공비와 숙소, 식비 일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대학 입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사례와는 달리 도내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년에 60명가량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1년 다시 사업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갭이어 프로그램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고 도외 지역 체험 기간은 3박 4일로 축소되었다.

서울시에 추진 중인 청년 인생설계학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여름학과 가을학기로 나누어 베이직 코스, 워크앤라이프 코스, 프로젝트 코스 등 3가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베이직 코스는 본인과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워크앤라이프 코스는 청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직장인 간에 모여 일과 삶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활동하는 소모임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코스는 최대 3백만원의 활동비를 받아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갭이어 사업은 지원 대상 규모가 소수이

고 사회 첫 출발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형 깎이어 사업은 지원 대상을 사회 첫 출발 시점에 맞추고 자기 성찰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행 단계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자체 사업은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구직활동이나 생활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부터 이루어진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대표적이며 청년취업 희망카드(대전), 청년 디딤돌카드(부산), 청년 드림 수당(광주) 등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본격화되면서 중복 문제로 인해 서울이나 대전시, 부산시 등에서는 2019년부터 졸업이나 중퇴 후 2년을 초과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의 청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였다. 다만, 광주광역시에서는 졸업·중퇴 후 2년 초과 청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시는 2021년부터 2년 이내 기준을 삭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중복사업 문제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급여 지원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까지 고려해야 할 사업이 늘어나면서 부정수급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면, 재정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맡고 정책 대상에 대한 서비스 사업은 지자체가 맡는 역할 분담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각 국가 안에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재정 자립도에 따라 형편이 좋은 지자체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의 재정 지출에 있어 차이가 불가피하므로 가급적 재정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맡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출산 지원과 같이 지역 현안에 따라 별도의 재정 지원을 지자체가 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중복문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표 V-18 지자체 청년 수당 지원사업 현황

지역	사업명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지원규모
서울	청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9-34세</li> <li>-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li> <li>-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경과자</li> <li>- 미취업자</li> <li>- 주 26시간 이하 단기노동자</li> <li>- 3개월 이하 단기노동자</li> <li>- 중위소득 150% 이하<sup>1)</sup></li> <li>- 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50만원</li> <li>- 최대 6개월 지원</li> <li>- 최대 300만원</li> <li>- 체크카드 지급</li> </ul>	- 50,280명 <sup>2)</sup> (30,000명)
경기	청년기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24세</li> <li>-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자</li> <li>- 경기도 10년 이상 합산 거주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 100만원</li> <li>- 최대 1년 지원</li> <li>- 최대 100만원</li> <li>- 생애 1회 지원</li> <li>- 지역화폐로 지급</li> </ul>	- 151,930명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34세</li> <li>- 대전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li> <li>-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경과자</li> <li>- 미취업자</li> <li>- 주 30시간 미만 단기노동자</li> <li>- 중위소득 150% 이하</li> <li>- 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50만원</li> <li>- 최대 6개월 지원</li> <li>- 최대 300만원</li> <li>- 생애 1회 지원</li> <li>- 체크카드 지급</li> </ul>	- 2,500명
부산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디딤돌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34세</li> <li>- 부산 주민등록상 거주자</li> <li>- 학교 졸업·중퇴·제적수료자</li> <li>- 미취업자</li> <li>- 주 30시간 미만 단기노동자</li> <li>-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50만원</li> <li>- 최대 6개월 지원</li> <li>- 최대 300만원</li> <li>- 생애 1회 지원</li> <li>- 체크카드 지급</li> </ul>	- 1,000명
광주	청년 드림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9-34세</li> <li>- 광주 주민등록상 거주자</li> <li>- 학교 졸업·중퇴·제적수료자</li> <li>- 미취업자</li> <li>- 주 30시간 미만 단기노동자</li> <li>- 중위소득 150% 이하</li> <li>- 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50만원</li> <li>- 최대 5개월 지원</li> <li>- 최대 250만원</li> <li>- 생애 1회 지원</li> <li>- 체크카드 지급</li> </ul>	- 1,120명

1) 2021년 5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 청년수당사업을 포함한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참여 청년 규모이며 괄호는 청년수당 지원 예상치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b).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서울시(2021a); 부산경제진흥원(2021).

청년수당 사업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청년기본소득이다. 청년 수당이 해당 시도의 청년 연령 규정에 따라 지원 연령의 폭을 광범위하게 정한

데 비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 이는 재정 부담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기본소득이 보편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어서 청년수당 사업과는 달리 소득을 비롯한 자격조건 기준이 없다. 단, 한 가지 기준은 경기도 거주 여부이다. 이 사업은 24세가 지나간 청년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행기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 지원을 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문제가 있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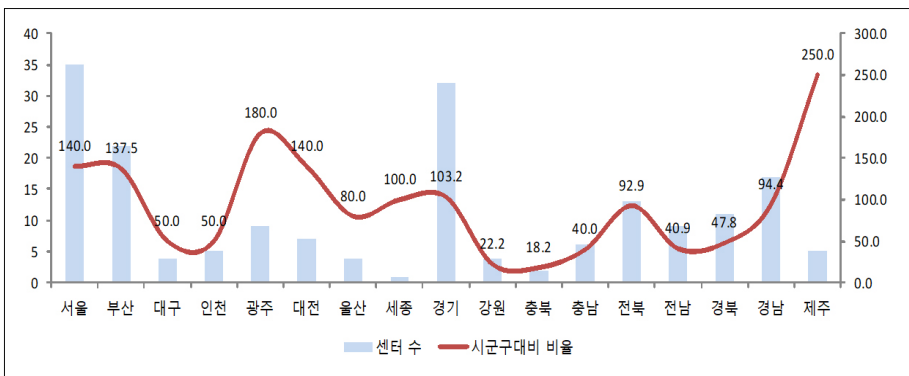
표 V-19 지자체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현황

지역	사업명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지원규모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34세</li> <li>-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li> <li>- 취업자</li> <li>- 본인 근로소득 중위 140% 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li> <li>-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li> <li>- 타 사업 참여자 제외</li> <li>- 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li> <li>-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납입액 100%</li> <li>- 10만원, 15만원 납입</li> <li>- 2년 최대 360만원 지원</li> <li>- 2년 최대 720만원+이자 적립</li> <li>- 3년 최대 540만원 지원</li> <li>- 3년 최대 1,080만원+이자 적립</li> </ul>	- 3,000명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34세</li> <li>-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자</li> <li>- 취업자</li> <li>-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li> <li>- 타 사업 참여자 제외</li> <li>- 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li> <li>-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납입액 100%</li> <li>- 10만원 납입</li> <li>- 2년 최대 340만원 지원</li> <li>- 2년 최대 580만원+이자 적립</li> <li>- 100만원 지역화폐</li> </ul>	- 9,000명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34세</li> <li>- 부산시 주민등록상 거주자</li> <li>- 취업자</li> <li>-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li> <li>- 타 사업 참여자 제외</li> <li>- 신용불량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납입액 100%</li> <li>- 10만원 납입</li> <li>- 3년 최대 360만원 지원</li> <li>- 3년 최대 720만원+이자 적립</li> </ul>	- 1,300명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b).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단계에서 노동빈곤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청년 통장 사업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를 확장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시도에도 확대되었다. 이 사업 역시 청년수당 사업과 마찬가지로 중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 설계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나 중앙정부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해졌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경기도의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의 청년희망 날개통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을 제외해 기존 복지부 사업과의 중복을 피해왔다. 그런데 2022년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추진되면 100% 이하 지원 대상은 중복문제가 발생한다. 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시는 물론 경기도의 청년 노동자 통장도 100% 이하에게 지원하고 있어 중복이 불가피하다. 앞선 청년수당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재정지원 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 모든 시도에 동일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2021). 지자체 청년정책통계. 2021년 6월 말 기준임. 행정안전부(2020).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그림 V-5 지자체 청년 센터 수 및 시군구 대비 비율(2021년)

재정지원 사업은 중앙과 지자체간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책대상에 대한 서비스 사업은 부진하다. 우선 정책 전달체계와 지원 프로그램이 읍면동은 물론 시군구 단위까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각 시도별로 설치된 지자체 청년센터 수는 185개소로 226개 시군구 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각 시도별 시군구 대비 센터 비율을 보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제주 등이 100% 이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구, 인천, 울산 등 광역시와 대부분의 광역도에서 100% 미만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 전달체계를 잘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4. 해외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

여기에서는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과 관련하여 먼저 국제기구에 발표한 청년전략 혹은 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연합은 2018년에 2030년까지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유스 2030(*Youth2030: Working with and for Young People*)을 발표하였다(United Nations, 2018: 11).

국제연합의 청년전략은 5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 세 번째 정책 영역이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된다. 이것은 괜찮은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권한 강화(Economic Empowerment through Decent Work)로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연합은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네 가지 정책방향은 ①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진행, ② 원활한 학교-일자리 이행을 위해 청년 노동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고 역량개발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요와 공급 모두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접근을 하도록 가입국들과 다른 국가

들을 독려, ③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가입국들과 다른 국가들을 독려, ④ 청년 친화적인 고용여건과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 투자와 노동시장 정책 등 적절한 통합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를 강화 등이다.

표 V-20 국제연합과 유럽연합의 청년전략에서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정책 방향

구분	청년전략	정책 분야	정책 방향
국제연합(UN)	유스2030 (Youth 2030)	괜찮은 일자리를 향한 경제적 권한 강화 (Economic Empowerment through Decent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한 국제적 노력</li> <li>- 원활한 학교-일자리 이행을 위한 균형적 접근</li> <li>-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의 향상 도모</li> <li>- 적절한 통합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강화</li> </ul>
유럽연합(EU)	유럽 유스전략 2019-2027 (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고용 (Quality Employment for 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청년들을 위해 공정한 노동조건과 노동권, 그리고 생활임금의 권리를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li> <li>- 모든 청년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및 건강 안전망 구축</li> <li>-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li> <li>- 원활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능력과 자질을 기르고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제공</li> <li>- 도제제도, 인턴제, 현장실습, 봉사활동과 비형식 학습을 통해 필요한 역량 증진</li> <li>- 모든 단계에서 고용정책에 대한 기획, 절차, 평가에 청년들의 참여 강화</li> <li>- 노동시장과 미래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양질의 정보와 지원체계 구축</li> </ul>

\* 자료: United Nations(2018); European Union(2018).

유럽연합(EU)은 2018년에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담은 유럽 청년전략 2019-2027(*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을 발표하였다(European Union, 2018).

이 전략에는 정책방향으로 7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정책방향은

모든 청년들을 위해 공정한 노동조건과 노동권, 그리고 생활임금의 권리를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모든 청년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및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 정책방향은 원활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능력과 자질을 기르고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은 도제제도, 인턴제, 현장실습, 봉사활동과 비형식 학습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 정책방향은 모든 단계에서 고용정책에 대한 기획, 절차, 평가에 청년들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정책방향은 노동시장과 미래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양질의 정보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연합과 유럽연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양질의 고용 혹은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추었고 고용률이나 실업률과 같이 양적 고용지표를 개선하는데 집중하였다. 이제는 청년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 1년 이하 근속비율 등 질적 측면에서 고용지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측정에 있어서 괜찮은 일자리 이행 여부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국가별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유럽연합(EU)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매우 큰 틀에서 일종의 브랜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책은 학습과 관련하여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라스무스+(Erasmus+)와 고용이나 훈련에 초점을 맞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이다. 두 정책 모두 2009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어 2013년 유럽연합에서 핵심정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의 장기 프

로젝트로 진행되었다. 두 정책 모두 2020년 1단계 추진을 완료한 후 2단계 확장된 사업으로 202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청년보장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지역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강화된 청년보장제(Reinforced Youth Guarantee)로 변경되어 2021년부터 실시되었다.

표 V-21 유럽연합의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현황

구분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비고
학교 단계	에라스무스+ (Erasmus+)	- 학생 - 훈련생 - 성인 학습자 - 청년	- 형식학습 지원 - 비형식학습 지원 - 무형식학습 지원	- 94만 여명	- 2014-2020년 총 260억 유로 투입
이행 단계	청년보장제 (Youth Guarantee)	- 25세 미만 - 청년 니트	- 정보, 진로, 상담 - 아웃리치 -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 240만 여명	- 2014년-2020년 총 90억 유로 투입
	강화된 청년보장제 (Reinforced Youth Guarantee)	- 30세 미만 - 청년 니트	- 직업훈련 - 현장실습 - 도제, 견습 - 창업지원		- 2020년부터 코로나19 이후 추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rasmus+ programme Guide; Mascherini, M.(2021). European Youth Guarantee: its progress and prospects; European Union(2019).

에라스무스+(Erasmus+)는 과거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학 간에 교류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교환학생과 유사한 형태에서 시작되었으나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청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을 넘어서 시민사회에서 형식 학습과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0). 이 정책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참여는 17개 유럽지역의 대학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훈련기관, 평생학습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적 참여도 가능하다. 이 정책에 대한 참여는 유럽 회원국에 국한되지 않고 비회원국의 대학이나 기관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비형식, 무형식 형태의 학습은 기존 청년교류 프로그램 외에 평생학습프로그램, 봉사활동프로그램, 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 25,0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현재 에라스무스+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나 시민단체, 훈련기관, 평생학습기관은 11만 1,0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94만 여명이 참여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9).

에라스무스+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청년보장제는 학생이 졸업 직후까지 취업이나 교육, 훈련으로 연계되지 못하면 국가가 이를 보장하고 참여자는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사회계약 형태의 파격적인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청년보장제에 관한 논의는 2005년부터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으로 추진여부가 논의된 것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였다(Mascherini, M., 2021).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청년보장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에 추진된 사업과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청년보장제는 조기 개입을 강조하는 예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대학 졸업 시점 등을 고려하여 25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다. 25세 이상의 청년 중에 취업과 진학,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지 못하는 대상이 있음에도 조기개입으로 지원 연령을 낮추고 니트 상태에 있는 모든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보장제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30세 미만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조기개입에 따른 실익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통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 회원국 간의 정책 추진 여건의 이질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으나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 소규모로 너무 많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가능한 모든 영역을 다룬다는 의미는 우선 일자리만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포괄하는 데서 나타나며 지원 내용도 상담, 교육, 직업훈련, 현장실

습, 도제 및 견습제도는 물론 창업 지원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접근이 추진된 이유는 기능중심 정책이 아닌 대상중심 정책이라는 점 때문인데 정책 대상인 청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며 교육이나 고용, 훈련,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2020년부터 추진된 강화된 청년보장제에서도 이어졌다. 다만, 강화된 청년보장제에서는 다른 서비스지원보다 교육과 훈련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격적으로 각 국가별로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을 다루기 전에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5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동일한 학제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과 일본이며 흔히 진학 중심의 단일 학제의 특성을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노동 시장 특성도 임금경쟁시장보다는 직무경쟁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로 독일과 핀란드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스위스와 더불어 전기 중등교육단계(우리나라의 중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복선형 학제로 일과 학습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이원화제도(dual system)가 추진 중이다. 독일은 일본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의 청년 고용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였다. 북유럽 국가는 사회민주주의 체계로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 핀란드는 유럽연합에서 추진한 청년보장제를 먼저 시작했던 국가이며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표적인 참고 사례로 다루어져 왔기에 선정하였다.

표 V-22 주요국의 청년(15-24세)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지표 현황

구분	고용률				실업률				1년 이하 근속비율				니트비율			
	2000년	2007년	2019년	2020년	2000년	2007년	2019년	2020년	2000년	2007년	2019년	2020년	2000년	2007년	2019년	2020년
미국	59.7	53.1	51.2	45.9	9.3	10.5	8.4	14.9	61.8	-	-	57.1	12.2	13.2	13.4	13.4
일본	42.7	41.4	47.4	46.4	9.2	7.7	3.7	4.6	-	41.2	-	-	-	11.7	-	-
독일	47.2	45.9	48.5	-	8.4	11.7	5.8	-	38.8	40.9	41.0	-	13.3	12.6	8.2	-
핀란드	42.9	46.4	46.3	43.0	20.3	15.7	16.3	20.0	65.2	62.6	63.0	58.9	-	10.1	11.0	10.8
한국	29.4	38.1	31.8	29.6	10.8	8.7	10.4	10.5	-	72.0	70.0	70.3	-	18.7	19.9	21.0
OECD	45.6	43.1	42.5	39.0	12.1	12.6	11.8	15.0	49.3	50.3	51.8	49.8	15.8	13.9	12.9	13.4

\* 자료: OECD(2021a).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Navigating the COVID-19 Crisis and Recovery. 청년 니트 비율은 OECD(2021b)로 김기현(2021c)의 <표 1>(p.2)에서 인용

주요국의 청년 법률은 일반법으로 청년기본법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뉜다. 독일과 일본, 핀란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기존 법률에 부수사업으로 청년 관련 사항을 담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인 유스 빌드(Youth Build)나 잡 콕스(Job Corps), 단절 청년프로그램(Disconnected Youth) 등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이나 고용 관련 법률도 청년을 별도로 구분하여 법제화가 된 곳은 드물지만 일본은 청년고용촉진법(若者雇用促進法)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은 특히 신규 학교졸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으로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은 채용과 관련된 기업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공시된 정보와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동시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인데 이것이 유스엘(ユース エール) 중소기업 인증제이다. 기업이 신규 졸업자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인정받을 경우 인정기업에게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 헬로 워크(ハローワーク)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나 취업박람회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트라이얼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에 일정액을 가산해 지급하는 한편 저금리 융자나 공공조달 시에 가산점이 부여해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 V-23 주요국의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관련 법률 현황

구분	법률명	연령규정	법률 내용
미국	노동력 혁신과 기회법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청년 프로그램 (WIOA Youth Program)	- 24세 이하 - 학생 - 학생이 아닌 청년	- 대안적인 중등교육 서비스 제공 - 직업체험과 일 경험 제공 - 직업훈련 제공
	노동, 복지, 교육부 등 정부기관 예산 전용법(Departments of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Educ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단절청년을 위한 성과동반시범사업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 24세 이하 - 단절 청년 - 청년 니트 - 집이 없는 청년 - 교정시설에 있는 청년	- 단절청년 고용복귀 프로그램 제공
일본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아동 18세 미만 - 청년 18-30세 미만 - 청소년 0-30세 미만	- 아동과 청년의 자립 - 존중과 차별 금지 - 좋은 가정환경 구축 - 좋은 생활환경 조성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の雇用促進等に関する法律)	- 신규 학교졸업자	- 신규졸업자 모집 시 기업정보제공 - 노동법규 위반 업체 규제 - 중소기업 인정제(ユース エール)
독일	아동 및 청년지원법 (Kinder-und Jugendhilfegesetz)	- 아동 14세 미만 - 청소년 14-18세 미만 - 청년 18-27세 미만 - 30세 이하	- 정책사업 - 복지 및 대상 지원 관련 사항 - 정책협력 및 전달체계 - 정책서비스의 범위와 관할권 - 재정 및 비용 - 조사 및 통계 - 법률에 따른 처벌과 벌칙 규정
핀란드	청년법(Nuorisolaki)	- 청년 29세 이하	- 중앙정부 정책사업 - 지자체 정책사업 - 기금과 예산 - 복지 및 대상 지원 관련 사항

\* 자료: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장민선, 최환용, 김기현,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2018).

주요국별로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학교 단계에서 유스 커리어 커넥트(Youth Career Connects)가 있으며 학교 밖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잡콕스(Job Corps), 유스 빌드(Youth Build)를 비롯해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가 있다(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89-93).

유스 커리어 커넥트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추진 중이다. 미국 각지에 있는 24개의 프로그램 운영 기관들은 지역사회에 체험과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과의 연계를 비롯하여 참여 학생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만 여명의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수요가 높은 전문직인 보건의료, 정보통신, 과학기술, 공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상담과 학습, 직업체험과 인턴십을 추진하였다.

잡콕스(Job Corps)와 유스 빌드(Youth Build)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24세 이하의 학교 밖 저소득층 청소년 혹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김기현, 유민상, 2019b: 24-29). 이 정책 사업은 노동력 혁신과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의 청년 프로그램(WIOA Youth Program)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잡콕스(Job Corps)는 미국의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국립잡콕스사무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6개 지역에 125개의 잡콕스 센터에서 1년에 6만 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1년 예산이 15억 불에 이르고 있다. 유스 빌드(Youth Build)도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데 건설업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잡콕스나 유스 빌드는 취약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의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velopment Account)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모델이 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개인발달계좌는 1998년 자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은 개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매칭으로 개인 납입액의 100%에서 최대 900%를 지원하여 최대 3년간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주별로 자격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개인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65%에서 85% 사이이며 미국의 기초수급 기준인 빈곤선의 200%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 계좌를 통해 받게 되는 자산은 주택을 마련하거나 대학등록금과 같은 교육비에 지출하거나 직업훈련 혹은 은퇴자금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재정 지출은 정부 예산과 더불어 기부를 통한 민간 재원에서도 마련되었다.

표 V-24 미국의 학교-일자리 이행 사업 현황

구분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규모
학교 단계	유스 커리어 커넥트 (Youth Career Connects)	- 고등학생	- 취업 준비 학습 - 대학입시 학습 - 생활기술 학습 - 직업체험 - 인턴십 - 봉사활동	- 1만 여명
이행 단계	잡콕스(Job Corps)	- 16-24세 이하 - 학교 밖 청소년	- 사전프로그램 - 예비프로그램 - 직업훈련 - 취업지원	- 6만 여명
	유스 빌드(Youth Build)	- 24세 이하 - 학교 밖 청소년	- 상담, 사례관리 - 생활기술학습 - 직업훈련(건설) - 취업지원	- 1만 여명
일자리 단계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 12세 이상 - 취업자 - 빈곤선 200% 이하 - 자산 10,000불 이하	- 한 달에 최소 25불 이상 적립 - 최소 6개월 최대 3년간 적립 - 1:1-1:9까지 지원	-

\* 자료: 김기현, 유민상(2019b); 조규형, 강소량, 한창근, 강시온(2019)

표 V-25 일본의 학교-일자리 이행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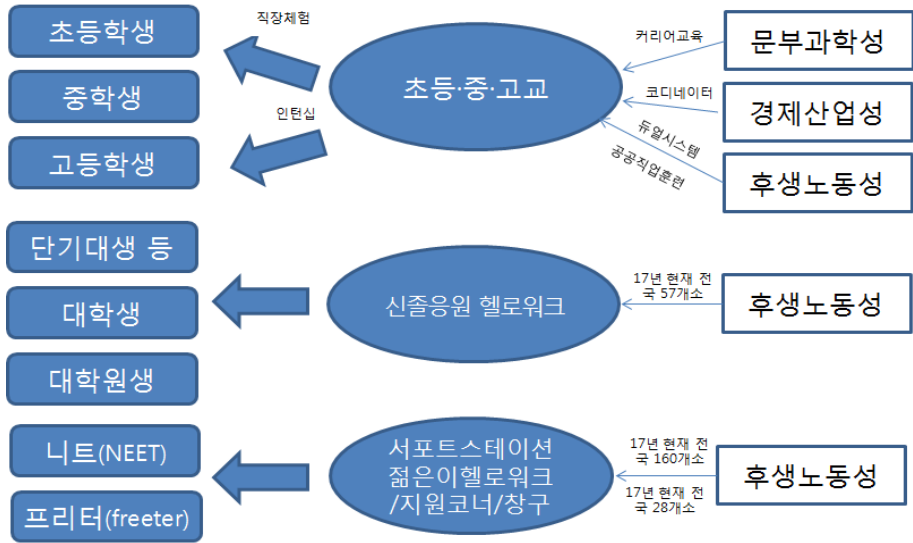
구분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규모
학교 단계	1인1사제 (一人一社制)	- 고등학생	- 학교와 기업 실적 관계 - 졸업생 학교 추천 - 졸업 전 취업 확정	- 16만 여명
	직업체험 및 인턴십 (職場体験やインターンシップ)	- 고등학생 - 대학생 - 청년 구직자	- 사전지도 - 직업체험 및 인턴십 - 사후지도 - 공공직업훈련	- 94만 여명
이행 단계	일본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 49세 이하 - 청년 니트	- 상담지원 - 정착지원 - 일 경험 - 취업지원 - 집중프로그램 (6개월)	- 2만 여명
	신졸응원 헬로 워크 (新卒応援ハローワーク)	- 졸업 예정자 - 미내정 취업활동생	- 상담지원(잡 서포터) - 취업정보 제공 - 기업 연계 지원	- 64만 여명
일자리 단계	청년 헬로 워크 (わかものハローワーク)	- 청년 프리터	- 정규직 전환지원 - 직업훈련 - 취업 후 정착 지원	- 30만 여명

\* 자료: 内閣府(2021). 令和3年版 子供・若者白書

이어서 일본의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학교 단계에서 1인1사제(一人一社制)와 직업체험 및 인턴십(職場体験やインターンシップ)이 있고 이행 단계에서 일본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과 신졸응원 헬로 워크(新卒応援ハローワーク)가 있으며 일자리 단계에서 청년 헬로 워크(わかものハローワーク)가 있다(김기현, 2018; 김기현, 2021a).

일본은 교육단계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단계별로 지역사회에 지원센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등교육단계에서는 1인1사제를 통해 졸업 전에 학생의 취업을 미리 정해 취업 문제를 최소화하

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희망자 중 취업이 결정된 학생 비율을 취직내정률로 제시하고 있다.



\* 자료: 内閣府(2018).「平成30年版 子ども・若者白書」.

\*\* 출처: 김기현(2018: 5). [그림 3]을 재인용하였음.

그림 V-6 일본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2021년)

고등교육단계에서는 대학 진학 자체가 취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경제 불황에 따라 대졸자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규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신졸 응원 헬로 워크(공공고용서비스기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2020년 5월 현재 현재 신졸 응원 헬로 워크는 일본 전역에 5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内閣府, 2021: 84).

졸업이나 중퇴 후 취업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장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지역 서포rts스테이션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은 했으나 아르바이트 수준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프리터를 대상으로 이들이 정사원이 될 수 있도록

청년 헬로 워크에서 지원하고 있다. 청년 헬로 워크는 2020년 5월 현재 2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內閣府, 2021: 85).

독일은 이원화제도로 졸업 전에 도제교육을 통해 취업과 연결되어 청년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교육연계 이니셔티브 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김기현, 유민상, 2019b: 70-77). 이 프로그램은 개인들의 능력과 자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량 분석에서 출발해 일 경험과 직업체험을 실시하고 직업훈련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역량 분석이 완료된 이후 개인이 참여하는 직업 관련 활동을 기록하는 직업선택패스(Berufswahlpass)를 통해 기술자로 성장하는 경력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표 V-26 독일과 핀란드의 학교-일자리 이행 사업 현황

구분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독일	교육연계 이니셔티브 (Bildungsketten)	- 고등학생	- 역량분석 - 직업체험 - 봉사활동 - 직업훈련 - 직업선택패스	- 10만 여명
	청년을 강하게! (JUGEND STÄKEN!)	- 26세 이하 - 학교 밖 청소년 - 청년 니트 - 청년 이민자 등	- 상담과 사후 관리 - 직업훈련 - 일 경험 - 취업지원 - 학교 복귀 - 이민자 지원	- 10만 여명
핀란드	청년보장제 (Nuorisotakuu)	- 25세 미만 - 30세 미만 최근 졸업자 - 청년 니트	- 진로상담 - 직업훈련 - 구직기술 - 취업지원 - 청년 워크샵 - 청년 아웃리치	- 10만 여명

\* 자료: Mascherini, M. (2021); European Youth Guarantee: its progress and prospects; European Union(2019); 김기현, 김태성, 배진우(2018); 김기현, 유민상(2019b); 채창균, 양정승, 김민경, 송선혜(2018)

독일에서는 학교 밖에 있는 취약한 청소년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독일의 청소년을 강하게!(JUGEND STÄKEN!)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김기현, 김태성, 배진우, 2018). 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의 청소년이나 청년에게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은 물론 학교 복귀 프로그램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까지 설치되어 있는 청년청(Jugendamt)을 통해 전국적으로 800개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실시한 청년보장제의 모델이 된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김기현, 2021a). 핀란드의 청년보장제는 교육보장, 일자리와 기타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서비스 내용은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와 동일하다. 기타 서비스 중 주목받고 있는 것은 청년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youth outreach program)이다. 이것은 지원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을 받아야 할 청년들을 찾아다니며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아웃리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교육, 법무, 복지, 의료, 국방 등을 담당하는 부처와 학교, 복지기관, 선도시설, 병원, 군대와 같은 기관이나 시설은 아웃리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청년 정보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래의 청년 아웃리치 활동가(youth outreach worker)를 양성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청년 아웃리치 활동가들은 교사,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종사자,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 등과 함께 청년 워크숍을 통해 청년들을 추천받는다. 동시에 직접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을 발굴(street work)하기도 한다. 청년 아웃리치 활동가는 6개 기관에 최대 13명에서 최대 169명을 배치해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였다(채창균, 양정승, 김민경, 송선혜, 2018: 173).

핀란드의 청년보장제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년 당사자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이다. 청년보장제의 기획, 과정,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120여 개의 청년 조직이 참여한 핀란드 청년협의체(Allianssi)가 참여해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하였다(채창균 외, 2018: 164).

이처럼 핀란드의 청년보장제 사례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5. 요약 및 시사점

먼저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을 지원하는 법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의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충분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세부 법령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고용특별법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나 2021년에 핵심 조항인 청년의무고용제가 일몰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향후 개정안에서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졸업자나 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받아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나 청년센터 등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을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진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진로교육법에서는 대학에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으나 학생이 아닌 청년에 관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개정을 통해 이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대학과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로 2021년 10월 여수에서 현장실습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법적 장치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학의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산업안전과 더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단계와 이행 단계, 일자리 단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교 단계의 대표사업은 현장실습제로 독일이나 스위스의 이원화제도와 유사하게 이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실무를 기업에서 익히는 방식으로 가장 오랫동안 이어져온 학교-일자리 연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창구로 악용되어 교육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잇따른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로 큰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고등교육단계에서 기업의 실무를 현장에서 받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열정페이(pay) 문제와 더불어 실습지원비 현실화와 함께 형식적 제도 운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어서 이행 단계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여 청년 특례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앓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분리되어 있던 사업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면서 지원자에 더 유리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방식에 대한 선호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2021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유럽에서 이루어진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한국형으로 접목시킨 사업으로 이제 시범단계로 문제점을 논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2022년 본 사업 추진 시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정책 추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일자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미래저축계좌 등이다. 기업

부담이 없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업이 직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참여가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 고용 위기 극복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 가입이 아닌 기업을 통한 가입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취약계층 자산형성 사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인가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2021년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지원 대상 폭의 확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이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적절인가에 관한 것이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깎이어 사업은 지원 대상 규모가 소수이고 사회 첫 출발 시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형 깎이어 사업은 지원 대상을 사회 첫 출발 시점에 맞추고 자기 성찰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행 단계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자체 사업은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구직활동이나 생활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부터 이루어진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대표적이며 청년취업 희망카드(대전), 청년 디딤돌카드(부산), 청년 드림 수당(광주) 등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중복사업 문제가 존재하며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맡고 정책 대상에 대한 서비스 사업은 지자체가 맡는 역할 분담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한 국가 안에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재정 자립도에 따라 형편이 좋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의 재정 지출에 있어 차이가 불가피하므로 가급적 재정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맡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단계에서 노동빈곤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청년 통장 사업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청년저축계좌를 확장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시도에도 확대되었다. 이 사업 역시 청년수당 사업과 마찬가지로 중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 설계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나 중앙정부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해졌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연합과 유럽연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양질의 고용 혹은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추었고 고용률이나 실업률과 같이 양적 고용지표를 개선하는데 집중하였다. 이제는 청년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 1년 이하 근속비율 등 질적 측면에서 고용지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측정에 있어서 괜찮은 일자리 이행 여부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와 청년보장제는 개별 사업을 통합해 수요자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역시 통합적 정책 추진을 통해 인지도와 수혜도를 높이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보장제의 경우 조기 개입을 강조하는 예방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학교 졸업 전이나 졸업 직후에 이행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통

해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의 경우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경우 예방적 접근으로 학교 졸업 전에 취업이나 진학을 확정하는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경우 정책 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 접근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와 보완 전반에 참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 제6장 결론

- 1. 연구결과 이론적 시사점
- 2.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 3. 청년 학교-일자리이행 정책  
방향과 과제(안)



## 1. 연구 결과 이론적 시사점<sup>10)</sup>

이 연구는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학교-일자리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2021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한 횡단분석, 2차 데이터를 통한 시계열 분석 및 패널분석, 이행기 청년 24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회 첫 출발과 첫 일자리의 의미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갖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은 사회 첫 출발의 개념을 주로 첫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의 의미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과정은 성인기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동안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청년의 성인기 이행은 학교-일자리 이행, 결혼이나 부모 되기 등 가족의 형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낸 것은 지금의 청년들에게 사회 첫 출발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것은 결혼, 출산, 주거 독립보다는 첫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그리고 투표권과 같은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자립이 중요하다는 Arnett(1998)의

10) 이 절은 배정희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시민참여와 권한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최근의 연구결과(Wray-Lake, Arruda & Schulenberg, 2020)도 지지한다.

둘째, 청년들이 인식하는 첫 일자리의 개념을 파악한 결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첫 일자리란 일반적으로 '학교 졸업 후, 최소 6개월 이상, 최소 주당 35시간 처음으로 일한 일자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많은 연구에서 첫 일자리의 개념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첫 일자리는 '대학 졸업 후 가진 첫 번째 일자리(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졸업, 중퇴, 수료 이후 첫 번째 일자리(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최종적으로 학교를 마치거나 그만둔 이후 취업한 일자리(한국노동패널 9차 부가조사)', '15세 이후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2개월 이상 일한 일자리(한국노동패널 제23차 조사)'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그들의 첫 일자리는 현재 많은 조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첫 번째 일자리의 개념보다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졸업 후 시간적으로 가장 선행하는 첫 번째 일자리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이상 (6개월 이상), 일정 시간 이상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한 일자리를 자신의 첫 번째 일자리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졸업 후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첫 번째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첫 번째 일자리에 대한 많은 조사결과가 청년들의 인식과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우리나라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분석 결과, 엄격한 이행을 기준으로 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LO의 엄격한 이행 개념을 적용하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2차 데이터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이행 개념을 적용했을 때보다 엄격한 이행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 이행 완료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행 완료자의 특성도 다르게 나타났다. 즉, 단순히 일자리를 가졌느냐 또는 정규직 일자리를 가졌느냐 여부와 더불어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일자리의 질 등을 함께 고려하여 엄격한 이행 여부

를 판단할 경우 청년의 상당수가 일자리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러한 엄격한 이행에는 성별, 학력, 지역, 부모 동거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행, 질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 등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학교-일자리 이행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오유진, 김교성, 2019; 강순희, 2016; 정세정, 2019), 일자리의 질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 및 활용 데이터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ILO의 엄격한 이행 개념은 다양한 데이터에 폭넓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추후 ILO의 엄격한 이행 개념을 적용한 보다 심층적인 청년 일자리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구 결과 정책적 시사점<sup>11)</sup>

이 연구는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육통계연보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24명의 이행기에 있는 청년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법률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국의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2021년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 첫 출발과 첫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결과를 토대로,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일자리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이는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첫 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정규직과 고임금 같은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

---

11)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지만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 최소 6개월 이상의 일자리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노동조건을 고려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첫 일자리에 진입하기 전에 기본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 일자리가 엄격한 기준의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확보한 일자리여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실현되기 어렵다. 일자리 질에 대한 고려가 향후 중요해 보이며 특성을 달리하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는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첫 일자리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년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고졸 청년에게 더 많은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청년 내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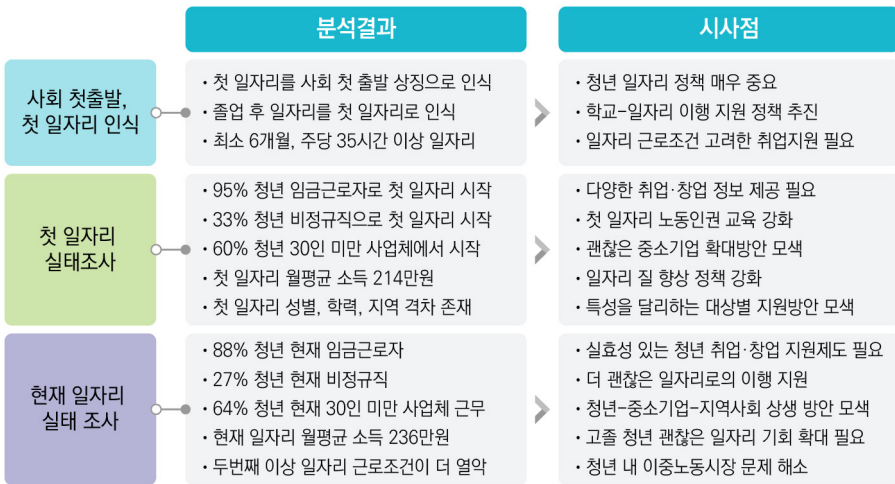


그림 VI-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정책적 시사점

이어서 교육통계연보 원자료로 분석한 학교 졸업 후 상황과 관련하여 먼저 대학 진학률이 다시 상승하여 고학력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상승세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현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 7년간의 추세를 보면, 대학 진학률 자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졸자 노동시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직업계고는 완성교육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만 취업률이 계속 낮아져 50% 전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이 강화되어야 하며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변질된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반 졸업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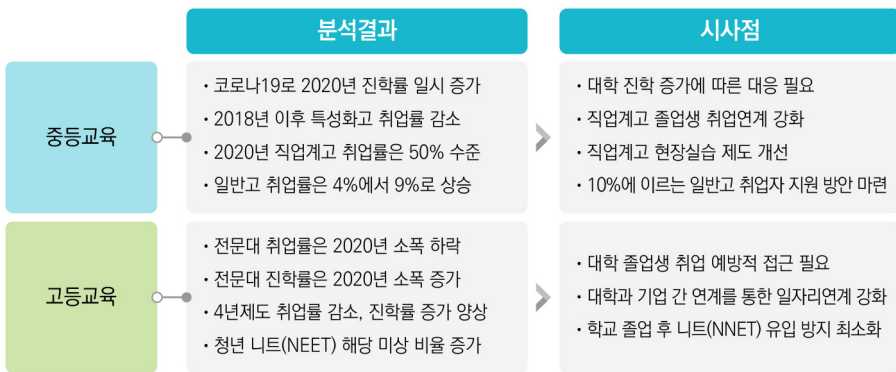


그림 VI-2 학교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정책적 시사점

고등교육단계에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생 간의 취업률에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전문대에서 비교적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졸업 전에 취업이 이루어지는 예방적인 접근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교 졸업 후

청년 니트(NEET)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와 같은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대학원 진학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고급인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대학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기간에 대한 분석과 엄격한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첫 번째 분석과 관련하여 취업 준비를 늦게 시작할수록 첫 일자리 진입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조기 진로 결정을 위한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졸업 전에 취업이 결정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경우 첫 일자리 진입 기간이 길어지는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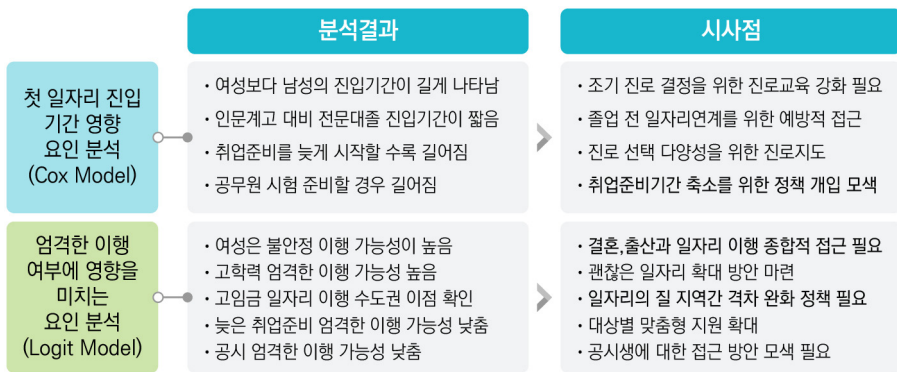


그림 VI-3 학교 졸업 후 상황에 대한 동태적 분석 결과 정책적 시사점

엄격한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청년들에게 관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청년 대상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사회 첫 출발 및 첫 일자리에 대한 물어본 결과, 사회 첫 출발로 첫 일자리 진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일자리 문제 해소에 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성인으로서의 권리도 중시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는데 청년정책이 주로 청년들의 의무와 관련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VI-4 청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정책적 시사점

취업 준비과정에 대한 면접 결과, 고교 단계에서 일자리 연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장실습제는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장기적인 개선안 도출이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하였는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어렵게 취업을 하고도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는데 소위 갑질 근절이나 산업안전 사고 발생 억제, 적절한 노동시간 등 일자리 환경 개선에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요구에 대해서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서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낮은 인지도에 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법률과 관련하여 청년기본법은 정책 추진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하위법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고용촉진법은 청년고용의무제와 관련 일몰 연장이 필요하고 학교와 일자리 연계를 위한 개인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과 아웃리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해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법률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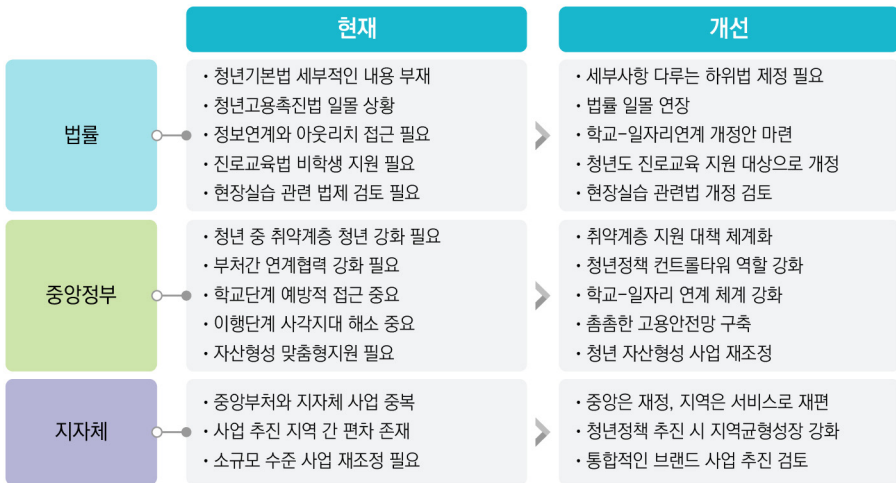


그림 VI-5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분석 결과 개선방안

중앙정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부처간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단계에서 졸업 전에 취업과 연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행 단계에서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일자리 단계에서 현재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이 재정사업을 담당하고 지역에서 청년에 대한 서비스사업을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년정책 추진 시에 지역균형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 편중현상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들을 정비해 대규모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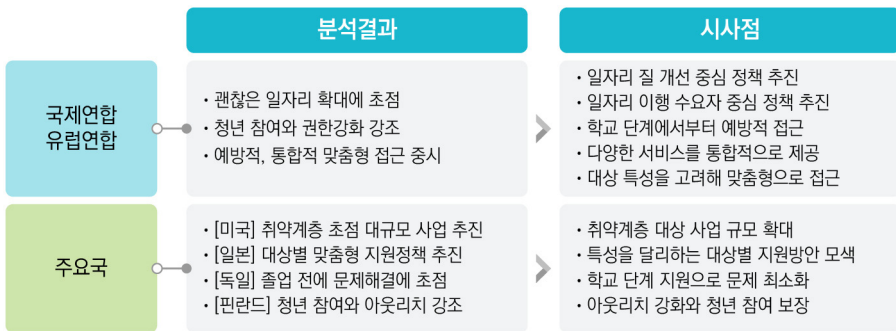


그림 VI-6 학교-일자리 해외사례 분석 결과 개선방안

해외 사례와 관련 먼저 국제기구에서 일자리 양보다는 일자리 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청년들에게 관찬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청년들의 참여와 권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추진에 있어서 수요자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교 단계에서부터 예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결과를 보면, 미국 사례에서 유스빌드나 잡콥스처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례에서는 특성을 달리하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 사례에서는 학교 단계 지원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최소화하는 접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 사례에서 아웃리치 강화와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3. 청년 학교-일자리이행 정책 방향과 과제(안)<sup>12)</sup>

#### 1) 정책방향(안)

이 연구에서는 청년 대상 실태조사와 2차 실증 분석, 청년 대상 심층면접과 중앙부처, 지자체 정책 분석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와 주요국 정책사례 분석을 토대로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평균 11개월이 소요된 후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유지되는 시기이자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결정되는 예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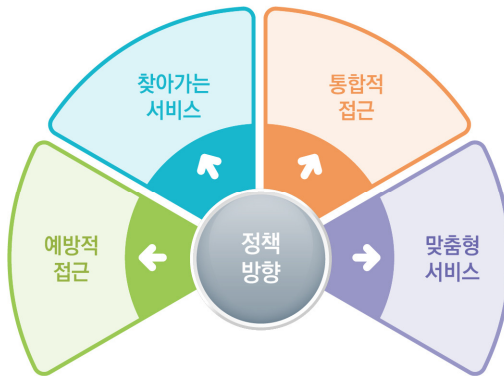


그림 VI-7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방향(안)

12)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다음으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대상정책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고려하여 대상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추진에 있어서 특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연계 협력이 중요하며 각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이 청년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 내부의 이질성이 크고 연령별, 상태별로 다르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동시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청년 중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작 더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정부 재정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정책과제(안)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정책과제를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책과제는 학교 단계, 이행 단계, 일자리 단계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학교 단계의 정책과제(안)는 진로교육 활성화 및 대상 확대, 고교 및 대학 현장실습 개편, 학교-일자리 연계 체계 강화 등 세 가지이다. 이행 단계의 정책과제(안)는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자기주도적 삶 모색 기회 제공 등 세 가지이다. 일자리 단계의 정책과제(안)는 청년친화적 일자리 환경 조성,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등 두 가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총 8가지의 정책과제(안)와 18가지의 세부과제(안)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각 과제별로 배경, 내용, 법적 근거, 예산, 로드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VI-1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방향에 따른 정책과제(안)

구분	정책과제(안)	세부과제(안)	부처
학교 단계	진로교육 활성화 및 대상 확대	- 고등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 변경 지원 - 고등교육 진로교육 체계화와 상담 준비 재편 - 학생이 아닌 청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교육부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 개편	- 현장실습 협약/계약학과 형태 확대 - 현장실습제와 일·학습병행제 장기적 통합 방안 마련	교육부 고용부
	학교-일자리 연계 체계 강화	- 마이스터고 확대 및 일반고 직업반 내실화, 취업지원관 전문성 강화 - 대학 자체 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일자리연계 강화	교육부 고용부
이행 단계	청년을 위한 관찮은 일자리 확대	- 지속적인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제공 - 신성장동력 관찮은 일자리 확대 - 청년 창업 및 재기 지원 강화	국조실 여가부 고용부
	취약계층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청년도전 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아웃리치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개편	고용부
	자기주도적 삶 모색 기회 제공	- 한국형 갭이어(gap year) 추진	국조실 여가부
일자리 단계	청년친화적 일자리환경 조성	-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및 정보공개 추진 -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환경조사 - 청년재직자 교육훈련 강화	고용부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 사회 첫 출발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 청년 및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장기적 통합추진	복지부 고용부

\* 자료: 자체 작성

## (1) 진로교육 활성화 및 대상 확대

### 가. 추진배경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졸업 전에 학교에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내실 있는 진로교육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직업계고의 경우 입학 단계에서 정한 전공으로 졸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학 중 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진로 미결정 상태에 놓여 있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대학의 경력개발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에서 대학생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진로교육법에서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만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학생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나.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안)로는 고등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 변경 지원을 비롯하여 고등교육 진로교육 체계화와 상담 중심 재편, 학생이 아닌 청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안한다. 고등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는 기존의 수업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둔 채 진로교육 집중학년제나 고교학점제 등이 도입되면서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김기현 외, 2019a: 338-339).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고 그만큼 진로교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내신에 반영되는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 역시 줄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진로교육 중에서도 진로상담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사를 통한 진로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유정 외(2020)에 따르면,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월평균 진로상담 실시 횟수는 2017년 27.8회에서 2018년 26.0회, 2019년 24.3회로 낮아졌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15.5회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하여 진로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직업계고는 입학 시기에 선택한 전공이나

학과를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상담과 관련하여 중등교육의 진로전담교사는 기존 교사 중에서 540시간 이상(38학점 이상)의 자격연수를 통해 양성되었고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의 진로상담원이나 커리어 매니저, 커리어 코치 등은 각 대학별로 자체적인 선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국가차원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질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잦은 이직으로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동시에 상담업무에 있어서도 진로상담보다는 학업이나 사회관계, 정신건강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상담이 더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전문적인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에서 대학의 진로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고등교육 진로교육은 진로교육법에 지원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로 중등교육단계에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뚜렷한 정책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진로탐색 지원은 2020년 예산이 4억 여 원에 그치고 있으며 2021년 8억 여 원으로 2배 늘어났으나 여전히 예산 규모는 작은 편이다. 대학생 진로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 역시 중등교육단계와 마찬가지로 진로상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학생만이 아니라 학생이 아닌 청년도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고등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 변경 지원
- 고등교육 진로교육 체계화와 상담 준비 재편
- 학생이 아닌 청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진로교육법 제1조에 이 법의 목적을 다룬 제1조에서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제5조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다룬 조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내부의 지원 대상에 대한 충돌이 있는 셈인데 이러한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더 넓혀 국민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학교 밖 청소년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VI-2 진로교육법 개정(안) -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부처
진로 교육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 ----- ----- ----- -----.	교육부 (진로 교육 정책과)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과 학교 밖의 청소년 및 청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	

\*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2021년 10월 4일 접속

라. 추진예산

교육부의 진로교육 예산은 교육부 예산 항목 중 평생직업·교육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형태로 운영 중인 국가진로교육센터를 비롯하여 해당 예산 규모는 35억 원 수준이다. 직업계고부터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해 3억 원과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으로 8억 원 등 전체 진로교육 예산은 50억 원 미만의 예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진로상담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진로상담은 진로 상담교사와 진로상담원의 자질과 능력에 크게 의존하므로 진로교육 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진로상담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등 신분적인 불안과 낮은 처우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VI-3 교육부 진로교육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구분	사업	2020년 (억원)	2021년 (억원)	증감 (억원)
평생·직업 교육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22	21	△1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	3	-
	정책연구개발사업(진로, 인적자원개발정책)	11	11	-
중등교육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	3	3
고등교육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	4	8	4

\* 자료: 교육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교육부); 교육부(2020).

## (2)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 개편

### 가. 추진배경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는 과정으로 독일이나 스위스 등 도제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 예방적 접근으로 진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추진되었다. 그런데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기업에서 실습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

하면서 제도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학생들은 일종의 아르바이트처럼 돈을 버는 수단으로 현장실습을 바라보고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현장실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로 교육과정을 마무리한 뒤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선도기업에 한해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으나 2019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급락하면서 완화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2021년 여수에서 다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직무상에 위험도가 낮은 편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열정페이(pay) 문제와 더불어 요식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실습과 명칭을 달리하여 일·학습병행제를 추진 중인데 학교보다는 기업이 주도하여 현장실습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재학생과 대학 재학생, 기업에 입사한 청년 중 2년 이내 신규입사자 등으로 다양하다. 제도 시행 7년간 2020년 12월 기준으로 16,430개의 학습기업이 선정되었고 103,370명이 학습근로자로 참여하는 등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하였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적절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동시에 유사한 제도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기 운영 중이어서 장기적으로 통합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 나. 세부추진과제(안)

이 영역의 세부 추진과제(안)는 현장실습 협약/계약학과 형태 확대와 현장실습제와 일·학습병행제 장기적 통합방안 마련 등이다. 2019년에 이루어진 현장실습 개선 방안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과 위험한 산업 안전에 대한 노출을 근본

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적절했으나, 직업계고 취업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제도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2021년 또 다른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이에 대응한 조치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면서 현장실습 폐지라는 극단적인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현장실습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하는 한편, 협약 혹은 계약학과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약 혹은 계약학과는 학교와 기업이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현장실습은 직접 현장에서 받는 실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선취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는 2015년과 2018년에 이루어진 방식과 동일하며 졸업 전 취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학습자가 아닌 노동자로 적절한 임금과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부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제와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학습병행제를 장기적으로 통합하여 두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제대로 된 학교-일자리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현장실습 협약/계약학과 형태 확대
- 현장실습제와 일·학습병행제 장기적 통합방안 마련

####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와 대학, 혹은

재직자 등 지원 대상별 법적 근거 역시 제각각인 상황이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관련 법들을 종합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주관 부처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맡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교육부의 중등직업교육정책과와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정책과가 공동으로 법률 담당 주관부처로 되어있다.

산업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반적으로 부분을 다루고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현장실습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현상으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면 이 법률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라. 추진예산

교육부의 현장실습 예산은 직업계고의 경우 546억 원이며 대학의 경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96억 원이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 135억 원, 현장실습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간의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1,7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일학습 병행제는 2021년 3,179억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표 VI-4 교육부 현장실습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구분	사업	2020년 (억원)	2021년 (억원)	증감 (억원)
학교 단계 (중등교육)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	542	546	6
학교 단계 (고등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96	96	-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156	135	△2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1,080	1,710	630

\* 자료: 교육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교육부); 교육부(2020).

표 VI-5 고용노동부 일반고 직업반 및 일·학습병행제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구분	사업	2020년 (억원)	2021년 (억원)	증감 (억원)
전 단계	일학습 병행제	3,554	3,179	△375
학교 단계 (고등교육)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 확대	160	12	△148

\* 자료: 고용노동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고용노동부).

전체적으로 보면 5,0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두 부처에서 투입되고 있어 제도 개선과 통합 운영은 추가적인 예산 수반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처간에 협력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2019년 내놓은 대책을 다시 적용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재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학교-일자리 연계 체계 강화

#### 가. 추진배경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은 학교 졸업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일자리 연계 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중등교육단계와 고등교육단계에서 다른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나. 세부추진과제(안)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교와 일자리 연계 강화는 일반고의 취업희망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졸업자를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이 10%에 이르고 있으므로 일반고 직업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

직업반은 고등학교 학제이나 실제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2021년 들어 예산이 65억 원이나 삭감되었다. 일반고 직업반 운영에 있어서 학교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은 중앙취업지원센터부터 각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그리고 각 학교별 취업지원관으로 연결되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학교-일자리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의 자질과 능력으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더불어 인력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진로상담교사와 취업지원관 간에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일자리 연계 체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를 점차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이스터고의 취업자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자체 학교 역량만으로도 일자리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2010년 10개교에서 2015년 44개교로 늘어 4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후 매년 1-3개교 증가에 그쳐 2021년 현재 51개교에 머물러 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2014년 5,593명에서 2017년 6,635명까지 늘어났으나 학교 수 증가에도 모집 학생 감소로 2021년 5,902명으로 줄어들었다.

대학의 학교-일자리 연계는 대학 내의 경력개발센터나 취업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졸업생에 대한 일자리연계를 강화해 졸업 전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일몰 사업이나 2021년 청년특별대책에서 대학일자리센터+로 재편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c). 이 방안에는 지원 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하고 취업지원 전담자 배치로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진로상담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졸업생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센터 설치 대학만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에 보조금을 주고 센터 형태로 운영하기 보다는 기존 대학에 존재하는 경력개발센터 등에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같은 재정 투입으로 더 많은 대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김기현 외, 2019a: 326).

- 마이스터고 확대 및 일반고 직업반 내실화, 취업지원관 전문성 강화
- 대학 자체 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일자리연계 강화

#### 다. 추진예산

학교-일자리 연계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기존에 대학에 지원하던 산학협력 고도화 예산도 700억 원이 증액되었다.

표 VI-6 교육부 학교-일자리 연계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구분	사업	2020년(억원)	2021년(억원)	증감
평생·직업 교육	교교 취업연계 장려금	1,107	1,669	930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205	205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17	17	-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24	24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61	55	△6
	학교기업 지원사업	75	75	-
고등교육	산학협력력 고도화 지원	3,689	4,306	700

\* 자료: 교육부(2020).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표 VI-7 고용노동부 학교-일자리 연계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구분	사업	2020년 (억원)	2021년 (억원)	증감 (억원)
학교 단계 (고등교육)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22	18	△4
	기업대학	10	10	-
이행 단계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고 직업반)	605	540	△65
	국민내일배움카드	4,839	4,105	△734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113	115	2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1	29	28

\* 자료: 고용노동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고용노동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205억원에 이르고 있다. 고졸자 후속관리를 위한 사업은 졸업 전 지원과 더불어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는 시범사업으로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이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용노동부 예산 중 일반고 직업반에 관한 예산이 65억 원 삭감되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학일자리센터의 경우 전문가 파견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예산 규모에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4)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확대

##### 가. 정책과제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은 고학력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대졸 노동시장은 협소한 상태여서 일자리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국제기구들은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중 핵심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국제비교 통계에서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의 청년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청년 이직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나. 세부추진과제(안)

괜찮은 일자리 확대는 국제기구나 주요국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을 통해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민간 차원에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시장 상황에 기초해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해야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대안이 존재한다. 우선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2021년에 일몰되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를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정부안에서는 2023년까지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법안은 2004년 한시적으로 적용 기한을 정하는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후 무려 20년 이상 시효 연장이 되고 있어 일반법 전환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 부문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새로운 성장동력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보기술분야(IT)와 생명기술분야(BT)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활성화되었고 그린기술분야(GT)는 기술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대체에너지 발굴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분야의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괜찮은 일자리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청년 창업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낮은 진입 문턱뿐만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제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은 창업자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스케일업을 통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중심거점으로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보육센터를 포괄하여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지역 대표 청년창업기관으로 육성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f). 창업 분야도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함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청년 창업의 도약을 이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지속적인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제공
- 신성장동력 관철은 일자리 확대
- 청년 창업 및 재기 지원 강화

####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도입 당시 강한 규제 성격으로 기한을 정해 추진하기로 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역시 유효기간이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 현재 청년고용촉진법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2021년 12월까지 적용받는다. 법 개정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2020년 최악의 청년 고용지표를 보여주었고 경기회복세가 아직은 뚜렷하지 않아 청년고용의무제의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 말까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에 따른 청년 의무고용제는 중단된다.

표 VI-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 청년 고용의무제 연장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부처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ikms.assembly.go.kr/>).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정보 12120). 정부 제출(2021년 8월 19일)

### 라. 추진예산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의무제는 비예산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다. 여기에서는 민간 부문 활성화와 창업 부문 역시 규제 완화와 대출 보증 등으로 별도의 예산을 다루지 않았다.

## (5) 취약계층 정책 사각지대 해소

### 가. 추진배경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는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부 청년의 경우 중복지원이나 정책 쇼핑이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청년은 모집에 참여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웃리치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와 공공기관 간의 지원 대상 개인에 대한 정보 연계를 통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나. 세부추진과제(안)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2021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22년부터 본 사

업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청년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서 핵심사업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큰 규모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1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가마다 지원 대상의 규모가 다를 수 있는데 주요국가에서 핵심 정책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청년 니트가 우리나라에 매우 많은 상황이어서 그만큼 대규모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아웃리치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와 개인정보 연계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학교에서 수집된 중퇴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에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필요할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일자리 관련 법률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또래 청년들을 멘토로 양성하여 이들이 대상자를 찾는 역할을 수행하는 북유럽 모델 역시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사업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것으로써 별도 사업일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두 제도를 달리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으나 하나의 제도 안에 포함되면서 보다 손쉬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방식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고졸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해 취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유럽방식의 접근을 참고해 추진된 사업으로 대졸자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현재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청년 특례는 청년 수당 지급 형태로 가져가고 자유롭게 구직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도전 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아웃리치 강화</li> <li>-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개편</li> </ul> |
|---|

###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공공기관 간의 개인정보 연계를 통한 아웃리치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북유럽에서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표 VI-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률	조항	부처
학교밖청소년법	제15조(청년지원센터와의 연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2021년 10월 4일 접속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러한 방식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정보 연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학교나 복지기관, 아동 및 청소년기관, 교정시설 등으로부터 기본소양과 직업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는 정책 대상에게 찾아가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라. 추진예산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예산이 8천 787억 원이상 증액되었으며 청년 예산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 예산의 39.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방식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 투입이 필요 없어 보인다.

표 VI-10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구분	사업	2020년 (억원)	2021년 (억원)	증감 (억원)
이행 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2,771	11,558 (4,507)	8,787
	니트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청년도전 지원사업)	18	18	-

\* 자료: 고용노동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고용노동부).

표 VI-11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구분	사업	2020년 (억원)	2021년 (억원)	증감 (억원)
보건복지부	보호종료 청년 자립수당	218	222	4
	보호종료 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7	18	1
여성가족부	위기 청년 자립 지원	34	31	△3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	93	93

\* 자료: 보건복지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중소벤처기업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시범사업이어서 별도의 증액 예산을 산정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을 5,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확대하기로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c). 다만, 시범사업에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규모로 확대된 것은 아니어서 최소 1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 확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과거 취약계층 청년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시범사업에 그치고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6) 자기주도적 삶 모색 기회 제공

###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으로 인해 사회 첫 출발 시기에 자기성찰과 이를 기반으로 한 주도적인 삶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잘 갖질 못하는 상황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갭이어(Gap year)를 출발로 해외에서는 사회 첫 출발 시점에 다양하고 유의미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갭이어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나. 세부추진과제(안)

해외에서 갭이어는 대학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지원 대상이나 지원내용, 실시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나 사업 추진 목적은 거의 유사하다. 갭이어 추진 목적은 성인 이행기에 자기 성찰과 주도적인 삶을 설계하고 이를 실천해 도전적인 사회 첫 출발을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동경대의 플라이 프로그램의 4가지 이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플라이 프로그램의 4가지 이념은 자주성, 장기성, 사회성과 국제성, 공공성과 규범성 등이다(강지웅, 김종우, 김태황, 김예림, 김은지, 조숙위, 2018: 23).

우리나라에서도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 성찰과 주도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갭이어를 중앙정부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교토지역에서 추진중인 갭이어 프로그램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교토부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자치구, 지역대학, NPO단체 등과 함께 자기성찰 및 지역 현안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사업 운영은 교토부를 북부지역과 중남부지역으로 나누어 교토 부북부지역·대학 연계기구(협의체로 7개 기초지자체, 9개 대학, 4개 NPO단체 참여)와 글로컬 인재개발센터(NPO단체에서 운영, 교토부, 6개 대학, 4개 경제단체 참여)에서 맡아 진행되고 있다. 사업 평가는 사업 운영과는 분리해 '새로운 사회체험추진협의회'에서 맡고 있다.

- 한국형 갭이어(gap year) 추진

#### 다. 추진예산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사업이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인생설계학교는 2020년 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21년 9억 원의 예산으로 소폭 감액되었다(서울시, 2021b). 2020년 참여자는 645명으로 2019년 334명보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 서울시의 지원 대상과 지원예산을 고려해 중앙부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7) 청년친화적 일자리 환경 조성

####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렵게 취업을 하고도 기업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문제점이 있다.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생활 균형 등을 강조하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와 사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등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일자리를 청년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나. 세부추진과제(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기업 선정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임금공개법이 적용되는 독일이나 신규 학교 졸업자 채용에 한해서 채용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유스엘(ユース エール) 운영 중인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채용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네덜란드처럼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을 관리하는 기관(SBB)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김기현, 유민상, 2019b). 현재 정부안으로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청년친화기업 선정에 관한 부분만을 포함하였는데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채용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임금이나 노동시간, 휴가 등에 대한 채용 조건과 다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업에 대한 과태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어서 청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 갑질과 따돌림을 당하거나 손님으로부터 응대과정에서 갑질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안전이나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을 보다 청년 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내일배움카드의 재직자 훈련을 확대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및 정보공개 추진
-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
- 청년재직자 교육훈련 강화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청년고용촉진법에서 청년 친화강소기업 인증에 관한 개정사항은 우선 정부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8월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법률 조항에 담고 있으며 부정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폐업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 북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관련 기업 인증은 주로 채용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 정부 개정안 인증기업에 대한 선정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정보 공개가 일종의 규제 정책으로 보이는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업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잘못된 정보 공개 시에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이 향후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VI-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 청년 친화강소기업 인증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부처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신설>	<p>제8조의 5(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청년친화강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방법과 절차, 지원의 내용·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li> <li>2. 청년친화강소기업이 폐업한 경우</li> <li>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li> </ol>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ikms.assembly.go.kr/>).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정보 12120). 정부 제출(2021년 8월 19일)

라. 추진예산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외에 일과 학습 균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능력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 출산과 육아 참여권리 보장 등이 있다.

표 VI-13 고용노동부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환경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구분	사업	2020년 (억원)	2021년 (억원)	증감 (억원)
일자리 단계	능력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	9	7	△2
	청년 일·학습 균형 조직문화 확산	286	409	123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4	3	△1

\* 자료: 고용노동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고용노동부).

표 VI-14 여성가족부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환경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구분	사업	2020년 (억원)	2021년 (억원)	증감 (억원)
일자리 단계	청년 직장 성폭력 근절	7	7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성평등 문화 확산	3	4	1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12	12	-

\* 자료: 여성가족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여성가족부).

청년 조직문화 확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10억 원 미만의 소액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청년친화 강소기업 사업이 법적인 인증제 사업으로 발전한다면 보다 많은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8)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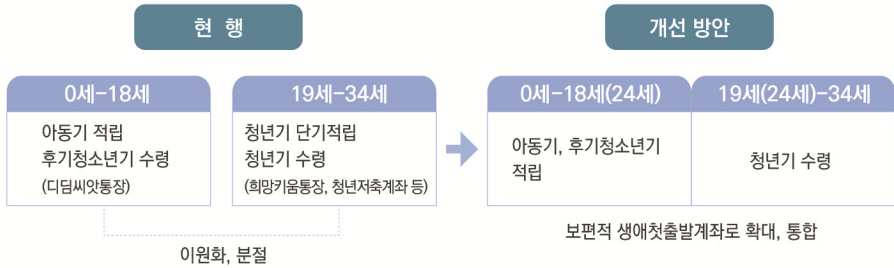
### 가. 추진배경

청년들의 소득이 이전보다 감소하고 자산 역시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부채는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어려운 취업 여건에 높은 주택 가격으로 내 집 마련도 포기한 청년에게 일정 정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며 이를 보완하여 브랜드 사업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나. 세부추진과제(안)

2021년 발표된 청년 특별대책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2022년부터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등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연소득이 최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나 금리우대 등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폭넓게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슬라이드 방식이 적용되면서 제도의 큰 틀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장기과제로 몇 가지 쟁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우선 김기현 외(2020a)가 제안하고 있는 생애 통합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생애전반기인 아동, 청소년, 청년기를 거치는 장기간 동안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한다면 사회 첫 출발 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최대 2,0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세비 마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1억 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청년들이 사회 첫 출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납입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 출처: 김기현 외(2020a)

그림 VI-8 생애 첫 출발계좌 개선방안(안)

다른 하나는 기존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제도와와의 통합문제이다. 청년 및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재 유입과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라는 다양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 형식상 자산형성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통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 금액에 있어서 저소득 취약계층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여서 이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는 소득이 낮은 청년 취약계층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 청년 사회 첫 출발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 청년 및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장기적 통합추진

####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이번 청년특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넓히는데 있어서 법적 인 제약이 존재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아동발달계좌인 디딤씨앗통장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자산형성지원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 VI-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자산형성지원의 범위 확대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부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및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청년권익증법 (제정)	<제정안>	제○○조(청년 자산형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자립을 증진하기 위해 소득수준별로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2021년 10월 4일 접속

이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자로 중위소득 50%까지만 자산형성지원이 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상위자 이상의 소득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법률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원 대상 확대가 법률 취지와 맞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청년기본법의 하위법률로 준비 중인 청년권익증진법에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다.

현재 자산형성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 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추진 중이므로 개정이든, 제정이든 차상위 계층 이상의 청년 자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VI-16 각 부처별 자산형성 관련 예산 현황(2020-2021년)

구분	사업	2020년 (억원)	2021년 (억원)	증감 (억원)
보건복지부	청년 희망계좌(가칭) 통합 및 운영개선(청년)	901 (298)	912 (402)	11
	보호종료 청년 자립수당	218	222	4
	보호종료 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7	18	1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12,819	14,016	1,197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388	3,134	746

\* 자료: 보건복지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중소벤처기업부).

### 라. 추진예산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예산은 두 부처에서 1조 5,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은 1,00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충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하게 사업을 진행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이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3) 정책추진 로드맵(안)

이 연구에서는 8가지의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진로교육 활성화 및 대상 확대와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 개편은 개입시기가 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단기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를 통합해 독일이나 스위스를 뛰어넘는 한국형 도제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제에 포함된 제안은 기존 사업을 바꾸거

나 보완하는 것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학교 단계에 이루어지는 학교-일자리 연계 체계 강화는 직업계고 전반에 걸친 개편이 다루어지고 있어 중단기적으로 해법을 내놓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등교육 단계에서 대학 내 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를 파견방식으로 연계하는 부분은 중기적으로 실현 가능해 보인다.

표 V-17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 과제(안) 로드맵

영역	개입시기			추진기간			신규/기존	법률 제개정
	학교 단계	이행 단계	일자리 단계	단기 ('22)	중기 ('23-'24)	장기 ('25-'26)		
1. 진로교육 활성화 및 대상 확대	○			○			기존	○
2.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 개편	○			○		○	기존	○
3. 학교-일자리 연계 체계 강화	○				○	○	기존	
4. 청년을 위한 관찮은 일자리 확대		○			○	○	기존	○
5. 취약계층 정책 사각지대 해소		○		○	○		신규	○
6. 자기주도적 삶 모색 기회 제공		○		○			신규	
7. 청년친화적 일자리 환경 조성			○	○	○		기존	
8.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	○		○	기존	○

다음으로 이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제는 청년을 위한 관찮은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자기주도적 삶 모색 기회 제공 등 세 가지이다. 한국형 깎이어서 예산 부담이 크지 않고 이미 지자체에서 시도한 사업을 전국화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해 보인다. 반면, 관찮은 일자리 확대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과제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취약계층 정책은 핵심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본 사업을 잘 설계한다면 되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 과제로 설정하였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2021년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에서는 신규과제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제는 청년친화적 일자리 환경 조성 및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이다. 청년 친화 일자리 환경 조성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로 단기적 대응이 가능해 보이는데 청년친화 기업 인증제의 법 개정이 필요하고 현행 정부안에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지 않아 중기과제로 볼 수 있다.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는 생애 전반기를 포괄하는 방식과 중소기업 취업 시 이루어지는 지원을 모두 포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장기과제로 보이고 현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단기과제로 분류하였다.

##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강순희 (2016). 취업청년의 초기 일자리 변동과 고용안정성. **한국청소년연구**, 27(4), 5-29.
- 강지웅, 김종우, 김태황, 김예림, 김은지, 조숙위 (2018). **서울형 깡이어 지원방안 기초연구**. 서울: 청년허브.
- 고용노동부 (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8.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공수연, 양성은 (2012). 청년구직자의 취업준비 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47-64.
- 관계부처 합동 (2019).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안)**. 세종: 교육부.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세종: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 합동 (2021a).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관계부처 합동 (2021b).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합동 (2021c).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관계부처 합동 (2021d). **청년특별대책**.
- 관계부처 합동 (2021e).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안)**.
- 관계부처 합동 (2021f).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2018). **청년 일자리대책**.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 교육부 (2020).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교육통계연보 2021.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7.).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첫 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0년도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 졸업 후 상황조사 매뉴얼.
- 교육부 (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교육부).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2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에서 2021년 8월 14일에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청년 관련 법률. <https://www.law.go.kr>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1). 지자체 청년정책통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aw.go.kr> 에서 2021년 10월 4일 인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정보 12120). 정부 제출(2021년 8월 19일)
- 권혁진, 유호선 (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학력별 이행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1-31.
- 김기헌,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헌 (2018).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고용서비스발전 포럼 자료집(내부자료)**.
- 김기헌, 김태성, 배진우 (2018).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울산 : 한국산업인력공단.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2019a).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II: 학교졸업예정자**. 세종: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2019b).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II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 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차세영, 강정석, 이화진, 권향원,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 (2020a).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현, 신동훈, 변금선, 고혜진, 신인철 (2020b).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III: 청년이직자**. 세종: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2021a). 최근 청년 고용동향 및 정책시사점. **고용노동부 장관 전문가 간담회(2021. 2. 4. 서울청 9층 아카데미홀) 발표자료(내부자료)**.
- 김기현 (2021b). 깎이어 해외사례 및 시사점. **여성가족부 차관 전문가 간담회 (2021. 5. 18. 여성가족부 대회의실). 발표자료(내부자료)**.
- 김기현 (2021c). 해외 주요국 청년(고용)정책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2021년 청년고용포럼 6차회의 자료집(내부자료)**.
- 김민영, 장원섭 (2017). 4년제 일반대학 취업준비생의 취업스터디를 통한 경력개발에 대한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30(2), 82-101.
- 김지운 (2020). 한국의 생애소득 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 **경제학연구**, 68(1), 71-113.
-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경란, 변정현 (2016). 특성화고 졸업자의 입직 및 초기직장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 상업계 특성화고 졸업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5(1), 21-43.

- 보건복지부 (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보건복지부).
- 부산경제진흥원 (2021). 2021년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서울시 (2021a).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2차) 사업 모집 공고.
- 서울시 (2021b).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서울시).
- 서유정, 김민경, 류지영, 박나실, 김나라, 안유진, 안중석 (2020). 2020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여성가족부).
- 오애란, 송영선, 이희수 (2017). 비서울소재 대학생의 초기 경력탐색과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 과정. *직업교육연구*, 36(5), 95-122.
- 오유진, 김교성 (2019). 성별 · 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연구*, 19(3), 1-35.
- 이기준, 박병영, 박근영, 조미영, 최기성, 엽승현, 서수민, 노상태 (2017). 청년층 취업률 향상 및 대학 진로 지도 강화를 위한 취업통계 개선방안 연구. 진천군: 한국교육개발원.
- 이남철 (2005). 주요 OECD국가의 청년층 노동시장과 교육에서 직업으로 전이 분석. *경영컨설팅연구*, 5(1), 273-289.
- 이재성 (2020). 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수기: '투잡' 배달 노동 담론과 논증 구조. *IDI 도시연구*, 17, 95-132.
- 이희정 (2019).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 유형과 결정요인 연구. *한국인구학*, 42(4), 27-63.
- 일자리지원 일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 일자리지원 특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임유진, 정영순 (2015). 고졸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가능성 영향요인 분석: 남성  
과 여성 비교. **한국사회정책**, 22(1), 403-43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elis.go.kr/> 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장근영, 김기현, 이민정 (2020). **환경변화에 따른 후기 청소년 정책방향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장민선, 최환용, 김기현,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 (2018).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장상수 (2008).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 **한국 사회학**, 42(6), 106-139.

정동열, 윤동열, 김태환, 오춘식 (2020).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  
구**. 경기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정세정 (2019). 분절 노동시장과 남성 청년: 대학졸업 후 안정적 일자리로의 첫  
진입. **사회과학연구**, 26(4), 143-171.

조규형, 강소량, 한창근, 강시온 (2019). **중장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소벤처기업부(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중소벤처기업부)**.

진로교육법 개정(안).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aw.go.kr> 에서 2021  
년 10월 4일 인출.

채창균, 최영섭, 오호영, 정재호 (2017).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세종: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양정승, 김민경, 송선혜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해외사례 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  
go.kr/](https://likms.assembly.go.kr/) 에서 2021년 10월 4일 인출.

청년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 최필선, 민인식 (2016). 청년층의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경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9(2), 137-172.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직업분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a).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b). *인구동향 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c).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부가조사 지침서*.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04&inputYear=2020> 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 통계청 보도자료 (2020. 12. 17).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 보도자료 (2021. 2. 10). “2021년 1월 고용동향”.
- 한겨레신문 (2021.10.10.). “[단독] 홍정운군 학교, 노무사 없이 실습업체 ‘약식 선정’ 했다”.
- 한국고용정보원 (2018).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8 설문지*. <https://survey.keis.or.kr/goms/gomsque/List.jsp> 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 한국노동연구원 (2006). *한국노동패널조사 9차 부가조사(2006) 청년용 설문지*.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41&key=149> 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 한국노동연구원 (2020). *한국노동패널 23차(2020년도) 설문지*.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41&key=149> 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 한요셉 (2017).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7-07*. 세종: KDI.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 Adams A., Boneva T., Golin M. & Rauh C. (2020). *Inequality in the Impact*

- of the Coronavirus Shock: Evidence from Real Time Surveys*. CEPR Discussion Papers(cepr.org/active/publications/discussion\_papers/dp.php?dpno=14665).
- Arnett, J. J. (1998). Learning to Stand Alone: The Contemporary American Transition to Adulthood in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Human Development, 41*: 295-315.
- Billari, F. C. & Liefbroer, A. C. (2010). Towards a New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d in Life Course Research, 15*: 59-75.
- European Union (2018). *Youth Strategy 2019-2027*.
- European Union (2019). *European Youth Guarantee: its progress and prospects*.
- European Commission (2019). *Erasmus+ Annual Report 2019*.
- European Commission (2020). *Erasmus+ programme Guide*.
- Gilmore, D. (1990). *Manhood in the making: Cultural Concepts of masculinity*. New HavenL Yale University Press.
- Hogan, D. P. & Astone, N. M. (198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09-130.
- ILO (2009). *ILO school-to-work transition survey: A methodological guide*. Geneva: ILO.
- Jones, G. & Wallace, C. (1992). *Youth, Family, and Citizenship*.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강영배, 김기현(역). **청소년 시민사회론**. 서울: 교육과학사.
- Mascherini, M.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포럼자료집 21-S22**.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OECD (2021a).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Navigating the*

- COVID-19 Crisis and Recovery.*
- OECD (2021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12 October 2021).
- Osgood, D. W., Foster, E. M. & Courtney, M. E. (2010). Vulnerable Population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1): 209-229.
- Ryan, P. (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1): 34-92.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97*. <https://www.nlsinfo.org/content/cohorts/nlsy97/topical-guide/employment/employers-jobs> 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 UNICEF (2019) *Unpacking School-to-Work Transition : Data and evidence synthesis*. New York: UNICEF.
- United Nations (2018). *Youth Strategy 2030*.
- United Nations (2020). *Special Issue on COVID-19 and Youth*.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DES), United Nations.
- Wray-Lake, L., Arruda, E.H., & Schulenberg, J.E. (2020). *Civic Development across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a National US sample: Variations by Race/Ethnicity, Parent Education,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http://doi.org/10.1037/dev0001101>.
- 內閣府 (2018). 「平成30年版 子ども・若者白書」.
- 內閣府 (2021). 「令和3年版 子供・若者白書」.

○ — 부 록



# 부 록

##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증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비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조사기준일(2021년 6월 1일) 현재 만18세~만34세(1986년 6월 2일~2003년 6월 1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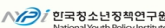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응답자 이름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SV 최종확인	
응답자 연락처	( ) -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거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용 것 : _____)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대상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유직조사 진행 여부 *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표시	① 직접 면담서 조사 ② 설문 회수 시 미반납 ③ 회수 후 전화로 응답확인 ④ 유직조사
------------	--------------------------------	---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사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주) 한국리서치

조사문의    이동휘 02-3014-0995 / 김지혜 02-3014-1039 / 이지연 02-3014-0906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②	③	④	⑤

###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명)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게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	③	<del>④</del>	⑤

###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강연,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I.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에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를 졸업하는 것
- ②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 ③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 ④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 ⑤ 결혼하는 것
- ⑥ 자녀를 출산하는 것
- ⑦ 주택을 구입하는 것
- ⑧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선거권, 운전면허 등)
- ⑨ 기타(적용 것 : \_\_\_\_\_)

문6)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가족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공동체
- ② 정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 ③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
- ④ 기타(적용 것 : \_\_\_\_\_ )

문7) (2021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 ① 배우자 있음
- ② 사별, 이혼
- ③ 결혼하지 않음

문8) (2021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문9로 이동**

문8-1)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문9로 이동**

문8-2) 결혼을 망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결혼비용 때문에 (주택마련, 혼수비용)
-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 ⑥ 기타( \_\_\_\_\_ )

문9) (2021년 6월 1일 기준)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맞벌이)
- ② 아니오(외벌이)

문10) (2021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명)
- ② 아니오



문14)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 명목(문15)으로 이동**

문14-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자기개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II. 다음은 「교육 및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5)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6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6)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7) 귀하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습니까?(대학교 졸업, 중퇴, 재학, 휴학하신 경우 모두 '① 있다'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있다
- ② 없다 → **문22로 이동**

문17-1)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의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 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 보기1 참조)	전공계열 (* 보기2 참조)	(편)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4학년 이상인 경우, 4학년에 응답)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① 전문대 (2-3년제)			_____년 _____월	① 졸업 → 졸업년월 ② 재학 → 학년 ③ 휴학 → 학년 ④ 중퇴 → <b>문20</b>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_____년 _____월
② 대학교 (4-6년제)						

\* 보기1(소재지)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기타(해외 등)

\* 보기2(전공계열)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문20)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귀하는 추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대학원에 진학할 경험이 있는 경우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24로 이동**      ② 아니오 - **문24로 이동**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문21-1) 대학원에 진학하셨다면 최종 또는 현재 학위과정은 무엇입니까?

- ① 석사과정      ② 박사과정      ③ 석·박사 통합과정

문21-2)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십니까?

\* 대학원을 중퇴한 경우에는 '② 휴학' 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재학      ② 휴학      ③ 수료      ④ 졸업

➡ **응답 후 문24로 이동**

\* 다음(문22~문23)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22)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23)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4) 귀하는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혹은 다니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26으로 이동**

문24-1) 다니셨던 (혹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일반고                       | ② 자율형고                 |
| ③ 특성화고(공고, 상고, 실업고, 전문계고 등) |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
|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
|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 ⑧ 기타(적용 것 : _____)     |

문24-2)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24-2-1)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4-2)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24-2-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문25)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고등학교 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고등학교 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고등학교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고등학교에서의 전공(계열)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문26-문31)은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6) 귀하는 지난주(2021년 5월25일~5월31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29도 이동**

문26-1) 귀하는 취업을 얼마동안 준비하셨습니다?

( )년 ( )개월 (예: 6개월 일 경우 0년 6개월)

문27)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다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항	취업준비 경험	
(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장실습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① 예	② 아니오
(10) 인턴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1) 봉사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3) 희망하는 일자리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4)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문28)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8-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항	문28) 도움 받은 경험	문28-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 문28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이니오 인 경우는 문28-4로 이동

문28-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28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항	정보 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일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 (3) 사설기관 문항에 응답한 자는 문28-3으로 이동, 아닌 경우는 문28-4로 이동

문28-3) (문28-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 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약  만원

문28-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십니까?(중·고등학교 및 대학(원)교의 정규 수업료 및 등록금 제외)

약  만원

문28-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시간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2)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7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 ⑨ 기타(적용 것 : \_\_\_\_\_)

문33) 귀하는 2022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2021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346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34)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 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34-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40)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 ②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 ③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41)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노동공급: 교육 및 직업훈련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 노동수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

- ① 노동공급(개인, 교육)
- ②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문42)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 ④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완화
-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 ⑦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 ⑧ 기타(적용 것 : \_\_\_\_\_)

문43)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 ③ 청년 창업/장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⑧ 기타(적용 것 : \_\_\_\_\_)

문44)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이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포함)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합 이전에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경우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

- ① 참여하고 있다 } → 문44-1로 이동
-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 → 문44-3로 이동

문44-1) (문44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이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함) 참여한 귀하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 문44-2로 이동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 ③ 보통이다. }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 문45로 이동
-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44-2) (문44-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 ① 지원이 채감되지 않아서
  - ②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③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 ④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 ⑤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 ⑥ 기타
- 응답 후 문45로 이동

문44-3) (문44에서 ③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이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함)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 ③ 모른다

문45) 귀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지 6개월 이내인 만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3년간 300~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 매칭으로 1,600~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지 6개월이 넘은 청년이 5년 근속 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

- ① 참여하고 있다 } → **문45-1로 이동**
-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 → **문45-3으로 이동**

문45-1) (문45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는 귀하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 **문45-2로 이동**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 ③ 보통이다. }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 **문46으로 이동**
-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45-2) (문45-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 ① 지원이 체감되지 않아서
  - ②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③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 ④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 ⑤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 ⑥ 기타
- **응답 후 문46으로 이동**

문45-3) (문45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 ③ 모름나



※ 현재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경우 (문47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 응답해 주십시오.

문48) 다음은 **지난주(2021년 5월25일~5월31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였던 현재 일 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지난주에 가장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동 일한 경우 임금이 많은 일자리, 시간과 임금이 동일한 경우 최근에 시작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의미함. 예) ○은행 △소통 지점 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소통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

구분	내용		
(1) 일을 시작한 시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2) 근속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3)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4)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비정규직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5)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직업 (별첨자료 참조)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및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	
(7)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 )		
(8)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499인인
	⑦ 500인 이상		
(9) 현재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의 직무 수준은			
(9-1) 나의 교육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9-2) 나의 기술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 (9-3)번은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분(문19 '① 있다' 응답)만 응답해 주십시오.			
(9-3) 나의 전공분야와 (**대학진학 경험자)	① 일치한다	② 불일치한다	
(10)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싫어한다	② 싫어한다	③ 약간 싫어한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좋아한다	⑥ 좋아한다
	⑦ 매우 좋아한다		



※ 다음(문50-문54)은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문48-3의 ①)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50) 귀하는 현재 일자리를 찾기 위해 어떠한 구직 활동을 하셨습니까?

☞ 구직활동이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인현황, 근로조건 등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활동으로, 대면활동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이메일,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모두 포함

문항	예	아니오
(1) 고용주에 직접 연락(방문)하여 면접을 보았다	①	②
(2) 정부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3) 민간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4) 친구, 선배 또는 친척에게 연락하였다	①	②
(5)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6) 대학교 또는 대학교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7) 관심기업에 이력서 또는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①	②
(8) 기업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기업정보를 확인하였다	①	②
(9) 구직 광고를 게시하였다	①	②
(10) 구인 광고를 살펴보았다	①	②
(11)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였다	①	②
(12) 기타 (자세히 적을 것 : )	①	②

문50-1) 위의 항목에서 '예' 로 응답한 구직 활동 중 일자리를 찾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만 선택)

( ) 번

문51)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근로자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9)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10)의 ‘위험한 근로환경’, 이란, 기계 등의 진동, 심한 소음,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실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 연기, 먼지(목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신너 등 유기용제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 폐기물, 체액, 실험물질 등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를 의미함.

문항		있다	없다	모르겠다
직장내 괴롭힘	(1)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①	②	③
	(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임의적·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	①	②	③
	(4)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①	②	③
	(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①	②	③
	(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임의적·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평가, 휴가, 휴직, 교육·훈련 등)	①	②	③
	(7)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이메일, 메시지, 전화 포함/성적 농담, 성추행 등 포함)	①	②	③
	(8)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①	②	③
	(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①	②	③
	산업안전	(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①	②
(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 (11)번에 ①보다 로 응답한 경우 (12)번을 응답, ②없다, ③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 문55로 이동 (12)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문52)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의 직장에서 직장 괴롭힘이 발생한 적이 없다
- ② 나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 ③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
- ④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 ⑤ 모르겠다

문53)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1) 나의 업무 내용이나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의 업무일정(휴식, 초과근무, 휴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내가 속한 팀(부서, 작업반 등)의 업무 목표	①	②	③	④	⑤	⑥
(4) 내가 속한 팀(부서, 작업반 등)에 필요한 훈련	①	②	③	④	⑤	⑥
(5) 함께 일할 신입사원의 채용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의 임금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의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⑥
(8) 사업장의 산업안전 기준의 설정 혹은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문54) 귀하의 현재 직장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 혹은 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p>☞ 노사협의회란?</p> <p>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가 각각 동수로 구성된 기구로,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및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 배치, 교육훈련, 고충처리, 작업환경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인사 및 노무관리 개선,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과 일반원칙, 작업및휴게시간의운용, 임금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등을 협의합니다.</p>
<p>☞ 업무 관련 제안제도란?</p> <p>업무혁신과 경영 효율화, 노동자 복리증진 등에 관련하여 직원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제출된 제안에 대해 절차를 거쳐 심사, 포상, 사내규정 재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p>
<p>☞ 조직적응 프로그램이란?</p> <p>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및 조직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p>

문항	있다	없다	모른다
(1) 노동조합	①	②	③
(2) 노사협의회	①	②	③
(3) 업무 관련 제안제도	①	②	③
(4) 조직적응 프로그램	①	②	③

\* 다음(문55-문57)은 현재 일자리가 있는 경우(문47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 모두 응대해 주십시오.

문55) 직장(일자리)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 ②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문56) 현 직장(일자리)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업 준비, 업종 변경 등도 이직 준비에 포함됩니다.)

- ① 있다
- ② 없다

문56-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 ② 개인발전/승진
-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 ⑧ 건강상의 이유로
-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 ⑩ 기타(적용 것 : \_\_\_\_\_)

▶ 응답 후 문52로 이동

※ 현재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문46에서 ③으로 응답) 응답해 주십시오.

문57) 귀하는 지난 4주(2021년 5월 4일~5월 31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참여준비도 포함됩니다.)

-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문61로 이동**
-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문58로 이동**
-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문59로 이동**

문58) 귀하가 지난주(2021년 5월 25일~5월 31일)에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 ②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 ③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문62로 이동**
- ④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⑤ 진학 준비 중이어서
- ⑥ 취업 준비 중이어서
- ⑦ 기타(적용 것 : \_\_\_\_\_)

→ **응답 후 문61로 이동**

문59) 다음의 각 항목이 지난주(2021년 5월 25일~5월 31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지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예	아니오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①	②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①	②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 등을 위해서	①	②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①	②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①	②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①	②
(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①	②
(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①	②
(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①	②
(12)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3)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①	②
(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①	②
(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①	②
(17) 기타(적용 것 : _____)	①	②

문59-1) 위의 항목에서 '예' 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 번 → **문59-(7)에 '0'에 를 선택한 경우 문62로 이동, 그 외 번호는 문60로 이동**

문60)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22로 이동**

문61)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구직활동 기간
(1) 1개월 미만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22로 이동**

※ 다음(문62-문65)은 이전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62)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로 응답 해 주세요.

-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하단 이동 로직에 따라 이동**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로 응답한 경우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이었던 경우(문47=①, ②) → 문65-1-1로 이동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문47=③) → 문67-1-2로 이동

문63)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문64로 이동**
- ② 아니오 → **하단 이동 로직에 따라 이동**

② 아니오 로 응답한 경우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이었던 경우(문47=①, ②) → 문65-1-1로 이동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문47=③) → 문65-1-2로 이동

문64)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하단 이동 로직에 따라 이동**
- ② 아니오

문64-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 ④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 ⑥ 기타(적용 것 : \_\_\_\_\_)

→ **하단 이동 로직에 따라 이동**

문64=① 예로 응답 또는 문64-1 응답 후,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이었던 경우(문47=①, ②) → 문65-1-1로 이동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문47=③) → 문65-1-2로 이동

※ 문65-1-1~문65는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관련 문항입니다.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란**

- 최종 학교 졸업 후(예: 대학교 재학 중이면 고등학교 졸업 기준)
- 수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 18시간 이상 일을 한 일자리 중 첫 번째 일자리를 의미 합니다.

학교 입학 전, 재학 중에 해당 일자리를 시작했더라도 졸업 후까지 계속 일했다면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 해당됩니다.

문65-1-1) 귀하의 현재 일자리가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와 일치합니까?

- ① 예 - 문57-1-1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65-1-2로 이동

문65-1-2) 귀하의 이전 일자리 경험 가운데, '졸업 후 첫 일자리' 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66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57-1-2로 이동

문66) 귀하의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 관해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최종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을 했던 경우, 해당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 ☞ 최종 학교 졸업 전에 시작하였지만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진 경우 졸업 후 첫 일자리에 해당됩니다.
-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의미함. 예) ○○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

구분	내용		
(1) 일을 시작한 시기	□□□□년 □□월		
(2) 근속년수	□□년 □□개월		
(3)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4)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5)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직업 (별첨자료 참조)	① 관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⑪ 기타	③ 사무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7)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⑦ 기타 (_____)	② 외국인회사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8)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① 1-4인 ④ 30-99인 ⑦ 500인 이상	② 5-9인 ⑤ 100-299인	③ 10-29인 ⑥ 300-499인인
(9) 주당 근로시간	약 □□ 시간		
(10) 월 소득	약 □□□□□ 만원		
(11) 귀하는 졸업 후 첫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싫어한다 ② 싫어한다 ③ 약간 싫어한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좋아한다 ⑥ 좋아한다 ⑦ 매우 좋아한다			

※ 문67-1-1~문68는 생애 첫 일자리 관련 문항입니다.

**생애 첫 일자리란**

- 연령과 관계 없이 미성년 시기를 포함하여 본인 인생 전체에서
- 수임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 18시간 이상 일을 한 일자리 중 첫 번째 일자리를 의미 합니다.

문67-1-1) 귀하의 생애 첫 일자리는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와 일치합니까?

- ① 예 - 추가영역(문69)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67-1-2로 이동

문67-1-2) 귀하의 이전 일자리 경험 가운데, '생애 첫 일자리' 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68로 이동
- ② 아니오 - 추가영역(문69)으로 이동

문68) 귀하의 생애 첫 일자리에 관해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생애 처음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을 했던 경우, 해당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의미함. 예) ○○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

구분	내용		
(1) 일을 시작한 시기	□□□□년 □□월		
(2) 근속년수	□□년 □□개월		
(3)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4)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5)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직업 (별첨자료 참조)	① 관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⑪ 기타	③ 사무 종사자 ⑥ 농림어업 속련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7)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 )		
(8)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① 1-4인 ④ 30-99인 ⑦ 500인 이상	② 5-9인 ⑤ 100-299인	③ 10-29인 ⑥ 300-499인
(9) 주당 근로시간	약 □□ 시간		
(10) 월 소득	약 □□□□□ 만원		
(11) 귀하는 생애 첫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싫어한다 ② 싫어한다 ③ 약간 싫어한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좋아한다 ⑥ 좋아한다 ⑦ 매우 좋아한다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9)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 ②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 ③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 ④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 ⑤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 ⑥ 향후 1년 이내
- ⑦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 ⑧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 ⑨ 향후 20년 이후

☞ 문70~문74는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0)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문70-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 문70-1로 이동
- ③ 보통이다                - 문70-2로 이동
- ④ 그렇다                 - 문70-2로 이동
- ⑤ 매우 그렇다           - 문70-2로 이동

문70-1) '내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2자만 응답해주시시오)

- ① 높은 집값 때문에
  - ②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 ③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 ④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 ⑤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입답 후 문70-2로 이동**

문70-2) '내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2자만 응답해주시시오)

- 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 ②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 ③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 ④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 ⑤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71)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72)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73)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동주거(Share house)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 ① 예
- ② 아니요

문74)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문75)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 ② 휴식의 공간
- ③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 ④ 나만의 사적인 공간
- ⑤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 ⑥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 ⑦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공간
- ⑧ 기타(적용 것 : \_\_\_\_\_)

문76)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서 다음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주거비용 (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 ② 주택유형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 ③ 주택상태 (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 ④ 주택위치 (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과의 거리)
- ⑤ 주거환경 (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 ⑥ 향후 주택 가격 변화(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 ⑦ 기타(적용 것 : \_\_\_\_\_)

문77) 귀하는 정부 및 지자체가 청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습니까? (중복 혜택을 받은 경우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해 주십시오)

- \* 청년 행복주택: 19세~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9세~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전용85m<sup>2</sup>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LH 및 지방공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 청년 공공지원주택: 19~39세 무주택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①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 예정이다 - **문77-1로 이동**
- ② 입주한 적이 있다 (입주년도:           년) - **문77-1로 이동**
- ③ 입주한 적이 없다 - **문77-3으로 이동**

문77-1) (문77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청년 주택공급 사업은 귀하의 주거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 **문77-2로 이동**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 ③ 보통이다. } - **문78로 이동**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77-2) (문77-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 ① 지원이 체감되지 않아서
- ②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③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 ④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 ⑤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 ⑥ 기타

- **응답 후 문 77로 이동**

문77-3) (문77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주택공급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 ③ 모른다



문80)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통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건강영양(문85)으로 이동**
- ② [비통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하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문80-1) (문80에서 ②, ③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8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원룸(다가구) :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 ② 아파트
- ③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 ④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 ⑤ 하숙
- ⑥ 기숙사
- ⑦ 고시원
- ⑧ 단독주택
- ⑨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하사 등

문82) 귀하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금이 있는 월세
-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
- ⑤ 사글세, 연세, 일세 등
- ⑥ 무상

문83) 주거비용 마련은 누가 하셨습니까?

☞ 주거비용은 자기인 경우 구입 비용, 전세인 경우 전세금,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월세 등을 의미함

☞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누가 갚느냐를 기준으로 응답함

- ① 전부 본인 스스로
- ②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 ③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 ④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 **간접(문85)으로 이동**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84)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으셨습니까?

- ① 대출을 받았음
- ② 대출을 받지 않았음     - **간접(문85)으로 이동**

문84-1) (문84에서 ① 응답자만) 주거비용 중 본인 명의로 받은 금융대출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 미만
- ② 10% 이상 30% 미만
- ③ 30% 이상 50% 미만
- ④ 50% 이상 70% 미만
- ⑤ 70% 이상 90% 미만
- ⑥ 90% 이상
- ⑦ 모름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5)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86)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87) 귀하는 **지난 1년간(2020년 6월~2021년 5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88)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89으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88-1로 이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88-1) (문88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문89)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처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90)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문 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치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9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92로 이동

문91-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 ⑦ 매일      |           |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94)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선호 정도							항 목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5) 타인의 이복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신의 주관 중시

문95)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재산·경제력
- ② 화복한 가정
- ③ 자아성취
- ④ 건강
- ⑤ 감사·긍정적 태도
- ⑥ 종교생활
- ⑦ 직업·직장
- ⑧ 연인(이성관계 등)
- ⑨ 친구·대인관계
- ⑩ 꿈·목표의식
- ⑪ 기타(적용 것 : \_\_\_\_\_)

문96)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97) 다음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상관없이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중요 가치1	중요 가치2	중요 가치3
-----------	-----------	-----------

- ① 경제적 부
- ② 공정
- ③ 노력
- ④ 다양성
- ⑤ 신뢰
- ⑥ 자립
- ⑦ 자유
- ⑧ 재미
- ⑨ 정의
- ⑩ 존중
- ⑪ 지속가능성
- ⑫ 평등
- ⑬ 기타(적용 것 : \_\_\_\_\_)

문96) 귀하는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소득이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비정규직 일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일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직장의 업무 내용이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 또는 출산도 포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Ⅶ. 다음은 「관계 및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99)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   명)

문100)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100으로 이동

→ 문100-1으로 이동

문100-1) (문100에서 ⑤, ⑥, ⑦, 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 ⑥ 7년 이상

문100-2) (문100에서 ⑤, ⑥, ⑦, 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⑥ 기타( )

문10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으십니까?

문항	없다	있다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①	②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인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문10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의 사람들과 평소와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직접 만나는 교류와 온라인으로 하는 교류로 나누어 대답해 주십시오.

☞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사람들과 만나다면 직접 만나는 교류에서 '거의 매일'로, 온라인으로 연락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교류에서 '거의 매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 항	직접 만나는 교류 (모임, 행사 등 대면교류)						온라인으로 하는 교류 (전화, 카카오톡 등 비대면 교류)					
	있다						있다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1) 가족들과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친인척들과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4) 지내는 사람들(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문103)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가 원할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104) (103-17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이러한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내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2년 미만
- ④ 2년 이상 3년 미만
- ⑤ 3년 이상

문105) 귀하께서는 성인이 되기 전 시기(아동청소년기)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없다	있다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①	②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①	②
(3)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①	②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①	②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①	②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①	②

문106) 귀하께서는 성인이 되신 이후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없다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①	②
(2)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①	②
(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①	②
(4)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①	②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①	②



문110)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11) 귀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청년기본법 시행 및 제도 활성화
- ②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 ③ 청년정책 전담부처 구성
- ④ 청년참여 공간(시설, 온라인 포털) 확대
- ⑤ 청년참여 활동비 지원
- ⑥ 청년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 ⑦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⑧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 ⑨ 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⑩ 청년 할당제 도입(정당 비례대표, 지자체 위원회 등)
- ⑪ 기타(적용 것: \_\_\_\_\_)

문112) 귀하는 청년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인구 및 가족 (출산 휴가, 출산 장려금, 육아 휴직, 아동수당 등)
- ② 교육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
- ③ 진로 및 훈련 (진로상담, 진로교육, 직업훈련 등)
- ④ 고용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확대, 일자리의 질 개선 등)
- ⑤ 경제 (채무부담 경감, 생활비 지원 등)
- ⑥ 주거 (청년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 ⑦ 건강 (청년 건강검진 지원, 심리지원 서비스, 체육시설 확대 등)
- ⑧ 관계 및 정치·사회 참여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 정책참여 보장, 청년 공간 확대 등)
- ⑨ 기타 (적용 것: \_\_\_\_\_)

문113) 다음은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책 서비스들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서비스를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문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1)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인간관계 고민 등)	①	②
(2)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생계급여, 청년수당 등)	①	②
(3)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①	②
(4) 취업·진로 상담 서비스 (취업준비, 일자리 알선 등)	①	②
(5)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종아리 및 소모임 구성 등)	①	②
(6)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	①	②
(7) 건강검진 서비스 (신체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등)	①	②
(8) 주거지원 서비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제공)	①	②
(9)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 (독서, 영화, 취미 지원)	①	②
(10) 기타 (자세히 적을 것 : _____ )	①	②

■ 문113에서 (1)(2)(3)(4) 항목 중 1가지 항목이라도 ①필요하다 응답 시 문113-1로 이동, 아닌 경우는 배경문항으로 이동

문113-1)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상담사를 만나는 방법으로 다음 중 어느 방법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 ① 내가 담당 센터에 찾아가는 방법(센터 방문)
- ②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방법(온라인 화상회의 등)
- ③ 상담사(담당자)가 내 집으로 찾아오는 방법(가정 방문)
- ④ 상담사(담당자)가 내 집 근처의 장소로 찾아오는 방법(카페, 공용 회의실 등)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문초록

이 보고서는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의 의미와 실태를 분석하고 이론적 시사점과 함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3년에 걸친 연구의 첫 번째 작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일자리, 자립, 시민권으로 구분하고 올해에는 학교에서 일자리의 이행 문제를 다루었다.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분석은 2,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24명의 청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그리고 교육통계연보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한 2차 분석과 함께 청년-일자리 이행을 지원하는 법률, 정책에 대한 진단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년들은 사회 첫 출발의 의미를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적 독립이나 성인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학교 졸업 후 이행 상황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 중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크게 낮아졌고 전문대에 비해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도 코로나19로 인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로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 결정을 조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이나 고졸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경우 불안정한 이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교 단계에서의 지원과 관장은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일자리 이행에 있어서 예방적 접근과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정책 과제로는 학교 단계와 이행 단계, 일자리 단계별로 진로교육 활성화 및 대상 확대,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 개편, 학교-일자리 연계 체계 강화,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자기주도적 삶 모색 기회 제공, 청년친화적 일자리환경 조성,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port is the first outcome of three years of research that was comprised of: 1)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significance of young people entering society and 2) the development of relevant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directions. This year's report, which divides the process of young people entering society, based on expert feedback, into three parts (jobs, independence, and citizenship), focuses on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one's first job. Analysis of the school-to-job transition was based on: a survey of 2,000 youth on the conditions that they face, in-depth interviews of 24 young adults, secondary analyses based on th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SYE) and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assessments by experts of laws and policies that are required to help young people find employment.

The analysis outcomes revealed that Korean youth equate "entering society" with obtaining one's first job and that they place great value on gaining financial independence and acquiring the rights of adulthood. An investigation of the processes that occur post-graduation through the SYE revealed

that, among high school graduates, the employment rate of vocational school graduat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It was also revealed that, as for graduates of junior colleges, employment rates for graduates of four-year universities declined compared to previous years due to COVID-19. A dynamic analysis via KLIPS of the school-to-job transition revealed the need to decide one's career or vocation as early as possible, with the chance of a successful transition being rather unstable for women, high school graduates, and those preparing to take the public service exam. In-depth interviews showed that young people are experiencing multiple hardships caused by COVID-19 and have dire need of: 1) employment support from schools and 2) more high-quality job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tical outcomes, this report proposes the need for both a preventative and comprehensive approach for a successful school-to-job transition and future policy making that is centered on individually-tailored services that “seek out the user” (rather than leaving the user to search for such services on their own). Finally, the report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revitalization of and expansion of eligibility for vocational training at the school, transitional, and job-seeking stages; reorganization of the field training and work-study systems for industrial work sites; strengthening of the systemic links between schools and the employment market (jobs); increase in the number of high-quality entry-level jobs for young people; alleviation of policy blind spots regarding socially

underprivileged groups; provision of opportunities which give young people greater agency in the career exploration/building process; creation of a youth-friendly employment environment; and strengthening of support for employed youth to build and maintain assets.



##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규·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욱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원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 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 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 수시과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 연구개발적립금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 수탁과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운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균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규·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 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 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 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유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닛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

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 (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흔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한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 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 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협동연구총서 21-80-01  
연구보고 21-R19

---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44-2

ISBN 979-11-5654-348-0(세트)



연구보고 21-R19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9 791156 543442

ISBN 979-11-5654-344-2  
ISBN 979-11-5654-348-0(세트)